머 리 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오늘 언어학자들앞에는 언어학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과학리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문제의 하나는 지난날에 국어문법연구에서 거둔 제반 성과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심중히 검토하고 우리 말의 문법구조에 반영된 민족적특성을 과학리론적으로 확증하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국어문법론》은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문법서술에서 리론적으로 한층 심화시켜야 할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국어의 문법현상을 더욱 깊이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에서 집필하였다.

책은 크게 3개 부분 즉 단어의 구조와 품사의 갈래 및 조성을 연구하는 품사론, 문법적범주에 따르는 단어의 형태변화를 연구하는 형태론, 단어의 통합과 문장의 구성성분을 연구하는 문장론으로 되여있다. 한편 앞부분에서 현대국어문법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언어는 력사적산물로서 모든 언어현상은 다 력사적연원을 가지고있는것만큼 현대국어의 문법현상을 깊이 리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언어사적해명이 요구될수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문법론의 과학적서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도 된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력사적자료와 그 분석을 참고적으로 배합하여 서술하는 원칙을 취하였다.

또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지난날의 연구성과도 아울러 제시하기 위하여 학설사적인 서술도 배합하도록 하였다.

차 례

제 1 편. 현대국어문법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전집》 제36권 508페지)

언어학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이 언어생활을 통하여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언어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특히 현대*국어문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 현대는 력사적견지에서 고대, 중세, 근대와 구별되는 시대적구획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20세기 20년대 이후를 가리킨다.

국어란 일정한 언어공동체에서 국가어와 민족어가 일치한다는 언어적속성의 견지에서 규정한 범주로서 단일민족국가에서 하나의 민족어가 유일한 국가공용어로 되는 경우 그것은 국어로 인정된다.

우리 나라와 같은 단일민족국가의 경우에 규범화된 단일민족어로서의 국가공용어는 국어로 규정되는데 그것은 곧 잘 다듬어지고 세련된 민족어의 전형을 가리킨다.

결국 현대국어란 광범한 인민대중이 오늘날 널리 쓰고있는 민족어의 전형인 평양문화어를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평양문화어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높이 발현되고 우리 말의 우수성이 체현되고있는 민족어의 전형이다. 우리 민족어는 저 멀리 고조선, 고구려에 력사적뿌리를 두고 오랜 세월 하나의 민족어로 발전하여왔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민족어의 우수한 요소를 집대성한 문화어로 완성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교육, 언론활동, 문화생활 등 공식적인 언어생활분야에서 평양문화어를 사용하고있으며 일상적인 언어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평양문화어는 유일한 표준적인 언어기준으로 되고있다.

제 1 절. 국어문법연구의 발자취

우리 말의 문법구조에 대한 연구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민족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에 오랜 기간 사용하였던 리두서사체계는 우리 말의 문법적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성시킨것으로서 우리는 이 리두자료를 통하여 당시 우리 말의 문법구조에 대한 리해의 심도를 짐작할수 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와 일련의 중세국문문헌을 통해서도 당시 문법연구의 흔적을 찾아볼수 있게 된다.*

* 《조선어력사문법》(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 193~203페지

그러나 국어문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근대에 이르러 국학운동이 전개되고 그 주요분야의 하나인 국어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국어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였다.

19세기 70~80년대에 시작되여 90년대이후 본격화되였던 국학운동은 하나의 큰 시대적조류로 되면서 우리 나라의 력사와 우리의 말과 글 즉 국어, 국문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속에 강렬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위기에 처한 국권을 지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애국적인 학술연구, 광범한 대중계몽운동으로 되였다. 이 국학운동을 다음 시기에 전개된 국학운동과 구별하여 초기국학운동이라고 한다.

초기국학운동이 발단되고 본격화되였던 이 시기로 말하면 19세기 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 대한 유미자본주의렬강의 침략이 점차 로골화되고 특히 1894년의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침략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바야흐로 식민지로 전락될 위험이 조성되고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다달았던 시기였다. 조성된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많은 애국적지식인들이 광범한 인민들속에 열렬한 애국정신, 강렬한 민족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고 근대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애국적지식인들은 시대적사명감으로부터 우선 우리 나라 민족사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갔다. 그들이 력사연구와 그 저술에 큰 힘을 넣은것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양이 국권회복을 위한 《정신적자강(精神的自强)》의 실현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인식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들은 국권회복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담보로 되는 《자강》을 이룩하는 근본조건이 2천만 우리 동포들속에 《국혼(國魂)》 즉 《국가사상》,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그들모두가 국가와 인민의 《일체의식》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이 제창한 《국혼》이란 본질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은 하나의 《공동체》이여서 모두가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는 인식이고 민족정신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들은 《국가사상》, 《민족정신》을 배양하는데서 민족어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고 그 과학적연구를 심화시키는것이 민족사연구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다.

애국적국어학자의 한사람인 주시경(周時經)은 당시 《국어문법》의 서문에서 민족을 이루는 세가지 구성요소가운데서 핵을 이루는것이 언어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 역(域)은 독립의 기(基)요, 그 종(種)은 독립의 체(體)요, 그 언(言)은 독립의 성(性)이라. 이 성이 없으면 체가 있어도 그 체가 아니요 기가 있어도 그 기가 아니니 그 국가의 성쇠도 언어의 존부에 있는지라. 이때문에 고금천하렬국이 각각 자국의 언어를 존경하고 숭배하며 그 언을 기록하여 그 글을 각각 만드는것이 다 이를 이르는것이다.》*

* 《주시경유고집》(과학원출판사 1957년) 54페지

주시경이 주장하는 《역》은 지역이고 《기》는 터전이고 《종》은 피줄이고 《체》는 몸이나 모양이고 《언》은 언어이며 《성》은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라 즉 민족국가는 본질에 있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것으로 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본데로부터 그는 언어를 《국성(國性)》 즉 나라의 본성이라고 하였으니 민족국가의 고유한 성질은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다고 보았던것이다.

언어를 국성으로 본데로부터 주시경은 론설 《국어와 국문의 필요》에서 쓰기를 《한 나라에 특별한 말과 글이 있는것은 곧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천연으로 한목 자주국이 되는 표요 그 말과 글을 쓰는 인민은 곧 그 나라에 속하여 한 단체되는 표라. 그러므로 남의 나라를 빼앗고저 하는자 그 말과 글을 없이 하고 제 말과 제 글을 가르치려 하며 그 나라를 지키고저 하는자는 제 말과 제 글을 유지하여 발달코저 하는것은 고금천하 사기에 많이 나타난바이다. 그런즉 내 나라 글이 다른 나라만 못하다 할지라도 내 나라 글을 숭상하고 잘 고쳐 좋은 글이 되게 할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족국가의 주요표징으로서의 언어의 지위, 국어연구의 절박성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 《주시경유고집》(과학원출판사 1957년) 230페지

그리하여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에서 《자국을 보존하며 자국을 흥성하게 하는 길은 국성을 장려함에 있고 국성을 장려하는 길은 자국의 언문(言文)을 닦고 빛내는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사랑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던것이다.*

* 《주시경유고집》(과학원출판사 1957년) 16페지

주시경을 비롯한 애국적인 국어학자들은 언어를 이처럼 민족의 존망, 민족국가의 존재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적인 표징으로 인식한데로부터 당시 국권회복문제가 민족존망의 초미의 문제로 나섰던 위급한 상황에서 민족어를 지키고 살려나가는 국어국문운동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이 운동을 줄기차

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이처럼 국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새로와짐에 따라 1897년에는 리봉운(李鳳雲)이 《국문정리(國文正理)》를 저술하여 처음으로 우리 말에 대한 과학적연구를 시도하였으며 1905년에 지석영(池錫永)이 우리 글자의 규범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담은 《신정국문(新訂國文)》을 내놓자 당시 정부에서는 국문의 연혁과 그 사용과 관련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자문기관으로서 1907년 7월 8일에 학부안에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였다.

한편 국어국문운동참가자들은 근대언어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 말과 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찌기 언어를 《국성》으로 인식하고있었던 주시경은 우리 나라 최초의 국문신문인 《독립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여 우리 문자생활을 규범화할 방도를 모색하는 한편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에서 우리 말 문법교육을 스스로 담당하여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으며 1907년에 론설 《국어와 국문의 필요》를 발표한데 이어 1908년에 《국어문전음학》, 1910년에 《국어문법》, 1914년에 《말의 소리》를 련달아 발표함으로써 국어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05년에 지석영은 《언문(言文)》을 냈으며 김규식(金奎植)은 1906~1908년에 《대한문법(大韓文法)》을 집필하여 1909년에 그것을 등사본으로 찍어냄으로써 여러 학교들에서 교재로 리용하게 하였다. 또한 최광옥(崔光玉)과 유길준(兪吉濬)이 각각 집필한 《대한문전(大韓文典)》이 1908년과 1909년에 황해도 안악과 한성에서 출판되였으며 1909년에는 김희상(金熙祥)의 《초등국어어전(初等國語語典)》까지 출판됨으로써 그 문법서들은 많은 학교들에서 우리 말의 문법교과서로 널리 쓰이게 되였다.

주시경의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을 비롯하여 김규식의 《대한문법》, 유길준과 최광옥이 각각 쓴 《대한문전》,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 등은 초기국학운동시기 국어학연구의 성과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지난 시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근대적인 연구방법으로 국어문법의 기틀을 마련해놓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국어문법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들은 먼저 어음과 문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어서 문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국어학에 근대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한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이 시기 여러 문법들에서는 우선 문자와 어음을 구별하고 어음의 최소단위를 나누는데서 근대언어학의 연구성과를 도입하였다.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에서 자연음을 《무별성(無別聲)》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인류의 언어에 쓰이는것은 《유별성(有別聲)》이라고 한다면서 유별성에는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별수 있는 음을 모음이라 하고 모음에 붙어서 내는 음을 자음이라고 하였다. 그 리유인즉 《가》의 경우에 《ㅏ》는 《ㄱ》가 없어도 스스로 발음할수 있기때문에 모음

이라 하며 그 반면에 《ㄱ》는 《ㅏ》가 없이는 발음할수 없기때문에 자음이라고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종래에 전통적으로 사용하여온 초, 중, 종성의 분류를 근대어음리론의 견지에서 재분석한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김규식의 《대한문법》과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에서도 어음을 모음과 자음으로 분류하는데서 같은 립장을 취하고있었다.

그런데 유길준은 《대한문전》에서 모음, 부음, 자음으로 나누면서 《ㄱ, ㄹ, ㅁ, ㅅ, ㅈ, ㅎ》 등을 《부음(父音)》이라 하고 《ㅏ, ㅓ, ㅗ, ㅜ, ㅡ, ㅣ》 등을 모음이라 하였으며 부음과 모음이 합한 《가, 더, 로, 수, 크, 히》와 같은 음절을 자음이라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있는데 이러한 어음분류는 최광옥의 《대한문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있다.

하나의 음절에 대해서 자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는 어음의 최소단위를 분류하는 원칙에 어긋나기때문에 그후 문법들에서 더는 취급되지 않았으며 주시경이 《국어문전음학》에서 명명한 《모음》, 《자음》의 분류가 어음의 최소단위로 합리적이기때문에 그후에도 계속 널리 쓰이게 되였다.

이 시기 문법들에서는 국어의 문법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크게 두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명칭은 서로 같지 않았다.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 《기난갈》과 《짬듬갈》로 나누었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기》는 단어를 의미하는것이니 《기난갈》은 단어를 품사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품사론과 형태론을 가리키며 《짬듬갈》이란 《기》가 어떻게 결합되여서 각종의 언어적단위가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것이니 통합론과 문장론을 가리키는것으로 된다.

유길준과 최광옥의 《대한문전》의 경우에는 언어론과 문장론으로 나누었는데 언어론에서는 품사를 분류하고 품사별로 그 종류와 형태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있으며 문장론에서는 문장성분과 그 배렬, 문장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김규식의 《대한문법》은 그 서술체계가 독특하다. 먼저 《사자학(詞字學)》을 설정하여 그안에서 다시 《품사학》과 《변사법(變詞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품사학》은 품사분류와 매개 품사들의 종류에 대한것이고 《변사법》은 각 품사들의 형태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되여있는데 결국 이것은 품사와 형태를 구분하여 서술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은 제2편과 제3편이 문법에 대한 서술부분인데 제2편은 《사(詞)》라 하여 품사별로 그 쓰기와 만들기를 해설하고있으며 제3편은 《말》이라 하여 《구어(句語)》 즉 문장의 성분과 종류, 그 쓰임을 설명하고있다.

이처럼 이 시기 문법들에서 국어의 문법구조를 서술하는데서는 각각 자기식의 특징을 가지고있었으나 공통적인것은 단어를 여러 품사들로 분류한것이며 단어들의 변화와 결합을 각각 나누어 서술하면서 다 자기 식으로 이름을

달고 설명한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 국어학연구가 근대화의 길로 발전하여가고있었음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시기에 여러 국어학자들이 서술한 문법들에서는 우선 단어를 품사들로 나누는 작업부터 하였는데 그들이 제기한 품사분류와 관련한 견해는 각이하였다.

대표적으로 주시경의 《국어문법》, 유길준과 최광옥이 각각 낸 《대한문전》, 김규식의 《대한문법》,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을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	엇	움	겻	잇	언	억	놀	끗
2	명사	대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접속사	첨부사	감동사	
3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동사	
4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형동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동사
5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토	감동사		

* 1=《국어문법》(주시경), 2 =《대한문전》(유길준),
3=《대한문전》(최광옥), 4 =《대한문법》(김규식),
5=《초등국어어전》(김희상)

이 시기 문법들의 품사분류에서 공통적인것은 명사(임), 대명사(엇), 동사(움), 감동사(놀)의 설정이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형용사(언), 부사(억)의 설정을 들수 있다.

품사분류에서 우선 눈에 띄는것은 조동사의 설정이다. 유길준의 《대한문전》에서는 《동사(動詞)의 활용(活用)을 조(助)하야 기(其) 의의(意義)를 완성(完成)하는 어(語)》라고 하면서 조동사를 따로 설정하고 그 용법에 따라서 《기절(期節)을 생(生)하며 계단(階段)을 성(成)하며 의사(意思)를 표(表)한다.》고 하고 그 례로 《아, 어, 오》 등을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절이란 현재, 과거, 미래의 시칭범주를 말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계단에는 《합속단(合續段)》으로 《가거라》의 《거》와 《가더라》의 《더》, 《련속단(連續段)》으로 《가서》의 《서》와 《가야》의 《야》, 《중지단(中止段)》으로 《가고》의 《고》와 《가니》의 《니》, 《종결단(終結段)》으로 《가오》의 《오》와 《가다》의 《다》를 들고있다. 합속단은 시태토를 가리키는것이고 련속단과 중지단은 동사의 접속형을, 종결단은 동사의 종결형을 가리키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동사는 《기절(期節), 계단(階段), 의사(意思)》에 따라 조동사가 첨가되여 다양한 형태변화를 하게 되는것으로 설명하면서 조동사를 하나의 품사로 보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최광옥의 《대한문전》에서는 조동사를 동사의 일종으로 보고 독립적인 품사로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동사의 기능을 설명하는데서는 유길준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었다.

그리고 최광옥의 문법에서는 동사에 여러가지의 분사(分詞)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동사로서 형용사의 체(體)를 유(有)함을 운(云)함이라》고 설

명하고있다. 그리하여 현재분사 《간》, 미래분사 《갈》, 과거분사 《간》, 과거의 현재분사 《가든》, 과거의 미래분사 《갈야든》, 과거의 과거분사 《갓든》, 대과거의 현재분사 《갓섯는》, 대과거의 미래분사 《갓섯슬》, 대과거의 과거분사 《갓섯든》 등 동사의 변화가 다양하다고 서술하면서 이러한 분사의 조성은 조동사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유길준은 동사의 변화에 명사화와 형용사화가 있다고 하면서 형용사화한 동사를 분사라고 하였지만 이 경우에 이것을 조동사와 결부시켜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품사분류에서 눈에 띄는것은 김규식의 《대한문법》에서 형용사와 구별하여 형동사를 설정한것이다. 이것은 동사의 규정형을 념두에 둔것으로서 영어문법의 《adjectival verb》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두 《대한문전》들에서는 이것을 《형용사화한 동사》로 보고 《분사(分詞)》로 처리한것들인데 이것을 형동사로 인정하든, 분사로 처리하든 사실상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밝히는데서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교조적인 문법적해석이라고 할수 있다.

명사에 붙는 토와 관련한 문법적견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있다.

김규식은 명사의 격변화를 주장하면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격변화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후사로 처리하였으나 최광옥은 명사의 뒤에 붙어서 그 앞뒤말의 관계를 나타내는것을 후사라고 하면서 모든 격토를 다 여기에 포함시키였다.

한편 유길준은 접속사를 설정하고 그것을 정체(定體), 련체(連體), 순체(順體), 반체(反體)로 나눈 다음 명사에 붙는것은 정체접속사와 련체접속사에 소속시키고 동사에 붙는것은 순체접속사와 반체접속사에 소속시키였다.

반면에 토와 관련한 주시경의 견해는 독창적인 점이 있다. 그는 《국어문법》(1910년)에서 토를 단어로 보고 그것이 문장에서 첨가되는 자리에 따라 《겻, 잇, 끗》의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말의 소리》(1914년)의 《씨난의 틀》에서는 《겻, 잇, 긋*》을 《임, 엇, 움》의 《몸씨》와 구별하여 《토씨》라고 하면서 우리 말의 교착접사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불러오던 《토》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점에서 김희상과 공통성이 있다.

*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 《끗》이라고 하던것을 《말의 소리》에서는 《긋》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시경은 《겻》의 갈래에 대하여 론하면서 《겻》은 《임기의 만이나 움기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 《겻》은 문장성분상 기능의 차이에 따라 다시 《만이겻》과 《금이겻》으로 갈라진다고 하였다.

《만이겻》이란 《임이와 씀이의 만의 다름》 즉 《임이와 씀이의 직권(職權)의 분별(分別)》 다시말하여 《임기의 직권(職權)이 엇더함을 보이는것》으로서 명사가 문장에서 주로 임이(주어)나 씀이(객어)로 되는 때의 토를 가

리킨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 주어나 객어에 쓰이는 격토와 그밖에 여러 도움토들을 포함시키고있다.

이처럼 주시경은 문장에서 주어, 객어로 되는 경우에 쓰이는 여러가지 《겻》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것을 다 《만이겻》이라는 부류로 한데 묶어놓았다. 다시말하여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나 객어로 되는 경우에 쓰이는 《겻》은 어떤것이든 다 《만이겻》으로 본것이다.

그리하여 《만이겻》에는 오늘의 격토뿐아니라 일련의 도움토는 물론이고 심지어 《ㄴ들, 인들, 라도, 이라도, 든지, 이든지, 나, 이나》와 같은 접속토까지 포함시키고있어 《겻》의 문법적본질을 밝히고 그 한계를 긋는데서 일정한 혼동을 주고있다.

《겻》의 다른 부류인 《금이겻》은 《남이의 자리를 금하는것》 곧 《움직임의 자리를 가르치는것》 곧 《임기의 알에 더하여 억기몸 곳 금이가 되게 하는것》으로서 명사가 문장에서 여러가지 상황어나 보어로 되는 경우에 쓰이는 토를 가리킨다.

주시경은 《잇》에 대하여 《한 말이 한 말에 잇어지게 함을 이르는 여러가지 기를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 《잇》에 오늘의 접속토와 구격토를 포함시키고있다.

《긋》은 문장을 끝맺는 경우에 쓰이는것으로서 문장의 의미기능에 따라 그것을 네가지로 분류하고있는데 《다, ㄴ다, 는다》와 같이 《이름》과 《홀로》에 2중으로 중복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는 서술, 의문, 명령, 감탄에 따르는 분류로 되여있어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는 분류라고 할수 있다.

토를 하나의 《기》로 보면서도 그것을 《몸씨》 즉 자립적단어와 구별되는 《토씨》 즉 보조적단어로 인정한 《겻》, 《잇》, 《끗》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격토, 접속토, 종결형 등에 해당하는것인데 그것은 대체로 문장속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위치와 그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것이기때문에 그 형태부구성이 순수하지 못할뿐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중복이 있는 부족점이 나타나고있었다.

주시경의 문법적견해가 교착어로서의 우리 말의 특징을 포착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있으나 일련의 교착접사들이 겹쳐서 첨가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기에 포함되여있는 각이한 문법적의미에 대한 분석도 념두에 두고 개개의 형태소*들을 분류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단지 문장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성분상 기능이나 위치만을 중시한데로부터 초래한 일부 부족점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 《형태소》는 지금까지 《형태부》로 불러왔다. 이것은 일반언어학에서 말하는 《morpheme》에 해당하는 문법용어이다. 그런데 어휘론에서 최소의 어휘적단위인 《lexeme》에 대해서 《어휘부》라고 하지 않고 《어휘소》라고 하며 또한 의미론에서도 최소의 의미적단위인 《sememe》에 대해서 《의미소》라고 한다. 그리고 음운론에서도 《phoneme》에 대응하는 단위로 《음소》를 설정하고있다. 이처럼 언어에서 가장 작은 유의미적단위에 대하여 《-소》라고 하고있는데 비추어 《형태부》라고 하기보다는 《형태소》로 하여야 전반적으로 학술용어상 통일성과 체계성을 보장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주시경은 《잇》, 《끗》의 쓰임과 관련해서 교착접사들의 결합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일련의 문법적범주에 따르는 쓰임의 차이를 언급함으로써 그 부족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고 할수 있다.

주시경이 《말의 소리》에서 《몸씨》와 구별하여 《토씨》를 설정한데 앞서서 김희상은 《초등국어어전》에서 토를 단어로 보면서 토를 묶어서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였다. 그는 토를 조토(助吐), 종지토(終止吐), 감탄토(感歎吐)로 나누었는데 조토는 다시 격위를 나타내는것, 형용을 나타내는것, 부사격을 나타내는것, 의사를 나타내는것, 접속을 나타내는것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잡다한 구성을 이루게 되였다. 그러나 종지토를 평술(平述), 의문, 공동(共動), 명령으로 구분한것은 오늘날 문법에서 종결형을 서술, 의문, 권유, 명령의 네가지로 구분한것과 차이가 없는것만큼 당시의 문법연구로서는 상당히 앞서 나간 견해였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초기국학운동시기에 진행한 국어문법연구는 근대언어학의 성과를 충분히 고려한 기초우에서 자기나름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진행한것으로서 이것은 근대적국어학의 기초를 닦아놓는데 이바지한것으로 된다.

초기국학운동시기에 활발히 진행되였던 국어학연구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에 한때 퇴조기에 들어갔다. 그것은 일제가 국어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다가 마지막에는 국어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강도적인 조치까지 취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애국적인 국어학자들은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국어학연구를 계속하였으며 국어문법에 대한 저술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국어의 수호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리규방(李奎昉)은 주시경의 제자로서 자기 스승이 내놓은 문법리론을 참작하면서 《신찬 조선어법》(1922년)을 저술하였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서론과 리두의 창제, 훈민정음의 변천 등을 개괄하였으며 제4장부터 제11장까지는 단어 전반을 다루고 제12장에서는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는 단어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동사, 조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로 나누고 그밖에 금지사, 부정사, 호응사를 설정하였는데 그는 모든 토를 단어로 인정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리고 문장성분으로는 주어, 설명어, 객어, 보어, 장식어를 설정하였으며 장식어에는 체언이든 용언이든 그 앞에 오는 수식성분을 다 포함시키였다.

리상춘(李常春)은 《조선어문법》(1925년)에서 《음편》, 《자편》, 《문편》의 3개 편으로 구성하여 《자편》에서는 《단어의 류별》이라 하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접속사, 종지사, 관사, 부사, 감동사의 10개

품사를 설정하였는데 조사는 체언토, 접속사와 종지사는 용언토를 가리키며 관사는 명사에 대한 수식어를 가리키고있다. 《문편》에서는 글을 《구》, 《절》, 《문》으로 나누어 문장성분과 문장류형에 대한 자기 견해를 서술하였다. 그는 《구》를 《글을 이루는 조각의 성분》이라고 하였으니 결국은 문장성분을 가리키는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주구, 설명구, 객구, 보구, 수식구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절》은 《주구와 설명구를 갖추고도 오히려 글의 한 부분이 되는것》이라고 하면서 주절, 설명절, 객절, 보절, 수식절로 나누었다.

국어학자들은 1930년에 조선어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개편하고 국문의 대중적인 보급과 국어의 규범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여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완성한데 이어 표준어휘를 사정하고 사전편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한편으로 국어문법의 과학적연구도 한층 심화시켜나갔다.

*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선어학회와 그 활동》[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1(2002)년]을 참고할것.

박상준(朴相浚)은 《조선어법》(1932년)을 저술하면서 그것을 《정음》, 《단어(품사)》, 《구어(문)》의 3개 편으로 나누고 문법과 관련해서는 《단어》와 《구어(句語)》에서 서술하였다. 《단어》는 총론, 체언, 용언으로 나누어 품사에 따르는 형태구조를 취급하고 《구어》에서는 문장의 구성성분과 문장의 종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때까지 나온 여러 문법들은 분과를 나누는데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나 토를 단어로 인정하는데서나 문장성분으로 주어, 객어, 보어, 설명어, 수식어를 설정하는데서 대체로 류사한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 《해방전 문법서들에서 론의된 문장의 문법적성분화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97(2008)년 4호]를 참고할것.

《우리 말본》(최현배, 1937년)에서는 《소리갈(音聲學)》, 《씨갈(詞論)》, 《월갈(文章論)》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씨갈》은 체언론과 용언론에서 단어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서로 다른데 대해서 강조하면서 체언의 경우에는 조사, 용언의 경우에는 어미에 의해서 형태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월갈》에서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우리 말본》에서 특징적인것은 토의 성격을 체언과 용언의 경우로 나누어 조사와 어미로 갈라본것인데 이것은 종래에 토를 보조적인 단어로 보아오던것과 차이나는것으로서 주목을 끌게 되였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의 문법들에서는 대체로 품사에 따르는 단어의 형태조성과 그 구조를 다루는 분과에 대해서 《언어론, 사자학, 단어론, 품사론(씨갈)》 등이라고 하였으며 단어들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분과에 대해서는 《문장론, 문장법, 구어》 등으로 불러왔었다. 그리고 토와 관련해서는 종래의 조사설과 함께 조사, 어미의 2원론적해석이 새로 대두한것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다.

제 2 절. 국어문법서술에서 제기되는 문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새 조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국어학연구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국어문법에 대한 과학적저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해방후에 우리 나라에서 저술한 일련의 《조선어문법》들에서는 지난날 국어문법서술에서 거둔 성과들을 참작하면서 문법용어들을 과학적으로 정리, 정식화하여 종전과는 달리 《시칭, 계칭, 존칭》 등으로 문법적범주에 따르는 용어들을 고치고 최소의 문법적단위로서의 《형태부》(형태소)를 설정하였으며 단어의 형태구조를 연구하는 문법학의 분과에 대해서 처음으로 《형태론》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단어의 형태구조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명명한것으로서 일반언어학에서 널리 통용하고있는 《morphology》라는 용어에 비추어보아도 타당한 문법용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단어들의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장을 다루는 분과인 《syntax》에 대해서는 종래에 전통적으로 써오던 《문장론》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왔다.

문법학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형태론과 문장론은 그 연구대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것으로서 형태론이 단어와 그 형태구조를 기본연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문장론은 문장과 그 통합구조를 기본연구대상으로 하고있다. 단어는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형태론적구성은 일정한 통합으로 이루어진 문장론적구성을 거쳐 문장으로 된다.

<u>형태소→형태론적구성→문장론적구성→문장</u>

(결합과정) (통합과정)

그리하여 형태론과 문장론의 연구대상과 한계는 리론상으로 명백하게 구획지어진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상 문법의 여러 분과는 그 경계가 언제나 명백한것이 아니여서 서로 겹치거나 넘나드는 호상교차가 있기마련이다.

일찌기 김규식의 《대한문법》(1909년)에서는 《제2편. 사자학(詞字學)》을 둘로 나누어 《제1장. 품사학》에서 품사들의 여러 부류를 론하고 《제2장. 변사법(變詞法)》에서 품사에 따르는 형태변화를 분석한바 있었으나 지난날 많은 문법서들에서는 형태론에서 품사분류를 론하고 매개 품사별로 그 형태구조를 분석하는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여있었는데 이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나온 여러 《조선어문법》의 경우에도 례외로 되는것이 아니였다.

그런데 《현대조선어(2)》(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년)에서는 형태론을 서술

하면서 단어의 구조, 품사, 문법적형태의 3개 부분으로 나누고 제2부. 품사에서는 품사별로 개념과 종류, 단어조성수법을 론하며 제3부. 문법적형태에서는 격, 수, 계칭, 시칭, 존칭, 상 등의 문법적범주에 따르는 형태변화와 종결형과 접속형, 규정형의 형태구조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에서는 품사론을 별도로 내오고 형태론에서는 매개 문법적범주에 따라 의존형태소인 토에 의해서 조성되는 형태구조만을 서술하였다.

그후 20여년이 지나서 나온 《조선어리론문법》의 경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애초에 품사론(1987년)과 형태론(1985년)을 별책으로 가르고 품사론에서는 매개 품사의 특성과 그 종류 및 조성수법을 론하고 형태론에서는 토의 특성과 류형, 체언과 용언의 문법적범주에 따르는 형태구조를 기본서술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문법학에서는 일반언어학에서 흔히 말하는 《morphology》를 품사론과 형태론으로 분할하여 서술하고있는데 이것은 교착어로서의 조선어의 문법구조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필연적귀결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문법서술에서도 일련의 문제점들이 없는것이 아니다.

우리 말의 문법서술에서는 동사말뿌리에 상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동사의 상형태를 종전에는 단어파생으로 보고 흔히 피동사, 사동사로 처리하였으나 그후에 상범주를 설정하고 형태론의 대상으로 삼아온것이 문법서술에서 관례로 되여왔었다. 례를 들어서 《먹다》의 경우에 상접사들인 《-히-, -이-》에 의해서 조성되는 피동상 《먹히다》와 사동상 《먹이다》는 《먹다》가 상접사에 의해서 형태구조가 변화한것으로 되는것만큼 형태론의 연구대상이 될수 있다는것을 그 근거로 삼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구조의 변화가 주동문과 피동문, 사동문이라는 통합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례: 고양이가 쥐를 잡아 <u>먹는다</u>. (주동문)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 <u>먹힌다</u>. (피동문)

이처럼 주동상이라는 형태구조에 의해서 조성된 주동문이 피동상이라는 형태구조에 의해서 피동문으로 되는 경우에 주동문의 주어와 객어가 피동문에서 뒤바뀌게 된다. 이것은 상의 형태구조가 필연적으로 문장의 통합구조를 바꾸게 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히 문장론적현상으로 될것이다.

또 주동상의 형태구조가 사동상의 형태구조로 바뀌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u>먹는다</u>. (주동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u>먹인다</u>. (사동문)

이처럼 《먹는》 행동의 객체인 《젖을》은 언제나 객어로 되지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보어가 되고 주동문의 규정어는 사동문의 주어로 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고려하여 《현대조선어(2)》(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년)에서는 《제9장. 상》의 제4절에 《상과 문장구조》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상에 따르는 통합구조의 변화를 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1985년)에서도 상범주를 론하면서 《상과 문장구조》라는 항목에서 《능동상, 피동상, 사역상》의 통합구조를 언급하고 《능동문, 피동문, 사역문》이라는 문장의 갈래를 설정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상의 형태에 의한 통합구조의 이러한 변화를 념두에 둘 때 상범주를 형태론에서 취급하는 경우 문장론적현상을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 조건에서 형태론과 문장론의 교차는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어형태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에서도 일정하게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문장론을 서술하고있는 《현대조선어(3)》(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2년)과 《조선어문법(2)》(과학원출판사 1963년)에서는 상범주와 관련한 통합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낯을 돌리지 않고있어 유감스럽게도 《능동문, 피동문, 사역문》이라는 문장의 갈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20여년후에 나온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년)의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렇다면 상범주에 따르는 통합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생겨난 문장의 각이한 류형은 어디서 다루는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론의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김규식의 《대한문법》에서는 동사의 형태변화를 《동사의 변체식》에서 서술하면서 상(이 책에서는 조〈調〉)에 따르는 동사의 형태변화에 대하여 주동사, 피동사라는 동사의 부류로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통합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류사한 서술방식은 《조선어법》(1932년)에서 동사를 순수동사와 전성동사로 나누고 동사의 변화라고 하여 《자동사, 타동사, 피동사, 사동사》를 설정한데서도 나타나고있었다.

또 다른 례로서는 부정부사의 서술과 관련한 문제를 들수 있다.

지난날에 형태론에서는 부사의 종류를 론하면서 부정부사로 《아니(안)》와 《못》을 들고 설명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례컨대 《현대조선어(2)》(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년)와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년)에서는 부사의 종류의 하나인 부정부사를 보조적부사에 넣고 그것들은 다 자립적으로 하나의 성분을 이루지 못하고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이 부정부사의 쓰임과 관련해서는 《현대조선어(2)》의 《제6장. 접속형의 각종 의미》에서 부정의 접속형으로서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를 언급하는데 그치고있을뿐이다.

그리고 《조선어품사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의 경우에도 부정부사로 《아니(안)》와 《못》을 들고 그것들은 다 동사앞에 오지만 형용사앞에는 《안》만이 간혹 온다는 식의 막연한 설명을 주고있을뿐 부정부사와 관련한 통합구조상 제약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현대조선어(3)》이나 《조선어문법(2)》와 같이 문장론을 연구대상으로 하는데서 이 문제를 서술하고있는것도 아니였다.

사실상 부정부사와 다른 품사가 결합하는 경우 통합구조상 제약이라든가 부정부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부정문의 류형과 관련해서는 론의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은것이다.

부정문은 어떤 내용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부정부사 《아니(안)》, 《못》 또는 부정의 보조동사 《말다》를 쓰거나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 《아니다》, 《아니하다》, 《못하다》를 써서 만들고있으며 부정문에는 단순부정문, 능력부정문, 행위부정문의 세가지 류형이 있을수 있다. 그리고 부정의 대상에 따라 통합구조상 차이가 있게 된다.

형태론에서는 부사의 종류를 론하면서 부정부사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칠수 있으나 부정부사와 다른 품사와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합구조상 제약이라든가 부정문의 류형들은 응당 문장론에서 충분히 론의하여야 할것이다.

종전의 문법서술들이 가지고있었던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어문장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에서는 《제2편. 문장류형》의 제2절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을 취급하고 제3절에서 주동문, 사동문, 피동문, 중동문을 설정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있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의 문법서술에서 일보전진한것으로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국어문법서술과 관련해서는 또한 종결형의 분류와 기능에 따르는 문장의 분류와 같은 서술상 중복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국어문법서술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의 형태구조를 설명하면서 그 종결형에 대하여 형태론에서 서술, 의문, 권유, 명령의 종결형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즉 지난날 형태론에서는 종결형을 서술법, 의문법, 권유법, 명령법으로 나누어 그것을 다시 계칭의 차이에 따라 그 표현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다시 문장론에서 기능에 따르는 문장의 류형으로서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으로 분류하면서 그것을 되풀이하여 설명하고있었다. 이러한 중복에서 오는 불합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것인가 하는것도 문법서술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 형태론에서는 종결형에 나타나는 문법적범주의 갈래, 접속형과 종결형의 차이, 다른 토와의 결합가능성을 주로 다루면서 그 변이형들을 보여

주는데 그치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각이한 문장류형과 그 기능에 대해서는 문장론에서 취급함으로써 서술의 반복을 일정하게 피할수 있을것이다.

동일한 형태구조가 각이한 통합구조를 산생시키는 전형적인 례로서 우리는 단어의 규정형을 들수 있다고 본다.

단어의 규정형이라는 형태구조는 형태론의 연구대상이 되지만 그 기능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문장론에서 다루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그런데 문장론적견지에서 단어의 규정형을 론의할 때 그것은 문장에서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과 함께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규정절이 기능상 서로 구별되는 통합구조를 조성하게 된다는 점은 문장론에서 주요관심사로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① <u>철호가 읽은</u> 소설은 그 혁명소설이였다.

② <u>철호가 그 혁명소설을 읽은</u> 사실이 큰 자랑거리로 되였다.

①의 《철호가 읽은》이나 ②의 《철호가 혁명소설을 읽은》이나 다 《읽은》이라는 규정형에 의해서 뒤에 오는 명사에 대한 규정절로 되고있다. 그런데 ①의 경우에 《철호가 읽은》은 《읽다》의 객어가 규정절안에 없는 반면에 ②의 《철호가 그 혁명소설을 읽은》에는 《읽다》의 객어가 규정절안에 밝혀져있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①의 피규정어인 《소설》은 《읽다》의 《객어》로서 규정절안에 밝혀져있지 않은 그것과 동일한것인데 반면에 ②의 경우의 피규정어인 《소설》은 그 규정절내부의 그 어떤 성분과도 같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①의 규정절처럼 피규정어가 규정절안의 성분과 동일하여 규정절안에는 그것이 빠져있는 류형의 규정절과 ②의 규정절처럼 피규정어가 규정절안의 그 어떤 성분과도 같지 않고 규정절이 밝힌 사실이 곧 피규정어의 내용으로 되여있는 류형의 규정절은 응당 류형상으로 구별하여야 할것이다. 즉 이것은 동일한 형태구조가 각이한 통합구조에서 수행하는 기능상 차이로서 어디까지나 문장론적현상으로 된다. 즉 동일한 용언의 규정형이 같은 규정절을 이루면서도 서로 다른 통합구조를 산생시키고있는데 그것은 형태론적으로 설명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장론적으로 설명되여야 할 문제로 된다.

이처럼 형태론과 문장론은 연구대상의 차이로 하여 서로 엄격히 구분되면서도 호상 밀접한 련관과 교차가 있으며 넘나드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국어문법서술에서는 일정한 문법적범주를 다루는데 있어서 형태론과 문장론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도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시 조절하고 언어실천의 각도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것은 지난날 국어문법서술에서 발로되였던 부족점을 극복하는 방도의 하나로 될것이다.

제 3 절. 언어구조의 문법적단위

언어의 기본단위는 단어이다. 단어에는 사전적단위로서의 단어와 그것이 실제언어행위에 구현된 문장구조적단위로서의 형태단어 즉 문법적단어가 있다.

언어의 기본단위로서의 단어에 필수적인것은 그 어휘적의미의 자립성과 함께 구조적자립성이다. 어휘적의미의 자립성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말뿌리를 포함한 말줄기를 가져야 하며 구조적자립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한개 토의 첨가를 전제로 한다.

국어에서 체언은 말줄기만으로 하나의 단어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체언의 경우에 단어와 말줄기의 구분은 무의미한것으로 된다. 례를 들어서 단어 《사람》은 그자체가 말뿌리이자 말줄기로서 그것만으로도 자립적으로 쓰이며 필요한 경우에 《사람이》, 《사람을》, 《사람의》, 《사람에게》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쓰이게 된다.

그러나 용언의 경우에는 말줄기에 일정한 토가 붙어야만 단어구조가 완성되는것만큼 말줄기와 단어의 구분은 필요한것으로 된다. 례를 들어서 단어 《먹다》의 경우에 말줄기 《먹-》은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으며 《먹는다》, 《먹어라》, 《먹는》, 《먹어서》와 같이 토가 붙어서 쓰이게 되는데 이때 단어 《먹다》는 비로소 자기의 형태변화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체언이든 용언이든 일정한 형태를 갖춘 단어를 형태단어라고 하는데 문법론의 견지에서 단어란 이러한 형태단어들의 일정한 체계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형태단어들이 비록 형태상으로 각각 차이를 가지고있으나 동일한 단어의 형태변화로 인정되기때문이다.

한편 단어의 형태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게 되면 형태상의 공통성에 따르는 형태단어들의 계렬도 상정할수 있다. 례를 들어서 《간다》는 《온다》, 《준다》, 《공부한다》 등과 동일한 형태인 《-ㄴ다》를 갖추고있으며 이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 형태단어들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의 계렬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매개 형태단어는 종과 횡의 두 계렬이 서로 교차되는 속에 존재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는데 《간다》를 례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오다－오는－올－온다－오너라－올가
가다－가는－갈－간다－가거라－갈가
주다－주는－줄－준다－주어라－줄가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간다》는 《오다》, 《주다》와의 대립속에 존재하는 《가다》의 한 형태로서 《가는》, 《갈》, 《가거라》, 《갈가》 등 형태계렬속에 존재하고있다. 그러면서도 《간다》는 《온다》, 《준다》와 동일한 형태를 이루고있는 《-ㄴ다》의 계렬에 속하고있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보다 낮은 질서의 단위인 형태소로 구성되고있다. 례를 들어서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의 경우에 《먹다》의 단어형태들은 《먹》과 《는》, 《었》, 《겠》과 《다》 등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있다. 이처럼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단어형태에서 구분되여나오는 최소의 유의미적단위가 바로 형태소이다.

단어들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결합될수 있다. 례를 들어서 《따뜻한 봄날》, 《묘향산의 가을풍경》, 《기쁨과 슬픔》 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이 일정한 문법적관계에 따라 련결되여 전일적인 결합체를 이루고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합이라고 하며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어적단위들을 일명 단어결합이라고도 한다.*

* 해방후에 나온 일련의 문법들에서는 통합을 단어결합이라고 하면서 《단어결합론》을 따로 설정하여 단어결합의 류형을 《자립적단어들의 결합》과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의 결합》으로 나눈 다음 《자립적단어들의 결합》을 종속적결합과 병렬적결합으로 나누었으며 한편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의 결합》은 문장성분화에서 언제나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문법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년 235～250폐지)

단어결합에는 《따뜻한 봄날》, 《무더운 여름날》과 같이 일정한 문법적관계에 따라 련결된 가변적통합인 자유로운 단어결합이 있는가 하면 《온데간데 없이》,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이 하나의 어휘적단위로 굳어진 관용구와 같은 공고한 단어결합이 있다. 자유로운 단어결합은 통합(syntagm)이라고 하여 문법론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있지만 공고한 단어결합은 관용구(idiom)로서 문법론연구의 대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어휘론연구의 대상으로 된다.

단어나 단어결합 그자체는 정보전달을 위한 단순한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통합구조를 거쳐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언어구조의 문법적단위에는 기본단위인 단어를 중심으로 그보다 작은 단위로서 형태소가 있으며 단어보다 큰 단위로서 통합, 문장 등이 있다고 할수 있다.

제 4 절. 국어의 구조적특징

국어는 류형학적으로 교착어류형에 속한다. 영어나 로어가 굴절어이고 중국어가 고립어인것과는 달리 국어는 전형적인 교착어로서 류형학적으로 몽골어나 만주어와 동일한 부류를 이루고있다.

1. 단어구조

국어단어구조의 특징을 론함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말 토의 특성에 대하여 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말 토는 교착적성격을 가지는 형태소 즉 교착접사로서 그자체로는 단어를 이루지 못하며 언제나 말뿌리에 첨가되는 후치적성격을 띠는 접사라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 점에서 굴절어들인 영어나 로어의 경우에 그것이 전치사로 표현되는것과 구별된다.

례: 나는 **학교로** 간다.
I go to school.
Я иду в школу.

우리 말의 단어구조를 보게 되면 말뿌리에 접사나 토가 첨가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 말 토는 오직 하나의 문법적의미만을 담당하고있어서 여러가지 문법적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한 토들을 겹쳐 쓰게 되여있다.

례: 휘 날 리 시 였 더 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은 앞붙이, ②는 말뿌리, ③은 상접사, ④는 존칭토, ⑤는 시칭토, ⑥은 법토, ⑦은 식토인데 매개의 토들은 그 결합질서를 마음대로 바꿀수 없으며 오직 하나의 문법적의미만을 담당하고있는 점에서 영어나 로어의 굴절어미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다시말하여 영어나 로어의 굴절어미는 인칭과 수를 복합적으로 나타내거나 성, 수, 격을 동시에 표시하는것이 보편적이다.

례: 영어의 대명사 《he》=3인칭, 남성, 단수, 주격
《his》=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him》=3인칭, 남성, 단수, 목적격
로어의 대명사 《он》=3인칭, 남성, 단수, 주격
《его》=3인칭, 남성, 단수, 생격
《ему》=3인칭, 남성, 단수, 여격

또한 우리 말은 단어조성의 앞붙이만 말뿌리의 앞에 올수 있으며 단어조성의 뒤붙이나 그밖의 모든 문법적형태소는 반드시 말뿌리나 말줄기의 뒤에 오는데 말줄기와 토의 계선이 분명하고 토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가 명확한것이다.

례: 풋 잎 사귀 들 이
① ② ③ ④ ⑤

①은 앞붙이, ②는 말뿌리, ③은 뒤붙이, ④는 복수토, ⑤는 주격토로서

이 경우에 ①, ②, ③은 합해서 말줄기로 되는데 말줄기인 《풋잎사귀》는 단어로서의 자립성을 가지고있으며 말줄기와 토의 계선이 분명하고 토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도 명확하다.

그러나 영어와 같이 단어의 굴절이 내부적변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며 굴절어미에 의한 문법적의미의 표현도 명확한것이 아니다.

례: 영어의 fly[flai], 과거 flew[flu:], 과거분사 flown[floun]

이 경우에 어느 부분이 과거를 나타내고 또 어느 부분이 과거분사를 나타내는것인지 그 계선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문법적의미의 담당자로서의 우리 말 토의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볼 때 상범주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즉 상접사는 순수 문법적의미만을 표시하는 토와는 달리 그것이 문법적의미와 함께 단어조성적기능도 가지고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례: 먹다→먹**이**다, 먹**히**다
잡다→잡**히**다
높다→높**이**다
붉다→붉**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 《히》가 사동상, 피동상의 문법적의미의 표시자로 되지만 《높다》, 《붉다》와 같은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 《히》가 붙어서 동사로 되는 품사전성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이》, 《히》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문법서술에서는 문법적범주로서의 상범주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문법에서는 이것을 단어조성으로 인정하고 《피동사》, 《사동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이》, 《히》는 상범주를 나타내는 형태론적기능과 함께 단어조성적기능도 가지고있다.

이 점은 다른 토들과 구별되는 상접사의 특성으로 되는데 이것을 고려하여 문법적형태소인 다른 토들과는 달리 《이》, 《히》와 같이 2중적성격을 가지고있는것을 토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토라고 하지 않고 어휘문법적형태소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는 특별히 상접사로 처리하게 되는것이다.

국어단어구조의 특징은 끝으로 체언과 용언이 말줄기의 자립성에서 차이가 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체언은 말줄기가 곧 단어로서 자립성을 가지지만 용언의 경우에 말줄기만으로는 자립성이 없으며 반드시 토를 동반해야만 된다는것이다.

앞에서 례로 든 체언 《풋잎사귀들이》에서 《풋잎사귀》는 말줄기이자 단어로서 토의 첨가없이도 자립성을 가지고 쓰일수 있으나 용언 《휘날리시였더라》의 말줄기는 《휘날리》인데* 그것은 토의 첨가없이 자립적으로 쓰일수 없으며 반드시 토를 동반하여야만 하는것이다.

* 지난날에 《시, 였》과 같은 토들을 《형태조성의 접미사》라고 주

장한 견해도 있었다. [《조선어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문제에 대하여》(1, 2) 잡지 《조선어문》 1956년 1, 2호] 그렇게 되면 《휘날리시였》까지가 말줄기로 인정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언어의식에 부합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그후 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 말 단어와 단어형태의 이상과 같은 고유한 대응에 비추어 문법적 또는 어휘문법적인 형태소가 어떤 구조적단위에 첨가되고 단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는 그 문법적형태소가 단어에 첨가되는가 또는 단어의 말줄기에 첨가되는가에 따라 단어첨가형과 말줄기첨가형으로 나눌수 있다고 본다.

(1) 단어첨가형

단어자체에 토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격형태, 도움형태, 복수형태와 체언서술형태가 이에 속한다.

○ 꽃이, 나에게, 하나를 [격형태]

○ 꽃은, 나도, 하나만 [도움형태]

○ 꽃들, 당신들 [복수형태]

○ 꽃이다, 당신이다, 둘이다 [체언서술형태]

(2) 말줄기첨가형

단어의 말줄기에 토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서술형태(종결, 접속, 상황, 규정), 시칭형태, 존칭형태, 용언대상형태가 이에 속한다.

○ 오ㄴ다, 많다(종결) [서술형태]

○ 오고, 많고 (접속)

○ 오게, 많을수록 (상황)

○ 오는, 많은 (규정)

○ 오시ㄴ다, 많으시다 [존칭형태]

○ 오겠다, 많겠다 [시칭형태]

○ 오기, 많음 [용언대상형태]

상형태는 어휘문법적형태소나 보조말뿌리가 단어의 말줄기 또는 말뿌리에 첨가되여 이루어진다. 간혹 단어자체에 붙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전형적인것은 말줄기첨가형이라고 할수 있다.

○ 먹이ㄴ다, 놓이ㄴ다(동사)[상형태]

○ 믿어지ㄴ다, 굳어지ㄴ다(형용사→동사)

○ 발전시키ㄴ다, 발전되ㄴ다(명사→동사)

2. 통합구조

국어통합구조의 기본특징은 우선 《SOV》방식으로 되여있다는 점이다.

례: <u>대동강물이</u> <u>청류벽을</u> <u>감돌아흐른다</u>.
S O V

세계의 여러 언어들은 《SOV》, 《SVO》, 《VSO》 등의 각이한 통합구조류형을 가지고있다. 《SOV》의 통합구조를 가지는 언어에는 우리 말을 비롯하여 몽골어, 일본어, 뛰르끼예어 등이 속하며 《SVO》의 문장구조를 가지는 언어에는 중국어와 영어, 로어, 프랑스어, 도이취어 등 대부분의 유럽언어들이 속한다. 그리고 《VSO》의 문장구조를 가지는 언어로는 히브리어, 웨일즈어, 마사이어 등을 들수 있다.

국어통합구조의 기본특징은 다음으로 문장구성요소의 위치변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것이다.

○ 우리는 밀영에서 <u>전우들이 돌아오기를</u> 기다렸다.

○ 우리는 <u>전우들이 돌아오기를</u> 밀영에서 기다렸다.

○ 밀영에서 우리는 <u>전우들이 돌아오기를</u> 기다렸다.

○ <u>전우들이 돌아오기를</u> 우리는 밀영에서 기다렸다.

○ 우리는 밀영에서 기다렸다, <u>전우들이 돌아오기를</u>.

이처럼 어순의 변동이 자유롭지만 《전우들이 돌아오기를》이라는 구조안의 어순만은 바꿀수 없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의 단어와 맞먹는 문장구성 이전단계의 통합으로 되기때문이다.

○ <u>가을의 단풍잎이</u> 묘향산을 뒤덮으니 아름답기 그지없다.

○ 묘향산을 <u>가을의 단풍잎이</u> 뒤덮으니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 경우에도 문장속에서 《가을의 단풍잎이》가 《묘향산을》의 앞에 오는가, 뒤에 오는가 하는것은 문체적인 표현효과와 관련된것으로서 문법적으로는 자유롭다고 할수 있지만 《가을의 단풍잎》이라는 구조안에서의 위치변동은 있을수 없으며 《아름답기 그지없다.》도 역시 그안에서의 위치변동은 있을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규정—피규정과 수식—피수식의 관계에 있는 통합구조상 제약성과 관련되여있다.

그리하여 국어에서 문장구성요소의 위치변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국어통합구조의 특징은 문장이 문장을 안고있는 경우에 안긴 문장은 항상 왼쪽에 놓이며 관계대명사가 없다는 점이다.

○ 영수는 <u>어머님께서 래일 도착하신다</u>는 통지를 받았다.

이 경우에 문장 《영수는 통지를 받았다.》는 《어머님께서 래일 도착하신다.》라는 문장을 안고있는데 그 문장은 《통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그것을 련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가 없이 그 왼쪽에 전개되여있다. 이것은 영어나 로어의 경우에 부문장이 오른쪽으로 전개되고 그것을 관계대명사가 련결하는것과 구별되는 국어통합구조의 한 특징으로 된다.

제 5 절.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

문법연구에서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에 대한 옳바른 리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의 하나로 된다.

문법적의미는 현실세계의 사물, 현상들을 반영한 개념들사이의 일정한 언어적관계를 표현한것으로서 그것은 문법적형태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례를 들어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에서 《혁명과 건설의》와 《주인》은 소속관계를 나타내고있는데 이것은 《혁명과 건설》과 《주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객관적관계를 반영하고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의》라는 속격의 문법적형태에 의해서 표현되고있다. 이처럼 문법적의미는 일정한 문법적형태로 표현되며 문법적형태는 항상 문법적의미와 련결되여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법적의미와 문법적형태는 언제나 1 대 1로 대응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례를 들어서 《동생의 그림》과 《동생의 가방》이라는 통합에서 소속을 나타내는것은 모두 토 《의》에 의해서 표현되고있으나 소속성의 현실적내용은 같은것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가방》의 임자가 《동생》이라는것을 의미하고있으며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동생》이 《그림》의 소유자라는 의미도 가능하고 또한 《그림》을 그린 행동의 주체가 《동생》이라는 의미도 가능하며 또 그린 행동의 객체가 《동생》이라는 의미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각이한 내용이 모두 하나의 속격토 《의》로 표현된 동일한 통합구조인 《동생의 그림》으로 표현됨으로써 추상적인 소속성의 범주에 포괄되고있는데 그 서로 다른 내용은 오직 구체적인 문맥속에서만 구분이 가능한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구체적내용을 추상화하여 소속성이라는 하나의 관계속에 포괄시키고있는데서 문법고유의 추상적성격이 표현되고있다고 할수 있다.

국어에서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의 대응은 일의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례를 들어서 토 《시》는 존칭이라는 단 하나의 문법적의미만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문법적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그 변종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토 《았(었, 였)》은 과거시칭이라는 하나의 문법적의미만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시》를 존칭토, 《았(었, 였)》을 과거시칭토라고 이름짓게 된다.

이것은 토가 최소의 유의미적단위로서의 형태소로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문법적범주와 련관되여있음을 의미한다.

문법적범주는 일정한 표식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문법적의미를 일반화하여 설정하는데 국어에서 그 표시는 토가 담당하고있다. 례를 들어서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과 비존경이라는 표식에 따라 존칭범주를 설정하게 되는데 존경의 표시는 토 《시》가 담당하게 되며 비존경의 표시는 《0(령)》토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문법적의미는 반드시 그 어떤 문법적형태에 의해서만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법적수법에 의해서도 표현될수 있다.

일반언어학의 견지에서 문법적의미는 접사법, 내부굴절, 보조어, 어순, 보충법 등 여러가지 수법에 의해서 표현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굴절어류형인 영어에서 복수의 문법적의미가 내부굴절에 의해서 표현되며(례: foot/feet＝단수/복수) 고립어류형인 중국어의 경우에 일정한 문법적관계가 어순에 의하여 표현된다.(례: 山青/青山)

국어의 경우에 접사법은 대표적인 문법적수법으로 된다. 이것은 교착접사인 토가 말줄기에 첨가됨으로써 실현되는데 국어의 경우에 여러가지 다양한 문법적의미의 표현은 기본적으로 토가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국어에서 문법적의미는 교착의 수법에 의해서만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보조어나 보충법에 의해서도 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어에서 보조어의 수법은 해당한 단어의 문법적형태를 이루는것이 아니라 단어결합의 형식을 띠고 실현되는것을 말한다. 례를 들어서 《읽어버리다》는 보조적동사 《버리다》에 의해서 행동의 완료라는 《태적의미》를 표현하고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읽어버리다》는 《용언＋용언》이라는 단어결합에 의해서 문법적의미가 표현되고있어 그것을 《읽다》의 그 어떤 문법적형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어에서 《읽어버리다》, 《읽고말다》, 《읽고있다》 등 보조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태적의미》는 비교적 다양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문법적범주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것이 일정한 문법적형태에 의해서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보조어에 의한 분석적형태로만 표현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국어에서는 보충법에 의해서도 문법적의미를 표현할수 있다. 례를 들어서 존경의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잡수시다, 주무시다, 드리다》와 같은 경우에 《먹다/잡수시다》, 《자다/주무시다》, 《주다/드리다》와 같이 비존경과 존경의 문법적대응관계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어휘적수단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것들은 비록 일정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고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단어의 문법적형태로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어에서 단어의 문법적의미는 문법적형태소인 토로 표현되는것이 가장 전형적인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조어나 보충법에 의해서도 표현될수 있다.

그러나 보조어의 수법이나 보충법에 의해서 표현된 문법적의미를 범주화하여 그 어떤 문법적범주를 설정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형태론적인 문법적범주는 일정한 문법적형태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의 일반화에 기초하여 설정하는것이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일정한 문법적형태가 아니라 보조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형태와 같은것은 국어에서 형태론적범주로 인정하지 않는것이다.

제 6 절. 문법적형태소로서의 토의 본질과 특성

국어문법론서술에서 토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오래동안 론의되여왔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근대국어학의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문법론서술에서는 문법적의미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토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주요론의거리로 되였다.

토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문제는 국어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오래동안 론의되여왔다.

김희상은 《초등국어어전》에서 토를 단어로 보면서 토를 묶어서 하나의 품사로 설정하였으며 토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주시경도 《국어문법》에서 토를 단어로 보고 그것을 문장에서 첨가되는 자리에 따라 《겻, 잇, 끗》의 세가지로 나누었으며 그후 《말의 소리》에서는 그것을 《토씨》라고 하면서 보조적단어로 인정하였다.

리상춘은 《국어문법》에서 토를 크게 《조사》, 《접속사》, 《종지사》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주시경이 분류한 《겻, 잇, 끗》과 다를바가 없다고 할수 있다.

○ 서늘하ㄴ 바람이 불어 오ㅂ니다

○ 늦은 바람 가느ㄴ 비에 고기나 낚으리랐다

그의 주장대로 밑줄을 친 부분을 각각 《조사》, 《접속사》, 《종지사》로 보는 경우에 국어의 모든 단어형태는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의 결합에 의한 분석적형태로 인정되여야 할것이다.

아무리 보조적단어라고 하더라도 단어인 조건에서 그것은 마땅히 단어로

서의 체모를 갖추어야 하겠으나 앞에서 례로 든 《ㄴ》이나 《어》의 경우에 그러한것을 찾아보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명백한바와 같이 《ㄴ》이나 《어》는 문법적의미를 담당하고 단어에 붙은 교착물로서 그것을 보조적단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국어학자들이 토를 모두 보조적단어로 인정하게 된것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관련되여있었다.

본래 토라는 말은 한문의 독송(소리를 내여 읽거나 외우는것)에서 일정한 구절마다에 붙이던 우리 말을 가리켜 일러왔다.

○ 爲貧者ᄂᆞᆫ 辭尊居卑ᄒᆞ며 辭富居貧이니라
貧을 爲ᄒᆞᄂᆞᆫ 者ᄂᆞᆫ 尊을 辭ᄒᆞ고 卑예 居ᄒᆞ며 富ᄅᆞᆯ
辭ᄒᆞ고 貧에 居홀띠니라(《맹자언해》 10권 15장)

○ 以大夫之招로 招虞人이어ᄂᆞᆯ 虞人이 死不敢往ᄒᆞ니 以士之招로 招庶人이면 庶人이 豈敢往哉리오
태우의 招로ᄡᅥ 虞人을 招ᄒᆞ거ᄂᆞᆯ 虞人이 死ᄒᆞ야도 敢히 往티 아니ᄒᆞ니 士의 招로ᄡᅥ 庶人을 招ᄒᆞ면 庶人이 엇디 敢히 往ᄒᆞ리오
(《맹자언해》 10권 22장).

한문을 독송할 때 붙이던 《ᄂᆞᆫ, ᄒᆞ며, 이니라, 로, 이어ᄂᆞᆯ, 이, ᄒᆞ니, 로, 이면, 리오》 등을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토라고 불러왔는데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한문의 원문을 읽으면서 구절마다에 붙이는 《단어》처럼 간주해왔었다.

토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으로부터 단어나 구절에 첨가된것에 대하여 초기의 국어문법에서는 모두 《토》라고 하였으며 그것을 상대적자립성이 있는것으로 보면서 《단어》로 인식하게 되였다고 본다. 토를 단어로 보고 문법을 서술한것은 김희상과 주시경 이후 여러 문법들에서 거의 공통적이였다고 할수 있다.

토에 대한 《단어설》은 첨가되는것과 첨가하는것과의 구획이 가능한 경우에 일정하게 납득이 갈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구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의혹이 가지 않을수 없는데 바로 용언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하여 토의 《단어설》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그것을 재검토하려는 기운이 떠돌게 되면서 토의 본질과 관련하여 그것을 체언과 용언에 붙는 토들로 갈라서 설명하려는 견해가 대두하게 되였는데 그 첫 시도로 《중등조선말본》(최현배, 1934년)이 나오게 되였다.

여기서는 품사를 《생각씨》와 《걸림씨》로 가르고 토를 《걸림씨》로 보면서 주시경이 사용한 《토씨》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것을 하나의 품사인 조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토씨》는 체언에 붙는것에 국한시키고 용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어미활용을 한다면서 《씨끝》

즉 어미로 처리하였다.

이때부터 토에 대한 견해에서는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를 구별하여 조사와 어미로 갈라보려는 2원론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였다.

이 견해에 의하면 체언토는 수의적인 교착성분이고 용언토는 필수적인 교착성분이기때문에 수의적인 교착성분은 조사로, 필수적인 교착성분은 어미로 처리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실지로 국어의 토들은 수의적인 교착성분이든, 필수적인 교착성분이든 문법적관계를 표현하는데서 차이가 없으며 이 성분들의 교착에는 그 어떤 제한이 없는것이 사실이다.

○ 앉아서도 구상하고 걸으면서까지 깊이 생각하였다.

2원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우의 경우에 《앉아서도》는 《-아서》라는 《어미》에 다시 《도》라는 《조사》가 결합된것으로 될것이며 《걸으면서까지》 역시 《-으면서》라는 《어미》에 다시 《까지》라는 《조사》가 결합된것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어미에 조사가 결합한다는것은 일반언어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 그는 동지이기도 하고 스승어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동지이기도》나 《스승이기도》의 《-이기도》는 《지정사》+《어미》+《조사》로 분석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각이한 층계의 결합방식은 일반적으로 교착어에 존재할수 없다.

이처럼 국어의 토를 조사와 어미로 갈라보는 2원론적인 견해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있는것이 사실이다.

토의 본질을 2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내포하고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문법적교착물로서의 토의 본질을 밝히려고 새롭게 들고나온것이 바로 접사설이다.

《신편고등국어문법》(정렬모, 1946년)에서 토를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하지 않고 체언토나 용언토나 다같이 단어에 소속된것으로 보았다.

토를 접사로 보려고 하는것은 국어에서 토가 단어에 첨가되여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교착물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체언의 경우에든 용언의 경우에든 다 단어형태를 구성하는 동일한 접사로 된다는 립장에서 출발하고있다.

그리고 이것은 토를 단어로 보거나 조사와 어미로 갈라보는데서 나타난 모순을 극복하고 문법적의미의 담당자로서의 교착접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데서 출발한 견해라고 할수 있다.

이 견해는 토의 문법적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문법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의 국어문법서술에서 통일적견해를 담보하는 리론적기초로 되고있다.

그러면 국어의 토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있는가?

우선 국어의 토는 하나의 문법적의미만을 담당하는 단의적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연한 결합질서에 의해서 말줄기 뒤에 차례로 결합된다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 말씀하 시 였 습 니 다
① ② ③ ④ ⑤

①은 존칭토, ②는 시칭토, ③은 겸양토*, ④는 법토, ⑤는 식토이다. 존칭토는 《0》토와의 대립에 의해서 주체존경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며 시칭토는 《ㄴ/았, 었, 였/겠》의 체계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의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습》은 자기낮춤의 겸양토로서 《0》토와의 대립에 의해서 겸양의 문법적의미를 담당하고있다. 그리고 법토는 《니/디(더)/리》의 체계속에서 직설, 목격, 추측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고 식토는 《다/느냐/라/자/마》의 체계속에서 서술, 의문, 명령, 권유, 약속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

* 제2편 제3장 제6절 겸양범주를 참고할것.

이처럼 국어의 토들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결합하고있는데 《-다》와 같이 단어의 문장론적위치를 결정하는 위치토들은 항상 마지막자리에 놓이고 그밖의 비위치토들은 그앞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놓이게 된다.

다음으로 국어의 토는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단어의 여러가지 문법적형태가 이루어지며 그 결합가능성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도 특성의 하나로 꼽을수 있다.

○ 입 히 시 였 습 니 다 마는
○ 입 히 시 였 습 디 다
○ 입 히 시 였 으 리 라
○ 입 히 시 였 겠 다
○ 입 히 시 겠 지
○ 입 히 시 는
○ 입 히 는
○ 입 는

매개 토들은 다 담당하고있는 문법적의미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붙이거나 떼거나 하게 되여있어 그 결합가능성을 량적으로 따지게 되면 합성토는 수백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토의 풍부성을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된다.

그러나 대체로 한음절로 된 토가 하나의 문법적의미를 담당하면서 그 결합에 의해서 다양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고있으니 시초적인 토의 수를 따지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그런데 지난날 문법교육에서는 례컨대 계칭범주에 대하여 론의하면서 높임토로 《습니다》, 《ㅂ니다》, 《습니까》, 《ㅂ디까》 등을 통채로 다루고 또 알림법을 나타내는 맺음형에서 다시 《습니다》, 《ㅂ니다》를, 물음법을 나타내는 맺음형에서 《습니까》, 《ㅂ디까》를 통채로 설명하는것이 오래전부터 거의 전통화되고있었다.*

*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년) 216~224페지

그러나 사실상 《습니다》나 《ㅂ디까》의 경우에 《습/ㅂ》, 《니/디》, 《다/까》는 각각 담당하고있는 문법적의미가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문법교육에서는 《습니다》나 《ㅂ디까》를 하나의 《종결토》로 보고 그것이 계칭, 법, 식의 문법적의미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 말의 토가 대단히 복잡하고 많다는 인상을 주고 배우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된것이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교육에서 그 많은 토들을 대상으로 하여 토의 풍부성을 론하면서도 한편으로 매우 번잡한것으로 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었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 말의 문법교육을 개선하는데서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된다.

우리 말의 토는 개개가 다 하나의 독자적인 문법적의미를 가지고있으며 그 차이가 명백하다. 앞으로는 수백개의 번잡한 토의 결합체자체를 두고 토의 풍부성에 대하여 론하기보다는 제한된 일정한 수의 시초적인 토가 다양하게 결합되는 법칙과 양상을 두고 매개 토의 특성과 그 결합의 질서를 론하는것이 훨씬 현실적인 분석방법으로 될수 있다고 본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말의 문법교육에서는 시초적인 토의 결합법칙과 질서를 원리적으로 해설해주는 방법을 적용하는것이 효과적인 교수방법으로 될것이다.

다음으로 국어의 토가 가지는 특성은 일정한 상대적자립성을 가지고있다는 점이다.

토가 가지고있는 상대적자립성은 그것이 단어뿐만아니라 단어가 아닌 단위 즉 일정한 통합이나 《문장》에도 결합할수 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 나는 오늘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운단다.

○ 일군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들고 대오의 앞장에서 달려나가야 한다.

○ 금강산의 천선대에 올라가서 그들은 대자연의 으뜸가는 기묘함이라고 못내 감탄하였다.

이처럼 토의 상대적자립성은 일정하게 대상화된 단위에 그것이 다 붙을

수 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그러면서도 토가 붙게 된 단위와 토와의 계선은 명백하게 구분되고있다.

마지막으로 토의 특성은 의미적련관의 기능이 다양하게 작용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 아이들은 야영소로 가고 어른들은 휴양소로 떠나갔다.

○ 선생님께서는 오늘 신문을 읽고 최근정세를 해설해주시였다.

국어에서 종결술어에 나타나는 시칭토나 존칭토의 의미는 접속술어에까지 미치고있어 접속술어에 구태여 시칭토나 존칭토를 붙이지 않아도 해당한 문법적의미가 표현되고있다. 즉 첫 문장에서 접속술어 《가고》에는 종결술어에 의해서 표현된 과거시칭의 의미가 잠재되여있으며 둘째 문장에서 접속술어 《읽고》에는 종결술어형태에 의해서 존칭과 과거시칭의 의미가 잠재되여있다.

이것은 국어의 통합구조에서 토가 노는 다양한 의미적련관의 기능을 보여주는것으로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특성은 굴절어류형에 속하는 영어나 로어에서 찾아보기 힘든것으로서 교착어류형에 속하는 국어의 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된다.

이처럼 우리 말의 토는 본질상 교착접사로서 다른 교착어들에서 보기 힘든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교착성, 후치성, 단의성, 상대적자립성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국어문법을 교육하는데서 토의 본질과 그 특성을 옳게 인식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제 2 편. 품 사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23페지)

우리 말은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우리 말이 가지는 표현의 풍부성은 발달된 어휘구성과 치밀한 문법구조에 의해서 담보되고있다. 우리 말의 우수성과 풍부성을 적극 발양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표현의 풍부성을 담보하는 어휘－문법적부류로서의 우리 말 품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품사론에서는 품사분류의 기준과 매개 품사의 구조적특성 및 조성에 대하여 서술하게 된다.

제 1 장. 품사의 개념과 품사체계

제 1 절. 품사의 개념과 그 분류기준

품사란 언어의 어휘구성속에 있는 모든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단어의 어휘－문법적부류이다.

단어의 어휘－문법적부류라는것은 단어의 어휘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나눈 부류라는 뜻으로서 단어의 어휘적인 의미의 공통성, 문법적형태와 통합적기능에 나타나는 문법적특성의 공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분한것이 품사라는것이다. 그리고 단어조성의 수법도 품사마다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있어 이것도 품사를 가르는데서 일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단어의 어휘－의미적공통성

품사를 가르는데서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것은 단어의 어휘적의미가 가지는 특성이다.

례를 들어서 《나라》와 《사람》은 그 구체적인 어휘적의미가 다르지만

다같이 그 어떤 대상을 나타내고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며 《백두산》과 《압록강》은 구체적인 산과 강을 가리키고있어 서로 구별되는것이지만 어떤 개별적대상을 가리키고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하여 《나라》, 《사람》, 《백두산》, 《압록강》은 다같이 일정한 대상을 가리키고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대상적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명사로 묶을수 있을것이다.

또한 《높다》와 《길다》는 그 구체적인 어휘적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둘다 일정한 상태를 나타내고있다는 점이 같으며 《가다》와 《오다》는 서로 상반되는 행위를 의미하고있으나 그것이 다 행동을 나타내고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리하여 《높다》와 《길다》는 형용사에, 《가다》와 《오다》는 동사에 소속시킬수 있다.

한편 《높다, 길다》에서 파생된 《높이, 길이》의 경우에 어휘적의미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높다》와 《높이》가 공통성이 있고 《깊다》와 《깊이》가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높다》와 《높이》, 《깊다》와 《깊이》는 상태를 나타내고있다는 어휘적의미가 같지만 그 형태와 통합적기능 등 문법적특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높다》와 《깊다》가 공통성이 있으며 《높이》와 《깊이》가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품사를 가르는데서는 어휘적의미만을 기준으로 삼을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2. 단어의 형태적공통성

품사를 가르는데서 고려하여야 할것은 또한 그 단어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것이다.

앞에서 례로 든 《높이》는 《높이가, 높이의, 높이를…》 등과 같이 되면서 격의 여러 형태를 취하지만 《높다》는 그자체로 격형태를 취할수 없는 반면에 《높아, 높게, 높은, 높다》 등 다양한 서술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처럼 《높이》와 《높다》는 형태적측면에서 본질적차이가 있기때문에 같은 품사로 될수 없다.

한편 《나라》는 《나라가, 나라의, 나라를…》 등과 같이 격의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나라》와 《높이》는 형태적인 공통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들 례컨대 《나라, 사람, 백두산, 압록강》 등은 격형태를 취하며 다른 한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례컨대 《높다, 길다, 크다, 작다》 등은 서술형태를 취하게 되여 이 두개 부류를 서로 구별하게 된다. 즉 《높이》나 《길이》의 경우에는 《높이가, 높이를, 높이로》, 《길이가, 길이를, 길이로》 등 격형태를 취할수 있으므로 형태적측면에서 《높다,

길다》와 구별되고 오히려 《나라, 사람》과 공통성이 있다. 그리하여 《높이, 길이》는 《높다, 길다》와 어휘적의미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부류에 넣을수는 없으며 오히려 《나라, 사람》과 함께 명사부류에 넣게 되는것이다.

3. 단어의 통합적기능의 공통성

품사를 가르는데서 다음으로 념두에 두어야 할것은 그 단어가 통합구조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이다.

○ 백두산이 매우 높다. /백두산의 높이가 대단하다.

○ 압록강이 매우 길다. /압록강의 길이가 대단하다.

이 경우에 《높다》와 《길다》는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며 《높이》와 《길이》는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리고 《높다》와 《길다》는 각각 그앞에 상황어로서 《아주》나 《매우》를 가질수 있으나 《높이》와 《길이》는 그앞에 상황어가 올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백두산의》와 《압록강의》와 같은 규정어를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높다》와 《길다》는 일반적으로 상황어를 가질수 있는 품사인 형용사의 부류에 속하게 되며 《높이》와 《길이》는 일반적으로 규정어를 가질수 있는 명사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것이다.

4. 단어조성수법의 공통성

품사를 가르는데서는 단어의 단어조성수법의 공통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어조성에는 어휘적측면과 문법적측면이 동시에 작용한다. 따라서 단어의 어휘—문법적부류로서의 품사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는것은 응당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매개 품사에는 각각 고유한 단어조성수법이 존재한다. 명사의 경우에는 합침법에 의한 단어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례: 학교+마당, 학교+건물, 학교+교원) 앞붙이나 뒤붙이에 의한 파생법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수 있다. (례: 풋콩, 풋나물, 마당질, 후치질) 또한 《—ㅁ(음)》, 《기》, 《짓》과 같은 뒤붙이는 명사에만 쓰이고있다. (례: 짐, 걸음, 읽기, 손짓)

한편 형용사의 경우에는 뒤붙이 《답》, 《롭》, 《스럽》, 《다랗》에 의한 단어조성이 활발한데(례: 남자답다, 영예롭다, 영광스럽다, 가느다랗다) 이러한 단어조성은 형용사의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며 반면에 뒤붙이 《거리》, 《대》, 《치》에 의한 단어조성은 동사의 경우에 한하여 진행된다. (례: 치근거리다, 떠들어대다, 돌아치다)

그리고 앞붙이에 의한 단어조성수법이 명사나 동사의 경우에는 발달되여있으나(례: 헛손질, 헛소문, 군입질, 군소리/헛디디다, 덧나다, 맞바꾸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활발하지 못하다.

한편 상징부사의 경우에는 어음전환에 의한 단어조성수법이 매우 발달되여있다. (례: 살살—솔솔—술술, 달랑달랑—딸랑딸랑)

이처럼 단어조성수법은 품사에 따라서 일정한 특색이 있으므로 품사를 가르는데서 응당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될수 있다.

제 2 절. 국어의 품사체계

국어가 표현력이 풍부하고 섬세한것은 품사체계가 다양하고도 세밀하게 발달되여있는것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품사를 가르는 기준에 따라 단어들을 분류해보면 우선 어휘—의미적공통성에 따라서 대상적인것과 서술적인것으로 나눌수 있을것이며 또한 대상적인 단어를 수식하는 부류와 서술적인 단어를 수식하는 부류로 나눌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류가 있을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대상적인 품사는 체언이라고 하였으며 서술적인 품사는 용언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관례적인 분류원칙에 따르면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품사는 수식언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며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품사는 독립언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체언은 격형태를 취하면서 1차적으로 주어나 객어, 보어로 될수 있으며 용언은 서술형태를 취하면서 1차적으로 술어로 될수 있다. 그리고 수식언은 그 어떤 토도 취함이 없이 규정어나 상황어로 될수 있으며 독립언은 항상 그 자체가 그대로 독립성분으로 된다.

체언은 그 어휘—의미적공통성에 따라서 다시 명사, 수사, 대명사로 나누며 용언은 동사, 형용사로 나눈다. 그리고 수식언에는 부사와 관형사가 있으며 독립언에는 감동사 하나만 있다.

	품사	례
체언	명사	나라, 사람, 학교, 백두산, 압록강, 평양
	수사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열째
	대명사	나, 너, 우리, 이, 그, 저
용언	동사	가다, 오다, 먹다, 건설하다, 공부하다
	형용사	높다, 길다, 크다, 웅장하다, 영광스럽다
수식언	부사	매우, 잘, 아주, 하물며, 더구나, 탕탕
	관형사	온, 새, 별의별, 여느, 딴, 모든
독립언	감동사	아, 오, 여보, 아이구, 흥, 응

품사는 언제나 고정불변한것이 아니여서 부단한 변화와 호상전환의 상태에 놓여있다. 품사는 언어발전의 력사적과정에 한 품사에 속하는 단어 또는 단어형태가 다른 품사에 속하는 새로운 단어로 되거나 또 그 어떤 단어조성수법에 의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거나 할수 있다. 이 과정에 어휘구성

은 한층 다양해지면서 풍부화되는것이다.

그 례로 《높다》를 들수 있다. 《높다》는 본래 형용사인데 우리 말발전의 력사적과정에 그로부터 명사나 부사가 파생되여나간 과정을 찾아볼수 있다.

○ 내 노포라 ᄒᆞ릴 만나ᄃᆞᆫ(《월인석보》 21권 67장)=형용사

○ 노ᄑᆡ 다ᄉᆞᆺ자히라(《월인석보》 21권 192장)=명사

○ 자손이 다 노피 ᄃᆞ외ᄂᆞ니라(《삼강행실도》 효자 9장)=부사

* 현대국어에서는 명사나 부사가 다 《높이》로 되여있으나 력사적으로 명사는 《노ᄑᆡ》이고 부사는 《노피》였는데 《ᄋᆡ》가 《이》로 변하여 오늘에 와서는 동음이의어로 되고말았다.

한 품사로부터 다른 품사가 파생되여나가는 과정에는 여러가지의 수법들이 다양하게 리용된다.

① 단어의 말뿌리자체가 그대로 다른 품사에 속하는 단어의 말뿌리로 된것.

○ 띠→띠다, 신→신다, 배→ 배다(명사→동사)

○ 잘못(부사→명사)

② 단어의 한 형태가 새 단어로 변하여 다른 품사로 된것.

○ 정말로(명사 조격형태→부사)

○ 뜻밖에(명사 여격형태→부사)

○ 더러(동사 《덜다》의 접속형→부사)

③ 접사법에 의하여 다른 품사로 넘어간것.

○ 배우다(동사)→배움(명사)

○ 깊다(형용사)→깊이(명사)

○ 영광(명사)→영광스럽다(형용사)

제 2 장. 체 언

제 1 절. 명 사

1. 명사의 개념

명사란 일정한 대상을 명명하는것으로서 체언을 대표하는 품사이다.

명사에는 인물, 동물, 식물, 광물 등 대상의 이름과 추상적인 개념들이 속하게 된다.

○ 아버지, 어머니, 사람, 로동자, 농민, 민족, 인류 …

○ 호랑이, 곰, 고양이, 개, 참새 …

○ 꽃, 풀, 진달래, 개나리, 잔디 …

○ 금, 은, 강철, 선철, 원유 …

○ 사유, 문화, 진리, 인간학, 민주주의 …

명사를 규정하는 경우에 첫째 표징으로 대상성을 꼽는데 그것은 순수한 어휘적의미를 놓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어휘—문법적의미에서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래 어휘—문법적으로는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아도 그 문법적특성에 의하여 대상성을 획득하게 되면 명사로 되는것이다. 우에서 례로 든 《사유, 문화, 진리, 인간학, 민주주의》와 같은것은 물론 《충정, 효성, 주체사상, 인간성》 등은 가시적(可視的)인 대상이 아니지만 문법적특성에서 대상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명사에 소속시키게 된다.

그러면 명사의 부류를 규정하는 문법적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모든 명사들이 형태론적측면에서 격토와 도움토를 직접 취할수 있다는것이며 문장론적측면에서는 그것이 주어, 객어, 보어, 규정어, 피규정어로 될수 있고 체언서술형 《이》*를 거쳐서 술어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제3편 《형태론》 제1장 제1절의 《대상적형태와 서술적형태》를 참고할것.

2. 명사의 부류

명사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몇가지 부류가 있다.

1) 사용범위에 따라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나눌수 있다.

○ 나라, 도시, 산, 강, 사람 … =보통명사

○ 조선, 평양, 백두산, 대동강, 순희 … =고유명사

보통명사는 같은 성질을 가지는 대상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이름지은 명사이며 고유명사는 어느 하나를 같은 부류의 다른것과 구별하여 이름지은 명사이다.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구별은 그 명칭의 성격에 의한것으로서 그 대상이 하나인가 둘이상인가 혹은 다만 하나밖에 없는가 하는것과는 무관계한것이다.

례를 들어서 《해》와 《달》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들은 고유명사로 되는것이 아니라 보통명사에 속하며 반면에 《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 보통명사로 되는것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된다. 왜냐하면 평양시 보통강구역 어느 동, 어느 반에 사는 《영수》라는 사람은 바로 그 한사람뿐이여서 《평양》이나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의 범주에 넣게 된다. 다시말해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는 어디까지나 명칭의 성격에 의한 구별인것이다.

고유명사는 그 의미상 특수성때문에 수사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나 복수토, 그밖에 수량과 관련된 토와 결합할수 없다.

① ○ 세 사람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 세 영수가 평양에 도착하였다.

② ○ 도시들에는 고층건물이 많다.
× 평양들에는 고층건물이 많다.

③ ○ 강마다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세웠다.
× 대동강마다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세웠다.

개별적명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 명칭의 성격을 바꾸어서 보통명사로부터 고유명사로 혹은 고유명사로부터 보통명사로 넘어갈수 있다.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된것:

○ 《근로자》(잡지이름)
○ 《갑문》(담배이름)

고유명사가 형상적으로 보통명사로 쓰인것:

○ 치난날 우리 병사들속에서는 수많은 《리수복》이 나왔었다.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와 어울려 보통명사로 된것:

○ 조선속도
○ 청산리정신

2) 명명의 대상에 따라서 활동체명사와 비활동체명사로 나눌수 있다.

인물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활동체명사라고 하며 그밖의 명사를 비활동체명사라고 한다.

○ 활동체명사: 로동자, 농민, 학생, 혁명가, 투사, 소, 종달새 …
○ 비활동체명사: 로동, 생활, 학습, 투쟁, 혁명, 나무, 돌, 집 …

명사부류에서 활동체명사와 비활동체명사를 가르는것은 그 문법적특성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① 격토나 도움토를 취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활동체명사는 여격의 경우에 토 《에게》를 취하고 위격의 경우에 토 《에게서》를 취하지만 비활동체명사는 여격에서 《에》, 위격에서 《에서》를 취한다.

비교: ○ 검덕의 로동자들에게 돌려준 크나큰 배려.
○ 청산리농장에 보내준 최신식농기계.
○ 검덕의 로동자들에게서 보내온 기쁜 소식.
○ 청산리농장에서 보내온 만풍년소식.

활동체명사는 도움토 《더러, 한테》를 취할수 있으나 비활동체명사는 그것을 취할수 없다.

○ 그것은 아버님한테 알아보렴.
× 그것은 농장사무실한테 물어보렴.
○ 그것은 농장기사장더러 부탁하여라.

× 그것은 농장사무실더러 알아보아라.

② 비활동체명사는 활동체명사에 비하여 복수형태가 발전되여있지 않다. 그리하여 간혹 나타나는 비활동체명사의 복수형태는 그 명사가 복수인것이 아니라 그와 련관된 활동체명사가 복수라는것을 의미한다.

○ 빨리 삽들을 가지고 작업장에 나오시오.
○ 모두가 총들을 메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이 경우에 《삽》과 《총》이 복수토를 취한것은 그와 관련된 인물이 복수라는것을 의미하고있다.

문법적특성에서 나타나는 활동체명사와 비활동체명사의 차이는 대체로 이상과 같다.

그러나 비활동체명사도 인물을 가상하여 쓸 때에는 활동체명사와 같은 문법적성질을 획득하며 활동체명사도 경우에 따라서 비활동체명사와 같은 문법적특성을 나타낼수 있다.

○ 토끼는 달님에게 꾸벅 인사를 하였답니다.
○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3) 자립성여부에 따라서 완전명사와 불완전명사로 나눌수 있다.

○ 사람, 물건, 장소, 시간, 일, … ＝완전명사
○ 이, 분, 것, 바, 데, 수, 줄, … ＝불완전명사

완전명사는 문장에서 규정어 없이도 자립적으로 쓰일수 있으나 불완전명사는 문장에서 그앞에 규정어 없이는 쓰일수 없다.

○ 사람이 온다.
× 이가 온다. →○ 다른이가 온다.
○ 물건이 많다.
× 것이 많다. →○ 살것이 많다.
○ 자리를 정하자.
× 데를 정하자.→○ 갈데를 정하자.

불완전명사는 어휘의미적으로 명명의 완결성이 결여되고있는 점에서 온전치 못하며 또한 문법적으로 자립성이 없어 토처럼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의존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불완전명사는 발음할 때나 글을 쓸 때에 독립적으로 끊기를 주거나 띄여쓰지 않고 항상 앞의 단어에 붙이여 발음하거나 글을 쓴다.

불완전명사는 결합의 의존성의 각도에서 몇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① 규정어나 토와의 결합에서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불완전명사

《것, 이, 분, 바, 데》 등은 물건, 사람, 일, 장소를 대신하여 쓰이는것이기때문에 오직 통합적인 의존성만 있고 형태상으로나 단어조성상으로는 완전명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수 있다.

○ 가는것이(주격), 가는것을(대격), 가는것에(여격), 가는것이다(서술형태)

○ 새것, 헌것, 잡것, 먹을것, 입을것

이 류형의 불완전명사는 다른 불완전명사에 비하여 그 쓰임이 광범하고 다양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류형의 불완전명사를 일반불완전명사라고 한다.

② 주어의 구성성분으로만 쓰이는 불완전명사

《리, 수, 지, 나위》는 규정형 《－ㄹ/－ㄴ》와 결합하여 쓰이며 반드시 주격토를 취하고 주어적으로만 쓰인다.

○ 그가 그렇게 말할리가 있습니까?
○ 어디 그럴수가 있겠소?
○ 그곳을 떠난지가 벌써 10년이나 된걸요.
○ 그가 최우등생이라는것은 두말할나위가 없지요.

이 류형의 불완전명사는 주어형불완전명사라고 할수 있다.

③ 상황어의 구성성분으로만 쓰이는 불완전명사

《만큼, 채, 김, 대로》는 규정형 《－ㄹ/－ㄴ》와 결합하여 상황어적으로만 쓰인다.

○ 저는 먹을만큼 먹었습니다.
○ 그는 그만 작업복을 입은채로 교실에 들어서고말았다.
○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김에 한마디 하구려.
○ 틈이 나는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류형의 불완전명사는 상황어형불완전명사라고 할수 있다.

④ 술어나 간혹 보어의 구성성분으로 쓰이는 불완전명사

《따름, 뿐, 때문, 터》는 규정형 《－ㄹ/－ㄴ》와 결합하여 술어적으로 쓰이며 간혹 보어적으로도 쓰인다.

○ 오직 최선을 다할따름입니다.
○ 그는 진종일 논에서 써레질을 할뿐이였다.
○ 그건 다 너때문이야.
○ 난 동무때문에 욕을 먹었어.
○ 나는 과학자가 될터이다.

이 류형의 불완전명사는 술어형불완전명사라고 할수 있다.

불완전명사의 한 부류로 단위명사가 있다. 단위명사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자립적으로 쓰일수 없으며 절대격형태의 수사나 의문대명사 《몇》과 결합하여서만 쓰인다.

○ 그루: 나무 한그루
○ 개: 책상 두개
○ 단: 나무 석단
○ 마리: 새 두마리
○ 문: 대포 두문
○ 바리: 나무 한바리

○ 섬: 벼 열섬
○ 장: 종이 열장
○ 접: 마늘 스무접(한접은 100개)
○ 제: 고려약 두제(한제는 스무첩)
○ 척: 배 두척
○ 첩: 고려약 다섯첩
○ 필: 명주 두필

단위명사의 특수한 용법으로 수사와 결합하지 않고 직접 명사와 함께 쓰이면서 《얼마간의 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나무그루깨나 심었다.(몇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쌀말이나 장만하였다.(몇말의 쌀을 장만하였다.)

계산의 단위로는 단위명사뿐만 아니라 일부 완전명사도 쓰이는 일이 있다.

○ 로동자 두사람
○ 밤 스무알
○ 국 네사발

그러나 대부분의 완전명사는 이렇게 쓰이는 일이 없다. 례를 들어서 《한시계》, 《두 물고기》, 《세 연필》이라고 하는 일은 없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시계 하나》, 《물고기 두마리》, 《연필 세자루》라고 하여야 한다.

단위명사가 불완전명사의 특수한 부류로 되는것은 그것이 형태론적으로는 완전명사와 마찬가지로 격체계를 완전히 갖추고있으나 문장론적으로는 그자체가 자립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이 항상 수사나 의문대명사 《몇》과 함께 쓰이면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된다는 문법적제약성과 관련되여있다.

그리고 단위명사는 다른 불완전명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직접 복수토 《들》을 취할수 없으며 수범주를 가지지 않는다는 문법적특성이 있다.

3. 명사의 조성

1) 합침법

(1) 명사+명사

① 병렬적관계로 합친것

○ 봄가을, 눈바람, 밤낮, 논밭, 물불, 아침저녁, 아래우, 앞뒤, 아들딸*

* 명사들이 병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에 어휘소의 배렬에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심리가 일정하게 작용할수 있다. 례를 들어서 성별에 따르는 어휘의 어감상 차이는 그 배렬순서에 반영되여 남성을 앞자리에 놓는것이 정상인것으로 인식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 남자녀자/× 녀자남자

○ 아들딸/× 딸아들

○ 장인장모/× 장모장인

○ 소년소녀/× 소녀소년

○ 신랑신부/× 신부신랑

○ 견우직녀/× 직녀견우

○ 《아들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결혼식후 어른의 말씀)

반면에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대상을 낮추어 말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혹은 짐승의 경우를 가리키는것으로 된다.

○ 년놈/× 놈년

○ 계집사내/× 사내계집

○ 암돼지수돼지/× 수돼지암돼지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 시집장가/× 장가시집

이것은 결혼이라는 절차가 장가가는 남성보다 시집가는 녀성에게 더 큰 일로 된다는 인식을 반영한것이다.

○ 처녀총각/× 총각처녀

이처럼 명사의 병렬적결합과 민족문화심리는 밀접한 련관이 있다.

② 규정적관계로 합친것

○ 새벽길, 남새밭, 꽃바구니, 담배대, 나무잎, 물오리, 밤알, 축구공, 흙냄새, 칼날

(2) 형용사+명사

① 토가 끼우지 않은것

○ 곱돌, 검버섯

② 토가 끼운것

○ 된장, 단잠, 큰소리, 빈말, 궂은비, 붉은기

(3) 동사+명사

① 토가 끼우지 않은것

○ 접자, 날짐승, 밀차, 열쇠, 끌힘, 들것

② 토가 끼운것

○ 쓸모, 군밤, 뜬눈, 칠손, 먹는물

(4) 상징부사+명사

○ 빨락종이, 산들바람, 너털웃음, 쑥덕공론

(5) 합성략어

○ 녀맹(녀성동맹), 직맹(직업총동맹), 공대(공업대학)
성강(성진제강련합기업소), 김철(김책제철련합기업소)

2) 접사법

(1) 앞붙임법

① 앞붙이가 고유어인 경우

갈: 동물을 나타낼 때 작은것을 가리킨다.

○ 갈가마귀, 갈거미, 갈범

갓: 나이를 나타낼 때 《겨우》의 뜻이 있다.

○ 갓스물, 갓서른, 갓마흔

강: 일부 명사의 말뿌리에 붙어서 《억지》 또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 강다짐, 강주정, 강더위, 강추위, 강조밥

날: 열매나 음식물이 《아직 익지 않음》, 《가공하지 않음》, 《지독함》을 나타낸다.

○ 날가루, 날고기, 날밤, 날콩, 날강도, 날벼락

덧: 《본래것의 우에 더함》을 나타낸다.

○ 덧거름, 덧문, 덧신, 덧버선, 덧저고리

돌: 《품질이 나쁨》, 《야생적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돌배, 돌미나리, 돌피

맏: 《같은 항렬에서 제일 손우인》의 뜻을 나타낸다.

○ 맏누이, 맏며느리, 맏사위, 맏형

말: 일부 동물이나 식물의 《큼》을 나타낸다.

○ 말거미, 말거마리, 말승냥이

맞: 《마주 대함》이나 《서로 비슷함》을 나타낸다.

○ 맞구멍, 맞교대, 맞불질, 맞장기

뭇: 《여러》, 《수많은》의 뜻을 나타낸다.

○ 뭇매, 뭇짐승, 뭇사람, 뭇발길

민: 《다른것이 붙어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 민대가리, 민머리, 민물

맨: 《다른것이 없이 다만 그것만의》 뜻을 나타낸다.

○ 맨머리, 맨몸뚱이, 맨바닥, 맨발, 맨손, 맨주먹

메: 《차지지 아니하고 메진것》을 나타낸다.

○ 메수수, 메조, 멥쌀*

* 《쌀》은 중세국문문헌에서 《ᄡᆞᆯ》로 표기되여있어서 다른 말과 결합되는 경우에 《ㅂ》가 발음되는것이다.

○ 金바리예 힌ᄡᆞᆯ ᄀᆞᄃᆞ기 다마(《월인석보》 8권 90장)

○ ᄡᆞᆯ 미 米(《훈몽자회》 중권 20장)

선: 《아직 익거나 숙달되지 못한》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선웃음, 선잠, 선하품

숫: 《처음의》, 《순수한》, 《순전한》의 뜻을 나타낸다.

○ 숫처녀, 숫눈길, 숫음식

생: 《익지 않은》, 《마르지 않은》, 《억지의》, 《상대방이 죽지 않은》의 뜻을 나타낸다.

○ 생가죽, 생것, 생나물, 생장작, 생고집, 생억지, 생과부

잔: 《세세한》, 《자질구레한》의 뜻을 나타낸다.

○ 잔기침, 잔말, 잔소리, 잔손질, 잔돈, 잔사설

진: 《물기가 많음》의 뜻을 나타낸다.

○ 진펄, 진흙, 진일, 진눈까비

찰(차): 《끈기가 있고 차진》의 뜻을 나타낸다.

○ 찰벼, 찰수수, 찰흙, 찰떡, 찰강냉이, 차조

참: 《진짜의》, 《좋은》의 뜻을 나타낸다.

○ 참기름, 참깨, 참나무, 참대, 참사람

첫: 《처음의》란 뜻을 나타낸다.

○ 첫가을, 첫겨울, 첫나들이, 첫눈, 첫새벽

통: 《손대여 가르지 않은》의 뜻을 나타낸다.

○ 통배추, 통김치, 통마늘

풋: 《아직 익지 않은》, 《순수한》의 뜻을 나타낸다.

○ 풋김치, 풋고추, 풋나물, 풋솜씨, 풋강냉이

한: 《한창인》, 《바로》의 뜻을 나타낸다.

○ 한낮, 한밤중, 한여름, 한가운데, 한복판

헛: 《속이 빈》, 《소용이 없는》, 《거짓》의 뜻을 나타낸다.

○ 헛간, 헛손질, 헛기침, 헛소리, 헛나발, 헛걸음

홀: 《하나뿐인》, 《짝이 없는》, 《외톨》의 뜻을 나타낸다.

○ 홀몸, 홀아비, 홀어미

홑: 《단 하나》, 《외톨의》, 《단 한겹의》라는 뜻을 나타낸다.

○ 홑것, 홑모음, 홑바지, 홑옷, 홑이불*

* 《이불》은 중세국문문헌에서 《니불》이였기때문에 《홑이불》은 오늘도 실제상 《홑니불》로 발음된다.

○ 니블와 벼개왜 저즈시니라(《금강경언해》 하권 4장)

○ 紟은 ᄒᆞᆫ니불이라(《가례언해》 5권 32장)

햇: 《새로 난》, 《그해에 된》의 뜻을 나타낸다.

○ 햇콩, 햇병아리, 햇곡식, 햇보리

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것》 또는 《작은것》을 이른다.

○ 알몸, 알대가리, 알밤, 알항아리

엇: 《비뚜로》, 《어긋난》의 뜻을 나타낸다.

○ 엇결, 엇그루, 엇셈

올: 《식물의 열매가 일찌기 여문것》을 가리킨다.

○ 올콩, 올감자, 올사과, 올벼

웃: 《우에 있는》의 뜻을 나타낸다.

○ 웃목, 웃자리, 웃층

애: 《맨 처음》, 《어린》의 뜻을 나타낸다.

○ 애갈이, 애벌, 애빨래, 애숭이, 애호박

옛: 《지난날의》, 《예전의》의 뜻을 나타낸다.

○ 옛이야기, 옛말, 옛사람

외: 《오직 하나》의 뜻을 나타낸다.

○ 외기러기, 외나무다리, 외아들

왕: 《아주 큰》의 뜻을 나타낸다.

○ 왕거미, 왕모래, 왕벌, 왕지네

② 앞붙이가 한자어인 경우

가(假): 《거짓으로 된》, 《가짜》, 《정식이 아닌》의 뜻을 나타낸다.

○ 가문서, 가의사, 가건물, 가교사

경(輕): 《가벼운》의 뜻으로서 《중(重)》과 대치하여 쓰인다.

○ 경경기, 경공업, 경금속, 경기관총, 경폭격기

대(大): 《큰》의 뜻을 나타낸다.

○ 대가정, 대규모, 대동맥, 대승리

명(名): 《이름난》, 《명성이 높은》의 뜻으로 쓰인다.

○ 명가수, 명의사, 명사수

몰(沒): 《내용이 전혀 없음》의 뜻으로 쓰인다.

○ 몰상식, 몰렴치, 몰인정

무(無): 《내용이 없음》, 《부정》의 뜻으로 쓰인다.

○ 무가치, 무감각, 무기한, 무차별, 무조건

미(未):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의 뜻으로 쓰인다.

○ 미개척, 미해결, 미완성

반(反): 《반대되는》의 뜻으로 쓰인다.

○ 반봉건, 반작용, 반혁명

부(副): 《다음가는 자리》, 《기본이 아닌》의 뜻으로 쓰인다.

○ 부교장, 부교수, 부차적, 부식물, 부산물

중(重): 《무거운》의 뜻으로서 《경(輕)》과 대치하여 쓰인다.

○ 중경기, 중공업, 중금속, 중기관총, 중폭격기

양(洋): 《서양》 또는 《외래적》의 뜻으로 쓰인다.

○ 양딸기, 양초, 양배추

(2) 뒤붙임법

① 뒤붙이가 고유어인 경우

군: 《일정한 직업이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구경군, 농사군, 사냥군, 심부름군, 씨름군

기: 《어떤 행동에 필요한 기구나 대상화된 행동》의 뜻으로 쓰인다.

○ 쓰레받기, 본보기, 돋보기, 모내기, 뜀뛰기, 줄넘기
개:《크지 않은 간단한 기구》의 뜻으로 쓰인다.
○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 싸개
님: 존경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인다.
○ 선생님, 부모님, 아버님, 따님
내기:《일정한 출신지》를 가리킬 때 쓰인다.
○ 평양내기, 함경도내기, 자강도내기
다리:《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키다리, 꺽다리, 늙다리, 깡다리
데기:《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의 뜻을 나타낸다.
○ 부엌데기, 새침데기
매:《어떤 모양이나 생김새》의 뜻으로 쓰인다.
○ 몸매, 눈매, 입매
보:《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털보, 떡보, 심술보
붙이:《어떤 겨레에 소속된 사람 또는 물건의 종류》의 뜻으로 쓰인다.
○ 살붙이, 겨레붙이, 금붙이, 쇠붙이
배기:《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본토배기, 토배기
뱅이:《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데 쓰인다.
○ 게으름뱅이, 비렁뱅이, 장돌뱅이, 앉은뱅이
질:《반복되는 행동 또는 직종》의 뜻으로 쓰인다.
○ 마당질, 가래질, 낚시질, 대장질, 목수질
짓:《몸을 놀려서 하는 행동》의 뜻으로 쓰인다.
○ 고개짓, 눈짓, 몸짓, 손짓
쟁이:《어떤 직업 또는 버릇을 가진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대장쟁이, 땜쟁이, 요술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퉁이: 일부 말뿌리에 붙어서 속되게 이를 때 쓰인다.
○ 귀퉁이, 눈퉁이, 볼퉁이
꾸러기: 《어떤 버릇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장난꾸러기, 욕심꾸러기, 말썽꾸러기, 심술꾸러기
뜨기: 어떤 사람을 얕잡아 이를 때 쓰인다.
○ 시골뜨기, 사팔뜨기, 촌뜨기; 얼뜨기
때기: 신체의 부분을 얕잡아 이를 때 쓰인다.
○ 귀때기, 배때기, 팔때기
아기(아지): 일부 명사말뿌리에 붙어 《조그마한것》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 지푸라기,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이밖에 애모(愛侮)를 나타내는 뒤붙이를 붙이여 애모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 눈—눈퉁이, 틀—틀거지
주책—주책사니, 철—철딱사니

* 《조선문법연구》(홍기문, 1947년)

② 뒤붙이가 한자어인 경우
가(家):《어떤 전문가 또는 특징을 가진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미술가, 음악가, 락천가, 정열가
가(哥): 성씨의 뜻으로 쓰인다.
○ 김가, 박가, 리가, 최가
가(歌):《노래나 종류의 이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개선가, 농부가, 응원가
감(感): 《느끼는 마음, 느낌》의 뜻으로 쓰인다.
○ 긍지감, 책임감, 영예감, 수치감
공(工):《일정한 기술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다.
○ 기능공, 견습공, 선반공, 용해공
기(期):《일정한 때 또는 기간》의 뜻으로 쓰인다.
○ 고조기, 개화기, 농번기, 성숙기
성(性):《성질, 본성》의 뜻으로 쓰인다.
○ 사상성, 자립성, 영웅성, 용감성, 불임성
소(所):《장소, 기관》의 뜻으로 쓰인다.
○ 강습소, 사무소, 휴양소, 연구소, 양성소
실(室):《방, 장소》의 뜻으로 쓰인다.
○ 기관실, 도서실, 실험실, 연구실
적(的):《대상, 내용, 자격, 속성》의 뜻으로 쓰인다.
○ 결과적, 건설적, 심리적, 교육자적, 당적, 로동계급적
화(化):《변화된 결과》의 뜻으로 쓰인다.
○ 국유화, 기계화, 현대화, 전기화, 화학화, 일반화

(3) 앞뒤붙임법

○ <u>애</u>갈<u>이</u>, <u>군</u>손<u>질</u>, <u>헛</u>손<u>질</u>, <u>맞</u>잡<u>이</u>, <u>되</u>풀<u>이</u>, <u>풋</u>잎<u>사귀</u>

3) 소리바꿈법

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것
○ 맛—멋, 가죽—거죽, 마리—머리, 골—굴,
알—얼, 쏘시개—쑤시개,
② 의미적색채만 달라진것
○ 검정—감장, 거짓말—가짓말, 렴치—럄치

제 2 절. 수 사

1. 수사의 개념

수사는 대상의 일정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다.

수사는 대상의 일정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낼뿐이고 대상 그자체를 명명하지 않는다.

○ 다섯동무

○ 사과 열개

○ 첫째 과업

수사는 체언에 속하는 단어부류로서 체언의 다른 부류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명사나 대명사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수사의 기본특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갈라볼수 있다.

우선 수사의 기본특성은 체언으로서 명사나 대명사와 공통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는 점이다.

그 공통성은 문법적표식에서 명사나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격토를 취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사에는 명사에 첨가되는 도움토가 그대로 첨가될수 있으며 문장에서 토의 첨가없이도 자립적으로 쓰일수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수사는 문장에서 주어, 객어, 보어, 규정어로 될수 있으며 체언서술토 《이》에 의하여 서술형태를 취할수 있고 따라서 술어로 될수 있다.

이처럼 수사는 문법적표식에서 명사, 대명사와 공통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다같이 체언의 범주에 들게 되는것이다.

다음으로 수사의 기본특성으로는 수사가 명사나 대명사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있다는 점을 들게 된다.

첫째로, 수사는 어휘－의미적측면에서 명사와 구별된다. 수사는 대상 그자체를 명명하지 않고 대상을 가리키지도 않으며 오직 대상의 일정한 수량이나 순서만을 나타낼뿐이다. 따라서 수사에는 명명적기능이 없는것이다.

○ 열은 다섯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둘이다.

○ 여섯이 어제 혁명전적지답사를 떠났다.

이처럼 수사는 구체화된 대상이 없이 추상화된 수량만을 나타낸다는 점에 그 기본특성의 하나가 있으며 이 점에서 명사와 뚜렷이 구별되고 그 사용에서 일반성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비록 량적측면에 대한 의미가 표현되여있더라도 수량 이외에 그 대상자체까지 나타내는 단어들은 수사가 아니라 일종의 명사로 인정된다.

○ 하루, 이틀, 사흘, 나흘 …

이 단어들은 순서의 뜻이 포함되여있어도 일정한 동안(하루는 24시간, 이틀은 48시간…)이라는 시간적개념을 나타내기때문에 그것은 대상 그자체를 명명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수량이나 순서를 계산할수 있는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것이 결코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은 이 단어들이 수사가 아니라 명사임을 립증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3.8절》이나 《5.1절》과 같은 단어도 비록 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달과 날을 가지고 정해진 기념일을 명명한것인만큼 수사인것이 아니라 명사인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막연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다수》, 《소수》, 《여럿》, 《전부》, 《약간》과 같은 단어들 역시 수사가 아니라 명사로 된다.

둘째로, 수사는 문법적특성의 측면에서도 명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수사는 복수형태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수 있다. 례를 들어서 《다섯들》이라든가 《열들》과 같이 말할수 없다. 그리고 《다섯학생들》, 《열집들》과 같이 수사가 결합된 명사도 복수형태를 취할수 없다.

다음으로 수사는 명사와 결합할 때 그 앞뒤 자리를 바꾸어도 의미상 변화가 없다. 례를 들어서 《다섯 사람》을 《사람 다섯》으로 바꾸어도 의미상으로 차이가 생기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의미상 변화가 생기게 된다. (례: 물리리론/리론물리)

또한 수사는 규정어와의 결합에서 제한성이 있다. 명사는 《푸른 하늘》, 《읽은 책》과 같이 서술적인 규정어와 결합하는데서 제한성이 없으나 수사는 그러한 규정어를 취할수 없기때문에 《푸른 셋》이라든가 《읽은 다섯》과 같이 말할수 없다. 그리고 수사가 피규정어로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수사는 명사나 대명사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 차이보다는 공통성이 더 많기때문에 그것을 체언의 범주에 넣게 되는것이다.

2. 수사의 부류

수사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몇가지 부류가 있다.

1) 기원의 측면에서 고유어수사와 한자어수사로 나눌수 있다.

고유어수사는 《하나》에서 《아흔아홉》까지 있으며 한자어수사는 《일》부터 《십, 백, 천, 만, 억, 조…》 등 높은 수를 다 나타낼수 있는것들로 구성되여있다.

그러나 력사적으로는 《백》은 《온》, 《천》은 《즈믄》이라는 고유어수사가 쓰이고있었다.

○ 百온 오니라(《월인석보》 1권 6장)

○ 즈믄 천 千(《훈몽자회》 하권 34장)

고유어수사인 《한》은 《하나》라는 수량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이나 《대략》 등의 의미로 쓰이는 일이 있다.

○ 한 젊은이가 오늘 나를 찾아왔었다.

○ 거기까지는 한 오리쯤 되지요.

고유어수사와 한자어수사는 그 쓰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단위명사와의 결합에서 나타나고있다.

고유어수사는 단위명사가 고유어로 된것이든 한자어로 된것이든 다 결합할수 있다.

○ 사과 두알, 염소 세마리, 쌀 한섬

○ 책 스무권, 대포 여덟문, 배 아홉척

그러나 한자어수사는 원칙적으로 고유어로 된 단위명사앞에 결합하는 일이 없으며 한자어로 된 단위명사와만 결합한다.

× 사과 삼알, 염소 오마리, 쌀 십섬,

○ 책 이십권, 대포 팔문, 배 구척

결국 고유어단위명사 앞에는 고유어수사만 쓰이며 한자어단위명사 앞에는 고유어수사든 한자어수사든 다 쓰인다고 할수 있다.

2) 의미의 측면에서 수량수사와 순서수사로 나눌수 있다.

수량수사는 대상의 일정한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수량수사에는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는 고유어수사와 한자어수사의 쌍이 있다.

○ 하나, 둘, 셋, 넷 … 열, 스물, 서른… 아흔아홉

○ 일, 이, 삼, 사 … 십, 이십, 삼십… 구십구

고유어수사의 경우에는 《아흔아홉》까지 있으므로 그 이상의 수량은 한자어수사에 고유어수사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 백서른여섯, 삼백마흔다섯, 이천오백스물여섯

고유어수사나 한자어수사나 다 정확한 수량뿐아니라 개략적인 수량도 나타낼수 있는 《한둘, 두서넛, 너더댓, 대여섯…》, 《이삼, 삼사, 사오륙, 팔구십…》 등이 있다. 그리하여 수사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정수사(定數詞)와 개략적인 수사를 나타내는 개수사(概數詞)로 가르기도 한다. 개수사는 수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유어수사의 경우에 《한둘, 두서넛, 대여섯…》과 같이 앞요소와 뒤요소의 소리가 바뀌기도 하지만 한자어수사의 경우에도 《일이, 이삼사, 오륙… 》과 같이 한다.

경우에 따라서 개수사 뒤에 《나문》이나 《여(餘)》를 붙이거나 그앞에 《약(約)》을 붙인다.

○ 여나문, 스무나문 …

○ 이십여, 오백여 …

○ 약 이삼십, 약 삼사천 …

순서수사는 대상의 일정한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순서수사에는 정확한 순서를 나타내는 고유어수사와 한자어수사의 쌍이 있는데 고유어수사의 경우에는 《째》를 수량수사뒤에 붙이고 한자어수사의 경우에는 《제(第)》를 앞에 붙인다.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 열째, 서른째

○ 제일, 제이, 제삼, 제사, … 제십, 제삼십

순서수사도 개략적인 순서를 나타낼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략수사 뒤에 《나문》이나 《여》를 붙이고 다시 《째》를 붙인다.

○ 여나문째, 스무나문째…

○ 십여째, 이십여째, 백여째…

순번이나 회수, 배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수사에 《번》, 《회》, 《곱》, 《배》를 붙일수 있는데 《번》과 《배》는 고유어수사와 한자어수사에 다 붙일수 있으며 《회》는 한자어수사에, 《곱》은 고유어수사에만 붙일수 있다.

○ 한번, 두번, 세번, 열번…

○ 일번, 이번, 삼번, 십번…

○ 두배, 세배, 네배…

○ 이배, 삼배, 사배…

○ 일회, 이회, 삼회, 십회…

○ 두곱, 세곱, 네곱…

수사에는 다른 말뿌리로 대신하는 일종의 보충법이 있다.

《제1》에 해당하는 고유어순서수사인 《첫》은 기원상으로 《처엄》과 관련이 있는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량수사에 《째》를 붙이여 순서수사를 만드는것과는 달리 다른 말뿌리로 순서수사를 만들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의 《one》, 《two》에 대한 《first》, 《second》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충법이라고 할수 있다.

3. 수사의 쓰임과 수자의 읽기

수사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격토와 도움토를 취할수 있으며 대상의 서술형태를 취할수 있기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객어, 보어, 술어, 규정어 등으로 될수 있다.

○ 로동자 다섯이 각각 삽과 곡괭이 두자루를 들고 건설장으로 달려왔다.(주어, 객어)

○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셋으로 나누었다.(보어)

○ 오늘 철야전투를 벌린것은 병사 여섯이였다.(술어)

○ 열명의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에 섰었다. (규정어)

국어에서 수범주는 명사나 대명사에만 해당될뿐 수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수사에는 복수토를 붙일수 없으며 대상이 둘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위명사앞에 수사가 오는 경우에는 그 단위명사에 절대로 복수토를 붙일수 없다.

× 학생 셋들이 왔다.

× 졸업생 열명들이 찾아왔다.

× 오늘 낚시질에서 산천어를 여덟마리들이나 잡았다.

결국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지만 수범주와는 전혀 무관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수사는 수자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 읽기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한다.

수사가 수자로 표시되는 경우에 그것이 고유어단위명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수자를 반드시 고유어로 읽어야 한다.

○ 공화국창건 65돐→공화국창건 예순다섯돐

× 공화국창건 륙십오돐

○ 대학창립 50돐→대학창립 쉰돐

× 대학창립 오십돐

○ 옷 10벌→옷 열벌

× 옷 십벌

○ 나무 4바리→나무 네바리

× 나무 사바리

○ 8바퀴→여덟바퀴

× 팔바퀴

○ 나이 15살→나이 열다섯살

× 나이 십오살

수자로 표시된 수사의 경우에 그뒤에 오는 단위명사가 한자어나 외래어이면 그것을 고유어로 읽을수도 있고 한자어로 읽을수도 있다.

○ 어선 9척→어선 아홉척/어선 구척

○ 학생 18명→학생 열여덟명/학생 십팔명

○ 붕산 10g →붕산 열g/붕산 십g

그러나 한자어단위명사가 올 때 반드시 한자어로 읽어야 할 경우도 있다. 특히 년월일이나 화폐단위의 경우에는 수자를 고유어로 읽지 않는다.

○ 제10회 졸업식→제십회 졸업식

× 제열회 졸업식

○ 돈 38원→돈 삼십팔원

× 돈 서른여덟원

○ 제7과→제칠과

× 제일곱과

년월일을 말할 때 년과 월의 수는 한자어로 읽으나 일의 수는 한자어로 읽을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써오던 《하루》, 《이틀》, 《사흘》, 《열흘》 등 고유어명사로 대신 말할수도 있다.

○ 2013년 9월 23일→ 이천십삼년 구월 이십삼일/
이천십삼년 구월 스무사흘

○ 10월 1일→시월 일일/시월 초하루

그리고 수자 다음에 한자어명사 《성상(星霜)》, 《주년(周年)》이 오는 경우에는 그 수자를 반드시 한자어로 읽어야지 고유어로 읽어서는 안된다.

○ 15성상→십오성상

× 열다섯성상

○ 대학창립 10주년 행사→대학창립 십주년 행사

× 열주년 행사

제 3 절. 대 명 사

1. 대명사의 개념

대명사는 대상에 대하여 명명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가리키기만 하는 품사이다. 즉 대명사의 특징은 대상을 가리키기만 할뿐 이름짓지 않으며 또한 대상의 수량을 표시하지도 않는다는데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대명사는 다같이 대상과 관련되면서도 명사나 수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대명사는 고도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가지는 단어부류로서 문맥이나 장면의 도움에 의해서만 그 구체적인 지시대상이 밝혀지게 된다.

○ 너는 거기서 무엇을 찾고있느냐?

이 경우에 《너》는 이야기하는 장면에 따라서 《철수》일수도 있고 《순이》일수도 있으며 《거기》는 《방》일수도 있고 《마당》일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은 말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있다.

이 점에서 대명사는 고도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띤 단어부류로서 순전히 문맥이나 장면에 의해서만 그 지시대상이 밝혀지게 된다. 다시말해서 대명사는 문맥이나 장면을 떠나서는 그 구체적인 대상을 알수 없는 문맥의존적인 품사라는 점에서 체언의 다른 품사들과 구별된다고 할수 있다.

대명사는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부류이므로 대상이 아닌 행동이나 상태, 특징 등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대명사가 아니다.

○ 이러다, 저러다, 그러다, 어쩌다 (동사)

○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어떻다 (형용사)

○ 이다지, 저다지, 그다지, 이만저만, 그만, 그리, 어찌(부사)

대명사의 문법적특성은 명사 혹은 관형사와 류사하다고 할수 있다.

○ 누가 우리를 도와주려니 생각하지 말고 이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여 자체의 힘으로 해냅시다.

○ 어느 단위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제 힘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대명사는 체언의 다른 부류인 명사와 마찬가지로 《나는, 누가, 우리를, 이것으로, 그것을》과 같이 격형태를 취하여 주어, 객어, 보어로 될수 있으며 또 《어느》와 같이 마치 관형사처럼 그자체가 그대로 규정어로 될수 있다.

이 점에서 대명사는 체언의 다른 품사들과 공통적인 문법적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2. 대명사의 부류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의 특성과 가리키는 성질상특성 등 어휘－의미적 성격에 따라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로 나눈다.

1)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화제에 오르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인칭대명사는 인칭, 계칭, 수에 따라서 몇개 부류로 나눌수 있다.

인칭 \ 계칭 \ 수		웃사람에게	대등한 사람에게	아래사람에게
1인칭	단수	저	나	
	복수	저희(들)	우리(들)	
2인칭	단수	당신	자네, 그대	너
	복수	(당신들)	(자네들, 그대들)	너희(들)
3인칭	단수	이, 그, 저		
	복수	(이들, 그들, 저들)		

(1) 1인칭대명사

말하는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는 1인칭대명사 또는 자칭(自稱)대명사라고도 한다. 《나》는 듣는 사람과 대등하거나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낮다고 생각될 때 쓰이며 공식적인 장소에서 계칭과 무관계하게 쓰일수도 있다.

○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저희》와 《우리》는 같은 1인칭복수의 대명사이지만 쓰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과 제3자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두고

말할 때도 쓰인다. 그러나 《저희》는 듣는 사람과 제3자까지 포함하여 모두를 가리키는 경우에 쓰일수 없다.

○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우리는 이 공사를 기한전에 깨끗이 끝내야 합니다.

× 저희는 이 공사를 기한전에 깨끗이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적으로 말할 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상 《나》와 같은 의미로 쓴것이다.

○ 실험수값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우리의 결론은 바로 이렇소.

○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분입니다.

대명사의 구분상으로는 《우리》, 《저희》, 《너희》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있으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이것이 단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례를 들어서 형제자매가 없는 외아들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흔히 《우리 어머니》, 《저희 아버지》라고 말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고유한 집단주의적인 문화적배경을 지니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1인칭대명사는 방금 화제에 오른 대상을 다시 돌이켜가리키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 그들은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개진의 길에 들어섰다.

○ 청년들은 저희가 이 일을 맡겠다고 떨쳐나섰다.

1인칭대명사의 이러한 쓰임은 자기자신을 가리키는것으로 하여 자칭대명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 제 머리로 사고하고 제 힘으로 떨쳐일어나야 한다.

《제》는 흔히 자칭대명사라고 하고있는데 이것은 어원적으로 《저＋ㅣ》인것만큼 사실상 1인칭대명사 《저》의 변종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국어에서는 자칭대명사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며 단지 1인칭대명사가 용법상 자칭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인정할뿐이다.

또한 자칭의 의미로는 흔히 《자신》, 《자체》를 쓰고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이기때문에 이것이 비록 돌이켜가리키는 기능을 수행하여도 이것을 가지고 자칭대명사의 범주를 설정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스스로, 손수, 저절로, 친히, 제가끔》 등도 돌이켜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있으나 이 단어들은 대상을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에 부사의 부류에 넣게 된다.

(2) 2인칭대명사

2인칭대명사도 1인칭대명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칭상의 구분이 있다. 웃사람에 대해서 《당신》, 대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네, 그대》가 쓰이며 아래사람에게는 《너》가 쓰인다.

그런데 오늘날 《자네》의 경우에는 그 사용빈도수가 낮으며 간혹 년로한 계층이 더러 쓰는 일이 있다.

○ 그 일은 자네가 맡아서 하게나.

2인칭대명사인 《그대》는 그 력사가 오랜것으로서 중세국문문헌에 《그디》로 나오고있다.

○ 그디 子息 업더니 므슷 罪오(《월인석보》 1권 7장)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입말에서 쓰이는 일이 없으며 흔히 글말에서 편지나 문예작품의 경우에 쓰이고있다.

○ 그대가 보내준 문안편지를 어제야 뒤늦게·받아보았습니다.

○ 그대의 사랑은 따사로웁고 그대의 기발은 찬란하여라

(3) 3인칭대명사

3인칭대명사인 《그》는 중세국문문헌에서 《긔》로 나오고있으며 《저》는 《뎌》로 나오고있다.

○ 긔 아니 어리시니 긔 아니 올ᄒᆞ시니(《룡비어천가》 39장)

○ 뎌ᄂᆞᆫ 漢人이니(《로걸대언해》 하권 3장)

그리고 《이》는 지시대명사 《이》에서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3인칭대명사로는 아직 정립되여있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2)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여러가지 대상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지시대명사는 거리관계와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다시 몇개 부류로 나눌수 있다.

거리 / 대상	가까운것	먼것	화제에 오른것
일반적	이	저	그
장소	여기	저기	거기

지시대명사는 말하는 사람과 그가 가리키는 거리에 따라 《이, 저, 그》로 나누며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여기, 저기, 거기》를 구분한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예로부터 지시대명사로 《이, 그, 뎌》가 쓰이였으며 장소를 가리키는 경우에 거기에 《어긔》를 덧붙이였다.

○ 此ᄂᆞᆫ 이라(《훈민정음언해》)

○ 그 일후믄 닐오(《릉엄경언해》 1권 27장)

○ 이 곧 뎌 고대 後ㅿ날 다ᄅᆞ리잇가(《룡비어천가》 26장)

○ 이어긔 뎌러ᄫᅮ미 업서(《월인석보》 17권 67장)

○ 그어긔 쇠 하아 쇼로 쳔 사마 홍졍ᄒᆞᄂᆞ니라(《월인석보》 1권 24장)

그러나 초기중세국문문헌에 《뎌어긔》는 나오지 않으며 후기문헌에 《뎌긔》가 나오고있을뿐이다.

○ 우리 뎌긔 우믈은 다 돌로 무은거시라(《로걸대언해》 상권 32장)

이것은 력사적으로 《뎌긔〉저기》가 《여기, 거기》에 비하여 후기적발생임을 말해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시대명사는 격토나 도움토를 취하면서 단독으로 주어나 객어, 보어로 쓰이여 일정한 대상의 명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 저기가 바로 조선의 명산 금강산입니다.

○ 동무들, 여기를 보십시오.

○ 나도 곧 거기로 가겠습니다.

○ 조직의 비밀—이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지시대명사 《이, 저, 그》는 속격토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규정어로 쓰임으로써 마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이 사람이 바로 이름난 혁신자랍니다.

○ 우뚝 서있는 저 고층건물이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입니다.

지시대명사는 수범주를 가질수 있으므로 복수토 《들》을 취할수 있다. 이 경우에 《이, 저, 그》를 인칭대명사 3인칭의 용법으로 볼수도 있어 그것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바로 이들이 최우등생들이랍니다.

○ 우리는 농촌으로 지원해가는 그들을 열렬히 환송하였다.

《여기, 저기, 거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수범주를 가질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복수토 《들》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인물이 복수임을 나타내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 자, 여기들 앉으시오.

지시대명사 《이, 저, 그》는 인물, 사물, 시간, 방향,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불완전명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일이 많다.

○ 이: 이이, 저이, 그이

○ 분: 이분, 저분, 그분

○ 것: 이것, 저것, 그것

○ 제: 이제, 저제, 그제

○ 때: 이때, 저때, 그때

○ 편: 이편, 저편, 그편

○ 쪽: 이쪽, 저쪽, 그쪽

3)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는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의문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몇가지 부류로 나눈다.

인물	누구, 아무
사물	무엇
수량	몇, 얼마
장소	어디
시간	언제

의문대명사는 격토나 도움토를 취하면서 주어, 객어, 보어, 술어로 될수

있다. 그런데 《누구》의 주격형태는 《누가》*로 된다.

○ 오늘 누가 강연에 출연하시겠습니까?

○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경연에 나가겠소?

○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 학기말시험의 시작날자는 언제입니까?

*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누구》의 주격형태는 《뉘》였다.

○ 뉘 이 나ᄅᆞᆯ 기리ᄉᆞᆸ 사ᄅᆞᆷ고(《두시언해》 6권 2장)

《뉘》는 《누》에 주격토 《ㅣ》가 결합한것인데 그후 주격토 《가》가 《ㅣ》를 대신하게 되면서 《누가》로 되였다.

•의문대명사는 수범주를 가지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복수토 《들》을 취하는 일이 없으나 간혹 복수토 《들》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인물이 복수임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 지금 어디들 가십니까?

○ 여직껏 여기서 무엇들 하고있소?

《웬, 무슨, 어느》 등은 어휘-의미적표식에서는 의문의 뜻이 있어 의문대명사에 소속시킬수도 있으나 문법적표식의 견지에서는 그 어떤 격토도 취할수 없으며 따라서 문장에서 주어, 객어, 보어, 술어로 되는 일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이것들은 관형사로 처리하게 된다.

제 3 장. 용 언

제 1 절. 동 사

1. 동사의 개념

동사란 대상의 행동을 표현하는것으로서 용언의 대표적인 품사이다. 동사는 용언의 문법적표식을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어 체언의 대표적인 품사인 명사와 직접적으로 대치되고있다.

○ 가다, 오다, 먹다, 만들다, 연구하다, 건설하다, 조직하다…

동사의 본질적특성인 행동성은 어휘-문법적으로 리해하는것으로서 어휘-의미적으로는 단순히 행동뿐만아니라 과정, 상태, 속성의 변화, 태도 등을 의미하는 단어도 그 문법적특성으로 말미암아 동사에 소속시키게 된다.

○ 진화하다, 발전하다(과정)

○ 자다, 살다, 모순되다(상태의 지속)

○ 자라다, 썩다, 삭다(속성의 변화)

○ 존경하다, 기뻐하다, 사랑하다, 슬퍼하다(태도)

동사의 본질적특성은 풍부한 문법적형태를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첫째로, 동사는 서술성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용언으로서 1차적으로 존칭, 시칭, 겸양, 법, 식, 계칭의 문법적범주를 가지며 직접 종결형, 접속형, 상황형, 규정형 등 서술형태를 취할수 있다.

○ 가 시 였 습 니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말뿌리, ② 존칭토, ③ 시칭토, ④ 겸양토, ⑤ 법토, ⑥ 식토

○ 간다, 갑니다(종결형)

가고, 가며(접속형)

가게, 갈수록(상황형)

가는, 갈(규정형)

둘째로, 동사는 상범주를 가지고있는 점에서 형용사와 구별된다.

○ 먹다-먹히다-먹이다

○ 발전하다-발전되다-발전시키다

상범주는 동사와 고유한 어휘-문법적범주로서 상접사가 형용사의 말뿌리에 첨가되면 그것은 이미 형용사이기를 그만두고 동사로 넘어간것으로 된다. 이처럼 상접사는 단어조성적기능도 놀게 되므로 그것을 동사의 고유한 어휘-문법적접사라고 하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순수한 문법적형태소인 토와 구별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토》라고 하지 않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 높다(형용사)→높이다(동사)

○ 붉다(형용사)→붉히다(동사)

셋째로, 동사는 규정어와 결합하지 못하고 상황어와만 결합할수 있다.

○ 말이 빨리 달린다.

○ 학생들이 열심히 학습한다.

넷째로, 동사는 1차적으로 격토를 취하지 못하고 용언대상형*을 거쳐서만 격토를 취할수 있다.

○ 일하기가 너무나 흥겹기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을 몰랐다.

* 이와 관련해서는 제3편 《형태론》 제1장 제1절 《대상적형태와 서술적형태》를 참고할것.

2. 동사의 부류

동사는 행동의 전이성 여부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며 그 쓰임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눈다.

1)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행동의 전이성 여부이다. 다시말하여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일정한 대상에 전이되는가 안되는가 하는데 따르는 구분인것이다. 즉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그 어떤 대상에 미치지 않고 스스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동사를 비전이성동사 또는 자동사라고 하며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객체로 되는 대상에 미치는 경우에 그 동사를 전이성동사 또는 타동사라고 한다.

비전이성 즉 자동성은 문장에 행동의 객체로 되는 대상이 없으므로 자동사술어로 표현된 행동은 오직 주어와만 관계를 맺게 된다.

○ 아침해가 솟는다.

○ 눈이 내린다.

한편 전이성 즉 타동성은 직접객체가 없이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문장에서 타동사술어로 표현된 행동은 직접적으로 객체 즉 객어와 관계를 맺게 된다.

○ 용해공들이 쇠물을 뽑는다.

○ 건설자들이 언제를 쌓는다.

이처럼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기본기준은 행동의 직접객체 즉 객어의 존재여부와 관련되여있다.

(1) 자동사

자동사는 현실적으로 행동의 직접객체를 요구하지 않는 동사로서 주체의 위치이동, 자연현상, 육체적 및 정신적상태 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속하며 또한 현실적으로는 그 행동의 직접객체를 가지면서도 그것이 보어로 나타나기때문에 문법적으로 객어를 가진다고 할수 없는 동사들도 여기에 속하게 된다.

① 현실적으로 직접객체를 요구하지 않는 자동사

○ 위치이동: 가다, 오다, 날다, 뛰다, 걷다, 오르다, 내리다, 앉다, 서다, 눕다

○ 자연현상: 가물다, 흐리다, 얼다, 피다, 늘다, 줄다, 녹다, 여물다, 익다

○ 육체적 및 정신적상태: 자다, 곯다, 설레다

② 현실적으로 직접객체를 가지지만 그것이 보어로 나타나기때문에 문법적견지에서는 객어를 가진다고 할수 없는 자동사

○ 의거하다(조직에 ~), 부딪치다(난관에 ~),
기대다(기둥에 ~), 마주치다(친구와 ~)

③ 상접사가 붙어서 타동사에서 파생된 자동사

○ 보이다(← 보다), 들리다(← 듣다), 쫓기다(← 쫓다)

④ 주체의 행동의 위치이동을 나타내면서 객어를 가질수도 있는 자동사

○ 집으로 떠나다./집을 떠나다.
벌판으로 달리다./벌판을 달리다.

⑤ 같은 말뿌리의 명사나 같은 계렬의 의미를 가진 명사(객어)와 성구론

적으로 결합할수 있는 자동사

○ (웃음을) 웃다, (울음을) 울다, (잠을) 자다,
(걸음을) 걷다, (세상을) 살다, (말을) 묻다

그러나 이와 꼭 같은 구조를 가질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객어를 요구하는 동사라면 그것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인것만큼 이 부류에서 제외한다.

○ 꿈을 꾸다, 춤을 추다, 짐을 지다, 그림을 그리다

⑥ 현실적으로 객어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문장에 나타낼수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수도 있는 자동사

○ 이기다
어제 우리 선수가 이겼다.
어제 우리 선수가 그들을 이겼다.

○ 앓다
그는 오래동안 앓았다.
그는 오래동안 귀를 앓았다.

○ 쉬다
그는 잠시 쉬였다.
그는 일하다가 잠시 머리를 쉬였다.

(2) 타동사

타동사는 현실적으로 행동의 직접객체를 요구하는 동사를 말한다. 그러나 타동사에는 현실적으로 행동의 직접객체를 가지는 동사만 속하는것이 아니라 실제상 직접객체를 가지지 못하면서도 대격형태(또는 절대격형태)로 된 객어를 가지는것도 타동사에 속한다.

① 현실적으로 직접객체를 가지는 타동사

○ (나무를) 심다, (밥을) 먹다, (돌을) 던지다,
(엿을) 빨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② 현실적으로는 직접객체가 아니지만 객어를 가지는 타동사

○ (우물을) 파다, (집을) 짓다, (책상을) 만들다
(편지를) 쓰다 [그 결과에 대상자체가 만들어지는 행동]

○ (아픔을) 느끼다, (냄새를) 맡다, (소리를) 듣다,
(바다를) 바라보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

○ (진리를) 깨닫다, (이름을) 기억하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③ 직접객체를 객어로 나타낼수도 있고 보어로 나타낼수도 있는 타동사

○ 전차를 타다/전차에 타다, 그를 만나다/그와 만나다, 그 의견을 찬성하다/그 의견에 찬성하다

④ 자동사에 상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타동사

○ 녹이다(← 녹+이+다), 울리다(← 울+리+다),
눕히다(← 눕+히+다), 벗기다(← 벗+기+다)

⑤ 직접객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와 가지는 경우에 다 쓰이는 타동사

○ 움직이다: 바위가 움직이다/바위를 움직이다
깨다: 잠이 깨다/잠을 깨다
멈추다: 전차가 멈추다/전차를 멈추다
그치다: 눈물이 그치다/눈물을 그치다

이러한 동사들은 일종의 중립동사라고 할수 있다.

2) 불완전동사

대부분의 동사는 토를 취하는데서 제한이 없으나 일부 동사는 토를 취하는데서 제한을 받고 몇몇 토와만 결합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동사를 불완전동사라고 한다.

○ 누님은 어린 동생을 학교에 데리고 갔다.
○ 시골에서 외롭게 지내던 봉녀를 집에 데려왔다.
× 나는 봉녀를 집에 데린다.
× 봉녀를 집에 데려라.

이처럼 《데리다》는 토 《-고》, 《-어》와만 결합할수 있고 다른 토와는 결합할수 없다.*

* 《데리다》는 중세국문문헌에서 《드리다》로 나오는데 그때는 토와의 제한성이 없었던것으로 보아 본래부터 불완전동사였던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 네 사ᄅᆞᆷ 드리샤(《룡비어천가》 58장)
  ○ 五百弟子 드려 겨샤(《월인석보》 8권 89장)
  ○ 드릴 령領(《류합》 하권 8장)

토와의 결합에서 제한성을 가지는 불완전동사에는 《관하다, 위하다, 대하다, 즈음하다》 등도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완전동사들은 일정한 격형태의 명사나 용언대상형과 결합하여 접속형 또는 규정형으로 쓰이는 경우에 형용사와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일정한 보조적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관하다-관하여, 관한
○ 그는 국제정세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
○ 건설전망에 관한 기사장의 토론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위하다-위하여, 위한
○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다.
○ 조국을 지키기 위한 성전에 모두다 떨쳐나섰다.

대하다-대하여, 대한
○ 우리는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 그 문제에 대한 토의는 시간가는줄 모르게 진행되였다.

즈음하다-즈음하여, 즈음한
○ 대학창립 30돐에 즈음한 축하공연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그리고 《말미암다, 더불다》는 《말미암아/말미암은, 더불어》의 극히 제

한된 형태로만 쓰이고있다.
○ 기후조건으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뜰수 없었다.
○ 그것은 노력으로 말미암은 열매이다.
○ 그날 순이는 분이와 더불어 함께 도서관으로 갔었다.

3) 자립동사와 보조동사

절대다수의 동사들은 자립적의미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쓰이지만 간혹 일부 동사들은 보조적으로만 쓰이며 또 어떤 동사들은 다른 동사와 함께 하나의 문장성분을 이루면서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1) 자립동사의 보조적사용

일부 동사들은 다른 동사에 붙어서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동사의 보조적결합이라고 한다.

○ 가다
우리는 학교에 간다. (자립적의미)
하루하루 일감이 늘어간다. (보조적의미=행동의 진행)
○ 가지다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싸운다. (자립적의미)
그 책을 다 읽어가지고 오너라. (보조적의미=행동의 완료와 그 상태의 지속)
○ 나다
올해 정당 논벼가 10t이 났다. (자립적의미)
그들은 잠시 쉬고나서. 다시 작업에 착수하였다. (보조적의미=행동의 완료)
○ 놓다
책상우에 원주필을 놓고 왔다. (자립적의미)
걸린 문제를 제기해놓고 해결방도를 토의하였다. (보조적의미=행동의 대상)
○ 내다
논밭에 거름을 더많이 내자. (자립적의미)
눈서리를 이겨낸 푸른 소나무. (보조적의미=행동의 완료)
○ 하다
일을 빨리 하여 준공기일을 앞당깁시다. (자립적의미)
이만한 곤난으로 하여 주저앉을수 없다. (보조적의미=원인)

(2) 보조동사

국어에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보조적으로만 쓰이는 동사로서 《말다》*와 《싶다》가 있다.

* 력사적으로 보면 《말다》는 본래 자립동사였다.
  ○ 廢는 말씨오(《월인석보》 서 17장)

○ 止ᄂᆞᆫ <u>마ᄂᆞ다</u> ᄒᆞᄂᆞᆫ ᄠᅳ디라(《석보상절》 서 4장)
동사 《말다》는 행동의 끝마침의 뜻을 나타내던것인데 그 의미가 점차 추상화되면서 보조적으로 쓰이게 되였다.

○ 머리 세ᄃᆞ록 서르 ᄇᆞ리지 <u>마져</u> ᄒᆞ더라(《두시언해》 16권 18장)

《말다》는 자립동사에 붙어서 금지 또는 중단의 양태적의미를 담당하거나 긍정과 부정의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성구적결합의 한 구성부분으로까지 되였다.

○ 학습시간에 졸지 <u>말아라</u>.

○ 누가 보건<u>말건</u> 그는 성실하게 일하였다.

한편 《싶다》의 경우는 《말다》와 사정이 다르다. 즉 그것은 력사적으로 자립적으로 쓰인 일이 없었기때문이다.

○ 음식을 먹고 <u>시븐</u> ᄆᆞ음이 업서(《태평광기》 1권 49장)

○ ᄂᆡ일은 天氣 됴ᄒᆞᆯ가 <u>시브다</u>(《첩해신어》 6권 13장)

이처럼 《시브다》는 본래부터 욕망과 추측의 양태적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였던 보조동사였다.

오늘날 국어에서 《싶다》는 자립동사의 여러가지 형태와 결합할뿐아니라 형용사나 불완전명사와도 결합하여 다양한 양태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가<u>싶어</u> 라지오결을 떠나지 않았다.(기대)

○ 이 일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가<u>싶었다</u>.(희망)

○ 언제 그 일이 있더냐<u>싶게</u> 아닌보살을 하였다.(추정)

○ 붉은 해가 바다우에 뜨는상<u>싶었다</u>.(가정)

3. 동사의 조성

1) 합침법

(1) 명사+동사

① 고유어명사+하다

○ 걱정하다, 겨냥하다, 귀뜀하다, 눈짓하다, 다짐하다, 되풀이하다, 멀미하다, 벌이하다, 손짓하다, 헛걸음하다

② 한자어명사+하다, 되다

○ 가공하다, 각성하다, 간주하다, 건설하다, 고려하다, 단련하다, 도착하다, 독서하다, 련락하다, 론증하다, 명령하다, 명심하다, 발달하다, 방송하다, 복종하다, 배격하다, 성공하다, 자립하다, 장악하다, 창조하다, 표창하다, 학습하다, 혁명하다, 완수하다

《가공하다, 각성하다, 간주하다, 건설하다》와 같은 《-하다》동사는 《가공되다, 각성되다…》 등과 같이 《-되다》동사로 될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하다》동사의 경우에는 《-되다》형을 파생시키지 않는데 그러한 동사는 다음과 같다.

× 가장되다, 각오되다, 간섭되다, 강습되다, 격전되다, 경탄되다, 노력되다, 담화되다, 담당되다, 독창되다, 랑독되다, 명심되다, 맹세되다, 자립되다, 표창되다

③ 명사+기타동사

○ 그늘지다, 장마지다, 허기지다, 아롱지다, 얼룩지다

○ 눈보라치다, 고함치다, 도망치다, 폭풍치다, 소리치다

○ 걷잡다, 결들다, 동나다, 동트다, 빛나다, 앞지르다

(2) 동사+동사

○ 가라앉다, 감돌다, 굶주리다, 나서다, 넘나들다, 넘보다, 내가다, 내놓다, 내닫다, 내던지다, 내두르다, 내리긋다, 내리깎다, 내몰다, 내빼다, 내뿜다, 돌보다, 밀막다, 매달다, 발가벗다, 보살피다, 지나가다, 꿰매다, 뛰놀다, 얽매다

(3) 형용사+동사

○ 낮보다, 낮잡다, 늦되다, 늦잡다, 얕보다, 얕잡다, 무르녹다, 무르익다

(4) 부사+동사

○ 가로막다, 가로채다, 그릇되다, 바로잡다, 막되다, 막깎다, 어긋나다, 어긋매기다

○ 구깃구깃하다, 구불구불하다, 기웃기웃하다, 바스락바스락하다

2) 접사법

(1) 앞붙임법

덧: 《본래 있는 우에 더》라는 뜻을 나타낸다.

○ 덧나다, 덧대다, 덧보태다, 덧붙다

들: 《매우, 몹시, 함부로, 마구, 온통》의 뜻을 나타낸다.

○ 들날리다, 들놀리다, 들볶다, 들부시다, 들끓다, 들떠들다, 들쑤시다, 들엉키다

들이: 《매우, 몹시, 함부로, 마구, 안쪽으로》 등의 뜻을 나타낸다.

○ 들이닥치다, 들이대다, 들이받다, 들이퍼붓다, 들이쌓이다, 들이마시다, 들이끼우다

데: 《불완전하게, 불충분하게, 부정확하게》의 뜻을 나타낸다.

○ 데되다, 데삶다, 데생기다, 데익다

되: 《도로, 다시, 거듭》의 뜻으로 쓰인다.

○ 되가지다, 되넘기다, 되돌아서다, 되살리다, 되새기다

뒤: 《뒤로, 뒤에서, 몹시, 함부로, 온통》의 뜻으로 쓰인다.

○ 뒤넘다, 뒤서다, 뒤놀다, 뒤섞다, 뒤끓다, 뒤덮다

맞: 《마주, 상대하여, 직접》의 뜻으로 쓰인다.

○ 맞닿다, 맞당기다, 맞들다, 맞대다, 맞붙다, 맞바꾸다

○ 止는 마ᄂᆞ다 ᄒᆞᄂᆞᆫ ᄠᅳ디라(《석보상절》 서 4장)
동사 《말다》는 행동의 끝마침의 뜻을 나타내던것인데 그 의미가 점차 추상화되면서 보조적으로 쓰이게 되였다.
○ 머리 셰ᄃᆞ록 서르 ᄇᆞ리지 마져 ᄒᆞ더라(《두시언해》 16권 18장)

《말다》는 자립동사에 붙어서 금지 또는 중단의 양태적의미를 담당하거나 긍정과 부정의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성구적결합의 한 구성부분으로까지 되였다.

○ 학습시간에 졸지 말아라.
○ 누가 보건말건 그는 성실하게 일하였다.

한편 《싶다》의 경우는 《말다》와 사정이 다르다. 즉 그것은 력사적으로 자립적으로 쓰인 일이 없었기때문이다.

○ 음식을 먹고 시븐 ᄆᆞᅀᆞᆷ이 업서(《태평광기》 1권 49장)
○ ᄂᆡ일은 天氣 됴ᄒᆞᆯ가 시브다(《첩해신어》 6권 13장)

이처럼 《시브다》는 본래부터 욕망과 추측의 양태적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였던 보조동사였다.

오늘날 국어에서 《싶다》는 자립동사의 여러가지 형태와 결합할뿐아니라 형용사나 불완전명사와도 결합하여 다양한 양태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가싶어 라지오곁을 떠나지 않았다. (기대)
○ 이 일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가싶었다. (희망)
○ 언제 그 일이 있더냐싶게 아닌보살을 하였다. (추정)
○ 붉은 해가 바다우에 뜨는상싶었다. (가정)

3. 동사의 조성

1) 합침법

(1) 명사+동사

① 고유어명사+하다

○ 걱정하다, 겨냥하다, 귀뜀하다, 눈짓하다, 다짐하다, 되풀이하다, 멀미하다, 벌이하다, 손짓하다, 헛걸음하다

② 한자어명사+하다, 되다

○ 가공하다, 각성하다, 간주하다, 건설하다, 고려하다, 단련하다, 도착하다, 독서하다, 련락하다, 론증하다, 명령하다, 명심하다, 발달하다, 방송하다, 복종하다, 배격하다, 성공하다, 자립하다, 장악하다, 창조하다, 표창하다, 학습하다, 혁명하다, 완수하다

《가공하다, 각성하다, 간주하다, 건설하다》와 같은 《-하다》동사는 《가공되다, 각성되다…》 등과 같이 《-되다》동사로 될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하다》동사의 경우에는 《-되다》형을 파생시키지 않는

데 그러한 동사는 다음과 같다.

× 가장되다, 각오되다, 간섭되다, 강습되다, 격전되다, 경란되다, 노력되다, 담화되다, 담당되다, 독창되다, 랑독되다, 명심되다, 맹세되다, 자립되다, 표창되다

③ 명사+기타동사

○ 그늘지다, 장마지다, 허기지다, 아롱지다, 얼룩지다
○ 눈보라치다, 고함치다, 도망치다, 폭풍치다, 소리치다
○ 겉잡다, 곁들다, 동나다, 동트다, 빛나다, 앞지르다

(2) 동사+동사

○ 가라앉다, 감돌다, 굶주리다, 나서다, 넘나들다, 넘보다, 내가다, 내놓다, 내닫다, 내던지다, 내두르다, 내리긋다, 내리깎다, 내몰다, 내빼다, 내뿜다, 돌보다, 밀막다, 매달다, 발가벗다, 보살피다, 지나가다, 꿰매다, 뒤놀다, 얽매다

(3) 형용사+동사

○ 낮보다, 낮잡다, 늦되다, 늦잡다, 얕보다, 얕잡다, 무르녹다, 무르익다

(4) 부사+동사

○ 가로막다, 가로채다, 그릇되다, 바로잡다, 막되다, 막깎다, 어긋나다, 어긋매기다
○ 구깃구깃하다, 구불구불하다, 기웃기웃하다, 바스락바스락하다

2) 접사법

(1) 앞붙임법

덧: 《본래 있는 우에 더》라는 뜻을 나타낸다.
○ 덧나다, 덧대다, 덧보태다, 덧붙다

들: 《매우, 몹시, 함부로, 마구, 온통》의 뜻을 나타낸다.
○ 들날리다, 들놀리다, 들볶다, 들부시다, 들끓다, 들떠들다, 들쑤시다, 들엉키다

들이: 《매우, 몹시, 함부로, 마구, 안쪽으로》 등의 뜻을 나타낸다.
○ 들이닥치다, 들이대다, 들이받다, 들이퍼붓다, 들이쌓이다, 들이마시다, 들이끼우다

데: 《불완전하게, 불충분하게, 부정확하게》의 뜻을 나타낸다.
○ 데되다, 데삶다, 데생기다, 데익다

되: 《도로, 다시, 거듭》의 뜻으로 쓰인다.
○ 되가지다, 되넘기다, 되돌아서다, 되살리다, 되새기다

뒤: 《뒤로, 뒤에서, 몹시, 함부로, 온통》의 뜻으로 쓰인다.
○ 뒤넘다, 뒤서다, 뒤놀다, 뒤섞다, 뒤끓다, 뒤덮다

맞: 《마주, 상대하여, 직접》의 뜻으로 쓰인다.
○ 맞닿다, 맞당기다, 맞들다, 맞대다, 맞붙다, 맞바꾸다

빗: 《비뚜로, 잘못》의 뜻으로 쓰인다.
○ 빗나가다, 빗디디다, 빗맞다, 빗보다, 빗지르다
설: 《익지 않게, 설게, 서투르게》의 뜻으로 쓰인다.
○ 설익다, 설삶다, 설데치다, 설다치다
짓: 《함부로, 몹시, 세게》의 뜻으로 쓰인다.
○ 짓구기다, 짓누르다, 짓마스다, 짓밟다, 짓부시다
처: 《몹시, 마구, 단꺼번에 많이》의 뜻으로 쓰인다.
○ 처넣다, 처먹다, 처박다, 처지르다
치: 《우로 향하여, 우로 올라가게》의 뜻으로 쓰인다.
○ 치감다, 치닫다, 치몰다, 치밀다, 치솟다
헛: 《잘못, 실속없이》의 뜻으로 쓰인다.
○ 헛놓다, 헛돌다, 헛디디다, 헛맞다, 헛보다, 헛잡다
휘: 《마구, 바쁘게, 온통》의 뜻으로 쓰인다.
○ 휘감다, 휘날리다, 휘돌다, 휘몰다, 휩쓸다*

* 본래 《쓸다》는 중세어에서 《뿔다》였기때문에 그 잔재로 《ㅂ》가 발음되고있는것이다.
○ 믈 쁘려 뿔며(《월인석보》 21권 94장)

엇: 《비뚜로, 어긋나게, 서로》의 뜻으로 쓰인다.
○ 엇가다, 엇나가다, 엇대다, 엇매다, 엇서다, 엇바꾸다

(2) 뒤붙임법
거리: 모든 상징부사 뒤에 붙어서 행동의 반복을 나타낸다.
○ 기웃거리다, 너분적거리다, 넘실거리다, 달가닥거리다, 덜컥거리다, 부스럭거리다, 훌쩍거리다
대: 같은 행동을 강렬한 태도로 반복함을 나타낸다.
○ 내대다, 볶아대다, 웃어대다, 으르렁대다, 우겨대다, 싸대다
치: 동사말뿌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 내리치다, 돌아치다, 메여치다, 볶아치다, 밀치다, 떨치다, 후려치다, 깨치다

(3) 앞뒤붙임법
○ 휘몰아치다, 휘둘러치다

3) 품사전성법

일부 동사는 그와 말뿌리를 같이하는 명사로부터 단어조성적요소의 첨가없이 직접 동사로 되였다.
○ 누비→ 누비다, 되→ 되다, 배→ 배다, 신→ 신다, 띠→ 띠다

4) 어음전환법

(1)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
○ 녹다→ 눅다, 졸다→ 줄다, 좇다→ 쫓다, 지르다→ 찌르다, 피다→ 패다

(2) 의미적색채만 달라진 경우
○ 두드러지다→도드라지다
반득이다→번득이다, 빈둥거리다→밴둥거리다
수군거리다→소곤거리다→쑤군거리다→쏘곤거리다
중얼거리다→종알거리다, 꾸부러지다→꼬부라지다

제 2 절. 형 용 사

1. 형용사의 개념

형용사란 대상의 각종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로서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한다.

형용사에는 여러가지 감각적특징과 심리상태, 사물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속한다.
○ 붉다, 검다, 푸르다, 희다, 밝다, 어둡다 (시각)
○ 조용하다, 요란하다, 우렁차다, 시끄럽다 (청각)
○ 달다, 쓰다, 짜다, 맵다, 싱겁다 (미각)
○ 구수하다, 향기롭다, 구리다, 매캐하다 (후각)
○ 아프다, 쓰리다, 덥다, 춥다, 매끄럽다, 미끈하다 (촉각)
○ 성실하다, 대담하다, 부지런하다, 엄격하다, 슬기롭다 (성격)
○ 질기다, 약하다, 강하다, 굳다, 무르다 (질)
○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얕다, 깊다, 넓다, 좁다(공간)
○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해롭다, 유익하다 (평가)

형용사의 특수한 부류로서 대상의 성질에 대한 지시나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
○ 이러하다(이렇다), 저러하다(저렇다), 그러하다(그렇다)
이만하다, 저만하다, 그만하다, 이러루하다, 저러루하다, 그러루하다(지시)
○ 어떠하다(어떻다), 아무러하다(아무렇다), 여하하다(의문)

2. 특징적인 형용사조성수법

현대국어의 형용사가운데는 말줄기의 끝소리가 《ㅂ》로 되여있는것이 아주 많다.
○ 좁다, 굽다, 곱다, 밉다, 춥다, 덥다, 두렵다, 싱겁다, 우습다, 괴롭다, 아름답다 …

그런데 말줄기의 끝소리가 《ㅂ》로 되여있는 형용사가운데서 《좁다, 굽

다》 등은 말줄기에서 음운교체가 없는 반면에 《곱다, 밉다》는 말줄기에서 《ㅂ/ㅜ》의 음운교체를 하고있다.

○ 좁다, 좁고, 좁으니, 좁은 …

○ 굽다, 굽고, 굽으니, 굽은 …

○ 곱다, 곱고, 고우니, 고운 …

○ 밉다, 밉고, 미우니, 미운 …

그리하여 《좁다, 굽다》의 부류와 《곱다, 밉다》의 부류는 현대어에서 말줄기의 끝소리가 음운교체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말줄기의 끝소리가 같은 《ㅂ》로 되여있으나 력사적으로는 그 기원과 발전과정이 서로 달랐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 깃거 부텻 알ᄑᆡ 굽거늘 … 부톄 구브샤 바리로 바다시ᄂᆞᆯ(《석보상절》 24권 8장)

○ 아기 아ᄃᆞ리 양지 곱거늘 …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ᄫᆞᆫ ᄯᆞᆯ 얻니노라 ᄒᆞ야(《석보상절》 6권 14장)

우의 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굽거늘/구브샤》는 말줄기가 《구ㅂ~》으로서 음운교체가 없으나 《곱거늘/고ᄫᆞᆫ》은 말줄기가 《고ㅂ~/고ㅸ~》으로서 그 끝소리는 《ㅂ/ㅸ》로 교체를 하고있다. 《ㅂ/ㅸ》의 음운교체는 《ㅸ》의 변화에 의하여 그후 《ㅂ/ㅜ(ㅗ)》의 음운교체로 바뀌여 오늘에 이르고있는데 《그립다, 아름답다》도 《곱다》와 마찬가지로 말줄기에서 이러한 음운교체를 하고있다.

《굽다》부류와 《곱다》부류의 형용사가 다같이 《ㅂ》를 말줄기의 끝소리로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운교체의 유무에 의하여 이렇듯 구별되는것은 그 어떤 《우연적》인것으로는 설명할수 없는 일정한 력사적요인과 관련되여있음이 명백하다.

만약에 《굽~》이나 《곱~》에서 말줄기의 끝소리 《ㅂ》가 력사적으로 동질적인것이였다면 중세국문문헌에서 이렇듯 달리 표기될수는 없었을것이다.

그러면 현대어의 형용사가운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곱다》부류의 형용사는 어찌하여 이런 음운교체를 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력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전에 《많은 형용사의 〈ㅂ〉발음도 결국 〈답〉과의 관례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답》이나 《ㅂ》 등의 접사는 본래 《다ᄫᆡ》에서 유래하는것이고 《다ᄫᆡ》는 바로 《되다》의 고어인 《ᄃᆞᄫᆡ》와 동일한 어원의 말임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다.*

* 《조선어력사문법》(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 218페지

중세국문문헌을 보면 《ᄃᆞᄫᆡ다(ᄃᆞ외다)》가 명사말뿌리에 직접 붙어서 형용사를 만드는데 쓰이고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艱難ᄒᆞ고 언극ᄃᆞᄫᆡ야(《석보상절》 13권 56장)

○ 擧動이 妄量ᄃᆞᄫᆡ오(《월인석보》 2권 11장)

○ 辱ᄃᆞ왼 境이(《금강경언해》 상권 79장)

이 경우에 《ᄃᆞᄫᆡ다(ᄃᆞ외다)》는 본래의 동사적인 어휘적의미가 일정하게 추상화되여있다. 《언극ᄃᆞᄫᆡ야》는 《언극되여》 즉 《궁하여》의 뜻인데 이때 어떤 대상이 전성된 결과를 예견하는 의미는 없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辱ᄃᆞ왼》의 경우에도 어원상으로는 《욕이 된》이겠으나 그것이 《치욕스러운》의 뜻으로 되면서부터는 거기에는 전성적인 행동적의미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보다는 오히려 상태나 성질의 의미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것은 《妄量ᄃᆞᄫᆡ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면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이 말들은 구조형태상 《명사말뿌리+동사》이지만 의미기능상 형용사적이여서 형태적으로는 동사적이고 의미적으로는 형용사적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ᄃᆞᄫᆡ다》가 동사인것만큼 그것이 명사말뿌리의 뒤에 붙어서 하나의 형용사로 되기는 하였지만 그 형태는 《~ᄃᆞᄫᆡᆫ, ~ᄃᆞᄫᆡ니, ~ᄃᆞᄫᆡ요미》 등으로 되여 본래의 동사적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용사의 동사화인것이 아니라 동사에 의한 형용사조성으로 설명해야 할것이다.

중세어에서 《~ᄃᆞᄫᆡ(ᄃᆞ외)~》에 의하여 조성된 형용사는 그 한 형태로서 《~ᄃᆞᆸ~》을 가지고있었다.

○ 샹녜 겨샤미 아니신가 疑心ᄃᆞᆸ거신마ᄅᆞᆫ(《법화경언해》 5권 135장)

○ 疑心ᄃᆞᄫᆡᆫ 고디 잇거든(《월인석보》 서문 20장)

○ 쥬변ᄃᆞᆸ고 또 쥬변ᄃᆞ외니(《금강경삼가해》 5권 34장)

《疑心ᄃᆞᆸ거신마ᄅᆞᆫ》은 《의심스러우시지만》의 뜻이며 《쥬변 ᄃᆞᆸ고》는 《자유롭고》의 뜻이다.

여기서 명백한바와 같이 형용사조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ᄃᆞᄫᆡ(ᄃᆞ외)~》는 일정한 조건에서 《~ᄃᆞᆸ~》으로 교체되는데 이 경우에 형용사말줄기는 《ㅂ/ㅸ》의 음운교체를 하게 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ᄃᆞᄫᆡ다(ᄃᆞ외다)》는 일정하게 추상화, 접사화의 과정을 밟고 형용사조성에 참가하여 그 말줄기구성에 들어가게 되면서 《답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에 《ᄃᆞᄫᆡ~》와 《ᄃᆞᆸ~》의 교체는 일정한 어음—형태론적조건에 의존하게 되는것만큼 이것들은 서로 다른것이 아니라 한 형태부의 두개 변종이라고 할수 있다.

중세어에서 《ᄃᆞᆸ(ᄃᆞㅸ)》은 형용사조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적말뿌리에 첨가되였다. 즉 명사에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에 닫긴마디로 된 명사적말뿌리에는 《ᄃᆞᆸ(ᄃᆞㅸ)》이 규칙적으로 붙게 되는데 당시에 이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쓰이였다.

○ 즐굽ᄃᆞᄫᆡᆫ ᄆᆞᅀᆞ미 다 스러디거늘(《석보상절》 6권 9장)

○ 一切有情을 利益ᄃᆞᄫᆡ며 安樂긔 ᄒᆞ라(《석보상절》 9권 41장)

《즐굽ᄃᆞᆸ다》는 《감기여 붙음》의 뜻인 《즐굽》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그로부터 파생된 동사는 《즐굽드리우다》이다. 《利益ᄃᆞᄫᆡ며》는 《리로우며》의 뜻인데 《리익되며》로도, 《리익다우며》로도 리해할수 있는 말로서 이 경우에는 아직 2중적이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형용사조성에서 《ᄃᆞᆸ》은 일부 경우에 《답》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 법답디 아니ᄒᆞᆫ 마ᄅᆞᆯ 니ᄅᆞ디 말라(《번역소학》 8권 11장)

○ 시름다ᄫᆞᆫ 이리 다와댓거든(《석보상절》 9권 8장)

《답》은 《ᄃᆞᆸ》의 변이형으로서 이것은 형용사조성의 뒤붙이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답》에 이르러 《ᄃᆞᆸ》의 2중성 즉 동사말뿌리의 성질과 뒤붙이의 성질에서 동사말뿌리적인 잔재는 없어지고 오직 뒤붙이적성격만을 지니게 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법답다》나 《시름답다》와 같이 《답》이 자립적으로 쓰이는 명사적말뿌리의 뒤에 붙어서 형용사를 조성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답다》류형의 형용사는 어원적으로는 례외없이 《명사적말뿌리+답다》인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미 어원망각이 된것도 일정하게 그 어원을 추정할수 있게 될것이다. 례를 들어서 《아름답다》의 경우에 그것은 오늘에 와서 어원을 밝힐수 없는것으로 되여버렸으나 뒤붙이 《답》이 닫긴마디인 명사적말뿌리에 첨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름》은 그자체가 어떤 명사임이 명백하다.

그러면 중세국문문헌자료에 근거하여 그것을 더듬어보기로 하자.

○ 허리 너ᄅᆞ기 세 아름이나 ᄒᆞ니(《박통사언해》 하권 31장)

○ ᄯᅩᄒᆞᆫ 아름답디 아니 ᄒᆞ랴(《오륜행실도》 2권 20장)

○ 美ᄂᆞᆫ 아름다ᄫᆞᆯ 씨니(《석보상절》 13권 19장)

《아름답다》는 명사 《아름》에 뒤붙이《답》을 첨가하여 조성한 형용사로서 《아름》의 뜻인 《抱》에는 《안다》, 《품에 끼다》라는 의미가 있다. 추측하건대 《아름답다》는 명사 《아름》의 이러한 의미와 일정한 련관을 가지고 파생된것으로 추측된다.

명사로부터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에 명사적말뿌리가 열린마디일 때에는 뒤붙이 《ᄅᆞᆸ》이 첨가된다.

○ 苦ᄅᆞᆸ고 苦ᄅᆞᄫᆡᆯ써(《석보상절》 24권 15장)

○ 阿蘭若ᄂᆞᆫ 겨르ᄅᆞᆸ고 寂靜ᄒᆞᆫ 處所ㅣ라 ᄒᆞᆫ ᄠᅳ디라(《월인석보》 7권 6장)

○ 뷘 겨르ᄅᆞᄫᆡᆫ 싸히어나(《석보상절》 19권 1장)

일부 경우에 《ᄅᆞᆸ》은 《롭》 또는 《랍》으로 쓰이기도 한다.

○ 서ᄅᆞ 보니 몃디위ᄅᆞᆯ 새ᄅᆞᆸ거뇨(《두시언해》 11권 2장)

○ ᄇᆞᆯᄀᆞ며 새롭도다(《두시언해》 7권 32장)

○ 棺이 녜라ᄫᆞᆫ ᄃᆞᆺ ᄒᆞ더시다(《석보상절》 23권 44장)

《새ᄅᆞᆸ다》와 《새롭다》는 같은 책에서 함께 쓰이고있지만 사실상 《새

롭다》는 《새ᄅᆞᆸ다》보다 후기적인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녜랍다》는 《옛》의 뜻인 《녜》에 《랍》이 붙은것으로서 《옛스럽다》의 의미인데 현대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명사적말뿌리의 개폐음절에 따라서 선택되는 《ᄃᆞᆸ》과 《ᄅᆞᆸ》은 일정한 어음론적과정에 의하여 산생된것으로서 이것은 국어발전의 력사적과정에 흔히 보게 되는 《ㄷ/ㄹ》교체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다. (례: 가닥 ~ 가락)

《ᄃᆞᆸ》이 모음아래에서 《ᄅᆞᆸ》으로 바뀌는것은 모음과 모음사이에 놓인 《ㄷ》가 유성음화되고 다시 유향음화된것으로서 이러한 교체가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자립적인 어휘적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추상화를 입어 완전히 접사화되였음을 말하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ᄃᆞᆸ》이 말뿌리형태부에 밀착하여 말줄기구성속에 들어감에 따라 생기게 되는 어음론적과정으로서 이것은 적극적인 접사화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는것이다.

중세어에서 명사로부터 파생된 이러한 류형의 형용사의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아ᄎᆞ→아ᄎᆞᄅᆞᆸ다

○ 샹녜→샹녜ᄅᆞᆸ다

○ 종요→종요ᄅᆞᆸ다

○ 神奇→神奇ᄅᆞᆸ다

○ 受苦→受苦ᄅᆞᆸ다

○ 외→외ᄅᆞᆸ다

중세어에서 명사로부터 형용사가 파생되는 경우에 그 뒤붙이로서는 《ᄃᆞᆸ》, 《ᄅᆞᆸ》만 리용된것이 아니였다.

○ 밠드의 두터ᄫᅳ시며(《월인석보》 2권 57장)

○ 빗보기 깁고 둗겁고 ᄇᆞ얌 서린ᄃᆞᆺ ᄒᆞ야(《월인석보》 2권 58장)

○ 목수미 므거ᄫᅳᆫ 거실ᄊᆡ(《석보상절》 6권 5장)

○ 客卿이 민첩ᄒᆞ고 슬겁더니(《내훈》 2권 34)

《두텁다》, 《둗겁다》, 《므겁다》, 《슬겁다》 등은 당시에 명사로 쓰이던 《두틔(《가례언해》 7권 23장)》, 《둗긔(《구급간이방》 1권 72장)》, 《므긔(《구급방》 상권 38장)》, 《슬긔(《부모은중경》 9장)》에서 전성된 형용사로서 그 조성기능은 《업》이 담당하고있었다. 이 명사들이 음성모음으로 된것만큼 모음조화에 의하여 《업》이 온것으로 인정되며 양성모음의 경우에는 응당 《압》이 첨가되여야 할것이다.

○ 輕은 가ᄫᆡ야ᄫᆞᆯ씨라(《훈민정음언해》)

《가ᄫᆡ얍다》는 《가ᄫᆡ》에 뒤붙이 《압》이 첨가된것인데 뒤붙이앞에 모음 《ㆍㅣ》가 온것으로 하여 《압》이 《얍》이 된것이다. 《가ᄫᆡ》는 《가옷(半)》과 동일기원의 명사로서 《중간》 또는 《절반》의 뜻으로 옛날에 쓰이였던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가ᄫᆡ얍다》는 《절반짜리 같다》의 뜻에서 《가볍다》의 뜻으로 전이된것으로 보인다.

결국 뒤붙이 《압》, 《업》은 형용사조성의 기능으로 보나 말줄기끝소리가 《ㅂ/ㅸ》로 교체되는 어음적특징으로 보나 《ᄃᆞᆸ》, 《ᄅᆞᆸ》과 동일한 기원의것으로 인정된다. 《압》, 《업》은 열린마디로 된 명사적말뿌리에 첨가되는 것으로 보아 《롭》, 《롭》, 《랍》 등에서 《ㄹ》이 약화, 빠진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이 명사적말뿌리와의 모음조화에 의하여 선택되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말뿌리와의 결합도가 상당히 높았던것으로 인정된다.

명사로부터 형용사를 파생시키는데 리용되였던 이 뒤붙이들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경우에도 리용되였다.

○ ᄆᆞᅀᆞ미 몰라 닶갑디 아니ᄒᆞ리니(《릉엄경언해》 10권 74장)

○ 錯亂ᄋᆞᆫ 어즈러ᄫᅳᆯ씨라(《월인석보》 9권 8장)

《닶갑다》는 《답답하다》의 뜻으로서 《닶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형용사이며 《어즈럽다》는 《어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형용사이다. 이 경우에 형용사의 조성은 뒤붙이 《압》과 《업》에 의하여 실현되고있다.

우리 말에서 동사로부터 파생된 이러한 류형의 형용사의 조성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반기다→반갑다

○ 즐기다→즐겁다

○ 믿다→미덥다

○ 마리다→마렵다

《압》, 《업》은 상징부사로부터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에도 리용되였는데 이것은 중세어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싹은 보이고있었다.

례를 들어서 《믯글믯글》이라는 상징부사는 거기에 《이》를 붙여 명사를 파생시키고(믯구리 泥鰍 《사성통해》 하권 69장)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에는 뒤붙이 《업》이 리용되였는데 그러한 용례는 중세국문문헌에 이미 나타나고있었다.

○ 믯그러운 돌히 기우렛ᄂᆞ니(《두시언해》 1권 3장)

이러한 형용사의 조성은 근대에 내려오면서 적극성을 띠게 되여 《징글징글》, 《간질간질》과 같은 상징부사에서 《징그럽다》, 《간지럽다》 등 많은 형용사가 생겨나게 되였다.

중세어에서는 형용사의 조성에서 《압》, 《업》이외에 《ㅂ》도 널리 리용되고있었다.

○ 기피 블그니도 ᄆᆡ히 ᄉᆞ랑ᄒᆞ오며 녀리 블그리도 ᄉᆞ랑ᄒᆞᆸ도다 (《두시언해》 18권 7장)

○ 怒ᄒᆞᄫᅳᆫ ᄆᆞᅀᆞᆷ 아니 내요리라(《월인석보》 7권 53장)

《ᄉᆞ랑ᄒᆞ다》에서 파생한 형용사 《ᄉᆞ랑ᄒᆞᆸ다》는 《사랑스럽다》의 뜻이며 《怒ᄒᆞ다》에서 파생한 《怒ᄒᆞᆸ다》는 《노엽다》로 바뀌였다. 이 류형의 형용사 역시 말줄기에서 《ㅂ/ㅸ》의 음운교체를 하는데 이 점에서 《ᄃᆞᆸ》, 《ᄅᆞᆸ》,

《압》, 《업》과 다를바가 없으며 형용사조성의 기능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ㅂ》 역시 《ᄃᆞᆸ》, 《ᄅᆞᆸ》, 《압》, 《업》과 같은 계렬에서 기원한 뒤붙이로 보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이 《ㅂ》는 형용사조성에서 그 사용범위가 넓은것이 주목된다. 이 뒤붙이는 《~ᄒᆞ다》형의 동사의 경우에만 쓰이는것이 아니라 다른 동사의 경우에도 리용되고있었다.

례를 들어서 《곱다》나 《덥다》의 경우에 그것은 처음부터 형용사였던 것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따지고보면 그 《ㅂ》가 바로 형용사조성의 뒤붙이인 것이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사랑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로 《괴다》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이다》로서 그 말뿌리에 《ㅂ》를 첨가하여 형용사화한 것이 바로 《곱다》인것이다. 그리고 《데다》의 뜻인 《더이다》의 말뿌리에 《ㅂ》를 첨가하여 형용사를 만든것이 《덥다》이다.

력사적으로 뒤붙이 《ㅂ》에 의하여 동사로부터 형용사가 파생된 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恭敬ᄒᆞ다→恭敬ᄒᆞᆸ다

○ 感動ᄒᆞ다→感動ᄒᆞᆸ다

○ 그리다→그립다

○ 믜다→믭다

우에서 언급한 《ᄃᆞᆸ》, 《ᄅᆞᆸ》, 《압》, 《업》, 《ㅂ》 등은 형용사조성의 기능에 있어서나 말줄기음운교체의 류형에 있어서나 같은것이지만 첨가조건에서 구별되고있다. 즉 《ᄃᆞᆸ》, 《ᄅᆞᆸ》이 명사적말뿌리에 첨가되는것이라면 《압》, 《업》은 《ㅣ》로 끝나는 일부 명사와 동사말뿌리, 상징부사에 첨가되며 《ㅂ》는 명사에 첨가되는 일이 없고 동사말줄기에만 첨가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형용사에서 다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에도 다양하게 쓰이고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중세국문문헌에는 형용사 《칩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형용사 《ᄎᆞ다》가 《ㅂ》를 취하여 파생되여나온것이며 형용사 《어리다》는 뒤붙이 《롭》의 도움에 의하여 다시 《어리롭다》라는 형용사를 파생시키고있다.

○ 치본 사ᄅᆞ미 블 얻ᄃᆞᆺ ᄒᆞ며(《월인석보》 18권 51장)

○ 어리로운 얼굴(《첩해신어》 9권 6장)

이처럼 형용사조성에서 《ᄃᆞᆸ》, 《ᄅᆞᆸ》, 《압》, 《업》, 《ㅂ》는 넓은 범위에서 쓰이고있었으며 이것들에 의하여 조성된 형용사는 례외없이 말줄기가 《ㅂ/ㅸ(ㅜ)》의 음운교체를 하게 되였는데* 그것은 이 뒤붙이들이 다 《ᄃᆞᄫᅵ다》에 기원한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한데 묶어 《ㅂ》계렬 뒤붙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 이러한 음운교체현상에 대해서 지난날에 일부 문법에서는 《ㅂ변격용언》 또는 《ㅂ불규칙용언》이라고 하였다.

중세어에서 활발하였던 《ㅂ》계렬뒤붙이에 의한 형용사조성은 근대에 내

려오면서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되였다. 즉 근대에 와서는 그것이 적극적인 현상으로 되지 않고 이미 화석화되여버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뒤붙이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례를 들어서 《苦ᄅᆞᆸ다》는 근대에 와서 《괴롭다》로 되였는데 이 《괴》가 한자 《苦》에서 왔다는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전문가이외에 없다. 그리고 《고》를 말뿌리로 하는 다른 단어가 없어짐으로 하여 《고》는 하나의 자립적인 형태부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단어의 형태론적구조에서는 단순화과정이 일어나게 되여 본래의 파생말줄기 《고+ᄅᆞᆸ》은 단순말줄기 《괴롭》으로 되고만것이다.

또한 《ᄃᆞᆸ》, 《ᄅᆞᆸ》에 의하여 조성된 형용사가운데서 일부는 근대에 와서 다른것으로 바뀌고있다. 즉 《疑心ᄃᆞᆸ다》는 쓰이지 않고 《의심스럽다》로 바뀌였으며 《네랍다》는 《옛스럽다》로 교체되였다. 《스럽》은 중세국문문헌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던것인데 근대에 와서 비교적 활발히 쓰이게 되면서 형용사조성에서 적극적인 형태부로 되고있다.

○ 촌스럽다
○ 탐스럽다
○ 죄송스럽다

《스럽》은 명사적말뿌리에 붙어서 형용사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서 《ᄃᆞᆸ～답》, 《ᄅᆞᆸ～롭》과 다름이 없으며 말줄기끝소리의 음운교체를 하는데서도 동일하다.

이것은 《스럽》의 《럽》이 《ᄅᆞᆸ》과 같은 기원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 있다. 《ᄅᆞᆸ》이 열린마디인 명사적말뿌리아래에 쓰인것과 마찬가지로 《럽》은 《스》라는 열린마디아래에 쓰이고있어 그 첨가의 어음적조건은 같다고 할수 있다.

그러면 《스》는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스》는 불완전명사 《ᄉᆞ》에서 온것으로 추측된다. 즉 《ᄉᆞ+ᄅᆞᆸ》은 《～ㄹ사하다》, 《～와 같다》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명사적말뿌리에 붙어서는 형용사를 만들게 되는것이다. 《ᄉᆞᄅᆞᆸ》은 《ㆍ》의 소멸과 관련하여 어중의 《ㆍ》가 많은 경우 《ㅡ》로 되는데 따라 《ᄉᆞ》는 《스》로 되였으며 《ᄅᆞᆸ》은 《럽》으로 되였을것이다.

《스럽》은 근대에 와서 대체로 닫긴마디로 된 명사적말뿌리에 붙어 쓰이면서 《답》과 함께 형용사조성에 널리 리용되였다. 그러나 《스럽》과 《답》은 일정한 의미적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호상 넘나들수 없었다.

○ 꽃답다	× 꽃스럽다
○ 영웅답다	× 영웅스럽다
× 틀답다	○ 틀스럽다
× 죄송답다	○ 죄송스럽다
× 미안답다	○ 미안스럽다

× 밉살답다	○ 밉살스럽다

우에서 든 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비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인물을 나타내는 명사적말뿌리의 경우에는 《답》이 붙어서 《～와 같다》는 의미로 되며 성질, 심리상태 등을 나타내는 명사적말뿌리의 경우에는 《스럽》이 붙어서 《그럴사 하다》는 의미로 된다.

그러나 대상, 인물의 경우일지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는 《답》뿐아니라 《스럽》이 붙어 쓰일수 있다. (례: 어른답다 ～ 어른스럽다)

근대에 와서 《ㄷ/ㄹ》교체가 비적극적인것으로 되고 《롭》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자 열린마디아래에서도 《답》이 붙거나 《롭》과 《스럽》이 통용되면서 《스럽》이 열린마디아래에 붙는 경우가 생기게 되였다.

○ 사내답다		× 사내스럽다
○ 죄스럽다		× 죄롭다
○ 경사롭다	～	경사스럽다
○ 신비롭다	～	신비스럽다

중세어에서 많이 쓰이던 《～ᄒᆞᆸ다》류형의 형용사는 근대에 와서 쓰이지 않게 되였다. 그리하여 형용사조성에서는 《ㅂ》대신에 《스럽》이나 《엽》등의 뒤붙이가 쓰이게 되였다.

○ ᄉᆞ랑ᄒᆞᆸ다→사랑스럽다
○ 怒ᄒᆞᆸ다→노엽다

그리고 《그립다》의 경우에는 《ㅂ》가 기원적으로 비록 뒤붙이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뒤붙이로 파악되는것이 아니라 《그립》이 하나의 단순말줄기로 되고마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뒤붙이 《ㅂ》나 《압》, 《업》에 의하여 조성된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적단순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여 현대어에서 그것들은 사실상 뒤붙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ㅂ》, 《압》, 《업》등이 말뿌리에 밀착하여 파생말줄기였던것이 하나의 단순말줄기로 되여버렸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ㅂ》계렬뒤붙이는 여러 갈래의 변종들이 형용사조성에서 다양하게 리용되였으며 현대어에서 어떤것은 적극적으로, 어떤것은 비적극적으로 되였다.

그런데 시창작에서는 형용사말뿌리에 다시 형용사조성의 뒤붙이를 붙이여 새로운 뜻빛갈의 형용사를 만들어씀으로써 의미표현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한 경우도 있다.

○ 삼간집에 불붙는 젊은 목숨의
정열에 목맺히는 우리 청춘은
<u>서느러운</u> 여름밤 잎새 아래의
희미한 달빛속에 나붓기여라

아아 찬양하여라 좋은 한때를
흘러가는 목숨을 많은 행복을
여름의 어스러한 달빛속에서
꿈같은 즐거움의 눈물 흘러라(김소월, 《여름의 달밤》)

○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여라
(김소월, 《발고랑우에서》)

한편 우리 말에서 옛날에는 형용사말뿌리가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였다.

고대어의 이 잔재는 중세어에도 일부 남아있어 형용사말뿌리가 토의 도움이 없이 그대로 부사처럼 쓰이고있음을 중세국문문헌에서 자주 발견하게 된다.

○ 눈 곧 디니이다(《룡비어천가》 50장)
○ 왼녁 피 닫 담고(《월인석보》 1권 8장)
○ 빈 브르 먹거니와(《두시언해》 1권 10장)

형용사가 명사우에서 규정어로 되는 경우에도 그 말뿌리가 그대로 쓰이였는데 그 잔재가 현대어에까지 남아있는것으로는 《어리광대》, 《검버섯》 등을 들수 있다.

형용사의 이러한 명사적사용은 중세국문문헌에서 보는바와 같이 《ㅂ》계렬뒤붙이에 의한 형용사의 대량적인 조성에 의하여 퇴화되고 그대신 동사적 성격이 현저해짐으로써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상으로 그 한계가 모호하게 되였다. 그것은 《ㅂ》계렬뒤붙이가 동사 《ᄃᆞᄫᆡ다》에서 파생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형용사와 동사가 형태상으로 한계가 점차 모호하게 되는것은 《ㅂ》계렬뒤붙이에 의한 형용사조성뿐아니라 다른 동사로부터 파생된 뒤붙이에 의한 형용사조성도 그 요인으로 되고있다.)

중세어에서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형용사조성에서 《ㅂ》계렬뒤붙이는 큰 역할을 놀았으며 현대어에 와서도 자기 고유의 《ㅂ/ㅜ》음운교체를 함으로써 다른 부류의 형용사와 엄격히 구별되고있다. 형용사말줄기의 《ㅂ/ㅜ》음운교체는 지금은 단순말줄기로 된것이라 하더라도 력사적으로 《ᄃᆞᄫᆡ다》기원의 뒤붙이가 첨가된 사정과 관련되여있는데 심지어 중세어에는 없었고 현대어에 와서 비로소 조성된 형용사(례: 영예롭다, 영광스럽다)의 경우에도 뒤붙이가 이 류형에 속하는것이면 말줄기가 례외없이 《ㅂ/ㅜ》음운교체를 하고있는것이다. (례: 영예롭고～영예로운, 영광스럽고～영광스러운)

그리하여 이 형용사들은 말줄기끝소리가 꼭같이 《ㅂ》로 되여있다고 하더라도 《굽다》부류와 구별되는 《곱다》부류로서 하나의 큰 집단을 이루게 된것인데 이것은 단어조성수법의 접사법가운데서 뒤붙임법에 속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밖에 형용사의 조성수법으로서는 앞붙임법과 앞뒤붙임법도 있고 어음전환의 수법도 있다.

1) 앞붙임법

드: 《아주》, 《몹시》의 뜻을 나타낸다.
○ 드넓다, 드높다, 드세다

얄: 《얄망궂고 되바라지다》는 뜻을 나타낸다.
○ 얄궂다, 얄밉다

2) 앞뒤붙임법

시－ㅎ: 《시》는 《아주》의 뜻을 나타내며 《ㅎ》는 《하다》가 줄어든것이다.
○ 시꺼멓다, 시누렇다, 시뿌옇다, 시허옇다

3) 어음전환법

(1) 뜻이 완전히 달라진것
○ 맑다－묽다, 밝다－ 붉다

(2) 뜻빛갈만 달라진것
○ 가맣다－거멓다, 노랗다－누렇다, 벌겋다－뻘겋다, 하얗다－허옇다, 새까맣다－시꺼멓다

3. 동사와 형용사의 관계

국어의 형용사는 그 문법적특성이 대체로 동사와 류사하여 함께 용언의 부류에 넣고있는데 그것은 력사적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미분화상태에 있었던 사정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 바ᄅᆞ래 빈 업거늘 녀토시고 또 기피시니(《룡비어천가》 20장)
○ 이ᄂᆞᆫ 아로미 녀텨(《몽산법어》 45장)

《녀토시고》는 동사적으로 쓰인것이며 《녀텨》는 형용사적으로 쓰인것인데 그 말뿌리는 다 같은 《녀ㅌ－》이다. 이처럼 같은 말뿌리에 어떤 토가 붙는가에 따라 행동성이 부여되기도 하며 상태성이 부여되기도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중세어인 경우에는 문법적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현저하다고는 할수 없는것이다.

일정한 력사적제약성으로 하여 현대국어의 경우에도 동사와 형용사는 문법적으로 공통성이 많은 품사로 인정되여 이것을 용언의 범주에 소속시키게 되는것이다.

이 두 품사의 공통성은 다 각종 서술형태를 취하여 규정어나 술어로 될수 있다는것이며 상황어에 의한 수식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형용사와 동사는 서로 다른 품사로 인정할만 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는것이 사실이다.

1) 어휘－의미론적측면

어휘－의미론적측면에서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는 행동성의 여부에 있다. 다시말하여 동사는 동적인 행동을 나타냄에 반하여 형용사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즉 행동성의 존재여부가 두 품사를 가르는 기본적인 의미기준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같은 말뿌리에 토를 달리 취함으로써 그 의미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 크다(형용사)－큰다(동사)
○ 늦다(형용사)－늦는다(동사)
○ 어둡다(형용사)－어둡는다(동사)

2) 형태론적측면

형용사와 동사를 가르는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그 형태론적특성의 차이이다. 그것을 동사에 비하여 형용사가 가지는 제약성의 측면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①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형용사에 상범주가 없다는 점이다.

상범주는 동사로 표현된 행동과 주어 및 객어와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인것만큼 이 범주가 형용사에 있을수 없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에 형용사의 말뿌리에 상접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그것은 동사로 넘어가게 된다.

○ 밝다(형용사)→밝히다(동사)
○ 높다(형용사)→높이다(동사)

② 형용사에는 현재진행토 《는》이 붙을수 없으며 만약에 그것이 붙게 되면 동사로 넘어가게 된다.

○ 밝다(형용사)→밝는다(동사)
○ 밝은(형용사)→밝는(동사)

③ 형용사는 권유식을 조성하는데서 제약성이 있다.

○ 높다→× 높자
○ 아름답다→× 아름답자

④ 형용사는 종결형이나 접속토의 쓰임에서도 제한이 있다.

○ 높다→× 높고서, 높으러
○ 아름답다→× 아름답고서, 아름다우러

3) 문장론적측면

형용사는 술어를 수식하는 상황어와의 결합에서 제한성이 있다. 즉 형용사는 《어서》, 《이미》, 《빨리》, 《잘》과 같이 행동성을 수식하는 상황어와 결합할수 없다.

○ 붉다→× 어서 붉겠다

○ 높다→× 이미 높았다
○ 아름답다→× 빨리 아름다왔다
○ 깊다→× 잘 깊었다

4) 단어조성적측면

대다수의 앞붙이와 뒤붙이는 형용사와 동사가 각각 달리 쓰인다. 즉 앞붙이 《얄, 새, 시》는 형용사에만 쓰이고 앞붙이 《덧, 들, 되, 뒤, 빗, 짓, 치, 헛, 휘, 엇》은 동사에만 쓰인다.

○ 형용사

얄밉다, 얄궂다, 새까맣다, 새파랗다, 시누렇다

○ 동사

덧나다, 들볶다, 되묻다, 뒤섞다, 빗나가다, 짓뭉개다, 치닫다, 헛디디다, 휘젓다, 엇나가다

뒤붙이 《답, 스럽, 롭, 압(업), 다랗》 등은 형용사에만 쓰이고 뒤붙이 《뜨리, 치, 대, 거리》 등은 동사에만 쓰인다.

○ 형용사

청년답다, 영광스럽다, 영예롭다, 보드랍다, 높다랗다

○ 동사

깨뜨리다, 밀치다, 으르렁대다, 기웃거리다

우에서 든 네가지 기준에 따라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중 어느 하나도 품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되지 못한다. 이 네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형용사와 동사를 가르게 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되는것은 어휘－의미론적기준과 형태론적기준이라고 할수 있다.

4. 행동성범주와 형용사의 동사화

동사의 고유한 문법적범주인 상범주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는 일종의 행동성범주라고 말할수 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인 형용사가 행동성과 일정한 관계를 맺자면 그것이 자기의 품사적성격에서 벗어나야 할것이다. 바로 이로부터 제기되는것이 형용사의 동사화문제이다.

○ 무산의 백성들은 이 소문을 듣고 부사의 학정을 규탄하는 원성을 더욱 <u>높이였다.</u> (리기영, 《두만강》)

○ 순옥은 면구스러운듯 부지중 얼굴을 <u>붉히였다.</u> (리기영, 《땅》)

이 소설들에 나오는 《높이였다》, 《붉히였다》는 분명히 형용사 《높다》, 《붉다》가 접사 《이》, 《히》의 도움으로 행동성을 띠게 되면서 동사화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형용사의 어러한 동사화는 접사 《지》에 의해서도 실현되고있다.

○ 잠시동안 약해졌던 영세의 마음은 다시 굳세여졌다.(송영, 《나는 다시 강을 건너간다》)

여기서도 《약해지다》, 《굳세여지다》는 형용사 《약하다》, 《굳세다》가 접사 《지》의 도움으로 동사적으로 쓰이고있는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사실상 이 경우의 《지》는 력사적으로 동사인 《디다》의 《디》가 문법적으로 추상화되면서 《디→지》과정을 밟은것으로서 기원상으로는 일종의 말뿌리합성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중세국문문헌자료에 의하면 형용사 《좋다》의 옛 형태인 《됴ᄒᆞ다》가 접사의 도움에 의해서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 녀나ᄆᆞᆫ 약으로 됴ᄒᆡ오디 몯ᄒᆞᄂᆞᆫ ᄇᆞᄅᆞᆷ 마ᄌᆞᆫ 병(《구급간이방》 1권 28장)

여기서 《됴ᄒᆡ오디》는 《됴ᄒᆞ+ㅣ+오+디》로 분석되는데 현대말로는 《좋아지지》의 뜻으로 된다. 이 경우에 《됴ᄒᆡ다》는 형용사 《됴ᄒᆞ-》에 접사 《ㅣ》를 붙이여 동사화한것이고 여기에 다시 접사 《오》를 첨가하여 피동상을 나타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됴ᄒᆞ다》의 경우에 동사 《ᄒᆞ다》의 본래의 행동적의미가 추상화되면서 단지 형용사의 조성수단으로 전환되고말았기때문에 다시 동사화를 위하여 접사 《ㅣ》의 첨가가 필요했던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형용사의 동사화는 점차 적극성을 잃게 되면서 그것을 부사화하여 다시 《ᄒᆞ다》를 첨가하는데로 넘어가게 되였다.

○ 법다이 ᄆᆡᆼ글기ᄅᆞᆯ 됴히 ᄒᆞ엿ᄂᆞ니라(《로걸대언해》 하권 24장)

후기에 와서는 형용사부류에 행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것을 부사화하거나 상황형으로 만들고 동사 《하다》를 덧붙이게 되였는데(례: 높이 하다, 높게 하다) 간혹 《-이》형으로 된 부사와의 합성에 의해서도 형용사에 행동성이 부여되면서 동사로 굳어지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 같다→같이하다, 같이되다
멀다→멀리하다, 멀리되다

형용사는 접사법이나 말뿌리합침법에 의해서만 동사화되는것이 아니라 분석적수법에 의해서 동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괴나리보짐에 갓 망건을 쓰고 나서니 그의 모양은 정말 붓장사를 방불케 하였다.(리기영, 《두만강》)

○ 그들은 사정이 절박하게 되였다.(리기영, 《두만강》)

형용사인 《방불하다》, 《절박하다》는 상황형인 《-게》를 취하고 동사인 《하다》와 《되다》의 도움으로 일정한 행동성을 부여하고있다.

형용사의 이러한 동사화 또는 동사적인 쓰임은 본래의 동사와 차이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를 동사화함에 있어서는 《-시키다》,

《-당하다》 등에 의한 말뿌리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사의 경우:

례: 공격하다→ ○ 공격시키다 ○ 공격당하다

형용사의 경우:

례: 조용하다→ × 조용시키다 × 조용당하다
랭정하다→ × 랭정시키다 × 랭정당하다

둘째로, 《-하다(-ᄒᆞ다)》형의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 히》와 같은 접사에 의한 동사화가 불가능하다.

례: 둔하다→× 둔하이다
착하다→× 착하이다
좋다→× 조히다
싫다→× 실히다

그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력사적으로 《-하다(-ᄒᆞ다)》의 기능상변화와 관련되여있다고 할수 있다.

셋째로, 《되다》형의 형용사도 일반적으로는 접사에 의한 동사화가 불가능하다.

례: 참되다→× 참되이다
헛되다→× 헛되이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되다》가 《ᄃᆞᄫᅵ다(如)》에서 온것으로서 그것이 등가성 또는 류사성의 의미를 가지고있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그리하여 이것 역시 과정성이나 행동성을 부여하자면 그것을 상황형으로 만들고 동사 《하다》를 덧붙여야 하는것이다.

○ 참되게 하다
○ 헛되게 하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되다》는 어떤 사물현상이 생겨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에 쓰이는 자동사로 되는것만큼 《참되다》자체는 비록 형용사이지만 《되다》의 동사성으로 하여 그것이 동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게 된다.

○ 당기여 그대는 우리 고운 꿈
만발하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대 뜻에 참되리라
(가요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여기서 《참되다》는 본래 형용사이지만 《참되리라》는 의미상으로 《참되게 되리라》이니 이것은 《되다》의 동사성을 살리여 《-리라》를 결합함으로써 앞으로의 결심이나 의지를 나타내게 된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참신한 표현은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된다.

다음으로 언급할것은 《답》이나 《롭》, 《스럽》 등의 접사를 가진 부류의 형용사에 대한 문제이다. 사실상 이런 부류의 접사는 본래 《ᄃᆞᄫᅵ다(如)》

에서 온것으로서 그자체에 행동성의 의미를 부여할 여지가 있을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접사가 붙은 형용사의 동사화는 불가능하며 거기에 행동성을 직접 부여할수는 없는것이기때문에 부득불 그것을 상황형이나 부사로 만들어서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밖에 할수 없는것이다.

○ 그 말은 이상스럽게 사람들에게 심중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였다. (천세봉, 《석개울의 새봄》)

○ 빰은 차라리 련정스레히 유리에 부빈다. (정지용, 《유리창》 2)

이처럼 접사에 의한 형용사의 동사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흔히 《－이 하다》, 《－이 되다》, 《－게 하다》, 《－게 되다》와 같은 분석적수법에 의해서만 행동성의 의미가 표현된다고 할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는》이 형용사에 쓰일수 없다는 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는》이 형용사에 쓰일수 없는것은 그 토가 단순히 현재시칭만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행동의 진행이라는 태적인 의미까지도 나타내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는》의 옛 형태인 《ᄂᆞᆫ》의 《ᄂᆞ》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진행의 시태토로서 흔히 《니》와 결합하여 《ᄂᆞ니》로 쓰이기도 하고 또 《ㅣ》의 빠짐으로 《ᄂᆞᆫ》으로 바뀌여 종결형과 결합하여 쓰이였으며 또는 그것이 그대로 규정토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 어려운 제 ᄆᆞᅀᆞᆷ히 가ᄂᆞ니(《두시언해》 2권 38장)

○ 네 이뎨 항것 背叛ᄒᆞ야 가ᄂᆞ다(《월인석보》 8권 98장)

○ 우리 사ᄂᆞᆫ 싸히 南녁 閻浮提天下ㅣ라(월인석보 1권 13장)

그리하여 만약에 형용사에 《ᄂᆞᆫ/는》이 첨가되는 경우에 그것은 행동성이 부여됨으로써 동사적으로 쓰이게 되는것이다.

○ 큰 치위 일로 爲ᄒᆞ야 덥ᄂᆞ다(《두시언해》 1권 27장)

이 경우에 《덥ᄂᆞ다》는 《덥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더워진다》의 뜻으로서 일정한 변화 즉 행동성의 의미가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용법은 현대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는》은 형용사의 동사화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 아 날이 밝는다
백두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정서촌, 《날이 밝는다》)

이 시에 나오는 《밝는다》는 형용사 《밝다》가 동사화되여 쓰인것이다. 이 경우에 토 《는》은 현재진행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고있어 분명히 행동성과 관련되여있다.

형용사가 이처럼 일정한 행동성을 띠고 쓰이는 경우가 여러 문학작품들에 자주 나타나고있는데 그 대표적인 례로 되는것이 바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의 《무성하는》이다. 본래 《무성하다》는 형용사이지만 이것을 동사적으로 사용하여 《무성해지는》의 뜻으로 《무성하는》이라고 한것이다.

그러면 조선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어째서 호상 넘나드는것이 가능한것인가?

외국어의 경우를 념두에 둔다면 동사와 형용사는 흔히 차이가 뚜렷한 관계에 있는것으로 리해되고있다. 로씨야어의 경우를 보면 동사가 인칭변화를 특징으로 하고있다면 형용사는 명사와 마찬가지로 격변화를 하고있어 형용사를 명사범주에 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 조선어의 경우에는 문법적범주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사와 형용사를 체언과 구별되는 용언이라는 하나의 큰 범주에 묶어놓고있다.

물론 일본어의 경우에도 체언과 용언의 구별이 있고 용언에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시키고있으나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에서 구조적차이가 있으며 조선어에서처럼 두 품사사이에서 쉽게 넘나드는 일이 없다. 이 점에서 일본어는 조선어와 문법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다.

조선어의 경우에 동사와 형용사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형태구조의 면에서도 넘나들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선어의 구조적특징과 관련되여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거슬러올라갈수록 동사와 형용사는 미분화상태에 있었다고 할수 있다. 우선 형태변화체계에서 차이가 없었으니 동사든 형용사든 끼움토나 자리토를 취함에 있어서 공통성이 많았다.

○ 어려본 법을 니ᄅᆞᄂᆞ다(《월인석보》 7권 77장)

○ 여름 하ᄂᆞ니(《룡비어천가》 2장)

동사 《니ᄅᆞ다》나 형용사 《하다》가 다 《ᄂᆞ》를 취하고있는데 이 《ᄂᆞ》는 현재진행의 의미를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이것이 형용사 《하다》에 붙게 되면 그것은 《하ᄂᆞ니》로 되여 동사화됨으로써 《많아지니》의 뜻으로 된다.

○ 우리 밥도 먹거다(《번역로걸대》 상권 56장)

○ 습셩별도 놉거다(《번역로걸대》 상권 57장)

이 경우에도 과거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거》가 동사 《먹다》에도 붙고 형용사 《놉다》에도 붙고있는데 이 경우에 《놉거다》는 동사화되여 《높아졌다》의 뜻으로 된다.

○ 珠는 ᄇᆞᆯᄀᆞᆫ 돌 ᄀᆞᄐᆞᆫ 神奇ᄒᆞᆫ 구스리라(《월인석보》 2권 33장)

○ 半壁淸燈은 눌 위ᄒᆞ야 ᄇᆞᆰ갓ᄂᆞᆫ고(《송강가사》 속미인곡)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ᄇᆞᆯᄀᆞᆫ》은 《밝은》이라는 형용사이며 《ᄇᆞᆰ갓ᄂᆞᆫ고》는 《밝았는가》라는 동사인데 이러한 품사전성의 기본고리는 《ᄂᆞᆫ(는)》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ᄂᆞᆫ(는)》이 현실적지속성의 의미가 기본이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옛날에는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구조상 차이가 없고 단지 의미상 차이가 있었으며 만약에 일정한 시태토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품사전성이 진행되

여 형용사가 동사로 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체언과 구별되는 용언범주안에서 서로 넘나들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었던것인데 이것이 바로 국어문법구조의 중요한 민족적특성의 하나로 된다고 할수 있다.

5. 《있다》, 《없다》의 품사소속문제

《있다》와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어느 품사에 넣겠는가 하는 문제로 론의가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를 취함에 있어서 그 품사소속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워 《있다》와 《없다》가 종결형과 규정형의 경우에 동사적일수도 있고 형용사적일수도 있기때문이다.

① 평양에는 큰 규모의 민속공원이 있다.
② 대동강의 물은 대단히 맑다.
③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았다.
④ 인민대학습당에 가는 사람이 많다.
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다.
⑥ 우리의 앞날은 밝다.
⑦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
⑧ 저기 가는 사람이 누구냐?

①과 ②는 《있다》가 형용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있음을 보여주며 ③과 ④는 《있다》가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⑤와 ⑥은 《없다》가 형용사와 동일한 형태변화를 하고있음을 보여주며 ⑦과 ⑧은 《없다》가 동사와 동일한 형태변화를 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결국 단어종결형의 서술형태에서는 《있다》, 《없다》가 형용사와 형태변화가 같으며 단어규정형의 서술형태에서는 《있다》, 《없다》가 동사와 형태변화가 같다는것이다.

⑨ 철수가 집에 있느냐 없느냐?
⑩ 너는 어디에 가느냐? × 꽃이 희느냐?
⑪ 철수는 집에 있구나, 그런데 영수는 집에 없구나.
⑫ 오늘은 달이 참 밝구나.
⑬ 여기에 함께 있자. × 여기에 함께 없자
⑭ 영광이 있어라. × 영광이 없어라.

그런데 《있다》, 《없다》는 의문형에서 동사와 같고 감탄형에서는 형용사와 같다. 그리고 《있다》, 《없다》는 권유형과 명령형에서 그 쓰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결국 《있다》, 《없다》의 형태변화를 종합하여 그것을 동사, 형용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종결형

○ 있다. 없다, 맑다, 밝다 =형용사적
○ 있느냐, 없느냐, 가느냐, 오느냐 =동사적
× 검느냐, 희느냐
○ 있구나, 없구나, 검구나, 희구나 =형용사적
○ 있어라, 있자, 먹어라, 먹자 =동사적

규정형

○ 있는, 없는, 가는, 오는=동사적
○ 간, 온/검은, 흰=동사/형용사

이처럼 《있다》, 《없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계선을 넘나들고있어 그 품사소속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일부 문법에서는 이른바 《존재사》를 따로 설정하고 《있다》, 《없다》를 거기에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있다》, 《없다》의 두 단어를 형용사에 소속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상 《있다》는 《없다》에 비해서 동사에 가까운 점이 많아 《있다》와 《없다》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 거기에 있거라. 그리고 그것을 넘겨 받거라. =동사적
× 거기에 없거라.

이밖에 《있는, 없는》이 가능한데 비해서 형용사의 경우에 《희는》이 불가능한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행동성범주에 따르는 《는》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있다》의 존경의 보충법으로 되는 《계시다》는 《있다》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는것은 물론 《읽고계시다》, 《앉아계시다》와 같이 자립적동사와 함께 쓰이면서 보조적기능도 수행하지만 《없다》의 경우에는 존경의 보충법으로 되는 말이 따로 없다.

그리하여 《있다》와 《없다》의 품사소속은 갈라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즉 《있다》가 동사적인데 비해서 《없다》는 형용사의 형태변화체계에 따르고있으며 또한 그것이 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없다》는 형용사의 범주에 넣을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나오게 된것이다.

제 4 장. 수식언

제 1 절. 관형사

1. 관형사의 개념

관형사란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로서 부사와 함께 수식언에 속하는 단어부류이다.

관형사는·그 어떤 형태변화체계도 가지고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사와 공통성이 있으나 오직 대상의 특징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부사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관형사는 제한된 수의 무형태어들이 대상에 대한 수식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관형사에는 우선 《새, 딴, 별, 별별, 별의별, 여느, 허튼》과 같이 그 어휘적의미에 있어서 대상의 각종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속한다.

○ 새 기적을 창조하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자.
○ 딴 생각을 하지 말고 맡은 일을 잘하여라.
○ 할머니는 해방전에 별의별 고생을 다 참아가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었다.
○ 그해는 여느 해와 달리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었다.
○ 그런 허튼 생각을 할 짬이 있소?

다음으로 관형사에는 《무슨, 어느, 웬》과 같이 대상에 대한 의문이나 미정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도 속한다.*

○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의문)
○ 그 동무는 무슨 일이나 척척 해제끼지요.(미정)
○ 그것은 어느해 봄이였던지 모르겠다.(의문)
○ 내가 고향으로 돌아온것은 지난해 어느 가을날이였다.(미정)
○ 어제 학교로 찾아온 사람이 웬 사람이지?(의문)
○ 순희야, 웬 사람이 너를 찾는다.(미정)

* 《현대조선어(2)》(교육도서출판사 1962년)에서는 이 부류의 단어들을 《의문대명사》로 처리하였다.(60페지)

이밖에 어휘-의미적으로 분량과 관련된 관형사로서 《모든, 온, 온갖, 여러, 갖은, 한낱, 매개, 각, 각급, 단, 근, 제, 제반, 이까짓》 등을 들수 있다.

○ 오늘 모든 근로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전투에서 위훈을 떨치고있다.
○ 지금 온 나라가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 우리는 온갖 잡귀신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
○ 전국의 여러 단위들이 원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 항일혁명투사들은 갖은 시련과 난관을 다 이겨내면서 단 한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았다.
○ 우리 당은 해방후 한해만에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 동무는 이까짓 성과를 가지고 자랑하면 되나?

관형사는 문법적으로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관형사는 그 어떤 형태론적범주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그 어떤 토도 결합되는 일이 없이 이미 굳어진 형태로 쓰이고있다.

다음으로 관형사는 문장론적으로 언제나 규정어의 기능만을 수행할뿐 다른 문장성분으로 되는 일이 없다.

다음으로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본래부터 관형사로 쓰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다.

○ 녀느 나랏 王이 ᄒᆞᆫ날 다 아ᄃᆞᆯ 나ᄒᆞ며(《월인석보》 2권 45장)
○ 그 밧긔 녀나믄 일이야 分別ᄒᆞᆯ줄 이시랴(윤선도 시조)

《녀느》는 격토를 취하여 《년긔, 년글》로 쓰일수 있는 대명사와 뿌리를 같이 하는 관형사이며 《녀나믄》은 《녀느+남》으로 된 관형사로서 본래부터 순수한 관형사가 아니였다.

이처럼 관형사는 대체로 다른 품사로부터 전성되여 이루어진것이 많다는것을 알수 있다.

○ 百ᄋᆞᆫ 오니라(《월인석보》 1권 6장)
○ 나랏 어비 몯내ᄅᆞᆯ 모도아 니ᄅᆞ샤(《석보상절》 6권 9장)
○ 고티ᄂᆞᆫ 사ᄅᆞᆷ이 그 버레ᄅᆞᆯ ᄡᅡ ᄇᆞ리고(《마경언해》 하권 98장)

력사적으로 수사 《온》이 그대로 관형사로 넘어가 쓰이게 되였으며 동사 《모도다》의 규정형인 《모ᄃᆞᆫ》이나 형용사 《ᄡᅡ다》의 규정형인 《ᄡᆞᆫ》이 그후 《모든》, 《딴》으로 바뀌면서 관형사로 굳어져버렸다.

이와 같이 관형사는 단어조성의 측면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며 제한성을 가지게 된다. 즉 관형사는 력사적으로 이미 형성된것 이외에 제한된 류형의 수법 즉 합침법과 품사전성의 수법으로 된 《온갖, 한낱, 별별, 별의별, 이까짓》 등이 있을뿐이다.

관형사는 생성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어휘적의미가 류사한 다른 품사들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 새 집(관형사)
○ 집이 새롭다(형용사)
○ 집을 새로 지었다.(부사)

2. 관형사와 앞붙이의 차이

관형사가운데서 《온, 별, 딴, 새, 근, 제》와 같이 단음절로 된것은 그것이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관형사인지 또는 앞붙이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그것이 관형사라면 응당 띄여써야 하고 앞붙이라면 붙여써야 할것이다.

○ 새 나라(관형사)
○ 외아들(앞붙이)

이런 경우에 관형사와 앞붙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로, 관형사는 그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자립적인 악센트를 가지며 다음 단어와의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음된다. 그러나 앞붙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데 이것을 서사상 반영한것이 바로 띄여쓰는가 붙여쓰는가 하는것이다.

○ 전체 인민이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섰다. (관형사)

○ 하늘 중천에 외기러기가 날아간다. (앞붙이)

둘째로, 관형사는 일정한 론리적련계가 가능한 한 문장에서 다른 어떤 단어와도 자유롭게 결합할수 있으나 앞붙이는 그자체가 한 단어안의 구성요소이기때문에 극히 제한된 말뿌리와만 결합할수 있다.

○ 새 조선, 새 정권, 새 교실, 새 마을, 새 구두(관형사)

○ 외아들, 외딸, 외토리(앞붙이)

× 외구두, 외장갑, 외건물

셋째로, 관형사는 자립적품사로서 앞붙이에 비하여 단어결합면에서 자유롭기때문에 다음 단어와의 사이에 다른 단어를 끼워넣을수 있지만 앞붙이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 새 가죽구두→새 노란 가죽구두

○ 온 마을→온 농촌 마을

○ 온갖 풍경→온갖 색다른 풍경

× 외 어린 아들, 풋 푸른 잎사귀

3. 관형사의 품사설정과정

관형사는 국어의 고유한 품사이다.

례: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여기서 《모든》과 《많은》은 다 《사람》이라는 체언(명사)앞에 놓이여 그것을 꾸미고있는데서 다를바가 없는 같은 련체어, 수식어이다. 련체어란 체언앞에 놓이여 체언과 결합한다는것을 표식으로 잡은 말이고 수식어란 뒤에 오는 말을 꾸미여준다는 기능을 표식으로 잡은 말이다.

그런데 《모든》에는 토가 붙을수 없으며 《많은》은 형용사말뿌리 《많》에 토 《은》이 붙은것으로 하여 단어구조상 《모든》과 구별되고있다. 말하자면 같은 련체어이면서도 하나는 그 어떤 형태변화체계도 가지지 않은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일정한 형태변화체계속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많은 문법책들에서는 《모든》과 《많은》이 체언앞에 놓이여 그것을 수식한다는 공통성으로 묶이여지는 문법적특징을 중시한데로부터 그것들을 같은 품사부류에 넣어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

았다.

주시경은 《국어문법》(1910년)의 《기난틀》에서 조선어품사로서 임(명사), 엇(형용사), 움(동사), 겻(조사), 잇(접속사), 언(관형사), 억(부사), 놀(감동사), 끗(종결사)의 9개 품사를 설정하고 다시 《기갈래의 난틀》에서는 개별적품사내부의 단어부류들을 례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언의 갈래》를 11개로 나누었다.

① 가르침언… 이, 그, 저
② 물품언 … 좋은, 귀한, 무른
③ 물모언 … 큰, 한, 적은
④ 행품언 … 착한, 순한, 강한
⑤ 행모언 … 깃븐, 궁금한, 답답한
⑥ 때언 … 이른, 늦은, 오란
⑦ 혬언 … 한, 두, 세
⑧ 견줌언 …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⑨ 모름언 … 엇더한
⑩ 움언 … 간, 먹는, 가는
⑪ 임언 … 돌(돌집), 나의(나의 칼)

이 문법에서는 지시(가르침), 여러가지 물건의 품질(물품), 여러가지 물건의 모양(물모), 여러가지 행위의 품성(행품), 여러가지 행위의 모양(행모), 시간(때), 수량(혬), 비교(견줌), 미정(모름) 등 뒤에 오는 체언의 어떤 특징을 꾸미여주는가에 따라 나누는 경우(①～⑨)와 다른 품사에서 전성되여 쓰일 때 그 근원을 밝히는 경우(⑩～⑪)를 뒤섞고있어서 《언》의 분류에서 일관한 기준이 없다고 할수 있다.

주시경은 체언우에 얹히여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라는데서 《언》의 명명표식을 잡고 《언》에 규정어로 쓰인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명사 모두를 포함시키고있다. 《언》의 이러한 구성은 《듬》(문장성분)으로서의 《금이》(수식어)와 일치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온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은 《언》의 설정에서 단어의 문장성분적기능을 선차적으로 고려한데서 온것이라고 할수 있다.

주시경은 문장성분을 가르면서 주어, 객어, 술어는 주성분으로 인정하여 각각 《임이》(주어), 《씀이》(객어), 《남이》(술어)라 하고 규정어, 상황어, 보어는 모두 부성분으로 인정하여 《금이》(수식어)라고 하면서 《금이》가운데서 규정어의 역할을 하는것을 《언》이라고 하여 하나로 묶어놓은것이다. 이것은 주시경이 품사를 《기》의 《겨레》로 규정하고 《언》도 역시 《기》의 《겨레》로 간주하여 《언기》라고 부르면서도 실제상으로는 하나의 《기》가 아니라 두개 《기》의 결합체인 《듬》을 기준으로 이 품사를 설정한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기》속에 다시 《기》가 있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하였다. 다시말하여 《언》가운데서 《큰, 착한, 이러한》, 《간, 가는, 먹

는》, 《나의》 등과 같이 토를 가진 부류는 그 토들이 위치적인 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로 인정하지 않고있는데 《푸른 풀》과 같은 례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ㄴ이 푸르에 더하여 한날 언기로》 된것이라고 하면서 《ㄴ은 남이의 뜻을 가진 푸르를 금이가 되게 하는것이라 이러하므로 금이빛이요 푸르는 금이니 푸르가 금이 되는 빗 ㄴ을 더하여 된 금이라 이러하므로 금이듬이라고 할만 하니라》고 하였다.*

* 《주시경유고집》(과학원출판사 1957년) 88페지

결국 《ㄴ》류의 토는 《빗》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가 되므로 《푸른》은 한개 《기》인것이 아니라 《기》와 《기》의 결합으로 된 《듬》이라는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이다.

주시경이 설정한 《언기》는 같은 단어를 2중으로 소속시키는 자체모순도 가지고있다. 례를 들어 《돌, 나》 등은 하나의 자립적인 《임》임에도 불구하고 《돌집, 나의 칼》에서는 《돌, 나의》가 《언》이 되며 《크, 착하》는 《엇》이면서도 《큰, 착한》으로 될 때에는 《언》으로 되는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돌집》의 《돌》은 《임기가 언기노릇 하는것》이며 《먹는, 먹은》 등은 《움기가 언기가 된것》이라고 설명하고있는데 이것은 품사소속의 2중성으로 하여 산생시킨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주시경은 《국어문법》의 품사분류에서 《언》이 드러내고있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말의 소리》(1914년)에서는 실질적《기》와 문법적《기》가 결합하여 《언》을 이루었던것을 해체하여 《크, 착하, 이러하》는 《엇》에, 《먹》은 《움》에 소속시키는 한편 《언》의 구성속에 들어있는 《ㄴ, 은, 는, 던》과 《의》를 모두 《기》로 인정하여 《겻》에 포함시키고 토없이 《언》으로 될수 있었던 《이, 그, 저》는 《임》에 소속시키였다.*

* 《이, 그, 저》를 《국어문법》에서는 《밋언》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에서 온것이 아니라 본바탕부터 《언》으로 된것이라고 하였다. (《주시경유고집》 과학원출판사 1957년 133페지)

그리하여 《말의 소리》(1914년)에서는 《국어문법》에서 설정한 《언》과 관련한 모순을 극복한다면서 결국에는 《언》이라는 품사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만것이다.

그러나 주시경이 제기한 《언》과 관련한 견해는 그후 분법들에서 계승과 혁신의 과정을 밟으면서 일정하게 변화발전되였다.

《현금조선문전》(1920년)에서는 품사분류와 관련하여 《씨는 그 쓰이는 결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누되 우리 말의 씨는 아홉가지》라고 하면서 임씨(명사), 얻씨(형용사), 움씨(동사), 겻씨(조사), 잇씨(접속사), 맺씨(종지사), 언씨(관사), 억씨(부사), 늑씨(감동사)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아홉씨를 다시 몸씨(임, 얻, 움), 토씨(겻, 잇, 맺), 모임씨(언, 억, 늑)로 묶었는데 몸씨는 토씨를 취할수 있는것이며 모임씨는 토씨를 취할수 없는것을 념두에

두고 가른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문법적첨가물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조선어단어구조의 특징을 밝히려고 한것으로서 모임씨에 소속시킨 언씨, 억씨, 늑씨가 자기의 형태체계를 가지지 못한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는것을 강조한것은 문법학발전에서 긍정적인 전진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현금조선문전》(리규영, 1920년)에서는 《언씨는 명사를 지정하여 형용하는 씨》로서 반드시 임씨우에서 쓰인다는것을 강조하면서 관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유럽문법에서 명사앞에 얹혀 쓰이는 품사를 관사라고 일컫는데서 온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문법에서 언씨로서 들고있는 다음과 같은 네개부류는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한것이 특징적이다.

례: ① 고, 요, 조
② 한, 두, 여러, 모든
③ 새, 외, 돌
④ 어느, 무슨, 윈

보는바와 같이 이 문법에서는 그 어떤 토도 붙지 않고 련체적기능을 수행하는것만이 언씨로 렬거하고있다.

언씨에 대하여 관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현금조선문전》(리규영, 1920년)에서처럼 비교적 순수한것들을 렬거한것은 1920년대에 나온 다른 문법서들, 례를 들어 《조선어문법》(리상춘, 1925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바가 없었다.

그러던것이 관사의 련체적기능을 형용사와 비교하여 론의하게 되면서 관사적인 형용사라는데로부터 그 이름을 관형사로 고쳐 부르게 된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고 할수 있는데 《조선어의 품사분류론》(최현배, 1930년), 《조선어학강의요지》(박승빈, 1931년)를 들수 있을것이다.

관형사와 관련하여 비교적 깊이있는 리론적분석으로 그 본질적특성을 밝힌것은 《조선어학》(박승빈, 1935년)이다.

《조선어학》에서는 관형사에 대하여 《사물의 상태를 표시하여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로 정식화하고 관형사와 형용사의 본질적차이를 두가지 측면에서 밝히였다. 즉 그 하나로 《형용사는 서술어로 사용되는것이요, 관형사는 서술어로 사용되지 못함》을 들었고 다른 하나로 관형사가 《체언앞에 놓여서 체언을 수식하는것》이라면 형용사는 그것만으로는 《체언을 수식하지 못하고 수식어로 사용하려면 형용사의 단어에 조사를 첨가하여서 사용됨》을 들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례증하였다. (354페지)

례: 집이 크(형용사)오… 서술어로 가능
집이 새(관형사)오 … 서술어로 불가능
새(관형사)집 … 수식어로 가능
크(형용사)집 … 수식어로 불가능

크(형용사)ㄴ 집 … 수식어로 가능

《조선어학》에서는 국어관형사의 특징을 영어와의 대비속에서도 론의하면서 첫째로, 국어의 관형사는 그것이 수식어로 사용되는것이 영어의 형용사(Adjective)와 같으나 영어의 형용사는 동사 《Be》와 합하여 서술어로 되지만 관형사는 서술어로 전혀 쓰이지 못한다는것, 둘째로, 국어형용사는 서술어로 사용될 때의 상태가 영어에서 Be와 형용사가 합친것과 같고 국어형용사가 수식어로 사용될 때에는 형용사에 조사 《ㄴ》이 첨가된것이 영어의 형용사와 같다는것을 들었다.

그리고 일본어와의 대비에서는 일본어형용사는 그대로 서술어로도 수식어로도 사용되기때문에 서술어로 사용될 때의 상태는 국어의 형용사와 동일하고 수식어로 사용되는 관계는 국어의 관형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영어와 일본어의 형용사는 보통형용사(속성 및 관계)를 이르는것이고 지시형용사, 관사 등의 문법상자격은 조선어의 관형사에 해당하는것》임을 강조하였다. (355페지)

이러한 대비분석은 국어관형사의 문법적본질을 밝히는데서 종전보다 한걸음 앞선것으로서 관형사와 관련한 리론적서술에서 일정한 깊이가 보장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어학》에서는 관형사를 보통관형사, 표수관형사, 지시관형사, 의문 및 부정관형사의 네개 부류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용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355~359페지)

보통관형사는 《보통으로 사물의 상태를 표시하는 관형사》를 이르는데 고유조선어로 된것은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강, 날, 들, 통, 맨, 메, 풋, 새, 수, 숫, 찰, 암, 올, 외, 햇, 헛》을 들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문제점이 내포되여있다. 즉 고유한 의미에서의 관형사와 형태소로서의 앞붙이가 구별되지 않고 혼동되고있는것이다.

물론 단어로서의 관형사와 형태소로서의 앞붙이를 구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미론적전일성, 구조-형태론적전일성과 함께 단어의 기본표식인 명명적기능과 문장론적기능을 가지고있으면 관형사로 될것이며 그러한 표식을 가지고있지 못하면 형태소인 앞붙이로 될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조선어학》에서 보통관형사라고 하여 렬거한 적지 않은것들에는 관형사라기보다는 앞붙이로 처리해야 할것들이 많은것이다.

이것은 이 문법이 아직도 관형사와 앞붙이의 구획문제를 상정시키고 해결할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어학》에서는 《사물의 수량을 표시하는 관형사》라고 하여 표수관형사를 들고 그것을 기수관형사(례: 한, 두, 세, 여덟), 서수관형사(례: 첫, 첫째, 열째), 배수관형사(례: 곱, 반)의 세개 부류로 나누면서 표수관형사 《한, 두, 세, 첫》은 표수명사 《하나, 둘, 셋, 처음》과 구별되여있고 나머지는 표수명사가 그대로 관형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있소.》의 《한》은 관형사이고 《사람이 하나이오.》의 《하나》는 명사이며 《아홉 사람이 왔소.》의 《아홉》은 관형사이고 《사람이 아홉이오.》의 《아홉》은 명사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 문법에서 수사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명사에 소속시키면서 같은 수사라도 그 문장성분적기능이 다르면 관형사와 명사로 구별되는것으로 보자는것인데 이 점에서는 문장성분적기능만을 중시하여 품사소속의 2중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선행문법의 제한성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이 문법에서는 《사물을 지시하는 관형사》라고 하여 지시관형사를 설정하고 여기에 《이, 그, 저》를 소속시키고있다. 이것은 대명사를 따로 설정하면서도 그것이 명사앞에서 규정적으로 쓰일 때 지시관형사로 처리한것으로서 품사소속의 2중성을 인정하고있는 점에서 표수관형사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다.

마자막으로 이 문법에서는 의문 및 부정(不定)관형사로서 《몇, 어느, 무슨, 웬》을 들면서 이것들은 의문과 부정의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쓰고있는데 《어느, 무슨, 웬》은 《현금조선문전》에서도 이야기된것이지만 《몇》은 이 문법에서 수량관계의 관형사로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몇》은 격토를 취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무슨, 웬》과 구별되며 관형사라기보다는 명사로 처리하는것이 마땅할것이다.

《조선어학》은 관형사의 품사적특징을 밝히고 그 부류를 설정하는데서 선행한 문법들보다 많은 점에서 전진하고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관형사와 앞붙이를 혼동하고있는것이라든가 일부 체언의 규정어적사용을 관형사로 처리함으로써 품사소속의 2중성을 허용하고있는것 등 일련의 제한성을 나타내고있다.

이 측면에서 《우리 말본》(최현배, 1937년)은 일정하게 전진하였다고 할수 있다. 즉 《우리 말본》에서는 《임자씨를 꾸미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규정어로 쓰일수 있는 일곱가지 경우를 들고 명사, 동사, 형용사가 규정어로 되는것을 관형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올벼, 홀어미, 외아들》의 경우에 《올, 홀, 외》를 《머리가지(앞붙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정말 어떤씨인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무슨, 웬, 요, 그, 한》을 들고 이것들은 대명사나 수사와 어원상으로 동일하지만 관형사(어떤씨)로서 독특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선행문법들에서 발로되였던 일련의 제한성을 일정하게 극복하면서 독특한 품사로서의 관형사의 범위를 확정한것으로서 긍정적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말본》에서는 관형사의 범위를 한층 넓히면서 《역시 어떤씨로 된것》이라고 하여 《~적(的)》을 관형사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 문법에서는 《~적(的)》을 관형사라고 하면서도 《~ 적(的)이다》의 경우에는

《~적(的)》을 이름씨(명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관형사가 술어로 될수 없다는 문법적표식에 비추어 어쩔수 없이 취해진 궁여지책으로서 이렇게 되면 동일한 단어에 대한 품사소속의 2중성이라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것이다.*

* 《~적》문제와 관련하여 해방후 우리의 문법들에서는 일관하게 명사로 처리하고있는데 그것은 이 부류의 단어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격토를 취할수 있으며 체언서술형토 《이》를 취하여 술어로 되는 점을 고려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어품사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에서는 《이 단어는 체언의 형태체계를 갖추고있으며 용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시말하여 체언과 용언의 2중적성격을 가진 단어부류》로 규정하고있다. (148페지)

20세기초부터 많은 문법학자들의 관심사의 하나로 되여왔던 관형사문제는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그 품사적특징이 리론적으로 정식화되고 부류가 확정되게 되였다.

《조선어문법(1)》(과학원출판사 1960년)에서는 관형사란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부류로서 형용사와는 달리 형태변화체계를 가지지 않고 오직 규정어로만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합적특성을 리론적으로 밝히고있다.

첫째로, 관형사는 형용사와 달리 명사로 명명되는 대상의 표식만을 나타내며 대명사로 지시되는 대상의 표식을 나타내는 일이 거의 없기때문에 관형사는 대명사와의 결합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있다.

둘째로,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가 나타내는 수량이나 순서에 대하여 그 어떤 표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관형사와 수사와의 결합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특수하게 《근, 단, 제》와 같은 관형사는 수사앞에서 수량적 또는 순서적표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어서 《근 삼십이 된 사람》, 《단 하나도 없다》, 《제 륙십 …》 등에서 관형사 《근, 단, 제》는 수사 《삼십, 하나, 륙십》과 결합하고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셋째로, 관형사에는 그 어떤 토도 결합할수 없다.

결국 관형사는 특히 명사와만 관련을 가지는 단어라고 할수 있는것만큼 이것을 체언앞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것처럼 인식하면서 그전에 일반적으로 련체어라고 한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없다.

이 문법에서는 관형사를 그 의미의 특성에 따라 성질관형사(례: 막다른, 별별, 별의별, 본, 순, 새, 헌튼, 딴, 여느, 오른, 옛, 왼)와 분량관형사(례: 각, 근, 단, 모든, 매, 여러, 온, 온갖)로 나누었다. (452~455페지)

이처럼 국어의 품사분류에서 관형사의 설정문제는 다른 품사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과정을 밟아왔다고 할수 있다.

제 2 절. 부 사

1. 부사의 개념

부사란 용언을 수식하는 품사로서 관형사와 함께 수식언에 속한다.

부사는 원칙적으로 그 어떤 형태변화체계도 가지고있지 않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공통성이 있으나 오직 행동, 상태의 특징만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관형사와 구별된다.

부사는 제한된 수의 무형태어들이 행동, 상태에 대한 수식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부사에는 행동의 방식과 방향, 시간과 장소, 속도, 행동과 상태의 정도와 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속한다.

○ 행동의 방식과 방향: 급히, 빨리, 널리, 바삐, 조용히, 더러, 날날이, 힘껏, 자주, 멀리, 가까이

○ 행동의 시간과 장소: 이미, 벌써, 아까, 방금, 장차, 곳곳이, 집집이

○ 행동과 상태의 정도: 가장, 많이, 아주, 매우, 훨씬, 무척, 더욱, 더, 좀

○ 부정: 아니(안), 못

이밖에 부사에는 단어나 문장을 접속하는데 쓰이는 단어, 이야기내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 즉 양태성을 나타내는 단어, 행동이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도 속하게 된다.

○ 접속: 또는, 혹은, 및, 겸

○ 양태성: 더구나, 하물며, 오히려, 혹시, 만약, 설사, 비록, 부디, 설마, 아마, 행여나, 대관절

○ 상징성: 탕탕, 살살, 덜커덩, 알락달락, 아롱다롱

부사의 특수한 부류로서 행동, 상태의 특징에 대한 지시나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

○ 지시: 이리, 저리, 그리, 이리저리, 그리저리, 이다지, 저다지, 그다지, 이만, 저만, 그만

○ 의문: 왜, 어찌, 어이, 아무리

부사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일련의 문법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부사는 그 어떤 형태론적범주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문장론적으로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기본기능으로 된다.

○ 경제강국건설을 위하여 전체 인민이 모두 떨쳐나섰다.

○ 정원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매화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부사들은 2차적으로 토를 덧붙여 해당한 문법적형태를 이루면서 규정어, 술어, 주어 등으로 될수도 있다.

○ 그는 스스로의 가책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 없었다.

○ 우리가 묘향산으로 떠난것은 그날 아침 일찌기였다.

○ 그를 만나기에는 아까가 참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일부 부사는 진술내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표현하는 양태어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단어나 문장의 련계의 성격을 밝히는 접속어로 쓰이기도 한다.

○ 대관절 이 일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정말 금강산의 절묘한 자연은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요.

○ 아마 래일은 눈이 올것 같아요.

○ 비가 오기는커녕 오히려 해만 쨍쨍 비쳤다.

○ 박동무는 공부도 잘하지만 또 체육도 잘합니다.

부사는 력사적으로 다른 품사의 일정한 형태가 화석화되고 수식의 기능을 놓게 되면서 품사전환으로 산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형적인것으로 바로 형용사로부터 전환된 부사를 들수 있다.

○ 城 높고 ᄃᆞ리 업건마ᄅᆞᆫ(《룡비어천가》 34장)＝형용사

○ 子孫이 다 노피 ᄃᆞ외ᄂᆞ니라(《삼강행실도》 효자 9장)＝ 부사

○ 톱 길며 엄이 길오(《월인천강지곡》 상권 60장)＝형용사

○ 究竟ᄒᆞ야 기리 寂滅ᄒᆞ미(《월인석보》 13권 49장)＝부사

이처럼 뒤붙이 《이》에 의해서 형용사로부터 부사로 전성되는것과는 달리 형용사로부터 명사로 전성되는것은 력사적으로 《ᄋᆡ/의》에 의해서 실현되고있었다.

○ 노ᄑᆡ 다ᄉᆞᆺ자히러라(《월인석보》 21권 192장)＝명사

○ 기릐와 너븨왜(《금강경삼가해》 2권 20장)＝명사

현대국어에서는 명사와 부사가 다 《높이, 길이》로 되여 동음이의적인것으로 되여있으나 중세어에서는 이 두개 품사가 뒤붙이의 차이에 의해서 엄격히 구별되고있어 부사는 철저하게 《—이》형으로, 명사는 《—ᄋᆡ/의》형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그후 《—ᄋᆡ/의》가 어음변화에 의하여 《—이》로 되면서 형용사에서 파생한 명사와 부사가 동음이의어로 되고말았다.

2. 부사의 부류

부사는 우선 그 조성의 특성에 따라 크게 일반부사와 상징부사로 나눈다.

[1] 일반부사

일반부사는 일정한 어휘적의미를 가지는 단어들로부터 생겨난 부사로서 그 어휘—문법적특성에 따라 양상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 부정부사, 후치

부사로 나눈다.

1) 양상부사

부사의 가장 전형적인 부류로서 문장에서 주로 상황어로 된다.

○ 동수는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다.

○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고 외국손님들은 대단히 감탄하였다.

양상부사는 뒤에 오는 어떤 품사를 수식하는가에 따라서 행동부사와 성질부사로 나눌수 있다.

(1) 행동부사

행동부사는 동사와 결합하여 동사로 표현된 행동의 방식이나 특징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① 행동의 방식

깊이, 높이, 널리, 반가이, 철저히, 은은히, 꾸준히, 속히, 바삐

② 행동의 방향, 장소

멀리, 가까이, 곳곳이, 집집이

③ 행동의 시간,

이미, 벌써, 아까, 방금, 곧, 금방, 거의

④ 행동의 특징

이리, 저리, 그리, 이럭저럭, 그럭저럭, 이만, 저만, 그만

⑤ 행동의 특징에 대한 의문

왜, 어찌, 어째서, 어이

(2) 성질부사

가장, 매우, 대단히, 지극히, 상당히, 훨씬, 무척, 조금, 약간, 퍽, 자못, 꽤

2) 양태부사

양태부사는 말하는 사람이 진술내용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립장 즉 양태성의 의미를 더해주는 부사로서 문장에서 문장상황어(양태어)로 된다.

○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라구?

○ 부디 이번 실험에서는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① 확신

물론, 결코, 정말, 사실, 과연, 실로, 참으로, 참

② 가정

만약, 만일, 가령, 설사

③ 추측

아마, 설마

④ 요구

부디, 제발, 아무쪼록, 꼭

⑤ 의혹

대관절, 도대체

⑥ 의지
기어코, 기어이
⑦ 의무성
마땅히, 응당, 반드시, 모름지기
⑧ 진술의 련계
오히려, 더구나, 더우기, 하물며, 결국

3)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단어 또는 문장을 이어주면서 접속어로 되는 부사이다.

및, 겸, 또, 또한, 또는, 혹은, 그리고

○ 조선인민은 슬기롭고 용감하며 또한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 김동무와 박동무와 그리고 장동무까지 이 일을 맡아나섰다.

4) 부정부사

부정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그자체로서는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될수 없고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하나의 문장성분이 된다.

아니(안), 못

○ 병원일군들의 그 정성에 머리를 아니 숙일수 없었다.
○ 왜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야단이냐?
○ 넌 오늘 거기에 절대로 못 간다.

5) 후치부사

후치부사는 체언의 일정한 격형태뒤에 오면서 그 의미를 정밀화하고 그것과 함께 하나의 문장성분을 이루는 부사이다.

더불어, 아울러, 하여금

○ 나는 박동무와 더불어 다음 방언조사계획을 토의하였다.
○ 공구생산분야에서는 제품생산의 CNC화와 아울러 무인화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 호소문은 청년들로 하여금 청춘의 기백을 힘껏 떨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이 후치부사들은 동사의 한 형태에서 기원한것으로서 체언의 구격형태나 조격형태의 뒤에 결합하여 쓰이게 되면서 그 의미를 정밀화하는 보조적기능을 수행하게 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경우 후치부사는 앞에 오는 체언의 의미를 정밀화하는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것만큼 자립적인 문장성분으로 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후치부사에는 자립적으로 쓰이던 부사들이 경우에 따라 보조적기능을 수행하게 된것도 있다.

함께, 같이, 가까이, 따라

○ 학급 전체 성원이 함께 혁명전적지답사를 떠났다. (자립적의미)
박동무는 그들과 함께 혁명전적지답사를 떠났다. (보조적의미)

○ 우리가 탄 급행렬차는 해안선을 따라 쾌속으로 달리였다. (자립적의미)
날씨가 오늘따라 퍼그나 무덥구나. (보조적의미)

이렇듯 일반부사는 문장론적기능의 각도에서 자립부사와 보조부사로 구분할수 있으며 자립부사에는 양상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가 속하고 보조부사에는 부정부사, 후치부사가 속하는데 일부 후치부사는 간혹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2] 상징부사

상징부사는 사물현상의 여러가지 특징을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을 감각적으로 상징하여 나타내는 부사이다.

상징부사는 어휘—의미론적으로 다른 품사와 달리 어떤 개념에 대응하는것이 아니라 사물현상에 대한 직감적인 상징을 그 내용으로 한다.

○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닥친다. [형용사]
○ 눈보라가 휘—휘 불어닥친다. [상징부사]
○ 모든 일을 쉽사리 해제낀다. [일반부사]
○ 모든 일을 척척 해제낀다. [상징부사]

상징부사는 다른 부사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형태론적범주도 가지지 않으며 문장에서 그자체만으로 다양한 성분적기능을 노는 문장론적특징을 가지고있다.

○ 약산단의 꽃무늬는 알락달락 곱기도 하다.
○ 순이는 반장의 얼굴을 말똥말똥 올려다보며 웃기만 하였다.
○ 4월에 들어서니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오고 한들한들 버들가지가 거리의 풍치를 한결 돋구어준다.
○ 이 산에서도 뻐꾹, 저 산에서도 뻐꾹.

상징부사의 이러한 용법은 오늘 동요나 동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있다.

○ 방긋 웃음 핀 우린 꽃송이
(동요 《우린 꽃송이 우린 꽃나비》)
○ 학교 갔다 오는 길
꽃나비 팔랑팔랑
내 머리 빨간 리봉 꽃인줄 아나봐요
(동시 《내가 단 꽃리봉》)

이것은 본래 상징부사가 그 어떤 토의 첨가없이 널리 쓰이여왔던 력사적전통을 이어받은것으로 된다.

○ 두귀는 쫑긋
앞발은 잘룩
두눈은 도리도리
뒷발은 깡충
꽁지는 모뚝
(《토끼타령》)

○ 저 할미새
  이리로 가며 팽당그르르
  저리로 가며 팽당그르르
  (《새타령》)

상징부사는 단어조성의 측면에서도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① 상징부사는 단어조성에서 양성과 음성의 모음조화법칙을 강하게 유지하고있다.

② 상징부사는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3류음체계에 의한 자음교체에 의해서 일층 풍부화되고있다.

③ 상징부사는 단어조성에서 반복의 수법을 많이 쓰고있다.

[3] 일반부사와 상징부사의 차이

일반부사와 상징부사는 다같은 부사로서 문법적특성에서 류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일반부사와 상징부사는 일정한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상징부사는 일반부사와는 달리 객관세계를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색있는 어음구조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 수리봉이 높이 솟아있다. [일반부사]
○ 수리봉이 우뚝 솟아있다. [상징부사]

둘째로, 일반부사는 단어조성의 수법으로 접사의 수법(례: 드높이), 말뿌리합성의 수법(례: 더욱더), 품사전성의 수법(례: 정말) 및 어음변화의 수법(례: 이리/요리)이 쓰이고있는데 상징부사의 단어조성수법으로는 주로 모음변화(례: 오목오목/우묵우묵), 자음변화(례: 달랑달랑/딸랑딸랑) 등의 어음변화의 수법이 기본으로 되여있으며 말뿌리합성(례: 푸릇푸릇)의 수법도 쓰이고있다. (구체적인것은 《3. 부사의 조성》에서 언급될것이다.)

셋째로, 일반부사는 그 부류에 따라 문장에서 상황어, 양태어, 접속어로 되지만 상징부사는 일반부사와는 달리 양태어, 접속어로 되는 일이 없으며 반면에 상황어, 규정어, 술어로 널리 쓰일수 있는데 이것은 국어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

○ 봄바람이 산들산들. (술어)
○ 아롱아롱 무지개 정말 고와요. (규정어)
○ 자동차는 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씽씽 달려나갔다. (규정어, 상황어)

상징부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한때 상징부사를 독립적인 품사로 승격시켜 《상징사》를 설정하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상징사》는 사물현상의 여러가지 특징을 감각적으로 상징하여 나타내는것으로서 시각적인것, 청각적인것, 후각적인것, 미각적인것, 촉각적인것 등을 형상적으로 나타내기때문에 그 어떤 개념에 대응하는것이 아니라 사물현상에 대한 직감적인 상징을 내용으로 한다는것이다. *

* 《현대조선어(2)》(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년),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

우리 말처럼 상징부사가 발달되여있는 언어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것이 다른 품사와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우리 말 어음구성의 풍부성에 의해서 그 조성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자립적인 품사로 내오겠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더 론의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3. 부사의 조성

[1] 일반부사의 조성

1) 합침법

(1) 명사(혹은 수사)의 반복

① 명사+명사
  ○ 군데군데, 조심조심, 주저주저

② 명사+명사+뒤붙이
  ○ 곳곳이, 낱낱이, 번번이, 집집이, 틈틈이, 끝끝내

③ 수사+수사+뒤붙이
  ○ 일일이

(2) 대명사+명사
  ○ 어느덧, 어느새

(3) 부사+수사
  ○ 또한

(4) 부사+부사
  ○ 더더구나, 더욱더, 좀더

2) 접사법

(1) 앞붙임법
  ○ 드높이, 외따로

(2) 뒤붙임법

① 명사적요소+뒤붙이
  ○ 끝내, 종내, 마음껏, 정성껏, 성의껏, 힘껏, 목청껏

② 대명사+뒤붙이
  ○ 제가끔, 이다지, 그다지, 저다지, 제법, 이럭저럭

③ 동사말뿌리+뒤붙이
  ○ 마주(맞+우), 도로(돌+오), 너무(넘+우)

④ 형용사말뿌리+뒤붙이
  이: 같이, 고이, 굳이, 깊이, 널리, 높이, 달리, 많이, 바삐, 반듯

이, 새로이, 헛되이
히: 간절히, 고요히, 공손히, 단단히, 든든히, 마땅히, 분명히, 섭섭히, 심히, 조용히, 용감히, 지극히
오: 바로, 비뚜로
우: 겨우, 고루, 되우, 매우

⑤ 부사+뒤붙이
○ 다시금, 마침내, 이따금, 가뜩이, 곰곰이

3) 품사전성법

(1) 명사→부사
○ 대체, 련속, 사실, 정말, 진정, 도합
○ 단숨에, 얼결에, 당초에, 불시로, 진실로, 정말로, 때때로, 앞으로, 억수로

(2) 동사→부사
○ 및, 결코, 더러, 무심코, 뒤미처, 미처, 하여튼, 아울러, 있다가

(3) 형용사→부사
○ 곧, 시큼시큼

4) 어음전환법

(1) 모음전환
○ 이리－요리, 저리－조리, 이다지－요다지, 이만－요만

(2) 자음전환
○ 골골－콜콜, 기웃기웃－끼웃끼웃

5) 단어결합의 전환

○ 례컨대, 불현듯, 부리나케, 쏜살같이, 남달리, 부랴부랴

[2] 상징부사의 조성

1) 어음전환법

(1) 모음전환

① 아－어
○ 달달－덜덜, 착착－척척, 달각－덜걱, 찰찰－철철
○ 찰싹찰싹－철썩철썩, 찰랑찰랑－철렁철렁, 알락달락－얼럭덜럭, 싸각싸각－써걱써걱

② 아－오
○ 살살－솔솔, 잘잘－졸졸

③ 오－우
○ 폭폭－푹푹, 졸졸－줄줄, 콜콜－쿨쿨
○ 동골동골－둥굴둥굴, 보골보골－부굴부굴, 오목오목－우묵우묵,

④ 애－에
○ 땡땡－뗑뗑
○ 대각대각－데걱데걱, 재깍재깍－제꺽제꺽

⑤ 와－워
○ 와삭와삭－워석워석, 와락와락－워럭워럭

⑥ 와－우
○ 화끈화끈－후끈후끈, 와글와글－우글우글

(2) 자음전환

① ㄱ－ㄲ－ㅋ
○ 감빡감빡－깜박깜박, 덜걱덜걱－덜꺽덜꺽－덜컥덜컥
골골－콜콜, 기웃기웃－끼웃끼웃

② ㄷ－ㄸ－ㅌ
○ 달각달각－딸각딸각, 덜렁덜렁－떨렁떨렁,
더벅더벅－터벅터벅

③ ㅂ－ㅃ－ㅍ
○ 빙글빙글－삥글삥글, 번들번들－뻔들뻔들－펀들펀들

④ ㅅ－ㅆ
○ 사근사근－싸근싸근, 수근수근－쑤근쑤근,
생글생글－쌩글쌩글

⑤ ㅈ－ㅉ－ㅊ
○ 종알종알－쫑알쫑알, 징얼징얼－찡얼찡얼－칭얼칭얼

2) 말뿌리합성법

(1) 같은 말뿌리합성
○ 살살, 딱딱, 땡땡, 졸졸, 캄캄, 반짝반짝, 주렁주렁, 중얼중얼, 차곡차곡, 종알종알, 싱글싱글

(2) 비슷한 말뿌리합성
○ 어슷비슷, 싱글벙글, 언틀먼틀, 우락부락, 오롱조롱

(3) 서로 다른 말뿌리합성
○ 엉거주춤, 헐레벌떡, 시큼털털, 왁자지껄

3) 품사전성법

(1) 명사→상징부사
○ 구석구석, 줄기줄기, 굽이굽이, 둘레둘레, 동강동강

(2) 동사→상징부사
○ 더듬더듬, 딩굴딩굴, 흔들흔들

(3) 형용사→상징부사
○ 구불구불, 둥글둥글, 시들시들

제 5 장. 독 립 언

제 1 절. 독립언으로서의 감동사의 개념

독립언이란 문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되여있어 그 어떤 다른 문장성분과의 문법적인 관계도 맺고있지 않은 품사를 말한다. 독립언에 속하는 품사는 오직 감동사 하나뿐이다.

감동사란 말하는 사람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명명을 거치지 않고 직감적으로 나타내는 품사를 말한다.

감동사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 관점과 립장을 직감적으로 표현하는것만큼 거기에는 그 어떤 개념도 나타나지 않는데 단어가운데서 개념과 무관계한 품사는 감동사 하나뿐이다.

국어에서 감동사는 매우 풍부하게 발달되여있다. 즉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기쁨, 슬픔, 반가움, 놀라움, 두려움, 아쉬움, 안타까움 등 미세한 차이를 가지는 여러가지 감정을 감동사로 나타낼수 있다.

① 여러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감동사

○ 아, 오, 어이구, 이키, 후유, 에익, 아차, 에그머니, 쯔쯔, 홍

② 요구를 나타내는 감동사

○ 자, 여보, 어이, 쉿, 이봐, 이랴

③ 긍정을 나타내는 감동사

○ 예, 응, 암, 아무렴, 그래, 오냐

④ 부정을 나타내는 감동사

○ 아니, 천만에

⑤ 불확신을 나타내는 감동사

○ 글쎄

제 2 절. 감동사의 특성

감동사가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특성은 첫째로, 어휘－의미적측면으로 볼 때 그것이 아무런 명명적기능도 가지고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어떤 개념도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감동사는 다른 대부분의 품사와 달리 그 어떤 개념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무

런 어휘적의미도 가지고있지 않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단어가 일반적으로 지니고있는 의미는 애당초 감동사에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 불쌍해라, 저 꼴을 어찌 보겠나![형용사]

○ 에그머니나, 저 꼴을 어찌 보겠나![감동사]

감동사는 개념을 거치지 않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상징부사와 류사한 점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감동사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직감적으로 나타낼뿐 듣는 사람이나 제3자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수 없으며 또한 상징부사와 같이 사물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상징적표현이 없다.

○ 그는 그날의 약속을 깜빡 잊고말았다.[상징부사]

○ 아차, 그날의 약속을 잊고말았구나.[감동사]

○ 창혁이는 기가 막혀 허허 웃고말았다. [상징부사]

○ 허허, 저런 변고가 있나? [감동사]

바로 이러한 차이로 하여 동일한 감동사도 거기에 곁따르는 억양, 표정, 손짓 등이 달라짐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쓰이는 장면이나 문맥에서 어조에 따라 각이한 감정, 태도를 나타낼수 있게 되는것이다.

○ 야, 네가 바로 순이로구나! [반가움]

○ 야, 저건 굉장한 불꽃놀이로구나.[놀라움]

○ 야, 이건 정말 너무해요! [억울함]

○ 야, 정말 네가 기어이 여길 떠난단 말이냐! [섭섭함]

감동사가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특성은 다음으로 어떤 문법적범주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그 어떤 토도 붙을수 없다는것이다. 다만 일부 감동사들이 계칭에 따르는 자기의 짝을 가질수 있는데 그때 일부 토가 붙을수 있다.

○ 여보－이봐요－여보세요

○ 응－예－오냐

○ 천만에－천만에요－천만입니다

감동사가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특성은 또한 문장에서 그 어떤 성분과도 관계를 맺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문장 전체와 관계를 맺든지 혹은 전혀 단독적으로 쓰인다는 점에 있다.

○ 예, 제가 하지요.

○ 아이구, 저게 누구야?

○ 옜다! 너나 가져라.

감동사가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특성은 마지막으로 단어조성의 류형이 어음변화, 품사전성, 단어결합의 응축 등에 기원한것뿐이고 접사의 수법이나 말뿌리합성의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 없다는 점을 들수 있다.

① 어음변화의 수법

○ 아－어－오－예

○ 아이고－어이구－에이구

○ 이키－에키
○ 하－허－호－홍

② 품사전성의 수법
○ 그래, 그럼, 아무렴[형용사→감동사]
○ 아니[부사→감동사]

③ 단어결합의 응축
○ 여보(← 여기 보오)
○ 이봐(← 이것 봐)
○ 옜다(← 예 있다=여기에 있다)
○ 애구머니(← 아이구 어머니)
○ 애구머니나(← 아이구 어머니야)

제 6 장. 단어의 품사통용

제 1 절. 품사통용의 개념

모든 단어는 그 어휘－문법적특성에 따라 다 일정한 품사에 소속되여 있다. 그러나 일부 단어는 하나이상의 문법적성질을 동시에 가지고있는것이 없지 않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일부 단어는 여러 품사로 통용되는 일이 있다.

○ 작업반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다. (부사)
작업반원 모두를 빨리 모이게 하시오. (명사)
○ 오늘은 눈이 아니 오겠구나. (부사)
아니,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였단 말이냐! (감동사)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선어품사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에서는 《품사전환》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은 일정한 단어가 어음적외피의 변화없이 본래의 품사적특성을 잃고 다른 품사적특성을 나타내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단어의 품사적특성의 변화는 단어의 어휘의미적특성과 문법적특성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서술하였다. (81～84페지)

그런데 문제는 일부 단어가 여러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것을 품사의 전환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품사의 통용으로 보겠느냐 하는것이다.

한 단어가 여러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주석사전에서는 한 올림말에서 두 품사의 통용을 밝히거나 올림말을 달리하여 통용되는 품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표시할수 있다.

례를 들어서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년]에서는 《처음》이라는 올림말을 명사로 규정하여 주석을 주고나서 [부사로 쓰이여]라고

하여 그 용례를 주고있으며 또 《아무》는 대명사로 규정하여 주석을 준 다음에 [관형사로 쓰이여]라고 하여 《아무런》, 《어떠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설하고있다.

만약에 품사의 전환이라면 다른 품사로 되였다는것이니까 응당 올림말에서 품사를 밝혀야 하겠는데 이 주석사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영어의 경우에도 품사의 통용이 적지 않은데 대체로 한 올림말에서 두 품사의 통용을 밝히고있다.

례: open ① (형용사로) 열린, 널직한 ② (명사로) 공지
interior ① (형용사로) 내부의, 내적인 ② (명사로) 실내

한 단어가 두개 또는 세개의 품사적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것을 품사의 전환으로 보겠는가 아니면 품사의 통용으로 보겠는가 하는데서 《조선말대사전》은 올림말을 주석함에 있어서 한 품사가 다른 품사로 전환한것으로 보기보다는 품사의 통용으로 보는 립장에 서있었다고 할수 있다.

제 2 절. 품사통용의 류형

1. 명사와 부사, 관형사의 통용

명사와 부사, 관형사의 통용에서 가장 전형적인 례로 되는것은 《－적》으로 된 단어이다. 그것은 《－적》으로 된 단어가 격토 《으로》나 서술형토 《이》를 취할수 있다는 점에서 명사적인것 같지만 그것이 주어나 객어로 될수 없는 문법적제약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명사와 구별되고 반면에 그것이 자체로 수식의 기능을 가지고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관형사나 부사와 비슷한 측면이 있기때문이다.

① 그는 351고지에서 영웅적으로 희생되였다.
② 351고지에서 발휘한 그의 희생정신은 영웅적이였다.
③ 그의 영웅적희생정신은 우리모두의 본보기로 되였다.

《영웅적》이라는 단어가 토 《으로》를 취해서는 명사격형태로 되여 상황어로 되였으니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할수 있고 서술형토 《이》를 취해서는 술어로 되였으니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런 토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능상 관형사적인 용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경우에 이것을 품사의 전환으로 하기보다는 품사의 통용으로 설명하는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명사가 관형사로 통용될수 있는것은 《순수, 일체, 처음, 온갖, 여러》 등이다.

한편 명사는 부사로도 통용될수 있다.

④ 그의 한평생은 영광으로 빛나는 한생이였다.

⑤ 그 감격적인 이야기는 평생 잊을수가 없었다.

④의 《평생》은 명사적으로 쓰인것이며 ⑤의 《평생》은 부사적으로 쓰인것이다.

⑥ 우리는 서로가 돕고 화목하게 산답니다.

⑦ 한집안식구인데 서로 도와야지요.

⑥의 《서로》는 명사로 쓰인것이며 ⑦의 《서로》는 부사로 쓰인것이다.

⑧ 우리는 집단속에 살고있으니 혼자가 아닙니다.

⑨ 그때 나는 고향땅에 혼자 갔었다.

⑧의 《혼자》는 명사로 쓰인것이며 ⑨의 《혼자》는 부사로 쓰인것이다.

명사가 부사로 통용될수 있는것으로는 그밖에 《순간, 선참, 지금, 일부, 사실, 실지》 등과 같은것이 있다.

2. 명사와 부사, 감동사의 통용

① 그가 한 말은 꾸밈이 없는 정말이다.

②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정열가이다.

③ 정말 네가 대단하구나!

①의 《정말》은 명사로 쓰인것이며 ②의 《정말》은 부사로 쓰인것이고 ③의 《정말》은 감동사로 쓰인것이다.

3. 명사와 감동사의 통용

① 할아버님께서 부디 건강하시여 천세, 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②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①의 《만세》는 명사로 쓰인것이며 ②의 《만세》는 감동사로 쓰인것이다.

4. 대명사와 관형사의 통용

① 어제 누가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② 그 일은 아무 사람도 알수가 없었다.

①의 《아무》는 인물의 의문대명사로 쓰인것이며 ②의 《아무》는 관형사로 쓰인것이다.

③ 오늘 사과상자 몇을 가져왔느냐?

④ 이번 토론회에는 몇사람이나 왔습니까?

④의 《몇》은 사물의 의문대명사로 쓰인것이며 ④의 《몇》은 관형사로 쓰인것이다.

5. 형용사와 동사의 통용

①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라 달이 매우 밝구나.

② 새벽바람이 불더니 날이 벌써 밝는구나.

①의 《밝구나》는 형용사로 쓰인것이며 ②의 《밝는구나》는 동사로 쓰인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형용사의 동사화로 보아야 하기때문에 전형적인 품사통용으로는 볼수 없다고 생각한다.

6. 부사와 감동사의 통용

①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여 바람이 아니 부는구나.

② 아니! 네가 정말 대학생이 됐단말이냐!

①의 《아니》는 부정부사로 쓰인것이며 ②의 《아니》는 감동사로 쓰인것이다.

7. 관형사와 감동사의 통용

① 저게 무슨 사람들이냐?

②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①의 《무슨》은 관형사로 쓰인것이며 ②의 《무슨》은 감동사로 쓰인것이다.

이처럼 품사의 통용이 가능한것은 매개 품사들이 각각 자기 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매개 품사들이 한가지 이상의 공통적인 문법적성질을 함께 가지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는데 그것이 개별적인 문장구조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데 따라서 이러저러한 품사적기능을 놀게 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제 3 편. 형 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째였습니다. 문법구조가 째였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였다는것을 말합니다. 특히 조선말은 토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달되였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권 102페지)

우리 말은 풍부한 어휘와 함께 정밀하게 잘 째여진 문법구조를 가지고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문법구조의 이러한 우수성은 다양하고 정밀한 단어형태의 체계적인 분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형태론에서는 문법적범주에 따르는 단어의 다양한 문법적형태와 그 의미기능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제 1 장. 단어의 문법적형태와 형태론적범주

단어의 형태론적범주는 단어의 문법적형태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동일한 부류의 문법적현상들을 묶어서 설정한다. 품사론에서 단어들의 어휘－문법적특성을 품사분류의 기본기준으로 삼았다면 형태론에서는 단어의 문법적형태에 나타나는 문법적의미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하여 형태론적범주들을 설정한다.

그리하여 단어의 형태론적범주를 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어의 문법적형태와 그 류형에 대한 리해가 전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제 1 절. 단어의 문법적형태와 그 류형

국어단어형태의 특성은 우선 우리 말 토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우리 말의 토는 교착적성격을 가지는 문법적형태소로서 굴절적성격을 가지는 유럽의 여러 언어의 어미와 구별될뿐아니라 굴절적성격도 교착적성격도 없는 좁은 의미의 접사와도 구별되는 교착접사이다.

우리 말의 여러 형태들중에서 어떤것을 좁은 의미의 접사와 구별하여 토라고 부르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지난날 주시경이나 김희상이 인식하여오던 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른바 현대언어학의 연구성과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 일부 견해에서는 유럽언어의 어미에 대응하는것만을 토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례를 들어서 《밝히시였다》에서 《히》, 《시》, 《였》은 접사로서 형태조성의 접미사이고 《다》만이 토라고 보았는데 그 리유인즉 여기서 《다》만이 어미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문장론적기능과 관련된 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는것이였다.*

* 《조선어형태론의 몇가지 기본적문제에 대하여》 1, 2(잡지 《조선어문》 1956년 1, 2호)

형태소의 분류에서 그것이 접사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결코 그 문법적기능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형태－구조적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제언어의 굴절어의 어미가 어미로 인정되는것은 그것이 단어의 문장론적기능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기때문인것이 아니라 굴절형태를 조성하기때문이다.

교착어인 우리 말의 경우에 제한성없이 교착하는 특성을 가지는 《시》, 《였》 등 형태소도 문법적의미를 담당한 토가 아닐수 없으며 오직 《밝히고》의 《히》와 같이 교착에서 제한성이 있는 형태소만이 토에서 제외된다. 즉 《시》, 《였》과 같은 형태소는 《히》와 같은 형태소가 여러가지 첨가적제약을 받는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그 론리적련계가 가능한 모든 단어에 첨가될수 있고 용언뿐만아니라 체언에도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일정한 문법적형태를 갖춘 단어뒤에 다시 첨가되기도 함으로써 자유로운 교착성을 보이고있는것이다.

○ 오늘 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영순이**였**다.

○ 작업반원들은 오늘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을 자랑하**였**다.

○ 그들이 오늘 계획을 넘쳐 수행한것은 다섯시가 지나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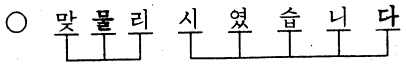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토 《였》은 명사서술형뒤에도, 동사말줄기인 《수행하－》의 뒤에도, 완결된 단어인 《지나서》의 뒤에도 붙어서 쓰이고있어 그 교착에서 큰 제한이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히》의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 말뿌리의 뒤라는 제한된 자리에 붙어 쓰이고있으며 형용사의 경우에는 단어조성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있어 《시》, 《였》이 순수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한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시》, 《였》 등을 토라고 하는것과는 달리 《히》의 경우에는 토라고 하지 않고 접사라고 부르게 되는것이다.

우리 말 토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국어의 단어형태에는 두개의 구조적중심이 있게 된다고 할수 있다. 즉 단어조성적중심으로서의 말뿌리와 함께 형태조성적중심으로서의 서술토가 바로 그것이다. 례를 들어서 《맞물리시였습니다》의 경우에는 단어조성적중심으로서의 말뿌리인 《물》의 앞뒤에 《맞》, 《리》와 같은 접사가 붙으며 형태조성적중심으로서의 서술토인 《다》의 앞에 《시》, 《였》, 《습》, 《니》와 같은 토들이 질서정연하게 붙

게 된다.

그리하여 《맞물리시였습니다》의 경우에는 두개의 구조적중심이 있게 된다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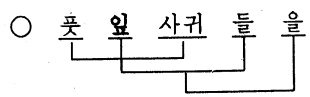


우리 말에서 《시》, 《였》, 《습》, 《니》와 같은 토들이 없는 단어형태는 존재할수 있으나 《다》, 《고》, 《며》, 《면서》와 같은 서술토가 없는 단어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는것이다.

○ 맞물리고, 맞물리며, 맞물리면서(가능함)

× 맞물리시, 맞물리였, 맞물리시였습(불가능함)

그러나 체언의 경우에는 우에서 례로 든 용언의 경우와 사정이 좀 다르다. 체언의 경우에는 용언의 경우와는 달리 단어조성적형태소들과 형태조성적형태소들이 서로 다른 두개의 중심을 이루면서 집결되는것이 아니라 단어말뿌리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형태소들이 그 주위에 차례로 첨가된다. 례를 들어서 《풋잎사귀들을》의 경우에는 말뿌리인 《잎》을 중심으로 그앞과 뒤에 《풋》과 《사귀》가 붙고 다시 복수토 《들》과 격토 《을》이 붙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체언과 용언은 단어형태를 이루는데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국어단어의 문법적형태는 그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대상적형태와 서술적형태, 위치적형태와 비위치적형태로 나눌수 있다.

1. 대상적형태와 서술적형태

국어단어의 문법적형태는 그 성격에 따라서 대상적형태와 서술적형태로 나눈다. 이 형태는 성격이 중첩되는 경우에 2중적형태로 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성격이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1) 대상적형태

대상적형태란 대상성을 가진 단어인 체언이나 대상화된 임의의 형태에 토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그자체로서는 서술성을 가지지 않는 형태이다.

그리하여 대상적형태에는 격형태와 복수형태가 속한다.

(1) 격형태

○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그는 남먼저 돌격대에 탄원하였다.

○ 열에서 다섯을 빼면 얼마지?

○ 오늘 경기에서 승리자는 누구인가가 관심사로 되였다.

(2) 복수형태

○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떨쳐나섰다.

○ 그들은 모두 전선으로 떠났다.

2) 서술적형태

서술적형태란 서술성을 가진 단어인 용언의 줄기나 서술화된 단어형태에 토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대상적형태와는 달리 일정한 서술력을 가지고있는 형태이다. 즉 어떤 사실을 현실과 귀착시켜서 이야기하는 능력을 가지며 따라서 긍정과 부정 또는 긍정과 부정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태성을 나타낼수 있다.

그리하여 서술적형태에서는 그 서술에 필요한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문법적관계의 표현이 요구되는것만큼 다양한 문법적범주가 나타날수 있으며 서술토에 의한 기능상 분화에 따라 종결형태, 접속형태, 상황형태, 규정형태로 나눌수 있다.

(1) 종결형태

○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난다.

○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 하루종일 일하신 아기 아버지
농부들도 평안히 잠들었어라
(김소월, 《여름의 달밤》)

(2) 접속형태

○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림자 같은 벗 하나이 내게 있었습니다
(김소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 락엽 덮인 봉황대 옛터에 오르니
고초 너머 이즈러지는 달그림자 안고
풀벌레 우네 나도 울었네(박로아, 《봉황대에 올라서》)

(3) 상황형태

○ 래일 아침 첫 등교에 늦지 않게 일찌기 자거라.

○ 올해에도 공장에서는 적극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 길길이 자란 수숫대는
이 가을이 가도록
기러기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낯을 붉혔네 온몸이 피에 젊었네
(박세영, 《타작》)

(4) 규정형태

○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한다.

○ 그것은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였다.

○ 그대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생각컨대 그대만이 알아주실것이외다(박팔양, 《그대》)

2. 위치적형태와 비위치적형태

국어단어의 문법적형태는 그것이 문장의 일정한 위치에서 성분적기능을 수행하는가 또는 그와 관련이 없는가에 따라서 위치적형태와 비위치적형태로 나눈다.

단어의 문장론적기능을 규정하여주는 형태를 위치적형태라고 하며 문장론적기능과 무관계한 형태를 비위치적형태라고 한다.

1) 위치적형태

위치적형태는 단어와 그 줄기에 토가 붙어서 그 단어의 문장론적기능을 규정하는 형태로서 앞에서 서술한 격형태와 종결형태, 접속형태, 상황형태, 규정형태 등의 서술형태가 그것이다.

그리고 종결형에서만 실현되는 식형태, 계칭형태도 이에 속한다.

○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앞장에 서야 합니**다**.

○ 선생님은 언제 가시겠습니**까**?

○ 해지기 전에 어서 떠나거**라**.

2) 비위치적형태

비위치적형태는 단어나 단어형태에 문장론적기능을 규정하는것과는 무관계한 토가 붙은 형태로서 복수형태, 상형태, 존칭형태, 시칭형태, 겸양형태*[1], 법형태, 체언서술형태와 용언대상형태*[2], 련관범주*[3]인 도움형태 등이 있다.

(1) 복수형태

○ 청년**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 그**들**은 어제 세포등판건설장에서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다.

(2) 상형태

○ 용해공들이 쇠물을 녹**인**다.

○ 어머니는 아이를 자리에 눕**힌**다.

(3) 존칭형태

○ 오늘 떠나**시**는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시**지요?

○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분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김소월, 《진달래꽃》)

(4) 시칭형태

○ 순이는 그가 언제 오**겠**는지 짐작을 못하고있**었**다.

○ 울림폭포의 경치는 정말 장관이**였**다.

(5) 겸양형태

○ 선생님께서 그곳으로 떠나가시였**습**니다.

○ 어제 고향에 가서 할아버님을 뵈**옵**고 말씀을 드렸어요.

(6) 법형태

○ 래일은 비가 오**리**다.

○ 영수가 오늘 집에 오겠다**더**라.

(7) 용언대상형태

○ 그와 사업하**기**가 헐치 않았지요.

○ 순이와 헤여**짐**을 생각하**기**란 정말 괴로운것이였다.

(8) 체언서술형태

○ 그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성**이**였다.

○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인** 단일민족**이**다.

(9) 도움형태

○ 너희**도**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 나는 가면서**도** 쉬면서**도** 그 계획수행문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 제2편 제3장 제3절의 2. 겸양범주를 참고할것.

*[2] 종래의 문법에서는 용언대상형태와 체언서술형태를 통털어 《바꿈형태》라고 하면서 《ㅁ(음), 기》와 《이》를 다 《바꿈토》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꿈토》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가가 명백하지 않을뿐아니라 단지 한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꾼다는 공통성만을 표식으로 하여 두개의 이질적인것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페단도 있다. 이러한 페단을 없애고 그 성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ㅁ(음), 기》는 용언대상형태라고 하고 《이》는 체언서술형태라고 하여 구별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3] 련관범주란 도움토가 붙어서 지정, 포함, 제한, 구획, 대조, 특징, 강조, 양보, 망라, 조건 등의 의미와 맺게 되는 사물, 현상간의 호상련관의 의미를 보충해주는것으로서 이것은 단어의 문장론적기능과는 무관계한 범주이다. 도움토의 이러한 련관적기능에 대해서 《조선어문법(1)》(과학원출판사 1960년)에서는 도움토가 포함, 제한, 구획, 대조, 특정, 강조, 양보, 망라, 조건, 고사, 선택, 추산 등의 의미와 맺게 되는 관련범주적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203～204페지)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년)에서는 도움토의 범위를 다시 확정한데 기초하여 정식으로 《련관성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162～168페지)

제 2 절. 형태론적범주의 부류

단어의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형태론적범주의 부류는 우선 체언과 용언에 따라 구분하며 다시 위치적인 범주와 비위치적인 범주로 나눈다.

체언의 경우에 위치적범주로는 격범주가 있으며 비위치적범주로는 수범주와 서술형범주가 있다.

용언의 경우에 위치적범주로는 전형적으로 단어종결형에 나타나는 식범주와 계칭범주가 있으며 비위치적범주로는 상범주, 존칭범주, 시칭범주, 겸양범주, 법범주, 대상형범주가 있다.

그리고 체언과 용언에 다 통용되는 비위치적범주로서 련관범주가 있다.

	대상적형태	서술적형태
위치적형태	격형태	종결형태/식형태, 계칭형태
		접속형태
		상황형태
		규정형태
비위치적형태	복수형태 용언대상형태	존칭형태
		시칭형태
		겸양형태
		법형태
		체언서술형태
	도움형태	

단어의 형태론적범주는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를 갈라서 위치적범주와 비위치적범주를 차례로 분석하도록 하며 도움토로 나타나는 련관범주는 마지막에 서술하도록 한다.

제 2 장. 체언의 형태론적범주

제 1 절. 격 범 주

1. 격범주의 개념과 체계

격범주란 대상성을 가지는 단어나 단어결합이 문장속에서 다른 단어 혹은 단어결합에 대하여 맺게 되는 관계 즉 문장론적위치를 밝혀주는 문법적

범주이다.

대상성을 가지는 단어나 단어결합이라고 할 때 우선 꼽게 되는것은 체언이며 그밖에 일련의 단어결합이나 문장이 마치 하나의 체언처럼 대상화되여 쓰이는 경우까지 념두에 두게 된다.

○ <u>봄이</u> 되면 <u>꽃이</u> 피고 <u>나비가</u> 날아든다. (단어)

○ 병천이는 <u>방에 들어서기가</u> 바쁘게 다시 나가버렸다. (단어결합)

○ 오늘의 축구경기에서는 <u>과연 어느 대학이 이기겠느냐가</u> 최대의 관심사로 되였다. (문장)

이처럼 일정한 단어나 단어결합, 문장이 다른 단어나 단어결합과 맺는 문장론적관계를 보여주는 격토는 1차적으로 단어에 붙으며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단어결합이나 문장에도 붙을수 있다.

격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격형태는 체언의 전형적인 위치적범주로서 그 쓰임의 빈도수가 대단히 높다고 말할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격형태는 명사 말줄기의 끝소리가 양성모음인가 음성모음인가 그리고 열린마디인가 닫긴마디인가에 따르는 교체가 규칙적으로 진행되고 활동체와 비활동체에 의한 격토의 교체도 있었다.

이것은 명사말줄기에 대한 격토의 교착성이 매우 밀접하고 그 의존성이 강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으로서 일종의 《외부굴절적》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 <u>創業規模ㅣ</u> 머르시니이다(《룡비어천가》 14장) [열린마디 뒤]

○ ᄒᆞᆫ <u>菩薩이</u> 王 ᄃᆞ외야 겨샤(《월인석보》 1권 5장) [닫긴마디 뒤]

○ <u>人間애</u> ᄂᆞ리샤(《월인석보》 1권 19장) [양성모음 뒤]

○ <u>慶興에</u> 사ᄅᆞ샤(《룡비어천가》 3장) [음성모음 뒤]

○ <u>놀애예</u> 일훔 미드니(《룡비어천가》 16장) [앞모음계렬 뒤]

○ <u>王位ᄅᆞᆯ</u> 맛드ᄃᆡ 아니 ᄒᆞ샤(《월인석보》 8권 90장) [열린마디 뒤]

○ <u>仁政을</u> 맛됴리라(《룡비어천가》 83장) [닫긴마디 뒤]

○ <u>나모와</u> <u>곳과</u>(《석보상절》 6권 40장) [열린마디 뒤/닫긴마디 뒤]

격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격형태의 이렇듯 정연한 체계는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여왔는데 격토가 명사 말줄기의 끝소리에 따르는 변이형을 가지게 되는 특징은 격토를 다른 토와 구별하는 주요표징으로 되고있다.

격토의 이 주요표징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하는데서 문제로 되는것은 지금까지 도움토부류에 넣고 격토에서 제외하였던 《는/은》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 <u>아ᄃᆞᄅᆞᆫ</u> 어딜어늘(《월인석보》 2권 5장) [양성모음 뒤]

○ ᄉᆡ미 기픈 <u>므른</u>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룡비어천가》 2장) [음성모음 뒤]

○ <u>又ᄂᆞᆫ</u> 또 ᄒᆞᄂᆞᆫ ᄠᅳ디라(《석보상절》 서문 5장) [열린마디 뒤]

○ <u>大闕은</u> 큰 지비니 님금 겨신 지비라(《월인석보》 1권 10장) [닫긴

마디 뒤]

중세국문문헌자료에 의하면 《는/은》은 다른 격토와 마찬가지로 음성모음인 조건에서 앞에 오는 명사가 열린마디인가 닫긴마디인가에 따라서 교체되고있으며 그것은 양성모음 뒤에 오는 《ᄂᆞᆫ/ᄋᆞᆫ》과 대립하여 선택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ㆍ》가 소멸함에 따라 《ᄂᆞᆫ/ᄋᆞᆫ》이 쓰이지 않게 되고 후기에 와서는 《는/은》만이 남게 되였던것이다.

현대국어에서 《는/은》은 앞에 오는 명사말줄기에 따라 선택되는 결합조건이 다른 격토와 다를바 없다. 흔히 이 토가 다른 격토에 비하여 고유한 문장론적기능을 가지지 않는 점을 들면서 격체계에서 이것을 제외하고있으나 그 발생발전의 력사적과정을 고려할 때 다른 격토와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은》을 도움토로 처리하는것이 오랜 기간 굳어져왔는데 그 근거로는 《는/은》이 《지정하는 관계》를 나타내며 다른 전형적인 도움토가 가지는 성격 및 기능을 가지고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년) 154~156페지

《는/은》이 《지정하는 관계》를 나타내고있다는것은 그것이 제시적기능을 가지고있다는 말로 리해할수 있는것인데 그것으로 하여 《는/은》이 주어뿐아니라 다른 문장성분의 경우에도 제시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는/은》의 기본기능은 그 어떤 고정된 문장성분적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제시적기능에 있는것이다.

○ 어뜩한 퍼스럿한 하늘 아래서
회색의 지붕들은 번쩍거리며
성깃한 섭나무의 드문 수풀을
바람은 오다가다 울며 만날 때
보일락말락하는 맷골에서는
안개가 어스러히 흘러 싸여라

(김소월, 《가을 아침에》)

만약에 격토를 규정함에 있어서 고정된 문장성분적기능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주격토라고 하는 《가/이》의 경우에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문장에서 주어로 되는것이 기본으로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어의 경우에만 쓰이는것이 아니라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객어나 보어의 경우에도 쓰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된다.

○ 나는 사과가 먹고싶다. (직접객체 즉 객어의 강조)

○ 그는 과학자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보어의 강조)

그리고 대격토라고 하는 《을/를》의 기본기능이 직접객체를 나타내는것

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간접객체나 장소를 나타내는데 쓰이기도 하여 여격이나 위격의 의미를 대신하기도 한다.

○ 원숭이가 새끼를 젖을 빨리고있다. (간접객체 즉 보어)

○ 철수는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있다. (행동의 목표 즉 보어)

○ 분이는 새벽에 집을 나섰다. (행동의 출발점 즉 보어)

이처럼 격토가 나타내는 문장론적관계는 다양하다. 그리하여 격토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문장성분적기능만을 념두에 둘것이 아니라 오랜 언어관습과 함께 일정한 력사성을 무시할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말줄기에 대한 교착성과 의존성이 다른 격토와 구별되지 않아 언어의식에서 다른 일련의 격토와 차이를 두지 않고있는 《는/은》을 구태여 격토의 체계에서 떼여내여 도움토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될것이다.

№	격체계	격토의 결합조건				례
		열린마디	닫긴마디	비활동체	활동체	
1	주격	가	이			바다가, 사람이
2	대격	를	을			바다를, 사람을
3	속격	의				바다의, 사람의
4	여격			에	에게	바다에, 사람에게
5	위격			에서	에게서	바다에서, 사람에게서
6	조격	로	으로			도끼로, 톱으로
7	구격	와	과			나무와, 사람과
8	제시격	는	은			바다는, 사람은
9	호격	야 여	아 이여			순희야, 옥순아 바다여, 조국이여
10	절대격	○	○			바다, 사람

2. 매개 격형태가 나타내는 의미

1) 주격

주격은 서술의 대상으로 되는 주체 또는 행동이나 성질, 그와 관련되는 대상의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① 행동이나 성질의 주체

○ 우리가 이 기념비적건물을 건설하였습니다.

○ 산에는 꽃이 피고 산새가 노래하네.

○ 산이 높아서 매봉이냐.

② 목표로 되는 대상 또는 변화되여 이루어지는 대상

○ 우리는 당에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 영수가 벌써 대학생이 되였구나.

③ 부정되는 대상

○ 그가 기술혁신안을 제기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④ 강조

○ 나도 순이가 보고싶었다.

○ 일이 되여가는것이 심상치가 않았다.

주격형태의 기본적인 문장론적기능은 문장에서 주어로 되는것이지만 전성되여 이루어지는 대상이나 부정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어로 되고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에 타동사 앞에서는 객어로 되며 그밖의 경우에는 특정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중세국어에서 주격토로는 닫긴마디명사뒤에서 《이》, 열린마디명사뒤에서 《ㅣ》가 쓰이고있었으며 《ㅣ》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에는 따로 주격토가 쓰이지 않았다.

○ 狄人ㅅ 서리예 가샤 狄人이 ᄀᆞᆯ외어늘(《룡비어천가》 4장)

○ 六百年 天下ㅣ 洛陽애 올ᄆᆞ니이다(《룡비어천가》 14장)

○ 믈 깊고 ᄇᆡ 업건마ᄅᆞᆫ(《룡비어천가》 34장)

중세국문문헌에서 세워진 주격형태의 표기규범은 그후 국문문헌들에서 상당히 오래동안 유지되여왔다. 17세기 중엽의 《선조행장》이나 1777년에 간행된 《명의록언해》를 보면 극히 부분적인 례외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초기문헌의 표기규범을 따르고있다.

○ 셩쉬 나 겨시니 우리 뉘 살게 ᄒᆞ엿다 ᄒᆞ더라(《선조행장》 5장)

○ 대비 ᄀᆞᆯᄋᆞ샤ᄃᆡ(《선조행장》 4장)

○ 두 죄쉬 다 졀졀이 승복ᄒᆞ야(《명의록언해》 상권 5장)

○ 블휘 서리고 줄기 구드니(《명의록언해》 상권 10장)

이것은 이 두 문헌자료가 전형적인 글말체로서 전통적인 서사규범을 완강히 지키고있음을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된다. 즉 열린마디명사의 경우에는 주격토가 《ㅣ》로 되며 《대비》, 《블휘》, 《줄기》와 같이 말줄기가 《ㅣ》로 끝난 경우에는 주격토가 따로 붙지 않는 전통적인 표기를 유지하고있었다.

그런데 흥미있는것은 이렇듯 보수적인 문헌자료에 바로 《가》가 나타나기 시작한것이다.

○ ᄇᆞᆰ고 총ᄒᆞ기가 비록 어려오나(《선조행장》 9장)

○ 앏히 이 울다리가 다 문허져(《명의록언해》 상권 9장)

○ 의리가 ᄇᆞᆰ지 못ᄒᆞ연지 오라오니(《명의록언해》 하권 39장)

○ 후겸의 형세가 날로 고단ᄒᆞᆫ지라(《명의록언해》 하권 62장)

조사한바에 의하면 《선조행장》에는 《총ᄒᆞ기가》 하나뿐이고, 《명의록언해》에서는 《울다리가》, 《의리가》 이외에도 《형세가》, 《빌믜가》, 《내가》, 《양휘가》 등 여섯곳이나 나오는데 다 《ㅣ》의 뒤에서만 주격토 《가》가 쓰이고있다. 즉 이 문헌자료들에서 《가》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

면 그 어느것이나 다 말줄기가 《ㅣ》로 끝난 뒤라는 어음적조건에서 《가》가 쓰이고있는데 종래의 전통적인 규범에 의하면 그자체로 주격형태를 이룰수 있는것들이다. 다시말해서 《총ᄒᆞ기》, 《울다리》, 《의리》, 《형세》, 《빌믜》는 모두 《ㅣ》로 끝나는 명사말줄기이기때문에 이른바 《0》토에 의해서 주격형태가 조성될수 있는것들이며 《내》는 《나》에 《ㅣ》가 붙어 이미 주격형태를 이룬것이고 《양휘》는 《윤양후》라는 사람이름으로서 《양후》에 《ㅣ》가 붙은것이다.

《선조행장》에서는 《ㅣ》로 끝나는 명사말줄기의 경우 이른바 《o》토에 의한 주격형태의 조성이 절대다수이고 거기에 《가》가 붙은것은 오직 하나뿐인데 비해서 《명의록언해》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가》가 붙은것의 비률이 더 늘어나고있으며 심지어 같은 말에서 두가지 형태가 공존하고있는 경우도 있다.

○ 내 능히 귀군을 잘 ᄃᆡ접지 못ᄒᆞ야(《명의록언해》 상권 3장)

○ 오라지 아녀 내가 김샹묵의게 편지ᄒᆞ엿단 말이 계동으로부터 흘러드러오니(《명의록언해》 하권 4장)

《명의록언해》보다 뒤에 나온 《한중록》에서는 《ㅣ》로 끝나는 명사말줄기에 《가》를 붙이는 경우가 훨씬 늘어나고있으며 같은 말에서 두가지 형태가 공존하고있는 례가 더 많아지고있다.

○ 내 심히 괴로와 ᄒᆞ엿더니(《한중록》)

○ 내가 기ᄃᆞ리다가 실망ᄒᆞ야 울엇더니라(《한중록》)

○ 이 아ᄒᆡ 슈망을 드러시니(《한중록》)

○ 이 아ᄒᆡ가 쟈근 어른이니(《한중록》)

이것은 《ㅣ》로 끝나는 명사말줄기에 《가》를 붙이는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늘어나고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의 쓰임이 늘어나고 그 쓰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든 열린마디명사의 경우에 그것이 주격토로 정착하게 되였는데 그것은 본래 강조적기능을 수행한데서 온것이라고 할수 있다.*

* 《주격토 〈가〉의 등장과 그 력사적연원》(잡지 《조선어문》 1986년 1호)을 참고할것.

2) 대격

대격은 동사로서 표시되는 행동을 직접 입는 대상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① 행동의 직접객체

○ 영웅전사들은 조국을 지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 로동자들은 매몰된 자재를 파내는 일을 시작하였다.

② 행동이 간접으로 미치는 대상

○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인다.

○ 나는 그 책을 동생을 주었다.

③ 행동의 결과 이루어지는 대상 또는 호상작용의 대상

○ 도처에서 간석지를 개간하여 논을 만들었다.

○ 영수는 어머니를 작별하고 기차에 올랐다.

④ 행동의 장소, 출발점, 방향

○ 그들은 밤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 순이는 저녁에야 집을 나섰다.

○ 나는 학교를 가는 길입니다.

⑤ 강조되는 대상

○ 그 일은 마음에 내키지를 않습니다.

○ 난 작업장엘 갑니다.

대격형태는 문장에서 타동사와 직접 결합하는 경우에 객어로 되는것이 기본적인 문장론적기능으로 되는것이지만 자동사와 결합하거나 그밖의 경우에는 조격형태로 대신할수 있어서 보어로 된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대격과 조격이 미분화상태에 있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그 흔적을 남기고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대격과 조격이 미분화상태에 있었던것은 중세국문문헌에서 자주 찾아보게 된다.

○ 하ᄂᆞᆯ히 당다이 피ᄅᆞᆯ 사ᄅᆞᆷ ᄃᆞ외에 ᄒᆞ시리라(《월인석보》 1권 8장)

○ 다 구루믈 브터 虛空애 잇ᄂᆞ니(《월인석보》 1권 32장)

이 경우에 《ᄅᆞᆯ/ㄹ》은 현대국어의 경우에 조격토 《로/으로》로 대치할수 있는것들로서 이 시기 대격과 조격의 미분화상태를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방언에서 대격을 조격으로 대신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 으찌 술로 묵고 날로 치노?(어째서 술을 먹고 나를 치느냐?)

현대국어의 입말에서도 대격과 조격의 미분화상태가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 넌 어딜 가느냐? 난 학굘 가요.

이 경우에 《어딜》은 《어디를/어디로》, 《학굘》은 《학교를/학교로》와 같이 복원할수 있다. 이처럼 《ㄹ》는 《로》의 줄임으로 볼수도 있고 《를》의 줄임으로 볼수도 있는데 그것은 력사적으로 대격과 조격의 미분화상태의 잔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속격

속격은 소속 및 규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호상 련관된 의미를 나타낸다.

① 여러가지 소속관계

○ 그의 연설은 모든 사람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 분이의 편지는 바로 그 책상우에 놓여있었다.

② 성질, 특성, 속성

○ 우리 나라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이다.

○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③ 시간, 장소, 재료

○ 풍년든 가을의 전야에는 오곡이 무르익고있었다.

○ 마을의 청년들도 간석지개간에 떨쳐나섰다.

○ 대리석의 기둥으로 장식한 중앙홀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④ 대상화된 단위의 규정적관계

○ 그는 오래간만에 고향에서의 편지를 받게 되였다.

○ 오늘의 론의거리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였다.

속격형태의 기본적인 문장론적기능은 다양한 구체적의미와는 무관계하게 일률적으로 규정어로 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속격토의 쓰임에서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그것은 우선 소속의 문법적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점차 속격토를 쓰지 않는데로 나가고있는것이다.

○ 공화국공민(← 공화국의 공민)

○ 평양시도시건설력사(←평양시의 도시건설의 력사)

다음으로 속격토의 쓰임이 력사적으로 변화되면서 그것을 주격토로 바꾸고있는것이다.

○ 虎豹ᄋᆡ 사호ᄆᆞᆯ 다시곰 드르며(《두시언해》 1권 27장)

중세국문문헌에 나오는 《虎豹ᄋᆡ 사호ᄆᆞᆯ》은 의미상으로 《虎豹가 싸우는 것을》이지만 구조적으로는 《虎豹ᄋᆡ》와 《사호ᄆᆞᆯ》의 통합으로 되여있다. 즉 의미상의 행동의 주체가 속격형태를 띠고있는데 이러한 관습은 그후 오래동안 전승되여왔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리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가요 《고향의 봄》)

속격토의 이러한 쓰임은 근대에 와서도 한동안 쓰이여오다가 그후에 쓰이지 않게 되였다.

○ 신문의 보도하는바에 의하면→신문이 보도하는바에 의하면

○ 그의 일하는 본때→그가 일하는 본때

4) 여격

여격은 행동의 방향으로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그와 련관된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① 행동의 간접객체

○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 할머니가 손녀에게 설빔을 입히고있다.

② 행동의 방향과 목적

○ 학생들이 방언조사를 위해 농촌에 갔다.

○ 다섯명의 병사들이 습격조에 선발되였다.

③ 행동의 주체와 원인

○ 범이 포수에게 잡혔다.

○ 멀리서 울려오는 기적소리에 잠이 깨고말았다.

④ 행동의 장소와 시간

○ 비행기는 새벽 3시에 무사히 기지에 도착하였다.

⑤ 비교 또는 렬거되는 대상

○ 김동무의 성적은 박동무에 못지 않게 좋았다.

○ 그는 후리후리한 키에 널직한 어깨에 건장한 청년이였다.

여격형태는 의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론적기능은 문장에서 일률적으로 보어로 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

5) 위격

위격은 행동이 수행되는 위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와 호상 련관된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① 행동의 장소, 출발점

○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내반에서 일하신다.

○ 저는 방금 고향에서 돌아왔습니다.

② 행동의 동기와 원인

○ 그것은 가정을 혁명화할 목적에서 취한 조치였습니다.

○ 순녀는 분이를 위로할 마음에서 노래를 불러주었다.

③ 비교되는 대상

○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에서 더할수 있겠나?

○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랴?

④ 집체적인 주체

○ 이번 경기는 우리 대학에서 승리하였다.

○ 그것은 3학년학급에서 발기한것입니다.

위격형태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보어로 되지만 집체적인 주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6) 조격

조격은 행동이 수행되는 수단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와 호상 련관된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① 행동의 수단, 재료

○ 지금은 이 마을에서도 기계로 농사를 짓게 되였다.

○ 창수는 참나무로 도끼자루를 만들었다.

② 행동의 방식

○ 영이는 빠른 걸음으로 봄순이를 찾아갔다.

○ 아이들은 두패로 나뉘여 경쟁적으로 로라스케트를 타고있었다.

③ 행동의 방향, 장소

○ 우리는 아침 일찍 비행장으로 나갔다.

○ 옥순이는 울타리 너머로 애순이를 불렀다.

④ 행동의 목적, 변화되여 이루어지는 대상

○ 나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생각으로 그냥 앉아있었다.

○ 우리는 올해에도 저 진펄을 논으로 풀 계획입니다.

⑤ 원인, 자격

○ 김동무는 휴가로 고향에 갔습니다.

○ 그는 아직도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⑥ 시간, 순서

○ 오늘 밤으로 떠나야 합니다.

○ 내가 두번째로 여기에 온것은 재작년 봄이였다.

조격형태는 문장에서 언제나 보어로 되는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

조격토의 뒤에 《-서》, 《-써》가 붙어서 자격이나 수단, 도구를 나타낼수 있다는데로부터 일부 문법에서는 《로서, 로써》까지도 조격토에 포함시키고있다.*

* 《문법론》(제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0년) 108페지

7) 구격

구격은 동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호상 련관된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① 렬거되는 대상

○ 그는 사색과 탐구로 밤을 밝히고 창조와 혁신으로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 영희는 자기들이 가꾼 사과와 감과 배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이곳 과수원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본래 렬거되는 대상에는 모두 구격토를 첨가하였다.

○ 나모**와** 곳**과** 果實**와**ᄂᆞᆫ (《석보상절》 6권 40장)

○ 深山애 드러 果實**와** 믈**와** 좌시고(《월인석보》 1권 5장)

그런데 그후에 렬거되는 대상의 마지막대상에는 구격토를 첨가하지 않는것으로 바뀌였다.

② 동반되는 대상

○ 나는 김동무와 둘이서 대학으로 갔다.

○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③ 호상관계의 대상

○ 저는 박동무와 한고향입니다.

○ 우리는 이미 그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토의해보았습니다.

구격형태는 문장에서 언제나 보어로 되는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

8) 제시격

제시격은 제시되거나 부정 또는 대조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① 제시되는 주체

○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

○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② 부정되는 대상

○ 물고기는 먹고싶지 않습니다.

○ 오늘 바빠서 극장은 못 가겠어요.

③ 대조되는 대상

○ 동생이 화학은 잘하지만 물리는 잘하지 못한다.

제시격형태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 또는 객어, 보어로 되는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면서 제시된 대상을 특별히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제시격토로는 말줄기의 끝소리에 따라 선택되는 《ᄋᆞᆫ/은, ᄂᆞᆫ/은》이 있었는데 그 선택의 원칙은 다른 격토의 경우와 다름이 없었으며 규칙적으로 선택되는 변종을 가지고 쓰이고있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토들을 다른 격토들과 구별되는 다른 부류에 소속시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9) 호격

호격은 말하는 사람이 부르는 호칭을 나타낸다.

① 아래사람 또는 대등한 사람에 대한 호칭

○ 순이야, 이리 오너라.

○ 철남아, 빨리 가자.

② 공식적인 호소문에 쓰이는 호칭

○ 전국의 근로자들이여!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행군속도에 계속 박차를 가하자.

③ 인물화한 대상에 대한 호칭

○ 목숨아 그가 너를 부른다

………

오오 목숨아 그가 너를 부른다(박팔양, 《목숨》)

특별히 웃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존칭토 《시》를 덧붙여

《시여/이시여》를 쓰는데 이것은 정중한 서사적인 호칭으로 된다.

○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고이 잠드시라.

호격형태는 문장에서 언제나 호칭어로 되는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

10) 절대격

절대격은 특별히 정한바 없이 격이 나타낼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① 행동, 성질의 주체

○ 어두운 밤 지나가고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

○ 그것은 빛좋은 개살구다.

② 행동의 직접객체

○ 불 켜고 책 읽어라.

○ 머리 숙이고 편지 쓴다.

③ 행동의 간접객체

○ 이걸 어머니 드려라.

○ 이 편지를 김동무 보여라.

④ 피동적행동을 일으킨 주체

○ 범 물려간 개.

○ 미친개 물린 다리.

⑤ 변화되여 이루어진 대상

○ 우리도 기어이 영웅전사 되리라.

⑥ 여러가지 규정적관계에 있는 대상

○ 삼천리 금수강산.

○ 기자단 회견.

⑦ 렬거되는 대상

○ 이 과수원에는 사과, 배, 복숭아 등 아주 잘 무르익었군그래.

⑧ 시간, 장소

○ 래일아침 여기로 모이시오.

○ 고향 떠나 십년이 되였구나.

⑨ 서술의 대상

○ 나는 학생, 너는 군인.

절대격형태는 정해진 문장론적기능이 없이 그 의미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각이한 문장성분으로 된다.

현대국어에서 격토의 쓰임에는 일련의 력사적제약성으로 하여 일정한 변이현상이 있을수 있다.

중세국어의 잔재적인 현상으로서 오늘에도 열린마디명사의 뒤에서 간혹 《이》가 쓰일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아래보다 우이 좋지 않을가?

○ 젊은이 하나이 선뜻 앞에 나섰다.

다음으로 대격토의 쓰임에서는 입말에서 《를》대신에 《ㄹ》를 쓰는 경우가 있다.

○ 우리도 힘차게 노랠 부릅시다.

여격의 경우에는 간혹 활동체명사나 대명사에도 《에게》대신에 《에》를 쓰는 일이 있다.

○ 우리는 공로를 세운 박동무에 대하여 긍지높이 자랑하였다.

○ 김동무는 최우등생에 축구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명사 《나, 너》에서는 여격토 《에게》대신에 《게》를 쓸수도 있다.

○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 내가 쓴 책을 네게 주마.

다음으로 제시격토의 쓰임에서도 입말에서 《는》대신에 《ㄴ》를 쓰는 경우가 있다.

○ 난 거긴 안 가겠어요.

호격토는 원칙적으로 활동체명사에 쓰이는것이지만 문예작품의 경우에는 비활동체명사도 의인화하여 쓸수 있다.

○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가요 《봉선화》)

○ 푸르른 소나무야, 너도 오늘의 이 영광을 말하여주렴.

이처럼 격토의 쓰임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다고 하여도 명사말줄기에 따라 선택되는 격토의 교체라는 격체계의 기본특징은 계속 유지되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격체계의 기본특징에서 벗어나서 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들이 있으니 그러한 토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가 문제로 된다. 례컨대 《께서》는 주격의 의미로, 《더러, 한테, 께》는 여격의 의미로, 《랑, 하고》는 구격의 의미로 쓰일수 있는데 이러한 토들을 기본격토체계에 포함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보다, 처럼, 마냥》과 같은것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고있으나 《비교격》을 설정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도 문제로 된다.*

*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년)에서는 《보다, 처럼, 마냥》을 하나로 묶어 비교격을 설정하였다. (141페지)

그러나 국어의 격체계는 이러한 모든것을 포괄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고 본다. 다시말하여 격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여 그 모든것을 다 포괄하여 격체계를 론한다면 력사적으로 전승되여온 우리 말의 정연한 격체계의 정통성이 허물어지게 된다.

력사적으로 전승되여온 우리 말 격체계의 정통성은 명사말줄기에 따라 선택되는 격토의 정연한 교체에서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말 문법구조의 민족적특성의 하나로 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현대국어의 격체계는 원칙적으로 명사말줄기에 따라 규칙적으로 교체되는 격토들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것으로 보게 되는것이며 이 체계에서 벗어나서 격의 의미를 나타내는것은 제2부류의 격형태로 처리하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기본격체계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문법적의미의 담당자는 도움토로서 련관범주에서 다루게 된다.

3. 제2부류의 격형태

국어에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정연한 격체계와 함께 구조-기능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독특한 부류의 격형태가 있다. 이러한 부류의 격형태를 기본격형태부류와 구별하여 제2부류의 격형태라고 부른다.

제2부류의 격형태를 이루는 토는 체언의 문장론적위치를 결정하는 점에서 기본격토와 다를바가 없으나 그 구조에서 말줄기의 어음적조건에 따라 선택되는 변이형이 없고 문법적추상화의 정도가 낮아서 그 의미용적이 비교적 작고 그 쓰임의 폭이 좁은것이 특징으로 된다. 그것은 기본격토와 달리 실질적인 단어에서 기원하여 산생된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것과 관련되여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께서: 주체가 존경의 대상인 경우에 쓰는데 언어례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격토로 바꾸어쓸수 있어 문장에서 주어로 된다.

○ 아버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버님이 너를 부르신다.

《께서》는 중세국문문헌에서 《겨오셔》로 나온다.

○ 뎡셩왕후겨오셔 ᄀᆞ즉이 보오시고(《한중록》)

《겨오셔》는 동사 《겨시다》에서 온것으로서 이때 이미 일정하게 문법적추상화를 입고있었음을 알수 있다.

께: 간접객체가 존경의 대상인 경우에 쓰는데 언어례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격토로 바꾸어쓸수 있다.

○ 이것을 아버님께 가져다 드려라. =이것을 아버님에게 가져다 드려라.

《께》는 력사적으로 《ᄋᆡ그에/ㅅ그에》, 《ㅅ긔》에서 온것으로서 《-의(ㅅ) 그곳》이라는 뜻이니 중세국문문헌에서는 아직도 문법적추상화가 채 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고있다.

○ 龍ᄋᆡ그엔 이쇼리라 王ㅅ그엔 가리라(《월인석보》 7권 26장)

○ 嫡子ㅅ긔 無禮ᄒᆞᆯ씨(《룡비어천가》 90장)

더러: 입말에서 인물에 대해서 쓰는데 여격토로 바꾸어쓸수 있다.

○ 순이는 할머니더러 해방전에 겪은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순이는 할머니에게 해방전에 겪은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더러》는 동사 《ᄃᆞ리다》에서 온것으로서 중세국문문헌에서 《ᄃᆞ려》로 나오는데 당시에 이미 문법적추상화를 일정하게 입고있었음을 알수 있다.

○ 四衆ᄃᆞ려 아니 니ᄅᆞ시고(《월인석보》 21권 4장)

랑/이랑: 입말에서 자주 쓰는데 구격토로 바꾸어쓸수 있다.

① 렬거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우리 과수농장에서는 사과랑 배랑 복숭아랑 여러가지 과일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습니다. =우리 과수농장에서는 사과와 배와 복숭아와 여러가지 과일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습니다.

② 함께 행동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 혼자 오지 말고 철수랑 영희랑 같이 오렴. =혼자 오지 말고 철수와 영희와 같이 오렴.

한테: 입말에서 인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쓰이면서 《에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이 편지는 동수한테 온거란다. =이 편지는 동수에게 온거란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한테》는 아직 나오지 않고 《ᄒᆞᆫᄃᆡ》가 나오는데 그것은 《ᄒᆞᆫ+ᄃᆡ》에서 기원한것으로서 당시에는 아직 문법적추상화의 정도가 높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ᄃᆡ 녀져라(《악학궤범》 정과정)

하고: 입말에서 쓰이여 함께 행동하는 활동체 혹은 렬거되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ᄒᆞ다》의 접속형태에서 기원한것으로서 구격토로 바꾸어 쓸수 있다.

○ 순이하고 분이는 같은 학교를 다니였다. =순이와 분이는 같은 학교에 다니였다.

이 토들이 붙은 단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 또는 보어로 되며 다른 문장성분으로 되는 일이란 별로 없는것만큼 그 문장론적기능은 일정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 토들은 기본격토와는 달리 일정한 단어에서 기원한것으로 하여 기본격토와 같이 말줄기의 어음적조건에 따르는 교체의 쌍이 마련되여있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이 토들은 말줄기에 대한 의존성이 깊지 못하고 아직 문법적추상화의 정도가 높지 못한데로부터 기본격토와 구별하여 제2부류의 격토라고 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격토와 대응되거나 그것으로 대신할수 있는것들만을 제2부류의 격토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제2부류의 격토라고 하게 된것은 이 토들이 문장론적위치를 결정할수 있는 점에서 기본격토와 기능상 다름이 없으나 문법적추상화의 정도에서 기본격토로까지는 될수 없을뿐아니라 명사말줄기에 대한 교착성과 의존성이 기본격토보다 비할바없이 못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부터, 까지》는 여기서도 제외하게 된다. 그것은 이 토들이 문장론적기능보다도 련관적의미가 더 농후하기때문이다.

○ 너부터 매를 맞아보아라.

○ 꺽정이는 우선 밥부터 달라고 하였다.

○ 오늘 작품발표는 동무부터다.

○ 그가 편입하면서부터 학급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경우에 《너부터》는 주어로 되고 《밥부터》는 객어로 되며 《동무부터다》는 술어로 되여 문장론적기능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 기능은 이 토와 전혀 무관계한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류사계렬의 사물, 현상, 표식 등에서 일정한것을 구획짓거나 한계를 정해주는 관계를 나타내고있는데 그것은 《까지》의 경우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터, 까지》를 격토로 인정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며 그것들은 응당 도움토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 164페지)과 《문법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년 123페지)에서는 《부터, 까지》를 제2부류의 격토에 넣고있으나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년 157~158페지)에서는 도움토로 처리하였다.

4. 2차적격형태

1) 격토의 겹침에 의한 2차적격형태

국어에서는 1차적으로 형성된 체언의 격형태에 다시 다른 격토가 겹쳐서 결합함으로써 2차적으로 격형태를 조성할수 있다.

① 2차적주격형태

○ 이 이야기는 영수에게가 아니라 철수에게 주는 회답이였다.

○ 이 물건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고향에서 온것입니다.

② 2차적대격형태

○ 우리는 어느때 어느곳에서를 막론하고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이 도로는 평양과 향산과를 련결하는 관광도로입니다.

③ 2차적속격형태

○ 신흥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은 참으로 의의있는것이였다.

○ 그는 난관앞에서도 당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하여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 오늘 그와의 담화는 매우 성과적이였다.

④ 2차적조격형태

○ 어서 나에게로 안기여오너라.

○ 눈물 젖은 세상을 버리고 웃는 내게로 와서
이 생명이 변동에만 있음을 깨쳐 보아라

(리상화, 《바다의 노래》)

⑤ 2차적구격형태

○ 이곳은 조건이 도시에서와 같지 않습니다.

○ 그가 네게와 좀 다르게 나를 대하더라.

⑥ 2차적제시격형태

○ 그것이 영수에게는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 그 짐을 맨손으로는 들지 못해요.

○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김소월, 《산유화》)

제2부류의 격토에 다시 기본격토가 붙어서 2차적격형태가 조성될수 있다.

① 2차적주격형태

○ 이건 순이한테가 아니라 분이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② 2차적대격형태

○ 일제는 조선인민과 중국인민하고를 리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③ 2차적속격형태

○ 김동무하고의 담화는 아주 성공적이였습니다.

④ 2차적구격형태

○ 그 사람이 우리한테와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⑤ 2차적제시격형태

○ 박동무와 나하고는 대학동창이지요.

2) 대상화된 서술적단위에 조성된 2차적격형태

격은 대상적인 단어가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문장론적기능을 결정하는 위치적인 문법적범주인것만큼 1차적으로 체언의 경우에 실현되는것이지만 국어에서는 서술성을 가지는 용언이 다시 대상성을 가지거나 일정한 서술형태나 언어적단위가 대상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격토를 취함으로써 2차적격형태를 형성할수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말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어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되는데 이 점이 바로 상대적분리가능성이 있는 교착접사로서의 우리 말 토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1) 단어의 용언대상형에서 이루어진 격형태

① 주격형태

○ 순희는 집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고향소식을 물었다.

○ 나무잎마다에서
젖은 속살거림이
끄이지 않을 때일러라(리상화, 《단조》)

② 대격형태

○ 이번 출장길에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룡이는 창혁이의 말에 마음이 불안함을 어쩔수 없었다.

③ 속격형태

○ 분이는 강냉이모심기의 경쟁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 철수는 만페지책읽기의 모범이였다.

④ 여격형태

○ 이번엔 철수가 사업하기에 유리한 국면이 열려졌다.

○ 순이가 모든 일에서 성실함에 우리는 스스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⑤ 위격형태

○ 길순이의 눈물은 그에 대한 실망함에서 오는것이였다.

○ 나는 그의 태도가 겸손함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⑥ 조격형태

○ 황천왕동이는 걸음이 빠르기로 유명하였다.

○ 진수는 새벽 일찌기 집을 떠나기로 순희와 약속하였다.

⑦ 구격형태

○ 영이는 노래하기와 춤추기에서 남다른 재간이 있다.

○ 그는 이 사업의 중요함과 또 긴급함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⑧ 제시격형태

○ 공부하기는 우리 학급에서 김동무가 제일이야.

○ 그가 순이와 교제함은 졸업전부터였습니다.

⑨ 호격형태

○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이여!

○ 오! 백두산의 웅장함이여!

(2) 단어의 서술형태에서 이루어진 격형태

① 주격형태

○ 순이는 몸매며 얼굴이며가 꼭 어머니를 닮았구나.

○ 그것은 성의가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랍니다.

② 대격형태

○ 곰손이는 어머니에게 어찌된 일인가를 물어보았다.

○ 철이는 마을어귀에서 집이며 뜨락이며를 회상하였다.

③ 속격형태

○ 이것은 값이 높고낮고의 문제가 아니였다.

○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의 대책을 신중히 토의하였다.

④ 여격형태

○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에 대하여 론의하였다.

○ 이것을 하는가 못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⑤ 위격형태

○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강성을 발휘하느냐에서 해결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 경험이 있고 없고에서 문제가 좌우되는것은 아니였다.

⑥ 조격형태

○ 우리의 론의는 무엇이 유리하겠느냐로 초점이 옮겨졌다.

○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로 해결방도를 탐구해봅시다.

⑦ 제시격형태

○ 어디로 가겠느냐는 아직 결정하지 맙시다.

○ 그가 공부를 하고 안하고는 더 론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 격토는 도움토의 뒤에 다시 올수도 있으며 보조적동사나 부사의 뒤에도 올수 있다.

○ 이번 공사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 철수야, 여기서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 이 사업과 관해서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 저녁식사후에 그는 집 가까이에서 산책하였다.

이 경우에도 2차적격형태로 인정되며 그것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문장론적위치는 일반적으로 격토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주격토나 제시격토의 경우에는 그것이 단지 강조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제 2 절. 수 범 주

1. 수범주의 개념

수범주란 대상의 량적측면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문법적범주로서의 수는 우리 말에서 단수와 복수로 구성되여있는데 단수는 단일한 대상을 나타내며 복수는 두개이상의 대상을 나타낸다.

단수는 아무런 형태소가 없이 표현하며 복수는 복수토 《들》을 첨가하여 표현한다.

국어에서 수범주는 다른 형태론적범주에 비해서 덜 발달된 형태론적범주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론리상으로 복수이면서도 단수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특히 비활동체명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 그러면 여러분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질문》은 여러 사람이 제기한것만큼 응당 복수일것이지만 단수형태를 취하고있다.

○ 금강산에는 봉우리가 만이천이라고 하더라.

이 경우에도 《봉우리》를 만이천이라고 하였다면 마땅히 《봉우리》는 복수형태를 취해야 하겠으나 형태상으로 단수로 되여있다.

○ 박동무는 많은 책을 가지고있다.

이 경우에도 앞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규정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형태상으로 단수로 되여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은 단수형태와 복수형태의 구분이 단어형태에서 명확하

게 나타나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많은 언어들이 수범주에 따르는 단어형태의 구분을 가지고있는것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로 된다. 이 점에서 우리 말의 수범주는 형태론적범주로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는것이다.

2. 복수토의 결합적특성

국어의 복수토 《들》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이 토가 관계를 맺는 대상과 그것이 첨가되는 단어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즉 복수토 《들》은 물론 그것이 첨가되는 단어가 복수라는것을 나타낼수 있으나 그것은 해당 단어와 떨어져서도 그 단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복수토 《들》은 그것이 첨가되는 단어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수적개념에는 관계없이 각이한 문장론적위치에 있는 단어들에 자유자재로 첨가되면서 그 문장의 주어로 된 대상 혹은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론리적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교착접사로서의 《들》이 명사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준다.

○ 자, 떠들지들 말아요.

○ 모두 집에서들 무고하겠지요?

이처럼 복수토 《들》은 임의의 단어형태에 첨가되면서 그것이 붙은 단어와 관계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말의 복수토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되며 동시에 수범주의 민족적특성을 말해주는것으로 된다.

제 3 절. 체언서술형범주

1. 체언서술형범주의 개념

체언서술형범주는 체언이 2차적으로 서술형태를 취하는 형태론적범주로서 체언의 말줄기에 체언서술형토 《이》를 붙여서 그 형태를 조성하는데 그것을 체언서술형이라고 한다.

○ 우리는 공화국의 대학생이다.

○ 저것이 우리가 사는 집이고 이것이 내가 다니던 학교이지요.

체언서술형은 상접사를 제외하고 존칭토, 겸양토, 시칭토는 물론 모든 서술토를 다 취할수 있다.

○ 우리 할아버님은 영예로운 전쟁로병이시랍니다.

○ 그는 한때 이름을 떨친 용해공이였고 정열적인 선동원이였다고 한다.

○ 수십년전에 작고하신 김선생님께서는 이름있는 화가이시옵고 수

필가이시였사옵니다.

열린마디명사의 경우에는 체언서술형토 《이》를 붙이지 않고 직접 서술형태를 만들수 있는데 이것은 어음적조건에 따라서 《이》가 생략된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저기 우뚝 서있는것이 우리의 학교랍니다.

○ 당의 따뜻한 품이 있는데 누가 널 보고 고아라더냐!

2. 체언서술형토 《이》의 쓰임

체언의 서술형태를 조성하는 체언서술형토 《이》는 력사적으로 체언의 주격형태가 서술형에도 쓰이게 되면서 생겨난것이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닫긴마디명사아래에서 《이》, 열린마디명사아래에서 《ㅣ》가 쓰이고있었다.

○ 子孫이 一百轉輪聖王이시니(《월인석보》 2권 2장)

○ 일홈이 阿彌陀ㅣ 시니(《월인석보》 7권 56장)

그런데 그후 열린마디명사아래에서 쓰이던 《ㅣ》가 변화를 입으면서 열린마디명사에 직접 다른 서술형토를 결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였다.

○ 우리 민족은 하나다.(← 하나이다)

○ 그것을 난들 어떻게 하랍니까? (←나인들)

그러나 공식적인 언어생활에서는 체언의 서술형태를 조성하는데서 체언서술형토 《이》를 붙이는것이 열린마디명사이든 닫긴마디명사이든 규범적인것으로 인식하게 되였다.

○ 오늘 행사는 매우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 저 건물은 학교교사이고 이 건물은 기숙사입니다.

간혹 비공식적인 입말의 경우에 체언서술형토 《이》를 생략할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언어의식에서는 그 단어 말뿌리의 음절수에 따라서 특히 단음절로 된 열린마디명사인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않는것보다 붙여야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터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터이다.

○ 저것은 소다. →저것은 소이다.

그리고 규정형의 경우에는 열린마디명사라 할지라도 체언서술형토 《이》를 반드시 취한 다음에 규정토와 결합하게 되여있다.

○ 예로부터 하나인 우리 민족이다.

○ 저분이 내 손우인 6촌형님이시지요.

○ 창식이는 학습에서 한때 나의 경쟁자이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날 문법학계에서는 《이다》를 《아니다》와 쌍을 이루는것으로 보면서 이것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품사인 《지정사》를 설정하는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1] 《이다》를 《있다》, 《없다》와 함께 동사의 한 부류로 보면서 운동성에 대치되는 정지성의 동사로 보려는 견해도 있었다.[*2]

*[1] 《우리 말본》(최현배, 1937년)에서는 《이다》와 《아니다》를 《잡음씨》로 보면서 《움직씨》, 《어떻씨》와 함께 《풀이씨》를 이루는것이라고 하였다.

*[2] 《신편고등국어문법》(정렬모, 1946년)에서는 《이다》를 《있다》와 함께 정지성동사로 보면서 《이다》는 지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제 3 장. 용언의 형태론적범주

용언의 위치적형태로는 종결형, 접속형, 상황형, 규정형이 있다. 이 매개 위치적형태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범주는 각이하다.

용언의 위치적형태가운데서 형태론적범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것은 종결형이다. 즉 종결형에는 상, 존칭과 시칭, 겸양, 법과 식, 계칭 등의 모든 형태론적범주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접속형이나 상황형은 그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법과 식, 계칭의 형태론적범주를 가질수 없으며 규정형은 규정토자체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점에서 특색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상범주는 일정한 어휘-문장론적특성을 가지고있어 다른 형태론적범주와 구별된다.

제 1 절. 용언의 위치적형태

1. 종결형

단어가 문장에서 종결위치에 놓이는 형태이다. 단어의 종결형은 그에 고유한 계칭범주를 나타내고있으며 문장에서 종결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질풍같이 전진한다.

○ 보람찬 로동에는 미담이 피고나 많았습니다.

○ 어서 빨리 학교에 가거라.

일부 경우에는 단어의 종결형이 접속의 어조에 의하여 접속술어로 쓰이는 일이 있는데 특히 시창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있다.

○ 명절을 맞이한 아이들이 새옷을 입는다, 꽃다발을 만든다, 고무풍선을 띄운다, 온통 기쁨만이 넘쳐났다.

○ 아 가도다 가도다 쫓겨가도다
잊음속에 있는 간도와 로동벌로
주린 목숨 움켜쥐고 쫓겨가도다
진흙을 밥으로 햇채를 마셔도
마구나 가졌더면 단잠을 얽맬것을—

사람을 만든 검아 하루 일에
차라리 주린 목숨 뺏어가거라

아 사노라 사노라 취해 사노라
자폭속에 있는 서울과 시골로
멍든 목숨 행여 갈가 취해 사노라

(리상화, 《가장 비통한 기욕》)

단어의 종결형에는 여러 형태론적범주들이 다 나타날수 있는데 계칭범주만은 개별적형태소에 의해서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겸양, 법, 식을 나타내는 토들의 복합체에 의해서 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국어에서 단어의 종결형을 그대로 하나의 《종결토》로 보게 된다면 최소의 문법적형태소인 토안에 다시 《뜻쪼각》들이 존재한다는 모순된 서술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 《조선어형태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에서도 《맺음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풍부성을 말하면서 《ㄴ가, ㄴ걸, ㄴ데, ㄴ다, 는가, 는데, 는걸…》이나 《리, 리라, 리다, ㄹ래, ㄹ다, ㄹ가, ㄹ걸…》 등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수 있는것은 뜻쪼각들인 《ㄴ(는), ㄹ, 리》의 본래뜻과 관련된다고 서술하였다. (189페지)

국어의 종결형은 동사, 형용사에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체언서술형의 경우에도 쓰이면서 종결형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보여주고있는데 품사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른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쓰이는 품사	쓰이는 종결형
동사, 형용사, 체언서술형	거니, 거든, 고, 구나, 구려, 게, ㄴ데, 나니, 나이다, 나이까, 느냐, 느뇨, 느니, 느니라, 는가, 는갑디다, 는걸, 는고, 니, 네, 다, ㄹ가, ㄹ고, ㄹ게, ㄹ는가, ㄹ라구, ㄹ레, ㄹ소냐, ㄹ손가, ㄹ시고, ㄹ세나, ㄹ지, 랴, 려니, 리, 소이다, 소이까, ㅂ니다, ㅂ니까, ㅂ디다, ㅂ디가
동사, 형용사	구려, 게, 노, 노라, 다고, 다나, 다니, 다네, 다지, 다오, 단다, 담, 답니다, 도다, ㄹ라, ㄹ사, 라, 라구, 라요, 려무나, ㅂ시다, ㅂ세, 자, 자니까, 자요
동사	라, 나, 노니, 누나, 너라, ㄹ래, 라구, ㅁ세, 려나, 오, 소
형용사	ㄹ시고, 소
형용사, 체언서술형	ㄴ가, ㄴ감, ㄴ걸, ㄴ고, ㄴ지, 냐, 뇨, 니, 니라
체언서술형	로다, 로세, 라, 라고, 라나, 라니까, 라네, 라오, 란다, 로구나, 로세, 오, 야, 야요, 요

2. 접속형

접속형은 단어를 뒤에 오는 서술형태의 단어와 이어주는 형태이다. 단어의 접속형은 접속토에 의하여 형성되며 기본적으로 접속술어로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동사와 함께 합성성분의 한 구성성분으로 쓰인다.

○ 순희동무가 오늘 떠났으니 래일은 도착하겠지요.

○ 힘들게 공부하였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을것입니다.

○ 그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고야말겠으니 그 임무를 우리 작업반에 맡겨주십시오.

일부 경우에 단어의 접속형은 종결의 어조를 동반하면서 종결술어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 나도 한번 금강산에 가보았으면!

○ 자, 일을 빨리 다그치시오. 명절이 당장 래일인데.

접속형에는 상당히 많은 접속토들이 다종다양한 접속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쓰이고있다.

그런데 이 접속토들은 의미적인 차이라든가 문법적인 공통성과 차이에 의하여 분류되는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지 않다.

그리고 접속형에는 종결형과는 달리 계칭, 식, 법의 문법적범주들이 나타날수 없고 오직 상과 시칭, 존칭, 겸양의 문법적범주들이 존재할뿐이며 접속형에 고유한 문법적범주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접속형의 분류는 접속토가 어떠한 품사에 쓰일수 있는가에 따라서 할수도 있고 매개 접속토가 가지는 여러 의미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접속형을 분류할수도 있다.

1) 첨가되는 품사에 따르는 접속토의 분류

① 동사, 형용사와 체언서술형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접속토

거나, 거니, 거늘, 거니와, 거든, 건만, 고, 기에, 기로, 길래, 나, 니, 니까, 더니, 더라도, 더면, 든, 든가, 든지, 되, ㄹ지라도, ㄹ지언정, ㄹ진대, ㄹ망정, 려니, 련만, 리니, 며, 면, 므로, 매, 지만, 아도, 이야

② 동사, 형용사에만 쓰이는 접속토

나니, 노니, 지, 아, 아서

③ 동사에만 쓰이는 접속토

고서, 느니, 는데, 는바, 는지라, 다(다가), 면서, 자

④ 형용사와 체언서술형에만 쓰이는 접속토

ㄴ들, ㄴ데, ㄴ바, ㄴ즉, ㄴ지라

⑤ 체언서술형에만 쓰이는 접속토

로되, 자, 어늘, 어니와, 언만

2) 의미에 따르는 접속형의 분류

(1) 련립의 접속형

주로 두개 이상의 사실을 단순히 련결하는 접속형으로서 접속토 《고, 며》가 쓰이고있다.

《고》

① 두개 이상의 행동을 동등하게 접속시킨다.

○ 우리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

②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됨을 나타낸다.

○ 참매가 나래를 펼치고 창공으로 날아갔다.

③ 앞의 행동이 끝나고나서 뒤의 행동이 진행됨을 나타낸다.

○ 영수는 보던 책을 덮고 잠자리에 누웠다.

④ 두가지 행동중 어느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낸다.

○ 이번 학기에도 최우등이 되고 못되는것은 전적으로 너의 노력에 달려있단다.

⑤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 순이는 분이가 노래 부르는 솜씨를 보고 여간 놀라지 않았다.

⑥ 종결형 뒤에 다시 접속토 《고》가 붙어서 2차적접속형을 이룰 때에는 인용한 담화의 내용이 끝났거나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의 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 그가 나더러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나는 도서관에 간다고 대답하였다.

⑦ 보조동사 《말다》와 결합하여 행동을 강조하는 관용구로 쓰인다.

○ 암, 꼭 가야지. 가고말고.

《며》

①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을 같은 자격으로 접속시킨다.

○ 당의 령도따라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큰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② 명사에 쓰이는 경우에 두개 대상을 단순히 련결시킨다.

○ 고산과수농장에는 사과며 배며 여러가지 과일나무가 많다.

③ 동사에 쓰이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체가 수행하는 행동을 접속시킨다.

○ 심심산골에도 전기가 들어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신문과 텔레비죤을 보고있다.

④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뒤의 행동의 진행방식으로 됨을 나타낸다.

○ 철이는 손가락을 꼽아보며 설날을 기다렸다.

⑤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이 서로 모순됨을 나타낸다.

○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오히려 큰 소리만 친다.

(2) 방식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중 첫째 사실이 둘째 사실을 위한 방식으로 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으로서 접속토 《고서, 면서, 아, 아서, 아다》 등이 쓰이고있다.

《고서》

① 앞의 행동이 끝나고나서 뒤의 행동이 진행됨을 나타낸다.

○ 일을 일찌기 끝내고서 집에 가겠어요.

②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에 따르는것을 나타낸다.

○ 순이는 어느새 동생을 업고서 집을 뛰쳐나왔다.

③ 앞의 행동이 없이는 뒤의 행동이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발전을 기대하겠소?

《면서》

①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뒤의 행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됨을 나타낸다.

○ 금순이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걸어가노라니 어느새 나루터에 이르렀다.

② 앞의 행동이 진행될 때에 뒤의 행동이 진행되기 시작함을 나타낸다.

○ 그는 갑순이를 알게 되면서 점차 혁명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③ 뒤의 행동이 앞의 행동과 대립적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 넌 왜 모르면서 아는체를 하니?

《아(어, 여)》

①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의 방식으로 됨을 나타낸다.

○ 그는 혁명선렬들의 회상기를 몇번이고 곱씹어 읽었다.

② 앞의 행동이 뒤의 사실에 대한 원인, 리유,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

○ 원춘이는 황지주한테서 진 빚에 시달려 억울한 머슴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③ 앞의 행동이 뒤에 오는 행동의 리유나 목적으로 됨을 나타낸다.

○ 그가 오기를 기다려 이렇게 늦었습니다.

④ 앞의 행동과 뒤의 진술과의 시간적관계를 나타낸다.

○ 오늘은 내가 대학에 입학하여 두돐이 되는 날이다.

⑤ 보조동사와 함께 합성성분을 이루는데 쓰인다.

○ 그는 피곤하여 열시도 되기 전에 잠들어버렸다.

⑥ 두개의 자립적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될 때 앞에 오는 동사에 쓰인다.

○ 쥐여뜯다, 돌아보다, 잦아들다, 틀어쥐다, 알아듣다

《아서(어서, 여서)》

①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의 방식으로 됨을 나타낸다.

○ 춘보는 하나씩 손을 꼽아서 하루동안에 번 돈을 세여보았다.

②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에 대한 원인, 리유, 근거로 됨을 나타낸다.

○ 이제는 손에 익어서 하루에 계획의 200%를 넘쳐 한답니다.

《아다(어다, 여다), 아다가(어다가, 여다가)》

① 앞에 오는 행동이 뒤에 오는 행동보다 먼저 진행되면서 뒤에 오는 행동의 진행방식으로 됨을 나타낸다.

○ 소독하기 위해 이불을 밖에 내다가 걸어놓았다.

② 두개의 자립적동사가 결합하여 한개 문장성분을 이룰 때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로 된다.

○ 들여다 본다, 넘겨다 본다, 내려다 본다

(3) 계기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이 여러 계기성을 가지고있음을 나타내는 접속형으로서 접속토 《니, 니까, 노니, 나니, 거니, 더니, 려니, 거늘, 이어늘, 거니와, 이어니와, 려니와, 는데, 는바, 건대, ㄴ즉, 는지라, ㄹ진대, ㄹ뿐더러, 다(다가), 느니, 되, 로되, 자》 등이 쓰이고있다.

《니(으니)》

① 앞의 행동이 진행된 결과 뒤의 사실이 알려지게 됨을 나타낸다.

○ 밤에 집에 돌아오니 고향친구의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② 먼저 어느 한 사실을 서술하고나서 다시 그것을 자세히 서술하는 경우에 쓰인다.

○ 장독대 옆에 감나무가 한그루 있으니 그것은 아버님께서 10년전에 심으셨던것이다.

③ 뒤에서 진술할 내용의 주제를 앞에서 제기할 때 쓰인다.

○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 그가 바로 자네 6촌형이라네.

④ 앞의 행동이 뒤에 진술되는 사실의 원인, 리유, 근거가 됨을 나타낸다.

○ 이번에 또 큰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나.

⑤ 체언서술형이나 형용사에 쓰이면서 이리저리 이야기되는 사실을 라렬한다.

○ 그는 음악이니 무용이니 하면서 예술에만 열중하더란 말일세.

○ 좋으니 나쁘니 하면서 타발질을 하면 안되네.

《니까(으니까)》

① 앞의 행동이 진행된 결과에 뒤의 사실이 알려지게 됨을 나타낸다.

○ 오래동안 함께 일해보니까 그 사람의 됨됨을 알게 되였다.

② 앞의 행동이 뒤의 사실에 대한 원인, 리유, 근거로 됨을 나타낸다.

○ 영희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번에 최우등은 문제 없을거야.

③ 동사 종결형 뒤에 첨가되여 쓰이면서 앞의 행동이 진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의 사실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 그에게 물어보라니까 묻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됐다네.

《거니》

① 앞의 행동이 뒤의 사실에 대한 전제로 됨을 나타낸다.

○ 인민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거니 당의 은덕을 어찌 잊으랴.

② 번갈아 교체되는 두가지 행동을 련결시킬 때 쓰인다.

○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고개마루로 달려갔다.

《더니》

① 앞의 행동이 끝나고 뒤의 행동이 진행될 때 쓰인다.

○ 내려 덮었던 구름장에서 비방울이 떨어지더니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②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에 대한 원인, 리유, 근거로 됨을 나타낸다.

○ 한바탕 뛰였더니 땀이 비오듯 하는구려.

③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이 대립적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 함박눈이 사정없이 내리더니 이젠 딱 멎어버렸구나.

《거니와》

① 앞의 사실이 뒤의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전제로 될 때 쓰인다.

○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이미 알려졌거니와 오늘에 와서 그것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단 말일세.

② 담화의 수법으로서 먼저 제시하는 말에 쓴다.

○ 다시 강조하거니와 의사는 정성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는데》

① 뒤에 진술할 일반적환경을 먼저 말할 때 쓰인다.

○ 마을 한복판으로 개울이 흐르는데 그 량옆으로는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서있다.

② 뒤에 오는 행동이 앞의 행동과 반대됨을 나타낸다.

○ 모두들 가는데 동무는 왜 가지 않소?

(4) 대립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이 서로 대립적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접속형으로서 접속토 《나, 지만, 건만, 연만, 련만; 아도》가 쓰이고있다.

《나(으나)》

① 앞의 행동을 확인하면서 이와 대립되는 행동이 뒤따르는것을 말하는 경우에 쓰인다.

○ 나는 자리에 누웠으나 도저히 잠들수가 없었다.

② 두가지 행동이 련속되는 경우에 쓰인다.

○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는 맡은 일을 계속하였다.

《지만》

① 앞의 행동에 대립되는 뒤의 행동을 진술하는 경우에 쓰인다.

○ 비가 많이 왔지만 제때에 대책을 세워 장마피해가 없었다.

② 어떤 사실을 진술하는데 전제로 되는 행동을 나타낸다.

○ 우리도 들었지만 그의 소행은 정말 영웅적이랍니다.

《건만》

앞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뒤의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쓰인다.

○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저술의 가치는 퇴색되지 않았다.

(5) 선택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으로서 접속토 《거나, 든지, 든, 든가》가 쓰이고있다.

《거나》

○ 고향에는 내가 가거나 네가 가야 하겠다.

《든지》

○ 그 당시 우리에게는 앉아서 죽든지 싸워서 이기든지 하는 두 길밖에 없었다.

《든가》

○ 그건 내가 가든가 네가 가든가 둘중에 하나는 가야 할거야.

(6) 조건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 가운데서 앞의 사실이 다음 사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으로서 접속토 《면, 더면, 거든, ㄴ들, 던들, 아야》가 쓰이고있다.

《면(으면)》

①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정적조건으로 됨을 나타낸다.

○ 만일 오후에 비가 오면 래일 아침에 오십시오.

②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을 산생시키는 규칙적조건으로 됨을 나타낸다.

○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거든》

① 앞의 사실이 뒤의 사실을 발생시킬수 있는 가정적조건으로 됨을 나타낸다.

○ 조국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거든 투쟁에 떨쳐나서라!

② 앞의 행동이 뒤의 사실을 위한 예정적조건임을 나타낸다.

○ 일이 끝나거든 학교에 잠간 들려주게.

《아야(어야, 여야)》.

① 앞의 사실이 뒤의 사실을 실현시키는 필수적조건임을 나타낸다.

○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② 앞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계속되는 뒤의 사실을 나타낸다.

○ 아무리 둘러보아야 알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7) 가정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 가운데서 앞의 사실이 다음 사실에 대한 가정으로 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으로서 접속토 《더라도, ㄹ지라도, ㄹ지언정, ㄹ망정》이 쓰인다.

《더라도》

○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고지만은 지켜야 하오.

《ㄹ지라도(을지라도)》

○ 싸우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ㄹ지언정(을지언정)》

○ 그것은 동물일지언정 사람일수는 없다.

(8) 원인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 가운데서 앞의 사실이 다음 사실의 원인으로 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인데 접속토 《길래, 므로, 매, 길래, 기에, 기로》가 쓰인다.

《길래》

○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 합디까

(김소월, 《삭주구성》)

《므로(으므로)》

○ 이 외진 섬마을에도 학교가 생겼으므로 아이들의 교육은 걱정이 없게 되였다.

《매(으매)》

○ 그는 지난날의 머슴살이를 생각하매 몸서리가 쳤다.

(9) 의도의 접속형

주로 련결되는 두개 사실 가운데서 앞의 사실이 다음 사실의 의도하는 바 대상으로 됨을 나타내는 접속형인데 접속토 《러, 려, 려고, 고저》가 쓰인다.

《러(으러)》

○ 손님이 온다는데 맞으러 어서 갑시다.

《려고(으려고)》

○ 창혁이는 곁에서 그 말을 듣고있다가 자기도 그 일에 끼이려고 결심하였다.

3. 상 황 형

상황형은 단어를 뒤에 오는 서술형태의 단어와 이어주면서 그것을 수식하는 형태로서 상황토에 의하여 형성된다.

상황토에는 《게, 도록, ㄹ수록, 듯(듯이), 지》가 있다.

○ 삼지연못가에는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여있었다.

○ 하던 일을 빨리 끝내도록 독촉하였다.

○ 너의 눈은 볼수록 아름답구나.

○ 갑자기 소나기가 물로 퍼붓듯 쏟아져내렸다.

○ 날이 개였으니 비가 오지 않을것이다.

상황형은 일련의 측면에서 접속형과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즉 접속형이나 상황형이나 문장에서 뒤에 오는 어떤 단위에 대한 일정한 문장론적관계를 맺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접속형과는 달리 상황형은 시간관계가 뒤에 오는 용언에 의존할뿐 따로 표현되지 않고있다. 종래에는 상황토를 접속토에 포함시키였으나* 단어의 상황형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행동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므로 문장에서 접속술어로 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을 고려하여 접속형에서 분리하여 따로 상황형을 설정하게 된것이다.

* 《현대조선어(2)》(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년)에서는 《－ㄹ수록》을 조건의 접속형, 《－게》, 《－도록》을 결과의 접속형, 《－지》를 부정의 접속형으로 처리하였다.(207페지)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에서도 《ㄹ수록, 지》를 접속토로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230, 235페지)

《게》

① 첫째 행동이 둘째 행동의 결과로 됨을 나타낸다.

○ 영희는 성격이 그동안 몰라보게 변하였다.

② 형용사에 쓰일 때에는 뒤의 행동에 대한 수식을 의미할수도 있다.

○ 묘향산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 저는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③ 《－게 마련이다》형식을 취하면서 응당한 결과를 표현한다.

○ 무더운 삼복더위도 끝이 있게 마련이다.

④ 《－게 하다》, 《－게 되다》 형식으로 되면서 상범주 표현의 분석적수법으로 리용될수 있다.

○ 먹게 하다, 가지게 하다, 쓰게 하다

○ 먹게 되다, 가지게 되다, 쓰게 되다

《도록》

①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의 진행된 결과로 될것임을 나타낸다.

○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학습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 행동이 진행되는 정도를 보여줌을 나타낸다.

○ 놈들의 총소리는 저물도록 그치지 않았다.

③ 《－도록 하다》형식을 취하면서 상범주 표현의 분석적수법으로 리용될수 있다.

○ 먹도록 하다, 가지도록 하다, 쓰도록 하다

《듯(듯이)》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다른것과 비교하여 비슷함을 나타낼 때 쓰인다. 《듯(듯이)》은 그 앞에 《ㄴ》, 《는》, 《ㄹ》, 《던》과 같은 규정토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 갑자기 소낙비가 물통으로 쏟아붓듯 퍼부었다.

○ 분이의 말을 몹시 재미난듯이 듣고있었다.

○ 구름이 끼는것이 비가 올듯 해서 몹시 걱정스러웠다.

《ㄹ수록》

① 앞의 사실이 더하여감에 따라 뒤 사실도 더하여감을 나타낸다.

○ 우리의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두터워지고있다.

② 형용사에 쓰일 때는 뒤 사실에 대한 수식의 기능을 수행한다.

○ 그 목란꽃은 볼수록 우아하구나.

《지》

① 《－지 아니하다(않다)》형식을 취하면서 행동에 대한 단순한 부정을 나타낸다.

○ 우리는 어떤 난관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을것입니다.

② 《－지 못하다》형식을 취하면서 행동이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 그 어떤 침략자도 해방된 인민을 다시는 정복하지 못한다.

③ 《－지 말다》형식을 취하면서 행동이 금지됨을 나타낸다.

○ 우리는 압박받고 착취받던 지난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상황토 《지》는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와 결합하여 쓰이면서 부정문을 만드는데 쓰이고있다.

4. 규 정 형

단어를 뒤에 오는 대상성있는 단어와 련결시켜주는 형태로서 언제나 문장에서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규정형은 규정토 《ㄴ(은), 는, ㄹ(을), 던》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그것은 일정한 상대적시칭의 문법적의미를 동반하고있다.

그런데 매개의 규정토가 동사, 형용사, 체언서술형에 다같이 쓰이는것이 아니다.

○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구희철, 《내 나라의 푸른 하늘》)

○ 날 저물고 돋는 달에
흰 물은 솰솰…
그 모래 반짝…
청노새 몰고 가는 랑군
(김소월, 《강촌》)

우의 노래와 시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규정토 《는, ㄴ, 던》을 각각 취하고있는데 그것이 표현하는 시칭의 의미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동 사	형 용 사
는	현 재	×
ㄴ/은	과 거	현 재
던	앞선과거	앞선과거

동사에는 모든 규정토 《ㄴ(은), 는, ㄹ(을), 던》이 다 붙어 쓰일수 있으나 형용사나 체언서술형에는 규정토 《는》이 붙지 못하고 그것은 오직 동사에만 붙을수 있다.

○ 공부한, 공부할, 공부하던, 공부하는
○ 아름다운, 아름다울, 아름답던
× 아름답는
○ 학생인, 학생일, 학생이던
× 학생이는

그러나 《없다》의 경우에는 《는》이 붙을수 있다.

○ 혁명적신념이 없는 사람은 난관앞에서 쉽게 굴복할수 있다.

형용사에 규정토 《는》이 붙어서 쓰이게 되면 그것은 이미 동사화과정을 밟은것으로 된다.

○ 날이 밝는 시간에 맞추어서 강을 건너갔다.

규정토는 다른 시칭토들과의 결합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규정토 《는》과 《ㄴ(은)》은 다른 어떤 시칭토와의 결합도 불가능하지만 규정토 《던》, 《ㄹ(을)》은 시칭토 《았/었/였》과 어울려 쓰일수 있으며 《던》은 미래시칭토 《겠》뒤에서도 쓰일수 있다.

○ 말하였던, 말하였을
○ 말하겠던
× 말하였는, 말하였은, 말하겠은

규정토는 접속토나 종결형과 어울려서 쓰일수 있다.

그런데 접속토의 경우에 《려》는 규정토 《는》, 《던》과만 결합할수

있다.

○ 집필하시려는 원고가 그것입니까?
○ 토의하려던 계획은 어떻게 되였소?

일련의 규정토는 종결형 《다, 리라, 더라, 느냐, 더냐, 라, 자》 등의 뒤에 결합하여 쓰일수 있는데 그 정형을 종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규정토 / 종결형	는	던	ㄹ/을	ㄴ/은
다	다는	다면		
리라	리라는	리라면	리랄	리란
더라	더라는	더라면	더랄	더란
느냐	느냐는	느냐면		
더냐	더냐는	더냐면		
라	라는	라면	랄	란
자	자는	자면	잘	잔

그러나 규정형의 설정문제가 학설사적견지에서 처음부터 순탄하게 이루어진것은 결코 아니였다.

《ㄴ, 는, 던, ㄹ》이 붙은 단어를 《련체형》으로 보고 《ㄴ, 는, 던, ㄹ》을 《련체형어미》로 처리하는것은 해방전 문법들에서는 물론 해방후에도 일부 문법에서 지속되여온 견해였다.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말의 체언의 활용은 조사로써 성립되고 용언의 활용은 곧 어미로써 성립되는데》 《ㄴ, 는, 던, ㄹ》은 용언을 체언에 결합시켜온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에 《련체형어미》로 된다는것이다.*[1]

*[1] 《조선어문법》(박상준, 1948년) 104, 108페지

《ㄴ, 는, 던, ㄹ》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용언의 활용을 련체형으로 처리하는것은 전적으로 통합질서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표식을 잡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체언과 결합된다고 하여 붙인 련체라는 말은 용언과 결합되는 련용이라는 말과 구별하여 쓴것으로서 오래전부터 일부 문법에서 써오던 말이다.

다른 한편 《ㄴ, 는, 던, ㄹ》을 《관형사형 수식어격 어미》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례를 들어서 《크ㄴ 나무》, 《보는 책》, 《먹던 밥》, 《보ㄹ 책》 등에서 《ㄴ, 는, 던, ㄹ》은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품사적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문장론적으로는 수식어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관형사형 수식어격 어미》로 이름지은것이다.*[2]

*[2] 《조선어문법》(1948년) 136~137페지

이 견해에 의하면 《토는 주로 실사적단어를 문장으로 련결시키는것》이여서 그것은 《주로 문장에서 각 단어들의 문장성분을 규정하는 성분토로 되는것》이라고 하면서 규정어토의 《ㄴ, 는, ㄹ, 던》과 함께 거기에 《의》까지도 포함시키고있다.*[3]

*[3] 《조선어문법에서의 〈토〉의 분류에 대하여》(잡지 《조선어문》 1958년 1호 33페지)

《ㄴ, 는, ㄹ, 던》과 《의》가 일정한 단어를 규정어로 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것만은 사실이지만 《ㄴ, 는, ㄹ, 던》과 《의》는 성질이 서로 다른 토로서 한쪽이 용언토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체언토이다. 그리고 이 토들이 붙은 단어뒤에 불완전명사가 오는 경우에 그 단어는 규정어로 되는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불완전명사와 한덩어리가 되여 불완전명사의 형태에 따라 성분적기능이 규정된다. 례를 들어 《아름다운것은》, 《아름다운것을》, 《아름다운것이다》의 경우에 《아름다우》에 붙은 《ㄴ》은 불완전명사 《것》과의 규정적결합을 이루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규정어로 되게 하지는 않으며 《아름다운것》의 성분적기능은 전적으로 《것》에 붙은 토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규정위치》, 《규정형》의 개념을 도입한것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는데서 일보전진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규정위치》를 설정하는것은 조선어에서 《문법적형태를 조성하는 접미사는 두가지 종류로 구별》되여 《위치적인것》과 《비위치적인것》으로 나누인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조선어에서 위치적인것은 격위치, 접속위치, 종결위치, 규정위치의 넷을 설정할수 있는데 《ㄴ, 은, ㄹ, 을, 는, 던》은 규정위치로 된다는것이다.*[4]

*[4] 《조선어의 형태론적특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통보》 1960년 5호 60페지)

토를 위치적인것과 비위치적인것으로 나누는것은 토가 단어의 문장론적위치를 결정짓는것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르는 구분으로서 《위치적인것이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벌써 형태론적인 범위를 떠나서 문장론적범위에 미치고있는것임이 틀림이 없다.》*[5]

*[5] 《조선어의 형태론적특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통보》 1960년 5호 63페지)

이와 류사한 견해는 《규정형》을 설정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여기서는 위치적인것과 비위치적인것을 토와 형태조성의 뒤붙이로 갈라놓고 토는 《단어의 문장론적기능과 관련된 문법적의미를 나타냄으로써 문장 또는 단어결합에서의 단어의 련계를 표현하는》것이라고 정식화하였다. 그리고 《동사의 규정형은 동사가 그 뒤에 오는 명사(수사, 대명사)에 대하여 규정하는 관계에 있으며 반드시 그에 대하여 규정어로 됨을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라고 하면서 규정형의 토에 《는, ㄴ(은), 던, ㄹ(을)》을 넣고있다.*[6]

*[6] 《조선어문법(1)》(과학원출판사 1960년) 124, 374페지

규정위치나 규정형이나 다 단어의 문장론적위치를 결정하는데서 노는 토의 기능을 기본표식으로 잡고있으나 그것을 어디까지나 단어의 한개 형태로

보고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규정어토》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토의 문장성분적기능만을 강조하던 나머지 토의 형태조성적기능은 전혀 무시하고 이질적인것까지 한군데 섞어넣음으로써 형태론을 문장론에 용해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규정위치, 규정형의 설정은 토의 문장론적기능을 기본표식으로 잡으면서도 토의 형태조성적기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형태론적질서에서 분석하고있다. 이것은 형태론과 문장론의 호상련관관계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 계선을 넘어서지 않음으로써 형태론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단어형태문제를 제위치에 놓고 취급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ㄴ, 는, 던, ㄹ》은 규정형토 또는 규정토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런데 《ㄴ, 는, 던, ㄹ》은 그 기본기능인 규정적기능과 함께 시태적의미도 동시에 나타내고있다.

이로부터 지난날 일부 문법에서는 이 시태적의미를 중요시하면서 이것을 《시간형》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우리 말은 《시간을 표시하는 허사가 있어서 실사에 붙어 그 시간을 표시》하는데 이 《시간표시의 허사를 시간형이라고 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던, ㄴ, 는, ㄹ》과 함께 《았, 겠》을 포함시키고있거나 혹은 규정형의 시칭형태로 설명하고있다.*[7]

*[7] 《조선문법연구》(홍기문, 1947년),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 251페지

이것은 《던, ㄴ, 는, ㄹ》이 력사적으로 시태토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으며 지금도 일정한 시태적의미를 나타내고있는점을 고려한데서 나온 견해이다.

그러나 《던, ㄴ, 는, ㄹ》의 기본기능은 시간표시에 있는것이 아니라 단어의 규정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으며 단어의 규정위치를 결정할 경우 규정을 받는 단어와의 관계에서 다시 일정한 시간적순차성이나 태적의미를 표시할뿐이다. 그리하여 이 토들의 1차적기능은 규정적기능이며 부차적으로 상대적시칭을 나타내고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이 토들을 절대적시칭을 나타내는 《았, 겠》과 동일한 계렬에 놓으면서 이것들을 《시간형》에서 함께 취급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가 나오게 된것은 《던, ㄴ, 는, ㄹ》이 현실적으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있는것이 사실이기때문에 전혀 무근거한것이 아니며 일리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규정적기능과 시태적의미가운데서 어느것을 기본으로 보는가 하는 관점상 차이와 관련되여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규정토가 다른 위치토와 구별되는 특성 즉 시태적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는 특성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다른 한편 《ㄴ, 는, ㄹ》은 새로운 토의 파생에서 매우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례를 들어서 《는가, ㄴ다, ㄹ수록, ㄹ지언정, ㄹ지라도》등

의 토들이 파생되여나가는데서 《ㄴ, 는, 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으며 《는데, 는듯, ㄹ듯》과 같이 규정토와 불완전명사의 결합이 하나의 토로 굳어져가는 과정에 있는것도 있다. 그리고 《ㄹ것이다(ㄹ게다), ㄹ터이다(ㄹ테다)》의 경우에는 규정토 《ㄹ》이 불완전명사와 결합하여 일정한 양태적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ㄴ, 는, ㄹ》은 본래 규정토인것이 사실이지만 그 결합방식에서만 규정적기능을 수행할뿐이고 그 시태적의미가 전면에 나서거나 혹은 다른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데로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면 조선어에서 규정토는 어떻게 되여 시태적의미를 가지게 되였으며 새로운 토의 파생에서 그토록 적극적인 작용을 놀게 되였는가?

토의 생성발전에서 《ㄴ, ㄹ》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는가?

력사적발전의 견지에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것은 현대국어 규정토의 본질과 기능을 옳게 리해하는데 도움을 줄뿐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가지 토들의 기능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8]

*[8] 《조선어규정토의 의미기능적특성과 그 력사적변화》(《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편 1983년 4호)를 참고할것.

5. 서술토의 2차적결합

국어의 서술적형태는 이미 문장론적위치가 결정된 단어에서 2차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다. 다시말하여 한 단어에서 토들이 겹쳐쓰이면서 2차적결합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 혁명전적지답사단이 곧 도착한답니다. (종결형＋종결형)

○ 혁명전적지답사단이 도착한다면서 강사들이 달려나왔다. (종결형＋접속토)

○ 곧 혁명전적지답사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종결형＋규정토)

이러한 2차적인 결합은 기원상 단어의 서술형태와 동사 《하다》와의 결합에서 온것이라고 할수 있다.

○ 도착한다 합니다→도착한답니다

○ 도착한다 하면서→도착한다면서

○ 도착한다 하는→ 도착한다는

결국 동사 《하다》의 어휘적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문법적기능이 전면에 나서면서 어휘적의미의 담당자로서의 《하》는 빠지고 문법적의미의 표현자인 토만이 남게 됨으로써 서술토의 2차적결합이 생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것이다.

이러한 서술토의 2차적결합은 국어의 토의 풍부성을 낳게 하였으며 그 결과에 수백개의 서술토가 쓰이게 되였다.

(1) 종결형과 종결형의 결합

례: 답니다, 답니까, 다오, 다네, 다는구나, 다는군, 다는구만, 다는가, 다나, 다느냐, 노랍니다

(2) 접속토와 종결형의 결합

례: 렵니다, 렵니까, 려오, 려네, 련다, 려는구나, 려는군, 려는구만, 려는가

(3) 종결형과 접속토의 결합

례: 다고, 다는데, 다니, 다지만, 다거나, 다는지, 다면, 다거든, 노라고, 노라니

(4) 종결형과 규정토의 결합

례: 다는, 다던, 리라는, 라는, 느냐는, 느냐던

(5) 접속토와 규정토의 결합

례: 려는, 려던

이것은 토의 풍부성을 말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그 쓰임의 복잡성을 초래함으로써 우리 말을 배우는 외국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서술토의 2차적결합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터득하게 하고 그 원천적인 토들과 그 결합의 원칙만 알게 한다면 사실상 큰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 2 절. 종결형에 고유한 문법적범주들

국어의 서술형태가운데서 많은 문법적범주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날수 있는것은 종결형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고유한 문법적범주들로는 계칭과 법, 식을 들수 있다.

1. 계칭범주

계칭이란 말하는 사람과 대화상대방사이의 사회적관계에 따르는 언어례절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이러한 례의적관계는 말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 호상간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담화의 환경과 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칭범주는 크게 존대, 대등, 하대로 나눌수 있으며 좀더 세분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몇개 동분으로 구분할수 있다.

계칭은 항상 종결형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중 일부 토들은 그앞에 있는 말줄기의 마지막음절이 열린마디인가 닫긴마디인가에 따라 그리고 밝은모음인가 어두운모음인가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앞모음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변종으로 나타난다.

○ 간다(열린마디+ㄴ다)
먹는다(닫긴마디+는다)

○ 받아요(밝은모음+아요)
먹어요(어두운모음+어요)

○ 되여(앞모음 뒤+여)
주어(뒤모음 뒤+어)

또한 현재시간의 경우에 동사와 형용사는 각각 다른 토를 취한다.

○ 간다, 받는다(동사+는다)
희다, 검다(형용사+다)

종결형에서 표현되는 계칭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다른 일련의 토들과 복합적으로 실현되는것으로서 그앞에는 《습(ㅂ)/옵》과 같은 겸양토나 《니》, 《디》, 《더》, 《리》와 같은 법토가 올수 있으며 《다》, 《까》, 《군》, 《냐》와 같은 식토로 끝맺음을 한다.(례: 습니다, 습디다, ㅂ니다, ㅂ디까, 더군, 더냐, 리다)

이처럼 계칭은 일반적으로 종결형에서 토의 복합체에 의해서 표현되기때문에 종래 문법들에서는 그것을 계칭토라고 하면서 그 복합체의 성분들에 대해서 《조각》으로 설명하였다. 즉 《맺음토의 조각》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맺음토에는 몇개의 조각이 있다.》고 하면서 례컨대 《습디다》의 경우에 《습》, 《디》, 《다》를 다 각각 나누고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형태부들이며 하나의 문법적뜻을 나타내고있으나 다만 관습상 하나의 맺음토를 이루는 부분으로 보고있다.》고 하였다.*

* 《조선문화어문법규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년) 260페지

《하나의 형태부》가 《하나의 문법적뜻을 나타내고》있다면서도 《하나의 맺음토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하는 모순된 표현을 하게 된것은 앞에서 이미 서술한바와 같이 토의 복합체로서의 종결형태를 《맺음토》라고 한것과 관련되여있다.

그리하여 종래에 계칭범주를 론의할 때는 그 토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가 아니라 종결형에 실현된 덩어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서 《계칭토》란 존재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말해서 그 덩어리를 이루는 매개 토들은 다 각각 자기의 독자적인 문법적의미를 가지고있는데 그 토의 복합체가 곧 각이한 계칭의 표현형태로 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칭에는 공식적인 말과 사적인 말, 남성의 말과 녀성의 말등 말씨의 구별이 있으며 특별히 정중한 말투가 따로 있다.

○ 이제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공식적인 말투]
○ 넌 정말 마음씨가 곱기도 하구나.[사적인 말투]
○ 그 녀석 참 잘 생겼는걸.[남성적인 말투]
○ 국이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녀성적인 말투]
○ 삼가 이 글월을 드리옵니다.[정중한 말투]

1) 존대

존대는 대화의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사람인 경우에 쓰인다. 즉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지위가 높을 때 또는 특별히 존대해야 할 대상인 경우에 존대를 쓴다. 그리고 강연이나 강의와 같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존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존대의 계칭을 쓰는것이 언어관습상 례절을 지키는것으로 된다.

존대표현의 기본담당자는 겸양토인 《습/ㅂ》으로서 그것은 앞에 오는 말줄기의 어음조건에 따라서 선택되는데 닫긴마디뒤에는 《습》, 열린마디뒤에는 《ㅂ》이 온다.

○ 나는 밥을 먹<u>습</u>니다.
○ 나는 학교에 <u>갑</u>니다.

이 경우에 겸양토 《습/ㅂ》은 비위치토로서 그것은 《0》토와 대립되면서 언제나 뒤에 오는 법토, 식토와 함께 종결형의 구성부분으로 융합되여있다. 그리하여 《습/ㅂ》은 다른 서술형태 례컨대 접속형태나 상황형태, 규정형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그러나 같은 겸양토라고 하여도 《옵》이나 《삽》의 경우에는 례외로 된다.(례: 가옵고, 하옵는, 먹삽고)

존대의 계칭을 나타내는 《-습니다/-ㅂ니다》류형은 비위치토들인 겸양토, 법토와 위치토인 식토가 결합된것으로서 그것은 사실상 《토의 복합체》인것만큼 고유한 의미에서 《계칭토》라고는 할수 없으며 《계칭형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1) 《합니다》계렬

○ -습니다/ㅂ니다 (잡습니다/갑니다)
○ -습디까/ㅂ까 (잡습디까/갑디까)
○ -으리다/리다 (잡으리다/가리다)
○ -습니까/ㅂ니까 (잡습니까/갑니까)
○ -습디까/ㅂ디까 (잡습디까/갑디까)
○ -으리까/리까 (잡으리까/가리까)
○ -으십시오/십시오 (잡으십시오/가십시오)
○ -읍시다/ㅂ시다 (잡읍시다/갑시다)

《합니다》보다 더 높은것으로 《하나이다》계렬이 있다.

○ -으옵나이다/옵나이다 (잡으옵나이다/가옵나이다)*

○ —나이다 (잡나이다/가나이다)
○ —으옵나이까/옵나이까 (잡으옵나이까/가옵나이까)
○ —나이까 (잡나이까/가나이까)
○ —으옵소서/옵소서 (잡으옵소서/가옵소서)
○ —으소서/소서 (잡으소서/가소서)

* 《옵》과 《나이》는 겸양토로서 그에 대한것은 겸양범주에서 언급될것이다.

(2) 《해요》계렬
○ —아요/어요/여요 (받아요/주어요/뛰여요)
○ —지요 (잡지요/가지요)
○ —는군요 (잡는군요/가는군요)
○ —더군요 (잡더군요/가더군요)
○ —을걸요/ㄹ걸요 (잡을걸요/갈걸요)
○ —는지요 (잡는지요/가는지요)
○ —으세요/세요 (잡으세요/가세요)
○ —으십시오/십시오 (잡으십시오/가십시오)

2) 대등

대등은 대화의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과 동등한 경우 또는 사회적지위가 자기보다 아래인 경우, 나이가 아래이면서도 친숙한 경우에 흔히 쓰인다.

그런데 대등의 계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극화되여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하오》는 남성적이면서도 공식적인 쓰임의 경향이 있으며 《하게》는 사용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여가는 경향이 있다.

(1) 《하오》계렬
○ —소/오 (잡소/가오)
○ —으시오/시오 (잡으시오/가시오)

(2) 《하게》계렬
○ —네 (잡네/가네)
○ —는군 (잡는군/가는군)
○ —는구려 (잡는구려/가는구려)
○ —데 (잡데/가데)
○ —는구려 (잡는구려/가는구려)
○ —더군 (잡더군/가더군)

3) 하대

하대는 대화의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과 극히 친근하거나 나이가 아래로서 낮추 말해도 일없는 대상에 흔히 쓰인다.

하대에 속하는 반말은 계칭상으로 가장 낮은것으로서 말을 채 끝맺지 않

아 계칭표현이 뚜렷하지 않은 절반말이라는 뜻에서 붙인 말이다. 본래 접속형이던것인데 말을 끝맺지 않고 끊어버렸다는데서 나온것으로서 언어례절상으로는 격이 가장 낮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1) 《해라》계렬
○ —는다/ㄴ다 (잡는다/간다)
○ —는구나 (잡는구나/가는구나)
○ —더라 (잡더라/가더라)
○ —더구나 (잡더구나/가더구나)
○ —더냐 (잡더냐/가더냐)
○ —으리라/리라 (잡으리라/가리라)
○ —으리까/리까 (잡으리까/가리까)
○ —으려무나/려무나 (잡으려무나/가려무나)
○ —으렴/렴 (잡으렴/가렴)
○ —으마/마 (잡으마/가마)
○ —자 (잡자/가자)
○ —자꾸나 (잡자꾸나/가자꾸나)

(2) 반말
○ —아(어, 여) (가, 잡아, 먹어, 뛰여)
○ —지 (잡지/가지)
○ —는지 (잡는지/가는지)
○ —던지 (잡던지/ 가던지)
○ —을지/ㄹ지 (잡을지/갈지)

계칭은 기본적으로 단어의 종결형에서 표현되는것이지만 그것은 단어부류로서의 인칭대명사와도 련관이 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인칭대명사와 단어의 종결형에 나타나는 계칭과의 맞물림을 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례컨대 인칭대명사 《저》나 《당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게 존대의 계칭형태가 와야 하며 인칭대명사 《너》가 오는 경우에는 하대의 계칭형태가 와야 한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저》, 《나》를 쓰는 경우에는 대화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그에 대응한 계칭을 쓰는 문제가 중요하다.

○ 제가 가겠습니다.
○ 당신이 가십시오.
○ 저는 안 가겠습니다.
○ 내가 가겠소.
○ 나는 안 가겠다.
○ 네가 가거라.

2. 식범주

식이란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방에 대하여 설정하는 담화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말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담화를 진행할수 있다. 같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전달할수 있으며 또 그 무엇에 대하여 스스로 감동되여 말할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물어볼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행동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할수도 있으며 권할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약속할수도 있다.

이러한 담화목적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단어종결형의 차이에 의하여 나타나기때문에 종결형의 고유한 형태론적범주로서 식범주를 설정하게 되는것이다.

식에는 서술식, 감동식, 의문식, 명령식, 권유식, 약속식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서술형, 감동형, 의문형, 명령형, 권유형, 약속형이 있는데 식의 형태는 앞에 오는 말뿌리의 어음적조건에 따라서 선택되는 변이형태를 가지고있다.

서로 다른 식은 종결형의 마지막토에 의해서 구별되고있어 식을 나타내는 기본토는 《ㅡ다》, 《ㅡ구나》, 《ㅡ가》, 《ㅡ라》, 《ㅡ자》, 《ㅡ마》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것이 바로 종결토이다.

1) 서술식

서술식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화상대방에게 전달함을 나타낸다. 서술식의 기본토는 《다》, 《라》, 《이》*이다.

○ 찬란한 아침해빛이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고있다.
○ 그들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리라.
○ 지금 건설장에서는 경제선동이 한창 벌어지고있네.

* 력사적으로 《이》는 종결형으로 많이 쓰이여왔는데 그 잔재형태가 바로 《네》, 《데》, 《게》이다. 그것은 사실상 《ㄴ+이》, 《더+이》, 《거+이》로서 서술식토 《이》앞에 시태토가 붙은것이다. 지금도 일부 방언에서는 《날래 가이./냉큼 와서 보이.》라고 하여 《이》를 종결형에서 서술식토로 쓰고있다.

서술식에 많이 쓰이는 종결형으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수 있다.

○ ㅡ습니다/ㅂ니다 (받습니다/갑니다)
○ ㅡ습디다/ㅂ디다 (받습디다/갑디다)
○ ㅡ으리다/리다 (받으리다/가리다)
○ ㅡ는다/ㄴ다 (받는다/간다)
○ ㅡ더라 (받더라, 가더라)

○ ㅡ으리라/리라 (받으리라/가리라)
○ ㅡ노라 (받노라, 가노라)
○ ㅡ네 (받네, 가네)
○ ㅡ데 (받데, 가데)

이것들은 종결형에서 서술식을 나타내는데 쓰이는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을 《서술식토》라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독자적인 문법적의미를 담당하고있는 형태소로서의 각이한 토들이 겹쳐있기때문이다. 례컨대 《습/ㅂ》은 겸양범주, 《니/디/리》는 법범주와 관련된 형태소들인것만큼 응당 그것들을 분리해야 하는것이다. 《데》의 경우에는 력사적으로 《더+이》이지만 이미 하나로 융합된것이기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없으나 《습니다/ㅂ니다》, 《습디다/ㅂ디다》, 《으리다/리다》, 《더라》, 《으리라/리라》와 같이 분리가능한것을 하나의 《서술식토》로 다룰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종래에 관습상 들고있는 종결형의 여러 토들을 다 이러한 원칙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서술식토를 론하게 되면 서술식의 기본토는 《다》, 《라》,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종결토로 된다.

2) 감동식

감동식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자기의 감동을 전달함을 나타낸다. 감동식의 기본토는 《군/구나》, 《누나》이다.

○ 비로봉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해돋이는 굉장하구나.
○ 이 그림의 색갈은 정말 아름답군.
○ 영식이가 십년만에 고향에 온다누나.

감동식에 많이 쓰이는 종결형으로는 흔히 다음과 같은것을 들고있다.

○ 구나 (맑구나, 좋구나)
○ 는구나, 더구나 (가는구나, 받는구나, 가더구나, 밝더구나)
○ 는구려 (가는구려)
○ 는군, 는군요 (가는군, 가는군요)
○ 군, 군요 (좋군, 좋군요)
○ 더군, 더군요 (가더군, 가더군요)
○ 누나 (가누나)

이 경우에도 《는》과 《더》는 응당 분리시켜 보아야 한다.

이밖에도 글말에서만 쓰는 《노라》, 《아라(어라, 여라)》가 있다.

○ 우리는 소리높이 자랑하노라.
○ 이 영광 끝이 없어라.

3) 의문식

의문식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을 나타낸다. 의문식의 기본토는 《가》, 《지》, 《냐》이다.

○ 금강산까지 거리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 오늘의 생산혁신자는 누구인지?
○ 네가 정말 혁신자로 되였느냐?

의문식에 흔히 쓰이는 종결형으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수 있다.

○ -습니까/ㅂ니까 (받습니까/갑니까)
○ -습디까/ㅂ디까 (받습디까/갑디까)
○ -으리까/리까 (받으리까/가리까)
○ -는지요 (받는지요, 가는지요)
○ -는가요 (받는가요, 가는가요)
○ -던가요 (받던가요, 가던가요)
○ -을지요/ㄹ지요 (받을지요/갈지요)
○ -을가요/ㄹ가요 (받을가요/갈가요)
○ -을라구요/ㄹ라구요 (받을라구요/갈라구요)
○ -나 (받나, 가나)
○ -는가 (받는가, 가는가)
○ -던가 (받던가, 가던가)
○ -을가/ㄹ가 (받을가/갈가)
○ -을지/ㄹ지 (받을지/갈지)
○ -는지 (가는지, 받는지)
○ -던지 (가던지, 받던지)
○ -니 (받니, 가니)
○ -느냐 (받느냐, 가느냐)
○ -더냐 (받더냐, 가더냐)

4) 명령식

명령식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것을 요구함을 나타낸다. 명령식의 기본토는 《라》, 《오/요》이다.

○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 어서 직장에 가기나 하오. /어서 직장에 가기나 해요.

명령식에 쓰이는 종결형들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수 있다.

○ 으라/라 (받으라/가라)
○ 으라구/라구 (받으라구/가라구)
○ 으려무나/려무나 (받으려무나/가려무나)
○ 으렴/렴 (받으렴/가렴)
○ 소/오 (받소/가오)
○ ㅂ시오 (받으십시오, 가십시오)
○ 으시오/시오 (받으시오/가시오)
○ 게 (받게, 가게)*

* 《게》는 본래 《거+이》로서 력사적견지에서는 미래의 시태토 《거》에 종결형 《이》가 결합한것으로서 앞으로의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5) 권유식

권유식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자기와 함께 할것을 권고함을 나타낸다. 권유식의 기본토로는 《자》, 《세》가 있다.

○ 빨리 학교에 가자.
○ 어서 공부를 하세.

권유식에 쓰이는 종결형들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수 있다.

○ 자 (받자, 가자)
○ 자구 (받자구, 가자구)
○ 자꾸나 (받자꾸나, 가자꾸나)
○ 으세/세 (받으세/가세)
○ 으세나/세나 (받으세나/가세나)
○ 읍시다/ㅂ시다 (받읍시다/갑시다)

6) 약속식

약속식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데 대하여 약속함을 나타낸다. 약속식의 기본토는 《마》, 《ㅁ세/음세》이다.

○ 떠나는 그날에도
보리피리 불어주마(김대봉, 《보리피리》)
○ 래일은 고향으로 함께 감세.

약속식에 쓰이는 토들은 다음과 같다.

○ 으마/마 (받으마/가마)
○ 으마구/마구 (받으마구/가마구)
○ 음세/ㅁ세 (받음세/감세)

우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식은 다 그 기본적의미에 기초하여 분류한것이다.

그런데 반말의 경우에 형태상 구별이 없이 여러가지의 식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은 어조이다.

○ 나는 책을 읽어. (서술)
○ 네가 그걸 읽어? (의문)
○ 어서 읽어! (명령)
○ 자, 같이 읽어. (권유)

매개 식형태는 자기의 기본의미와 함께 부차적의미도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어조와 문맥의 도움에 의해서 식별한다.

(1) 서술식

① 서술

○ 나는 간다.

② 의혹

○ 정말 그가 간다?

(2) 의문식

의문식에는 그 구체적인 쓰임에 따르는 구분이 있다.

① 진술전체에 대한 의문

이 경우에 물음의 어조는 의문형을 취한 술어에 오며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만 긍정, 부정의 대답만 하면 된다. 이러한것을 판정의문이라고 한다.

○ 너는 학교에 가니?

예. /아니요.

② 진술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의문

이 경우에는 의문을 제기한 단어인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얼마》, 《어느》, 《왜》, 《어떻게》 등이 문장에 포함되며 의문의 어조는 바로 이 단어에 온다. 이러한것을 설명의문이라고 한다.

○ 넌 어디 가느냐?

학교에 가요.

○ 지금 무엇을 쓰고있나?

학과론문을 쓰고있습니다.

중세어에서는 판정의문에 《－가》가 쓰이고 설명의문에 《－고》가 쓰이였는데 설명의문의 경우에는 언제나 물음말이 있어야 했다.

○ 이 ᄯᆞ리 너희 죵가(《월인석보》 8권 94장)[판정의문]

○ 어 엇던 光明고(《월인석보》 10권 7장)[설명의문]

이러한 용법은 현대시작품의 경우에도 쓰이고있다.

○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바로 가 있을텐고,
삭주구성은 산 넘어
먼 륙십리(김소월, 《삭주구성》)

이러한 설명의문토 《－고》를 오늘날 나이많은 계층에서 아직도 쓰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한 답으로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네 이름이 무엇인고?

제 이름은 박영수라고 합니다.

○ 지금 어디 가는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부 문학작품들에서 옛스러운 말투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판정의문의 경우에 설명의문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투이다.

× 자네는 오늘도 고향에 안 내려가는고?

③ 수사학적질문

이것은 어떠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술형대신에 의문형을 쓴것으로서 형식이 설명의문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답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그 동무의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 《마식령속도》창조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지 어찌 보고만 있겠나?

(3) 명령식

① 명령, 지시

○ 그럼 어서 떠나시오.

② 추동, 권고, 요청

○ 너도 어서 가보려무나.

③ 허용

○ 좋도록 하여라.

④ 가정

○ 말만 안 들어봐라.

(4) 권유식

① 권유

○ 이젠 떠납시다.

② 승인

○ 정 그렇다면 해보세.

③ 요청

○ 그런 말은 그만둡시다.

④ 의도

○ 나도 한가지 물어봅시다.

식범주는 어디까지나 종결형에 고유한 형태론적범주로서 품사에 따라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 즉 체언이나 부사의 경우에는 그 의미상 특성으로 말미암아 명령식이나 권유식, 약속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용사도 서술식이나 의문식, 감동식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권유식과 약속식과 같은 경우에는 식형태가 성립될수 없다.

3. 법범주

법이란 말하는 사람이 동사나 형용사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말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대하여 현실적인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또 그것을 목격한데 대하여 말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추측하여 말할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것은 종결형에서 법토에 의해서 표현된다.

○ 박동무는 집에 있습니다.

○ 박동무는 집에 있습디다. / 박동무는 집에 있더라.

○ 박동무는 집에 있으리다.

《박동무는 집에 있다.》는데 대하여 사실그대로 말할수도 있고 또 그것을 직접 본데 대하여 말할수도 있으며 그것을 추측하여 말할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법토들인 《니, 디(더), 리》에 의해서 각각 표현되고있다.

법토 《니, 디(더), 리》의 쓰임은 이미 중세국문문헌에도 나오고있어 그 력사가 오래임을 알수 있다.

○ 瞿曇氏 다시 니러나시니라(《월인석보》 1권 8장)

○ 곧곧마다 븘비치 나더라(《월인석보》 2권 52장)

○ 이 므른 엇뎨 ᄀᆞ술히 업스리오(《두시언해》 16권 66장)

법에는 직설법, 목격법, 추측법의 세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직설형, 목격형, 추측형의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법범주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토만을 분리하여 론하지 않고 흔히 그것이 포함된 종결형을 놓고 그 갈래를 구분한다.

1) 직설법

직설법은 말하는 사람이 동사, 형용사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에 대하여 현실적인것으로 인정함을 나타낸다. 직설법의 기본토는 《니》이고 그 변이형으로는 《는, ㄴ》이 있으며 《0》토가 직설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우리는 이달 계획을 열흘 앞당겨 끝내려고 합니다.

○ 그가 오늘 자기가 쓴 책을 주는군요.

○ 병사들이 씩씩하게 행진해간다.

○ 뒤동산의 목란꽃이 펴그나 우아하다.

《니, 는, ㄴ》은 력사적으로 본래 시태토인 《ᄂᆞ니/니》에서 기원한것으로서 중세국문문헌에서 널리 쓰이고있었다.

○ 道士ᄋᆡ 주비롤 道家ㅣ라 ᄒᆞᄂᆞ니라(《월인석보》 2권 50장)

○ 모딘 도ᄌᆞᄀᆞᆯ 자ᄇᆞ니이다(《룡비어천가》 35장)

직설법으로 많이 쓰이는 종결형들은 다음과 같다.

○ 습니다/ㅂ니다 (받습니다/갑니다)

○ 습니까/ㅂ니까 (받습니까/갑니까)

○ 네 (받네, 가네)

○ 아/어/여 (받아/먹어/뛰여)

○ 아요/어요/여요 (받아요/먹어요/뛰여요)

○ 지 (받지, 가지)

○ 지요 (받지요, 가지요)

○ 는다/ㄴ다/다 (받는다/간다/희다)

○ 는군/군 (받는군, 가는군/희군)

○ 는구려/구려 (받는구려, 가는구려/희구려)

○ 는구나/구나 (받는구나, 가는구나/희구나)

○ 누나 (받누나, 가누나)

○ 느냐, 냐/으냐 (받느냐, 가느냐, 희냐/검으냐)

○ 는가 (받는가, 가는가)

○ 는지/은지/ㄴ지 (가는지/붉은지/흰지)

2) 목격법

목격법은 말하는 사람이 동사, 형용사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를 이전에 자기가 직접 목격한것으로 인정함을 나타낸다. 목격법의 기본토는 《더(디)》이다.

○ 모두가 밤새워서 연구사업에 열중하고있습디다.

○ 건설장에서는 청년들의 기세가 대단히 높더라.

《더》는 본래 시태토의 하나로서 중세어에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는 시태적의미와 함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회상하거나 확증하는 양태적의미도 나타내고있었다.

○ 곧곧마다 븘비치 나더라(《월인석보》 2권 52장)

○ 夫人이 좌시고 아모ᄃᆞ라셔 온통 모ᄅᆞ더시니(《월인석보》 2권 28장)*

* 초기국문문헌에서 《더》는 대체로 존칭토 《시》의 앞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 받ᄌᆞᆸ더시니(《월인석보》 8권 79장)

○ 앗가ᄫᆞᆫ 뜨디 곳 업더시다(《월인석보》 8권 91장)

드물게 《시》의 뒤에 오다가 17세기 이후에 와서는 《—시더—》 류형이 지배적으로 되였다.

○ 뉴셜티 말라 ᄒᆞ오시더라(《선조행장》 1장)

이것은 《더》의 문법적추상화가 심화되여가는 과정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목격법형태는 자기가 직접 본것이외에 직접 들은 사실이나 체험한 사실에 대해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 새 뜨락또르의 발동기소리가 굉장합디다. (직접 목격한 사실)

○ 그날의 춤판이 정말 흥겹습디다. (체험한 사실)

목격법에 쓰이는 종결형으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을 들수 있다.

○ 습디다/ㅂ디다 (받습디다/갑디다)

○ 습디까/ㅂ디까 (받습디까/갑디까)

○ 데 (받데, 가데)

○ 더라 (받더라, 가더라)

○ 더냐 (받더냐, 가더냐)

○ 던가 (받던가, 가던가)

○ 던지 (받던지, 가던지)

○ 더군 (받더군, 가더군)

○ 더구나 (받더구나, 가더구나)

3) 추측법

추측법은 말하는 사람이 동사, 형용사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가 실현되리라고 추측하거나 그것을 결심함을 나타낸다.

추측법의 기본토는 《리/ㄹ》이다.

○ 그날도 건설장에서 청년들의 기세는 충천하였으리라.

○ 우리는 반드시 년간계획을 이달에 완수하리라.

○ 래일 꼭 거기에 가리다.

《리》는 본래 시태토로서 중세국문문헌에서 미래에 진행될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와 함께 추측의 의미도 나타내는데 쓰이였다.

○ 이 므른 엇뎨 ᄀᆞ숣히 업스리오(《두시언해》 16권 66장)

○ 英主ㅿ 알핀 내내 붓그리리(《룡비어천가》 16장)

이밖에 글말에서만 쓰이는 추측법의 종결형으로 《랴/으랴》와 《리요/으리요》가 있는데 이것은 수사학적질문으로 쓰이면서 추측이나 불가능성의 의미를 동반한다.

○ 그걸 누가 알랴?

○ 어찌 보고만 있으랴?

추측법에 쓰이는 종결형들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수 있다.

○ 으리다/리다 (받으리다/가리다)

○ 으리까/리까 (받으리까/가리까)

○ 으리라/리라 (받으리라/가리라)

○ 으랴/랴 (받으랴/가랴)

○ 을가/ㄹ가 (받을가/갈가)

○ 을가요/ㄹ가요 (받을가요/갈가요)

○ 을지/ㄹ지 (받을지/갈지)

○ 을지요/ㄹ지요 (받을지요/갈지요)

○ 을라구/ㄹ라구 (받을라구/갈라구)

○ 을라구요/ㄹ라구요 (받을라구요/갈라구요)

추측법은 기본적으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외에 다른 의미도 나타내는데 용언의 경우에는 추측과 의도, 결심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와 달리 체언의 경우에는 추측법형태를 취할 때 추측의 의미만 나타내고 의도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

① 용언의 경우

○ 래일은 비가 오리다. (추측)

○ 이런 일은 김동무가 꽤 하리다. (가능성여부의 추측)

○ 나는 반드시 최우등생이 되리라. (결심)

② 체언의 경우

○ 그는 추격기를 모는 비행사이리라. (추측)

× 나는 비행사이리라. (의도)

우에서 언급한 식, 법의 범주들은 계칭과 함께 단어의 종결형에서 종합적으로 실현되고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계칭 / 식 / 법		존대		대등		하대	
		합니다	해요	하오	하게	해라	반말
서술식	직설법	ㅂ니다	아요	오(소)	네	ㄴ다	아, 지
	목격법	ㅂ디다	더군요		데, 더군	더라	
	추측법	리다	ㄹ걸요			리라	
감동식	직설법		는군만요	는구려	는구만	는구나	
	목격법		더군만요		더구만	더구나	
의문식	직설법	ㅂ니까	아요	오(소)	나, 는가	니, 느냐	아, 지
	목격법		ㅂ디까		던가	더냐	던지
	추측법		리까		ㄹ라구	ㄹ가	ㄹ지
권유식		ㅂ시다	아요		세, 자구	자	아
명령식			세요	오(소)	게, 라구	아	아라
약속식					마구		마

종결형에서 표현되는 3개범주가운데서 계칭범주와 식범주는 모든 종결형에 나타나며 법범주는 서술식, 감동식, 의문식이 실현되는 종결형에만 나타나고 명령식, 권유식, 약속식을 표현하는 종결형의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오》계칭은 오늘에 와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소극화되여있음을 알수 있으며 약속식은 웃사람과 상대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대체로 《하게》나 《반말》에 국한되여있다.

그리하여 계칭을 나누는데서 6개등분이 아니라 《하오》를 따로 설정하지 말고 5개등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수 있으며 식범주의 경우에도 약속식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될수 있다.

그리고 우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종결형에서 계칭에 따라서 법, 식의 범주들은 동등하게 실현되는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일부 종결형들은 체언이나 부사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요/이요

○ 여기가 바로 우리 학교요.

○ 이곳이 이름난 옥류아동병원이요.

ㄹ세/일세

○ 여기가 참으로 유서깊은 만경댈세.

○ 저기가 소문난 문수물놀이장일세.

로세/이로세

○ 그것은 꾸준한 노력의 열매로세.

○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웅이로세.

로다/이로다

○ 정말 그놈이 원쑤로다.

○ 그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로구나/이로구나

○ 여기가 꿈에도 그리던 백두산천지로구나.

○ 거기까진 정말 멀리로구나.

○ 그야말로 세상에 다시 없는 기적이로구나.

로군/이로군

○ 그야말로 명사수로군.

○ 그것 참 시원한 일이로군.

야/이야

○ 그분이 바로 네 아저씨야.

○ 넌 언제나 싱글벙글이야.

○ 너도 그래 대학생이야?

런가/이런가

○ 이것이 영웅전사들의 기상이런가!

람/이람

○ 그게 무얼 대단한 재주람?

○ 그따위가 무슨 시비질이람?

한편 종결형에서 토가 서로 겹쳐서 2차적형태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속에 포함되여있는 1차적형태로서의 종결형에 식범주와 법범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언제나 《해라》계렬의 형태만을 취한다.

○ 영수도 간답니다. (—ㄴ다+ㅂ니다)

○ 그들도 혁명전적지답사를 가더랍니다. (—더라+ㅂ니다)

○ 영수도 가리랍니다. (—리라+ㅂ니다)

○ 어서 떠나랍니다. (—라+ㅂ니다)

○ 빨리 떠나잡니다. (—자+ㅂ니다)

이처럼 종결형에서 계칭, 식, 법의 범주들은 모든 품사에서 동등하게 표현되는것이 아니며 그 결합과 쓰임도 역시 각이한 양상을 띠고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제 3 절. 례절표시의 범주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습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4~355페지)

우리 말은 례절표현의 여러가지 언어적수단이 발전되여있는 우수한 언어이다. 우리 말에서 례절을 나타내는 언어적범주가운데는 앞에서 서술한 계칭범주와 함께 행동의 주체를 존대하는 존칭범주와 대화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자신을 낮추어 겸양성과 공손성을 나타내는 겸양범주가 있다.

1. 존칭범주

1) 존칭의 개념과 갈래

존칭이란 말하는 사람과 문장의 주어로 표현된 인물과의 례의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즉 말하는 사람이 동사, 형용사, 체언서술형으로 표현된 행동, 과정, 상태의 주체에 대한 례절을 표현하는 문법적범주라고 할수 있다.

존칭범주는 계칭범주와 함께 언어생활에서 례의범절을 똑똑하게 나타낼수 있게 하는 언어수단이며 우리 말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주요측면의 하나로서 단어의 문장론적위치와 무관계한 비위치적범주로 된다.

존칭범주는 존칭과 비존칭의 두가지로 구성되여있는데 존칭은 문장의 주어로 표현된 인물에 대한 존경을 존칭토 《시》로 나타내고 비존칭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무런 토도 붙이지 않는다.

존칭범주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품사는 동사이다.

○ 아버님께서 오신다. [존칭형태]

○ 철수가 온다. [비존칭형태]

존칭토 《시》는 상접사와 시칭토사이에 온다.

○ 할아버님께서는 안색이 퍽 좋아지시였습니다.

○ 어머니는 동생에게 젖을 먹이시겠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존칭범주로서 주체존칭토 《시》와 객체존칭토 《ᄉᆞᄫᆞ(ᄉᆞᆸ), ᅀᆞᄫᆞ(ᅀᆞᆸ), ᄌᆞᄫᆞ(ᄌᆞᆸ)》가 엄연히 구분되여 널리 쓰이고있었다.

○ 세 살로 세 샐 쏘시니(《룡비어천가》 57장)

○ 차반 가져와 夫人ᄭᅴ 供養ᄒᆞᅀᆞᄫᆞ며(《월인석보》 2권 30장)

주체존칭은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존칭토 《시》를 붙여 표현하였으며 객체존칭은 간접객체인 《夫人》이 존경의 대상으로 되는것과 관련하여 《ᅀᆞᄫᆞ》를 붙여 존경을 표시하였다. 객체존칭토 《ᄉᆞᄫᆞ(ᄉᆞᆸ), ᅀᆞᄫᆞ(ᅀᆞᆸ),

주ㅂ(줍)》는 앞의 단어의 끝소리에 따라 선택되는 변이형태들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존칭범주는 주체존칭이 기본이고 객체존칭은 잔재적인 형태로만 남아있을뿐이다.

○ 어제 고향에 가서 할머님을 뵈옵고 왔습니다.

행동의 직접객체인 《할머님》이 존경의 대상으로 되기때문에 《보고》가 《뵈옵고》로 되였는데 이러한 객체존칭토 《옵》의 쓰임은 오늘날 소극화되여있다.

그러나 주체존칭토 《시》는 오늘도 생활력을 잃지 않고 활발히 쓰이고있으며 일부 동사들은 존칭을 나타내는 경우에 말뿌리에 존칭토 《시》를 붙이지 않고 전혀 다른 말뿌리를 가진 동사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 자다→주무시다

○ 먹다→잡수시다

○ 있다→계시다

이것은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보충법적존칭형태라고 할수 있는데 이와 류사한것으로 객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보충법적존칭형태가 있다.

○ 주다→드리다

○ 말하다→여쭈다

2) 존칭의 관계적특성

일반적으로 존경의 대상은 인물에 국한되는것만큼 존칭형태는 항상 인물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와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문장에 두개의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 동사 존칭형태가 나타내는 존경의 의미는 그중 인물을 나타내는 주어에 관련되며 그것이 생략된 경우에도 역시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에 관계되고 인물이 아닌 대상을 나타내는 주어가 직접 존경의 대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 할머님은 년세가 많으십니다.

○ 맵짠 추위에 어머님께서는 손이 다 트셨군요.

○ 머나먼 려행길에 선생님은 로자도 다 떨어지시고 고생도 많으셨답니다.

○ (선생님은) 요사이 집필사업이 잘 진척되십니까?

존칭범주와 계칭범주는 례절표시의 문법적범주라는 공통성이 있으나 이 두 범주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선 이 두 범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계칭범주는 말하는 사람과 대화상대방과의 례의적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므로 례를 들어서 《그분이 가십니다.》라고 하든 《그가 갑니다.》라고 하든 대화의 상대방에 대한 례절을 지키는데서 차이가 없으며 단지 《그분》이라는 말을 쓰는가 안 쓰는가 그리고 《가다》에 존칭토 《시》를 붙이는가 안 붙이는가에 따라서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반면에 《그분이 가십니다.》와 《그가 갑니다.》의 경우나 《그분이 가셨느냐?》와 《그가 갔느냐?》의 경우에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례절관계 즉 계칭은 같지만 《그분/그》라는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과 비존경의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존칭범주와 계칭범주는 같은 존경의 표시와 관련된 문법적범주이지만 그것은 단어의 문장론적위치를 결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데서 차이가 있다. 존칭범주는 비위치적범주로서 단어의 문장론적위치와 무관계한 반면에 계칭범주는 단어의 문장론적위치와 관련이 있는 종결형에서 표현된다.

또한 존칭범주는 담화에 나오는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으로서 종결형, 접속형, 규정형, 상황형 등 어떠한 단어형태에서도 다 실현되지만 계칭범주는 종결형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겸양범주

1) 겸양성의 의미

겸양성이란 이야기하는 사람이 담화상대방에 대한 례절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신을 공손히 낮추는 문법적의미를 말한다.

존칭이 담화에 나오는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것이라면 겸양성은 담화의 상대방에 대한 공손성이나 담화에 나오는 객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겸양을 보인다는 점에서 존칭과 구별된다.

① 그 문제는 제가 풀겠습니다.

② 아버님께서는 어제 고향으로 떠나시였습니다.

③ 어제 할아버님을 만나뵈옵고 그 말씀을 드렸다.

④ 님께서는 진실로 불행하시외다. (박팔양, 《또다시 님을 그리움》)

⑤ 그림자같이 당신한테로 가오리다(김소월,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①의 경우에는 《습》을 붙이여 담화상대방에 대한 공손성을 나타내고있는데 이 《습》은 뒤에 오는 《ㅡ니다》와 한덩어리를 이루어 존대의 계칭을 나타내는데 참가하고있다.

②의 경우에 행동의 주체인 《아버님》에 대한 존대는 존칭토 《시》가 담당하고있으며 《습》은 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화의 상대방에 대한 공손성을 나타내면서 《ㅡ니다》와 한 덩어리를 이루어 존대의 계칭을 나타내는데 참가하고있다.

③의 경우에는 행동의 객체인 《할아버님》을 존경하여 《보이옵고/뵈옵고》와 같이 《옵》을 첨가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겸양성을 표시하고있다.

④의 경우에는 《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시》와 함께 공손성의 표시를 위하여 덧붙인 《오》에 《이》가 붙은 《외》에 의해서 서정적주인공이 님을 존경하고있음을 나타내고있다.

⑤의 경우에는 담화상대방에 대한 공손성과 겸양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겸양성이란 《습/옵(ㅂ)/오》에 의해서 담화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거나 객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손성을 표시하는 문법적의미를 가리키고있다.

2) 겸양범주를 설정하게 되는 근거

종래문법에서는 《습(ㅂ)/옵》을 뒤에 오는 법토나 식토와 한덩어리로 다루면서 흔히 《습(ㅂ)니다, 습(ㅂ)디까, 옵니다, 옵디까》 등과 같이 덩어리전체를 존대의 《계칭토》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습(ㅂ)/옵》이 나타내는 독자적인 문법적의미가 명백하며 특히 《시옵소서》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존칭토 《시》와 《소서》사이에 끼워들어간 《옵》이 나타내는 독자적인 문법적의미가 뚜렷함을 알수 있다.

《습(ㅂ)》이나 《옵/오》가 나타내는 이러한 문법적의미에 대하여 종전에도 형태론을 서술하면서 일정하게 언급한바가 있었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6년)에서는 《맺음토에는 몇개의 뜻쪼각이 있다.》고 하면서 《ㅂ/습》에 대해서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듣는 사람을 높여 대하는 례절관계 즉 말차림의 범주를 나타내는 쪼각》이라고 하였으며 《〈ㅂ/습〉은 언제나 말차림의 뜻을 보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60~262페지)

한편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년)에서는 《옵》에 대해서 《더욱 정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것》이라고 하면서 《새해인사를 삼가 드리옵니다.》를 그 례로 들고있다. (216페지)

그리고 《조선어형태론》[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년]에서도 《옵》이 정중성을 가지고 더욱 높여야 하는 경우에 쓰인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옵〉이나 〈오〉는 시나 노래가사, 력사소설 같은데서 정중성을 나타내거나 옛스러운 언어환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극히 드물게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243페지)

주석사전들에서도 《오》나 《옵》을 올림말로 올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겸양의 의미를 인정하고있다.

한편 《조선말사전》(과학원출판사 1962년)에서는 《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듣는 사람에 대한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론적접미사의 하나》로 규정하고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밑에서 그리고 《ㄴ(니), ㄹ, ㅁ, ㅂ,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의 우에서 쓰인다고 하면서 《가오니, 가오리다, 가와》를 례로 들었다. (6권 246페지)

그리고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년)에서도 《오》를 겸양의 뜻을 가지고 공손히 말하기 위하여 쓰인다고 하면서 《사오, 사옵, 삽》 등이 말줄기가 자음으로 끝난데 쓰이는것과 대치를 이룬다고 해설하였다. (2권 1519~1520페지)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년]에서는 《오》를 겸양의 뜻을 가지고 공손히 말하기 위한 끼움토로 규정하였으며(3권 1452페지) 《옵》에 대해서도 겸양의 뜻을 가지고 공손히 말할 때 쓰이는 끼움토로 규정하였다. (3권 1510페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듣는 사람에 대한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론적접미사의 하나》라든가 《정중성을 가지고 더욱 높여야 하는 경우》에 《겸양의 뜻을 가지고 공손히 말하기 위한 끼움토》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중성》의 의미표현을 인정하면서 《겸양의 뜻을 가지고 공손히 말하기 위한 끼움토》라고 하는 문법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 끼움토의 문법적의미와 관련한 그 어떤 독자적인 문법적범주를 설정할수 있다는 말로 될것이다.

한편 종래 문법에서는 《먹삽고》와 《먹습니다》의 경우에 《삽》과 《습》을 구분하고 심지어 주석사전에서 《삽》은 끼움토라고 하여 올림말로 올리고있으나 《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삽》에 대하여 《조선말사전》(과학원출판사 1962년)에서는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조성의 접미사》라고 하였으며(3권 537페지) 《사옵》에 대해서는 《-삽-을 더욱 정중히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3권 477페지)

한편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년]에서는 《삽》을 《끼움토-사옵-의 준말》로 규정하였으며(2권 644페지) 《습》에 대해서는 올림말로 올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습니다, 습니까》 등을 관습상 하나의 토로 취급하여온것과 관련되여있다.

《삽》에 대하여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조성의 접미사》라고 하였으며 《옵》도 《겸양의 뜻을 가지고 공손히 말할 때 쓰이는 끼움토》라고 하였으니 그것들은 같은 성격의 형태소라는 말로 될것이다.

그런데 《습》 역시 대화상대방에 대해서 공손히 말할 때 쓰이는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를바가 없다.

력사적견지에서 《삽》과 《습》은 기원상 같은것이며 《옵》이나 《오》도 같은데서 온것으로서 그것들은 《ᄉᆞᆸ, ᄌᆞᆸ, ᅀᆞᆸ》이 변한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중세국어에서는 《ᄉᆞᆸ, ᄌᆞᆸ, ᅀᆞᆸ》이 주체존칭토인 《시》와 구별되는 이른바 《객체존칭》토로 쓰이던것들로서 그것은 말줄기의 어음적조건에 따르는 변이형들이였으며 단순히 객체존칭만이 아니라 겸양의 뜻으로도 쓰이였다.

중세국문문헌에는 《ᄉᆞᆸ, ᄌᆞᆸ, ᅀᆞᆸ》의 각이한 용법이 소개되여있다.

① 다 모다 길 잡ᄉᆞᆸ거니(《월인석보》 21권 203장)

② 내 이제 삼보 증명ᄒᆞᅀᆞᆸ고(《야운자경》 83장)

③ 부텨 滅度를 보ᅀᆞᆸ고(《법화경언해》 6권 153장)

④ 니믈 ᄒᆞᆫᄃᆡ 녀가져 비ᅀᆞᆸ노이다(《악학궤범》 동동)

⑤ 소니 가져다 ᄆᆞᄅᆞᅀᆞᆸ노이다(《악학궤범》 동동)

중세국어의 문법을 서술하면서 흔히 《ᄉᆞᆸ, ᅀᆞᆸ, ᅌᆞᆸ》을 일괄적으로 《객체존칭》토라고 말하고있지만 사실상 ①이나 ⑤와 같은 경우에는 존경할 객체가 없기때문에 객체존칭이 아니라 겸양의 의미만을 나타내고있다고 할수 있다.

한편 우리 말에서 옛스럽고 정중한 표현을 위해서 간혹 력사극 같은데서 겸양의 의미로 쓰이는 《삽》은 《사오》라는 변이형을 가지고있으며 같은 의미로 《사옵》과 《옵》, 《오》도 쓰이고 《습》도 쓰이고있다.

○ 이제 이 소녀의 손을 잡삽고 하늘로 올라가시오면 옥황상제님을 뵈옵고 큰 효험이 있사옵니다.

○ 다음에 제가 가겠사오니 기다리지 마시옵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래일은 제가 꼭 그곳에 가오리다.

《삽/사오》, 《옵》, 《습》, 《오》는 다 겸양과 공손성의 의미를 나타내고있는 토들인데 력사적으로 그것은 《ᄉᆞᆯ바〉ᄉᆞ바(ᄉᆞᆸ)〉ᄉᆞ오》를 거쳐 《삽/사오》와 《습》이 되였으며 일정한 어음적조건에서 《ᄉᆞ방》의 변이형태인 《ᅀᆞ방》는 다시 《ᅀᆞ방〉ᅀᆞᆸ〉ᅌᆞᆸ/옵》이 되였으니 그 토들은 다 같은 기원에서 나온것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 토들은 이른바 《객체존칭》의 토라는것이였는데 겸양과 공손성의 의미도 겸하여 나타내다가 객체존칭의 기능은 잔재적으로만 남게 되고 겸양과 공손성의 의미가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고 할수 있다.

주석사전들에서 《삽》이나 《옵》에 대해서 겸양과 공손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끼움토라고 해설하고 《오》에 대해서도 겸양을 인정하고있는것은 그 토들이 《겸양》이라는 의미적공통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한편 《먹습니다》와 《갑니다》의 경우에 담화상대방에 대한 정중성을 나타내는데서 《습》과 《ㅂ》의 의미기능은 다를바가 없다.

오늘날 주석사전들에서는 《습니다》와 《ㅂ니다》에 대해서 그 덩어리를 하나의 토로 보면서 모두 《알림을 나타내는 풀이토》로서 《어떤 사실을 정중히 알리며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것》이라고 하였다.*

* 《조선말대사전》[주체96(2007)년] 2권

그렇다면 정중성과 존경의 의미기능은 《습》과 《ㅂ》이 담당하고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력사적견지에서 《습》과 《ㅂ》은 다 《ᄉᆞ방/ᅀᆞ방/ᅀᆞᆸ/ᅌᆞᆸ/옵》의 변화형태로서 《삽》이나 《옵》과의 기원상 동일성은 의심할바가 없으며 그 의미기능의 공통성도 역시 론의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처럼 《겸양성, 정중성, 공손성》이라는 의미적공통성을 가지고있는 동일계렬의 《삽/사오》, 《옵》, 《오》, 《습/ㅂ》에 대해서 지난날 문법서술에서는 이 토들을 각각 다른 토들인 법토나 식토와 한덩어리로 묶어서 《겸양성, 정중성, 공손성》을 나타내는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의미기능의 직접적담당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삽/사오》, 《옵》, 《오》, 《습/ㅂ》 등이 나타내는 의미적공통성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례절을 표시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겸양성과 공손성의

의미기능인것만큼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문법적범주를 설정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와 함께 《옵/ㅂ》의 경우에는 객체에 대한 존경이 점차 소극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있지만 이것 역시 자기를 낮추는 의미기능을 가지고있어 겸양성과 공손성의 의미적공통성에서는 다른 겸양토와 차이가 없다.

이밖에 《나이다》, 《나이까》에서 《나이》가 쓰이고있는데 그것은 중세어에서 쓰이던 《ᄂᆞ니이다》, 《ᄂᆞ니잇가》와 련관이 있는것이다.

○ 念佛ᄆᆞᅀᆞᆷ과 念佛法ᄆᆞᅀᆞᆷ과 念僧ᄆᆞᅀᆞᆷ을 내ᄂᆞ니이다(《월인석보》 7권 60장)

○ 가히ᄂᆞᆫ 佛性이 잇ᄂᆞ니잇가 업스니잇가(《몽산법어》 11장)

《ᄂᆞ니이다》, 《ᄂᆞ니잇가》가 그후 《나이다》, 《나이까》로 되였다. 이것은 오늘날 널리 쓰이지 않으며 옛스러운 말투에서 간혹 쓰이고있는데 여기에 《옵》을 더하게 되면 최대의 겸양으로 된다.

○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혁명연극 《성황당》)

○ 저는 건너마을에 사는 박주사이옵나이다.

《삽/사오》, 《사옵》, 《옵/ㅂ》, 《습》, 《오》, 《나이》 등 형태소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인 점은 담화 상대방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공손성과 겸양을 보이는 의미기능인것만큼 그 공통성에 기초하여 겸양이라는 문법적범주를 설정하는것은 능히 가능하다고 본다.

3) 겸양토의 쓰임

겸양토인 《삽/사오》, 《사옵》, 《옵/ㅂ》, 《습/ㅂ》, 《오》는 그것이 놓이는 앞뒤의 결합조건에 따라 그 쓰임이 각이하며 한편 《나이》도 쓰인다.

① 삽/사오

《삽/사오》는 《ㄹ》이외의 받침소리로 끝난 용언말줄기 또는 체언서술형토 《이》뒤와 시칭토 《았, 겠》뒤에서 쓰이며 《사오》는 《ㄴ, ㄹ, ㅁ》로 시작되는 이음토앞에서, 《삽》은 그밖의 이음토앞에서 쓰인다.

○ 먹삽고, 받삽고, 입삽고

○ 먹었삽고, 받았삽고, 입었삽고, 먹겠삽고, 받겠삽고, 입겠삽고

○ 먹사오며, 받사오며, 입사오며, 은인이사오며

○ 갔사오나, 먹었사오나, 깎았사오나, 은인이였사오매

② 사옵

《사옵》은 《삽》을 더욱 정중히 이르는 경우에 모음으로 끝난 용언과 체언서술형 《이》 그리고 시칭토 《았, 겠》의 뒤, 《ㄱ,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이음토의 앞에서 쓰인다.

○ 먹사옵고, 받았사옵고

○ 고귀한 은정이사옵고

③ 옵/ㅂ

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난 용언이나 체언서술형 《이》에서 주로 《ㄱ,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한 일부 이음토앞에서 쓰인다.

○ 가옵고, 가옵지만, 가옵더라도

○ 은인이옵고, 은인이옵지만, 은인이옵더라도,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객체존칭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객체를 동반하는 타동사에 국한한다.

○ 만나뵈옵다

④ 습/ㅂ

종결형에서 법토인 《니, 네, 디, 데》앞에서 쓰이면서 높임의 계칭을 나타내는데 참가하는것으로 설명하고있으나 사실상 담화상대방에 대한 겸양성의 의미를 직접 담당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습/ㅂ》임이 명백하다고 할수 있다.

○ 습니다, 습디다, 습니까, 습디까

○ ㅂ니다, ㅂ디다, ㅂ니까, ㅂ디까

⑤ 오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밑에서 그리고 《ㄴ(니), ㄹ, ㅁ, 모음》으로 시작하는 토우에서 쓰인다. 이것은 《-사오-, -사-, -옵-, -삽-, -욥-》 등이 말줄기가 《ㄹ》이외의 자음으로 끝난데서 쓰이는것과 대치를 이룬다.

○ 가오니, 가와(오+아)

○ 포근히 풀린 봄하늘아래
굽이굽이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님께서 부르시면 …(신석정, 《님께서 부르시면》)

⑥ 나이

말줄기밑에서 그리고 《-다》, 《-까》우에서 쓰이면서 담화상대방에 대한 정중성을 나타내는데 담화상대방이 행동의 주체로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존칭토 《시》와 함께 쓰며 거기에 《옵》이 덧붙게 되면 최대의 정중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옛스러운 말투로서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

○ 오직 근로에서 거두고 가난에서 근로하니
반만년의 오롯한 전통이 줄기 흐르나이다
(류치환, 《전통맥추》)

○ 가시나이다, 잡으시나이다

○ 가시옵나이다, 잡으시옵나이다

이처럼 겸양토는 앞뒤의 결합조건에 따라 그 쓰임이 각이하지만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한 겸양성과 공손성이라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데는 변함이 없는것만큼 이 각이한 형태소들을 묶어서 독자적인 형태론적범주로서 겸양범주를 설정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 겸양범주와 계칭범주와의 관계

겸양범주와 계칭범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겸양토 《ㅂ/습》이 존대의 계칭을 이루는데 직접 참가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례: 습니다, ㅂ니다, 답니다, 랍니다, 습디다, ㅂ디다, 랍디다, ㄴ답니다, 는답니다, 습니까, ㅂ니까, 답니까, 랍니까, 습디까, ㅂ시다, 십시오

명백한바와 같이 존대의 《합니다》계칭을 나타내는데서 겸양토 《ㅂ/습》의 참가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친밀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겸양토 《ㅂ/습》의 삽입이 필수성을 띠지 않는다.

례: 요, 군요, 구만요, 로군요, 더군요, ㄴ걸요, ㄹ게요, 자요

계칭은 일반적으로 종결형에서 토의 복합체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종래 문법들에서는 그것을 《계칭토》라고 하면서 그 복합체의 성분들에 대해서 《뜻쪼각》으로 설명하였는데 《하나의 형태부》가 《하나의 문법적뜻을 나타내고》있다면서도 《하나의 맺음토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하는 모순된 표현을 하게 된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토의 복합체로서의 종결형태를 《맺음토》라고 한것과 관련되여있다.

명백한바와 같이 계칭범주는 종결형태에서 표현되며 그것은 겸양토를 비롯한 법토나 식토의 복합체에 의해서 실현될수 있는데 존대의 계칭을 나타내는데서 겸양토의 참가는 필수적인것이다. 이로부터 겸양토에 대해서 간혹 높임의 계칭을 나타내는 《뜻쪼각》이라든가, 《관습상 하나의 맺음토를 이루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견해가 생기게 되였던것이다.

우리 말에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겸양토가운데서 존대계칭의 표현에 직접 참가하는것은 일부 겸양토들이며 계칭범주는 종결형에서 토의 복합체에 의하여 표현되는것으로서 각이한 계칭을 나타내는 종결형은 있을지라도 고유한 의미에서 《계칭토》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한바와 같이 겸양범주와 계칭범주는 서로 다른 범주로서 존대계칭의 경우에 한해서 겸양범주와 일정한 련관이 있을뿐이며 객체를 존경하는 경우에 쓰이는 《옵》과 같은 겸양토는 계칭범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것이다.

이처럼 우리 말의 우수성의 하나인 언어례절의 표현은 행동의 주체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존칭범주, 담화상대방에 대한 겸양과 공손을 나타내는 겸양범주, 례의적관계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계칭범주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실현되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있다.

제 4 절. 시칭범주

1. 시칭의 개념과 갈래

시칭이란 동사, 형용사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의 순간과 말하는 순간과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이때 행동, 상태의 순간과의 관계를 가지는 다른 순간, 다시말해서 시칭관계의 기준점으로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에 따라서 절대적순간과 상대적순간이 구별되는데 이것은 각각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진다.

시칭은 단어의 종결형, 접속형에서 시칭토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시칭이다.

○ 나는 지금 론문을 쓴다. [현재시칭]
○ 나는 어제 론문을 썼다. [과거시칭]
○ 나는 래일 론문을 쓰겠다. [미래시칭]

절대적시칭이란 동사, 형용사로 표현된 행동이나 상태의 순간과 담화의 순간과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시칭이다.

절대적시칭의 경우에 현재시칭은 행동, 상태의 순간과 담화의 순간이 일치함을 나타내고 과거시칭은 행동, 상태의 순간이 담화의 순간보다 앞섰음을 의미하며 미래시칭은 행동, 상태의 순간이 담화의 순간보다 뒤에 옴을 나타낸다.

현재시칭은 행동, 상태의 순간과 말하는 순간이 일치함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시칭토를 따로 붙이지 않는다. 결국 현재시칭은 《0》토로 표시되지만 사실상 현재시칭의 의미는 동사의 경우에 《ㄴ/는》이 담당하고있다고 할수 있는데 력사적으로 《ㄴ/는》은 《ᄂᆞᆫ》에 기원한것으로서 《ᄂᆞ》는 본래 현재진행의 시태토이다.

그리하여 현대국어에서 형용사의 말줄기에 《는》이 붙으면 행동성이 부여되면서 동사의 현재시칭으로 되는것이며(례: 날이 어둡는다.) 형용사의 현재시칭은 특별한 토의 첨가없이 표시된다.

○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 정원의 꽃밭이 정말 아름답다.

과거시칭은 행동이나 상태의 순간이 말하는 순간보다 앞섰음을 나타내는데 시칭토 《았, 었, 였》을 붙여서 표현한다.

○ 그들은 어제 혁명전적지답사를 떠났다.
○ 우리의 려행길은 매우 즐거웠다.
○ 지난해 과학연구분야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는 대단하였다.

과거시칭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앞선과거는 어느 한 행동이 과거의 어느

다른 행동보다 앞서고있음을 나타내는데 앞선과거는 과거의 시칭토를 겹쳐써서 표현한다.

○ 그때는 나의 마음이 말할수 없이 비장하여졌었습니다.
○ 그전에는 바른골 집이 마실군의 도회청으로 되였었다.

미래시칭은 행동이나 상태의 순간이 말하는 순간보다 뒤에 옴을 나타내는데 시칭토 《겠》에 의해서 표현한다.

○ 래일은 날씨가 개이겠다.
○ 앞으로 국제정세는 우리 혁명에 더없이 유리하겠다.

국어의 시칭형태는 태 또는 양태적의미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는데 주로 과거시칭형태는 태의 의미와 관련을 가지며 미래시칭형태는 양태적의미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 옥순동무는 저기 앉았어요. (=앉아있어요)
○ 박동무가 거기에 갔었겠지요? (=갔을거예요)
○ 래일은 눈이 오겠다. (=올것 같다)

우의 례에서 《앉았어요》는 앉는 행동이 말하는 순간보다 이전에 진행되였다는 과거시칭의 의미 이외에 그 행동의 결과로서의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여있다는 의미도 함께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시칭이 아니라 행동지속의 태적인 의미까지도 표현하고있음을 말하여준다.

《갔었겠지요》는 이미 진행된 행동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있어서 단순한 과거시칭이 아니라 《추측》이라는 양태적의미까지도 나타내고있다.

또한 《오겠다》의 경우에는 오는 행동이 말하는 순간보다 뒤에 진행될것임을 나타내는 미래시칭의 의미와 함께 그 행동이 진행되리라는 추측의 양태적의미도 나타내고있다.

《았(었)+았(었)》, 《았(었)+겠》과 같이 시칭토가 겹쳐쓰이는것은 우리 말 시칭토의 용법상 특징을 보여주는것으로서 국어의 토가 가지는 교착적특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종결형의 경우 시칭토의 첨가가 없을 때는 절대적시칭이 법범주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표현될수 있는데 직설법형태는 현재시칭, 목격법형태는 과거시칭, 추측법형태는 미래시칭을 나타낸다.

○ 철수도 그 소설책을 읽는다. [직설법=현재시칭]
○ 철수도 그 소설책을 읽더라. [목격법=과거시칭]
○ 철수도 그 소설책을 읽으리라. [추측법=미래시칭]

그것은 《는》, 《더》, 《리》의 력사적성격과 관련되여있다. 즉 력사적으로 《는》은 《ᄂᆞ니》에서 《ㅣ》가 빠진것인데 본래 《ᄂᆞ》는 현재진행의 시태토였다. 그리고 《더》는 과거의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완료되지 않은 행동을 나타내는 시태토로서 단순히 태적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회상하거나 확증하는 양태적의미도 나타내고있었으며 《리》는 미래에 진행될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미래진행의 시태토로서 단순하게 시

태의 의미뿐만아니라 추측의 양태적의미도 나타내고있었다.*

*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년) 290~293페지.

시칭은 또한 단어의 규정형과 불완전명사 《것》이나 《터》가 결합한 형태에 의해서도 표현될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분석적형태라고 할수 있다.

○ 그는 거기서 그 책을 읽는게다. [현재시칭+추측]

○ 그도 거기서 그 책을 읽은게다. [과거시칭+추측]

○ 그도 거기서 그 책을 읽을게다. [미래시칭+추측]

○ 나도 그 책을 읽을테다. [미래시칭+결심]

이 경우에 사실상 시칭의 차이는 《읽-》뒤에 붙은 토 《-는, -은, -을》에 의해서 표현되고있는데 거기에 불완전명사가 결합하여 분석적형태를 이룸으로써 추측이나 결심과 같은 양태적의미까지 덧붙게 되였다.

시칭에는 절대적시칭과 구별되는 상대적시칭이 있다.

상대적시칭이란 행동, 상태의 순간과 다른 행동의 순간과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시칭을 말하는데 이 시칭은 규정형에서 나타난다.

	현재	과거	과거지속	미래
동사	는	ㄴ(은)	던	ㄹ(을)
형용사, 체언서술형	ㄴ(은)		던	ㄹ(을)

보는바와 같이 규정형태에 의한 상대적시칭체계에서 형용사, 체언서술형의 경우에는 과거형이 없으며 과거지속형이 있을뿐이다.

상대적시칭의 경우에 그 시간적의미는 항상 절대적시칭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것이기때문에 상대적인것으로서 담화의 순간을 기준으로 한것과는 시간상 일치하지 않을수 있다.

○ 영수는 철이가 주는 비판을 허심하게 받는다.

○ 영수는 철이가 주는 비판을 허심하게 받았다.

○ 영수는 철이가 주는 비판을 허심하게 받을게다.

이 경우에 규정형 《주는》이 언제나 현재시칭으로 되는것은 이 행동의 순간이 담화의 순간과 일치함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을 가지는 다른 행동인 《받》는 행동의 순간과 일치함을 나타낸다. 그렇기때문에 《받》는 행동의 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는》행동을 상대적시칭이라고 하게 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주는》행동이 현재시칭으로 되여있으나 담화의 순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시간은 《받는》행동여하에 따라 《주는》행동이 실제상으로는 현재, 과거, 미래로 되는것이다.

이리하여 상대적시칭의 경우에 현재시칭은 그 행동이 다른 행동과 동시적임을 나타내고 과거시칭이라면 그것은 그보다 선차적임을 나타내며 미래시칭은 그보다 후차적임을 나타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 나는 전투현장으로 떠나가는 사람을 바래주었다. [현재시칭]

○ 나는 전투현장으로 떠나간 사람을 바래주었다. [과거시칭]

○ 나는 전투현장으로 떠나갈 사람을 바래주었다. [미래시칭]

이 경우에 과거에 진행된 《바래주는》 행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떠나간》 행동이 현재, 과거, 미래로 됨을 나타내고있다.

2. 시칭형태와 그 의미

1) 종결형의 시칭형태

[1] 현재형

(1) 종합적형태

① 현재 진행되고있는 행동 혹은 어떤 대상, 현상의 현재상태를 나타낸다.

○ 학생들이 전자도서관에서 공부한다.

○ 백두산천지의 물이 수정같이 맑다.

②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태, 일상적이며 관습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 조국의 하늘은 푸르다.

③ 예상되는 미래의 행동도 나타낸다.

○ 래일 우리는 혁명전적지를 답사한다.

○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 대학이 꼭 이긴다.

④ 앞으로의 행동을 진행하도록 지시할 때도 쓰인다.

○ 래일 아침 8시에 역전에 모인다. 알았지?

○ 주요행사가 예견되니 저녁 6시에 학교에 도착한다.

⑤ 시칭의 의미와 관계없이 여러가지 행동들을 라렬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 분이는 등산복을 마련한다, 먹을것을 준비한다, 짐을 꾸린다 하면서 부산을 피웠다.

○ 경찰놈들은 부엌을 뒤진다, 헛간을 뒤진다, 눈에 쌍심지를 달고 집안팎을 뒤지였다.

(2) 분석적형태

① 담화의 순간에 진행되고있는 행동 혹은 대상, 현상의 현상태를 나타낸다.

○ 그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아직도 연구실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있는것이다.

○ 영옥이는 지금 한시가 급한것이다.

② 행동이 담화의 순간에 진행되리라고 추측됨을 나타낸다.

○ 그는 아마 자기 형님이 오신줄을 모르는겝니다.

○ 분이가 생글거리는걸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게로구나.

[2] 과거형

(1) 종합적형태

① 행동이나 상태가 담화이전에 실현되였음을 나타낸다.

○ 그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 영수는 언제나 어려운 일에 앞장섰다.

② 행동은 과거에 진행되였으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 지속되고있음을 나타낸다.

○ 학교뒤산에는 소년단림이 우거졌다.

○ 철수도 등산차림으로 달려왔는데 그는 등산모를 쓰고 등산화를 신었다.

③ 일부 동사, 형용사에 쓰이면서 현재의 상태를 단정적으로 나타낸다.

○ 나도 그런줄 알았다.

○ 순이를 따라가자면 넌 아직두 멀었어.

④ 일부 동사에 쓰이면서 어떤 행동이 미래에 진행될것을 단정적으로 나타낸다.

○ 영수가 빠졌으니 이번 경기는 별수없이 졌는걸.

○ 에라, 이번에 내 한번 모험했다.

(2) 분석적형태

① 행동이 담화의 순간 이전에 진행되였음을 나타낸다.

○ 어제부터 벌써 모두가 새로운 증산투쟁에 떨쳐나선것이다.

○ 돌격시 전우들의 함성이 아직도 그의 귀전에 울렸던것이다.

② 행동이 담화의 순간 이전에 진행되였으리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 철이야, 누가 온게다. 문을 열어라.

○ 가방이 없는걸 보니 철이는 벌써 떠난게로군.

[3] 미래형

(1) 종합적형태

① 행동이 담화의 순간 이후에 진행되리라는 추측이나 기대를 나타낸다.

○ 바람이 부는걸 보니 비가 오겠구나.

○ 그 녀석이 커서는 큰 일을 하겠는걸.

② 앞으로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실현할 의향을 나타낸다.

○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겠다고 결의해나섰다.

③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실현되리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었으니 올해도 대풍은 문제 없겠구나.

○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니?

(2) 분석적형태

①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실현되리라고 추측함을 나타낸다.

○ 오래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것이다.

○ 그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을 할게요.

② 공식문건이나 게시문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할 행동을 나타낸다.

○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경각성을 높일것이다.

○ 유원지의 나무를 함부로 꺾지 말것.

2) 접속형의 시칭형태

[현재형]

언제나 상대적시칭을 나타내며 그뒤에 오는 단어의 종결형 또는 접속형이 나타내는 시칭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과의 동시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접속형의 현재형은 종결형이 현재시칭이면 현재를 의미하고 그것이 과거시칭이면 과거를 의미하며 미래시칭이면 역시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 비도 오고 바람도 분다. [현재]

○ 기계화가 되니 일하기도 좋았다. [과거]

○ 나도 배우고 너도 배워야겠다. [미래]

[과거형]

대체로 종결형의 경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 그간에 그는 여기저기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또 많이 배웠다.

이밖에 접속형에서만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의미도 있는데 이때는 각각 일정한 접속토가 그에 대응된다.

① 가정적조건으로 되는 행동

○ 나도 함께 갔더라면 좋았을걸.

② 희망하는 행동

○ 그 동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③ 효과가 없는 행동

○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을걸.

④ 앞으로 할 행동에서 먼저 할 행동

○ 얼른 갔다오너라.

⑤ 서로 교체되는 대조적인 행동

○ 날씨는 흐렸다 개였다 하겠습니다.

[미래형]

대체로 종결형의 경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 너는 래년이면 졸업할게고 훌륭한 기사가 될게다.

이밖에 접속형에서만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몇몇 특수한 접속형의 경우에 국한되여있다.

① 과거에 하려고 마음먹었던 행동

○ 하겠으면야 벌써 했지 왜 아직 안했겠소?

② 과거에 추측하던 행동이나 상태

○ 모두들 기다리겠기에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칭이라고 할수 없다.

3) 규정형의 시칭형태

[현재형]

절대적시칭이 밝힌 행동과 동시에 진행되는 행동을 나타낸다.

○ 우리는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 살고있다.

○ 나는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 이 공사가 완공되는 날에 우리는 승리의 만세를 부를것이다.

그리하여 규정형이 나타내는 현재시칭은 절대시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좌우되는것으로서 절대시칭이 현재이면 현재시간으로 되고 과거이면 과거시간으로 되며 미래이면 미래시간으로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규정형의 현재형은 시간적의미를 초월하여 행동자체만을 나타낼수 있다.

○ 학습은 예습하는 과정과 복습하는 과정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

○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이 택하여야 할 유일한 길이다.

[과거형]

절대적시칭이 밝힌 행동보다 먼저 진행된 행동을 나타낸다.

○ 철수는 내가 준 소설책을 읽고있다.

○ 정거장에 가던 사람들이 이제야 돌아오는구나.

[미래형]

절대적시칭이 밝힌 행동보다 뒤에 진행될 행동을 나타낸다.

○ 분이는 정원에 심을 나무를 구해왔다.

○ 혁명전적지답사에 떠날 인원을 오늘 확정하였다.

규정형의 미래형은 의향, 예정, 추측, 가능성 등 양태적의미를 동반하여 쓰인다.

① 의향,

○ 우리는 마지막까지 혁명에 이바지할 사람들이다.

② 예정

○ 다음 달은 철수가 입학시험을 칠 달이다.

③ 추측

○ 곰손이는 자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릴 어머니생각으로 가슴이 아팠다.

④ 가능성

○ 이번 경기에서 얼마든지 우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규정형의 미래형은 그밖에도 시칭적, 양태적의미를 상실하고 순수 규정적으로만 쓰일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시간적의미를 가지는 명사나 일부 불완

전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있을수 있다.

○ 그들을 바라볼 때 지난날의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가슴이 아팠다.

○ 대오는 해가 질무렵에 마을을 떠났다.

규정토가 단어의 규정형을 조성하는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일정한 시태적의미까지도 나타내고있는것은 력사적으로 규정토 《ㄴ, ㄹ, ᄂᆞᆫ, 던》 등이 시태토들인 《니, 리, ᄂᆞ, 더, 거》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기때문인데 이것은 다른 위치토에 비한 규정토의 고유한 특성으로 된다.

○ 어려본 法을 니ᄅᆞᄂᆞ다(《월인석보》 7권 77장)

○ 므를 글혀 기드리ᄂᆞ니라(《월인석보》 7권 13장)

○ 玉 다ᄃᆞᆷᄂᆞᆫ거시라(《월인석보》 2권 28장)＝[현재진행]

○ 今日에 엇더ᄒᆞ니잇고(《룡비어천가》 28장)

○ 한비 사ᄋᆞ리로ᄃᆡ 뷔어ᅀᅡ ᄌᆞᄆᆞ니이다(《룡비어천가》 67장)
＝[과거지속]

○ 내 이제 네 어믜 간 ᄯᅡ홀 뵈요리라(《월인석보》 21권 21장)

○ 比丘 좃ᄌᆞᄫᅡ 가리이다(《월인석보》 8권 93장)＝[미래진행]

○ 곧곧마다 ᄇᆞᆰ비치 나더라(《월인석보》 2권 52장)

○ 遮陽ㄱ 세쥐 네도 잇더신가(《룡비어천가》 88장)＝[과거미완료]

○ 어미 몯 보아 시름 깊거다(《월인석보》 8권 87장)

○ 어듸ᅀᅡ 됴ᄒᆞᆫ ᄯᆞ리 양ᄌᆞ ᄀᆞᄌᆞ니 잇거뇨(《석보상절》 6권 13장)
＝[현재완료]

이처럼 중세국어에서 《니, 리, ᄂᆞ, 더, 거》는 시칭-태의 의미를 가지고있었으니 그로부터 생겨난 《ㄴ, ㄹ, ᄂᆞᆫ, 던》 등의 규정토도 자연히 시칭-태의 의미를 가지게 된것이다.

시태토	중세어 규정토	현대어 규정토	현대어 규정토의 시간적의미
니	ㄴ	ㄴ	현재(형용사)
거+니	건/언	ㄴ	과거(동사)
ᄂᆞ+니	ᄂᆞᆫ	는	현재(동사)
더+니	던	던	앞선과거(동사, 형용사)
리	ㄹ	ㄹ	미래(동사, 형용사)

3. 시칭과 태의 관계

시칭과 태는 행동의 시간과 일정하게 관련되여있는 문법적의미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시칭이 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앞뒤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라고 한다면 태는 행동의 진행과정으로서의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태란 동사로 표현된 행동, 과정, 상태가 수행되는 성격을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로서 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행동의 완료, 지속, 예정 등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시칭형태는 그 시간적의미 외에 태나 양태성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시칭의 형태소가 중복되여 쓰이면서 그중 첫째 형태소만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며 다음 형태소는 태나 양태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이 많은것이다.

○ 영수는 그날 그 자리에 앉았더랬다. [과거지속]
○ 영수는 그날 그 자리에 앉았었다. [과거완료]
○ 영수는 그날 그 자리에 앉았겠다. [과거추측]

이 경우에 앞에 온 시칭형태소인 《았》은 과거의 시간적의미를 나타내며 다음에 온 시칭형태소인 《었》은 완료의 태적의미를, 《겠》은 추측의 양태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반면에 하나의 시칭형태소만으로 된 《앉았다》는 오직 과거의 시간적의미만을 나타내고있어 이것을 단순과거형이라고 하여 태와 무관계한것으로 간주하고있다.

그밖의 경우에 현대국어의 과거시칭형태는 정밀화된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태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있다.

	종결형, 접속형, 용언대상형	규정형
과거지속형	더랬(잡더랬다, 잡더랬고, 잡더랬음)	던(잡던)
과거완료형	았었(잡았었다, 잡았었고, 잡았었음)	았던(잡았던)
과거추측형	았겠(잡았겠다, 잡았겠고, 잡았겠음)	았을(잡았을)

그런데 이러한 태의 의미는 양태성의 의미와 교차관계를 맺을수 있다. 례컨대 시칭토 뒤에 붙는 과거시칭토는 전적으로 태의 의미만 표현하는 점에서 규정토 《던》이 다시 붙는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놀게 되는 반면에 시칭토 뒤에 다시 붙는 미래시칭토나 규정토 《ㄹ/을》은 모두 양태성의 의미만 표현하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 책을 <u>읽었었다</u>. (과거완료)
　책을 <u>읽었던</u> 사람(과거완료)
○ 책을 <u>읽었겠다</u>. (과거추측)
　책을 <u>읽었을</u> 사람(과거추측)

국어문법에서 태가 독자적인 형태론적범주로 설정되여있지 않는것은 태의 문법적의미가 단어의 형태론적구조에 의해서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보조동사를 비롯한 일련의 언어적수단에 의해서 표현되는 일정한 통합구조와 관련되여있기때문이다.

○ 읽고있다(행동의 지속)
○ 읽어버린다, 읽고만다(행동의 완료)
○ 읽으려 한다, 읽고싶다(행동의 예견 또는 욕망)

이 경우에 행동의 지속은 《－고있다》 그리고 행동의 완료는 《－어버리다》, 행동의 예견은 《－려 하다》와 같이 동사의 접속형태에 첨가된 보조동사에 의해서 표현되고있으며 행동의 욕망과 같은 양태적의미는 《－고싶다》와 같이 동사의 접속형태와 보조동사의 결합으로 표현되고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 어떤 분석적형태로 볼수는 없다. 왜냐하면 태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보조동사들은 일정하지 않을뿐아니라 그 어휘적의미가 아직도 살아있어 추상화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또한 체계성을 띠고있지 않기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대국어에서 태는 단어의 독자적인 형태론적범주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동의 시간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시칭과 태는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중세국어에서 이 두 범주는 서로 다른 토에 의해서 표시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에 의해서 시칭－태의 의미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태범주로 간주되여왔던것이다.*

* 《조선어 음운과 형태》(**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년)에서는 현대국어에도 시태범주가 존재하는것으로 보고있다. (396페지)

그러나 현대국어에 이르러 시칭과 태의 두 범주는 그 형태표식이 다른데로부터 일정하게 구분이 된다. 즉 시칭의 경우에는 특정한 토에 의해서 표시되기때문에 형태론적범주로 인정되고있지만 태의 경우에는 그 문법적의미가 특정한 토가 아니라 보조동사의 도움에 의해서 표시되기때문에 순수한 형태론적범주로 인정되지 않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립장이나 관점 즉 추측, 확신 등을 나타내는 양태성의 의미까지도 복합적으로 표현하여 과거추측, 미래추측, 미래확신과 같은 의미도 태의 의미와 겹쳐서 나타내는데 그것은 단어의 형태론적구조를 넘어서 일정한 통합구조를 통해서 표현되는것이기때문에 순수한 시칭범주와는 구별되는것이다.

그렇지만 력사적으로 시칭, 태, 양태성은 일정한 련관관계가 있었기때문에 현대국어에서도 그 련관성에 대하여 일정하게 론할수 있다고 본다.

①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는다. ——— 시칭토 《－는－》에 의해서 단순현재시칭이 표시되여있다.

②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고있다. ——— 《－고＋있－》에 의해서 현재진행의 의미가 표시되여있다.

③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었다. ——— 시칭토 《－었－》에 의해서 단순과거시칭이 표시되여있다.

④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어버렸다. ——— 《－어＋버리＋였－》이라는 복합형태에 의해서 과거완료의 의미가 표시되여있다.

⑤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고말았다. ——— 《－고＋말＋았－》이라는 복합형태에 의해서 과거완료의 의미가 표시되여있다.

⑥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었었다. ——— 시칭토 《－었＋었－》에 의해서 앞선과거시칭이 표시되여있다.

⑦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겠지. ─── 시칭토 《─겠─》에 의해서 미래추측의 의미가 표시되여있다.

⑧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을것이다. ─── 《─을+것─》에 의해서 미래확신의 의미가 표시되고있다.

⑨ 철수는 그 소설책을 읽었을것이다. ─── 《─었+을+것─》에 의해서 과거추측의 의미가 표시되고있다.

이처럼 시칭, 태, 양태성의 의미는 호상 련관되여있는데 그 표현방식이 뚜렷하게 서로 구별되는것이 아니다.

태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행동이 반복되는가, 일정하게 진행되는가, 순간적으로 진행되는가, 시작되였다가 끝나는가 등 행동진행과정의 이러저러한 양상은 언어에 따라 각이한 언어적수단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이것이 부사나 보조동사의 도움으로 표현될수 있다. (례: 보다─보고있다─보고말다─보군 하다─보기 시작하다─다 보다)

그리하여 국어에서 태는 엄격한 의미에서 단어의 형태론적구조와 직접 련결된것이라고 할수 없으며 일정한 통합구조와 결부되여있다고 할수 있다.*

* 로어의 모든 동사는 례외없이 완료태이거나 미완료태이다. 절대다수의 동사들은 어휘적의미가 같으면서 오직 태만을 달리하는 미완료태─완료태의 쌍을 이루고있다. 그리하여 로어의 경우에는 태가 엄연하게 형태론적범주로 인정되고있다.
례: делать–сделать, писать–написать,
решать–решить, отдыхать–отдохнуть

* 태와 시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데 그 전형적인 례로 영어의 경우를 들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현재형과 과거형에 대하여 진행태와 완료태가 상관관계를 맺고있어 그 련관은 밀접하다고 할수 있다.
례: He goes(현재): He is going(현재진행),
He was going(현재완료)

제 5 절. 상 법 주

1. 상범주의 개념과 갈래

상이란 동사로 표현되는 행동과 그 행동의 주체, 객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그리하여 상범주는 동사에 고유한 형태론적 범주로서 문장의 주어, 객어, 보어와 직접 련관되는 점에서 다른 형태론적범주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 분이가 동생을 업었다.

○ 동생이 분이에게 업히였다.

이 경우에 《업다》와 《업히다》로 표현된 동사의 상은 행동의 주체와 객체의 전환으로 하여 문장의 주어와 보어가 뒤바뀌는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 순이가 문뒤에 숨었다.

○ 내가 순아를 문뒤에 숨겼다.

이 경우에도 《숨다》와 《숨기다》로 표현된 동사의 상이 바뀜으로 하여 문장의 주어, 객어가 달라지고있다.

이처럼 상범주는 다른 형태론적범주가 문장구조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것과는 달리 상의 차이로 하여 주어, 객어, 보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형태─문장론적인 문법적범주라고 할수 있다.

현대국어의 상범주는 동사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동상, 피동상, 사동상의 구별이 있다.

주동상은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주어로 표현된 대상에 의하여 실현됨을 나타낸다.

○ 동생이 잠을 잔다.

이 경우에 자는 행동의 주체는 《동생》이며 그것은 문장에서 주어로 된다. 이처럼 행동의 주체가 주어인것으로 하여 이것을 주동상이라고도 한다.

피동상은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보어로 표현된 대상으로부터 주어로 표현된 대상에 향하여짐을 나타낸다.

○ 동생이 분이에게 업히였다.

이 경우에 업은 행동을 한것은 보어로 표현된 《분이》이며 그 행동을 입은것은 주어로 표현된 《동생》이다. 이처럼 주어가 행동의 주체로 된것이 아니라 행동을 당했다고 해서 피동상이라고 하는것이다.

사동상은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주어로 표현된 대상으로부터 추동됨으로써 보어로 표현된 대상에 의하여 수행됨을 나타낸다.

○ 분이가 동생을 재운다.

이 경우에 자는 행동을 한것은 보어로 표현된 《동생》이며 그 행동을 하도록 추동한것은 주어로 표현된 《분이》이다. 이처럼 주어가 객어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한다는것으로 하여 이것을 사동상이라고 한다.

상을 표현하는 형태소들은 그 기능으로 보아 어휘─문법적형태소라고 할수 있다. 즉 그것은 문법적의미로서의 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변화시키는 단어조성적기능을 놀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동사의 사동형태는 타동사와 같이 되며 타동사의 피동형태는 자동사와 같이 된다.

○ 자다→재우다[자동사→자동사의 사동형태=타동사]

○ 업다→업히다[타동사→타동사의 피동형태=자동사]

2. 상의 표현수법

주동상을 표현하는 형태를 주동형이라고 하며 피동상을 표현하는 형태를 피동형, 사동상을 표현하는 형태를 사동형이라고 한다.

주동형은 다른 상형태와는 달리 그에 특유한 어떤 표현수단도 가지지 않으며 상을 따로 나타내는 형태소를 가지지 않는 동사의 《원형》 그대로이며 이 점에서 소극적형태라고 할수 있다.

① 자동사 주동형

○ 놀다, 가다, 자다, 발전하다, 전진하다

② 타동사 주동형

○ 읽다, 쓰다, 먹다, 건설하다, 교육하다

현대국어에서 상을 표현하는 수법으로는 접사법, 분석적수법, 보충법 등이 있다.

1) 접사법

이것은 동사의 줄기에 상접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을 붙이는 수법이다. 이것은 고유어동사의 경우에만 가능한것으로서 상형태 조성의 기본수법이다.

상접사는 동사줄기의 끝소리에 따라 선택되는데 그 정형은 다음과 같다.

동사줄기가 자음으로 끝났을 때:

ㅂ=히: 눕히다, 입히다, 잡히다, 뽑히다, 밟히다
ㅍ=이: 짚이다, 덮이다
ㅁ=기: 남기다, 숨기다, 넘기다, 감기다, 옮기다, 굶기다
ㄷ=히: 닫히다, 묻히다
기: 뜯기다
구: 돋구다
ㅌ=기: 맡기다
이: 핥이다, 훑이다
ㅈ=히: 맞히다, 잊히다, 맺히다, 꽂히다, 앉히다, 얹히다
추: 늦추다, 맞추다
기: 찢기다
ㅊ=기: 쫓기다
ㅅ=기: 웃기다, 벗기다, 씻기다, 빼앗기다
구: 솟구다
ㄹ=리: 날리다, 살리다, 울리다, 풀리다, 물리다, 쏠리다
구: 얼구다, 달구다, 설구다
이: 줄이다, 들이다, 기울이다

ㄱ=히: 익히다, 식히다, 적히다, 찍히다, 박히다, 막히다
이: 묵이다, 죽이다, 녹이다, 삭이다, 눅이다, 속이다
ㄲ=이: 꺾이다, 섞이다, 깎이다, 묶이다
ㅎ=이: 놓이다, 쌓이다

동사줄기가 모음으로 끝났을 때:

ㅗ, ㅜ+이: 보이다, 쏘이다, 나누이다
ㅡ, ㅏ, ㅓ, ㅕ+이: 쓰이다, 뜨이다, 트이다, 싸이다, 펴이다
ㅣ, ㅐ, ㅔ, ㅟ+이: 끼이다, 치이다, 매이다
우: 끼우다, 비우다, 새우다, 떼우다, 쉬우다, 쥐우다

상접사가운데서 《추, 구》는 사동상에 쓰이고 《이, 기, 리, 우》는 사동상과 피동상에 공통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쓰이는 토가 붙은 매개 개별적동사들이 다 사동상과 피동상에서 공통되는것은 아니다.

일련의 동사형태들은 대체로 사동상으로만 쓰이는데 이것들은 자동사에서 조성된것이 많고 타동사에서 조성된것은 적다.

자동사 사동형:

녹이다, 속이다, 죽이다, 삭이다, 줄이다, 들이다, 기울이다, 끓이다, 밝히다, 남기다, 웃기다, 숨기다, 굶기다, 올리다, 살리다, 울리다, 놀리다, 세우다, 비우다, 새우다, 내리우다, 놀래우다, 재우다, 태우다

타동사 사동형:

입히다, 벗기다, 맡기다, 지우다, 먹이다

다른 일련의 동사형태들은 대체로 피동상으로만 쓰이는데 이것들은 타동사에서 조성된것이 많고 자동사에서 조성된것은 적다.

타동사 피동형:

덮이다, 쌓이다, 짚이다, 놓이다, 먹히다. 박히다, 잊히다, 닫히다, 맺히다, 적히다, 막히다, 얽히다, 갇히다, 쫓기다, 찢기다, 찔리다, 깔리다, 떨리다, 팔리다, 밀리다, 끌리다, 물리다, 빼앗기다, 매달리다, 붙들리다

자동사 피동형:

졸리다, 떨리다, 속히우다, 적히우다

접사법의 다른 류형으로 동사줄기에 접속토를 거쳐서 뒤붙이 《지》를 붙이는 수법이 있다.

① 자동사 피동형

썩다→썩어지다

② 타동사 피동형

믿다→믿어지다
깨다→깨여지다

사동상은 자동사나 타동사 또는 형용사 말뿌리에 상접사를 붙여 타동사화하여 이루어진다. 형용사 말뿌리에 상접사를 붙이는 경우에는 품사전성을 하여 동사로 된다.

례: 밝다〉밝히다, 붉다〉붉히다, 높다〉높이다.
좁다〉좁히다, 낮다〉낮추다, 늦다〉늦추다

2) 말뿌리교체법

한자에서 기원한 《ㅡ하다》형의 동사에서 뒤의 말뿌리 《하》를 다른 말뿌리 《시키》, 《되》, 《받》, 《당하》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여러가지 상을 나타내는 수법이다.

(1) 사동형

《ㅡ하다》형의 동사에서 말뿌리 《하》를 《시키》로 교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① 자동사 사동형
가입하다→가입시키다
가맹하다→가맹시키다
입학하다→입학시키다
분리하다→분리시키다

② 타동사 사동형
인식하다→인식시키다
인정하다→인정시키다
승인하다→승인시키다
공부하다→공부시키다

(2) 피동형

《ㅡ하다》형 동사의 말뿌리 《하》를 《되》, 《받》, 《당하》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① 자동사 피동형
퇴직하다→퇴직되다, 퇴직당하다
퇴학하다→퇴학되다, 퇴학당하다

② 타동사 피동형
체포하다→체포되다, 체포당하다
유린하다→유린되다, 유린받다, 유린당하다
학살하다→학살되다, 학살당하다
발견하다→발견되다, 발견당하다
합류하다→합류되다, 합류당하다
요구하다→요구되다
검토하다→검토받다

3) 분석적수법

동사의 상황형 《ㅡ게》에 동사 《하다》 혹은 《되다》를 보조적으로 결합하여 사동형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① 자동사 사동형
자다→자게 하다
변하다→변하게 하다
놀라다→놀라게 하다
전진하다→전진하게 하다

② 타동사 사동형
가지다→가지게 하다
읽다→읽게 하다
먹다→먹게 하다
전하다→전하게 하다
확신하다→확신하게 하다
공격하다→공격하게 하다

4) 보충법

접사법으로 상형태를 조성하지 못하는 극소수의 고유어동사는 그것을 다른 동사에 의해서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하다→시키다
가다→보내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대응도 조건적으로 상의 보충법적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넘어지다→넘어뜨리다
쓰러지다→쓰러뜨리다
무너지다→무너뜨리다
부러지다→부러뜨리다
떨어지다→떨어뜨리다
거꾸러지다→거꾸러뜨리다
빠지다→빠뜨리다

3. 상형태의 의미

1) 주동상

주동상은 동사로 표현된 행동을 문장의 주어로 된 대상이 수행함을 나타낸다.

주동상형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의미와 부차적의미를 나타낸다.

① 주동적인 행동

○ 공화국기가 휘날린다.

○ 우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한다.

② 피동적인 의미와의 련관

○ 나는 그에게 속았다.

○ 박동무는 어제 표창휴가를 받았다.

2) 사동상

사동상은 문장에서 주어로 표현된 대상이 행동의 간접적인 추동자로 되고 객어 또는 보어로 표현된 대상이 그 직접적수행자로 되는것으로서 피동상 형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간접적참가

상접사형태, 말뿌리합성형태, 분석적형태에서 다 가능하다.

① 명령추동

○ 교원은 학생들을 자리에 앉혔다.

○ 나는 그에게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랑송시켰다.

② 허용, 방임, 보장

○ 나는 소대원들을 잠간 휴식시켰다.

○ 우리는 그들에게 혁명가극 《피바다》를 관람시켰다.

○ 나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공장을 견학하게 하였다.

(2) 직접적참가

상접사형태, 말뿌리합성형태에서만 가능하다.

① 방조

○ 간호원은 부상병을 조심스럽게 눕혔다.

○ 그는 성의있는 노력으로 자기 동무의 사업을 성공시켰다.

② 강제

○ 우리들은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걸음마다 파탄시켰다.

○ 그는 복수의 총을 잡고 원쑤놈을 죽였다.

(3) 피동적인 의미와의 관련

상접사형태, 말뿌리합성형태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언어행위에서는 대체로 쓰이지 않고 비유의 의미를 띠고 서로 리해할수 있는 사람들사이에서의 입말에서 쓰인다.

○ 아이구, 참 옷에 또 흙을 묻혔구려.

○ 하마트면 배를 침몰시킬번 했소.

3) 피동상

피동상은 동사로 표현된 행동이 문장의 보어로 표현된 대상으로부터 주어로 표현된 대상에 향하여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1) 직접적인 피동

○ 범이 포수에게 잡혔다.

○ 해방전 우리 나라의 강토는 일제에게 유린당하였다.

(2) 간접적인 피동

① 육체의 한 부분

○ 그는 개한테 다리를 물렸다.

○ 그는 팔을 부상당하였다.

② 정신적측면 또는 행동

○ 해방전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온갖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였었다.

○ 우리는 상부로부터 자기 사업을 검토받았다.

③ 소유물

○ 해방전에 그는 지주놈에게 자기 땅을 빼앗겼다.

○ 순이네집은 일제경찰에게 가장집물을 략탈당하였다.

4. 형용사의 《상범주》문제

형용사가 접사법에 의해서 동사화되든, 분석적수법에 의해서 행동성을 나타내든 이러한 경우에 상범주의 설정이 가능하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견해에서는 《조선어 형용사의 상범주는 형용사로 표현된 상태와 문장의 주어 및 보어와의 관계의 문법적(형태론적)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형용사로 표현된 상태와 문장의 주어 및 보어와의 관계가 주어를 중심으로 하여 형용사의 형태에 표현되는 문법적범주를 형용사의 상범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한 설명을 가하였다.

주동상은 형용사로 표현된 상태가 문장의 주어로 표현된 대상에 의하여 실현되는 관계 즉 상태의 실현자와 문법적주어와의 일치관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례를 들었다.

○ 뚝이 높다.

○ 운동장이 넓다.

사동상은 형용사로 표현된 상태가 문장의 주어로 표현된 대상으로부터 추동됨으로써 보어로 표현된 대상에 의하여 실현되는 관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례를 들었다.

○ 농민들이 뚝을 높인다.

○ 학생들이 운동장을 넓힌다.

중동상은 형용사로 표현된 상태가 문장의 주어로 표현된 대상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실현되여 그 추동체는 문장에서 보어로 표현되지 않는 관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례를 들었다.*

○ 톡이 높아진다.

○ 운동장이 넓어진다.

*《조선어 동사, 형용사의 상범주》(《조선어연구에서의 몇가지 문제》 과학원출판사 1964년 348~361페지)

이 경우에 《사동상》이라고 하여 례로 든 《높인다》, 《넓힌다》는 접사 《이》, 《히》에 의해서 동사화된것으로서 이미 형용사가 아니다.

그리고 《중동상》이라고 하여 례로 든 《높아진다》, 《넓어진다》 역시 접사 《지》에 의해서 동사화된것이다.

결국 형용사의 상범주란 동사화되기 이전의 품사 즉 기원상으로 형용사라는것을 념두에 두고 설정한 문법적범주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상범주자체에 대한 리해가 달리 되여야 할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범주란 문장의 주어와 객어, 보어가 술어에서 표현되는 행동과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로 리해하고있는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행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범주를 설정한다는것은 사실상 행동성의 범주로서의 상범주자체에 대한 부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앞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이》, 《히》, 《지》에 의해서 형용사가 동사화된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상접사가 형태조성적기능을 노는것이 아니라 단어조성적기능을 수행하는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동사의 경우에 주동상 《먹다》가 사동상 《먹이다》로, 피동상 《먹히다》로 될 때 《이》와 《히》는 분명히 상범주와 관련된 형태조성적접사로서의 상접사로 되겠지만 《높이다》, 《넓히다》와 같이 《높다》, 《넓다》를 동사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어조성적접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접사 《이》와 《히》는 동사의 경우와 형용사의 경우에 각이하게 작용하는 동음이의적접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히》가 수행하는 동음이의적성격을 무시하고 문법적접사로서의 기능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형용사에 행동성의 범주인 상범주를 적용하게 된다면 상범주가 행동성범주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태나 성질까지를 포괄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여 문법서술에서는 일종의 자가당착을 면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접사 《이》, 《히》, 《지》는 동사의 경우에 상범주의 형태조성적접사로 되겠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동사화의 단어조성적접사로 되기때문에 그것을 밀몰아서 《상토》로 처리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제 6 절. 용언대상형범주

1. 용언대상형의 개념

용언대상형범주는 용언이 2차적으로 대상형태를 취하는 형태론적범주로서 용언의 말줄기에 용언의 대상토 《ㅁ(음)》 혹은 《기》를 붙여서 그 형태를 조성한다.

○ 철수는 분이의 물음이 나오기가 바쁘게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용언대상형은 경우에 따라서 종결의 어조를 동반하여 종결술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

○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음.

용언대상형은 서술성을 지니면서도 다시 대상성을 가지는 형태인것만큼 그것은 용언의 성격과 체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것으로 된다.

○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마련하여주시였음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있는 우리 인민들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였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주체의 조국으로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치고있는것이다.

용언대상형도 일정한 서술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문장에서 필요한 객어, 보어, 상황어와 결합할수 있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시에도 부모잃은 고아들을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심으로써 그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라날수 있었다.

용언대상형은 2차적으로 대상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격토를 취하면서 문장에서 주어나 객어, 보어로 쓰일수 있다.

○ 공사진척정형으로 보아 바야흐로 준공의 날이 가까왔음이 틀림없었다.

○ 작업반원들은 비가 멎기를 기다리며 비료주기를 시작하였다.

2. 용언대상형토 《ㅁ(음)》, 《기》의 쓰임

용언대상형토들인 《ㅁ(음)》과 《기》는 용언을 대상화하여 마치 체언처럼 토를 취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쓰임에서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ㅁ(음)》형은 주로 글말에서 많이 쓰이며 《기》는 글말과 입말에서 다

갈이 쓰인다. 또한 《ㅁ(음)》형은 주로 공문서나 지시문과 같은 공식적인 문건과 일기에서 술어로 쓰일수 있는데 이때는 종결형을 따로 가지지 않고 그 자체로서 술어를 이룬다.

○ 다음과 같이 공포함. (공문서)

○ 이상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자는 엄격히 처벌할것을 지시함. (지시문)

○ 오후에 어머니에게서 전보를 받음. (일기)

《ㅁ(음)》은 시가체에서 독특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 그리움에서 속절없노라 멀리 바라움이여—
깊은 농속에 숨겨둔 향료와 같이
아, 그대 또한 흔적없이 사라지려나
(박세영, 《비둘기 내 어깨에 앉으라》)

○ 흙은 아낙네들 감은 비로도 허리띠 같이도 따슴이라
…
마음과 눈으로 지나간 푸름의 인상을 허공에다 그리어라
(리상화, 《가을의 풍경》)

대상형토 《ㅁ(음)》의 쓰임력사가 오래다는것은 중세국문문헌의 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다.

○ 안좀 걷뇨매 어마님 모ᄅᆞ시니(《월인석보》 2권 24장)

○ 훌루미 이 곧호ᄆᆞᆯ 어엿비 너기시며(《금강경언해》 서 11장)

《기》형은 주로 입말에서 술어로 쓰일수 있는데 이때는 종결형을 취한다.

○ 여기서 저 산기슭까지 뛰여가기다.

○ 이제부터 그따위 놀음은 그만두기네.

력사적으로 대상형토 《기》의 전신은 《디》였다.

○ 다딜어도 흗디 아니ᄒᆞ며(《몽산법어》 43장)

○ 가져가디 어려ᄫᅳᆯ씨(《월인석보》 1권 13장)

○ ᄀᆞ장 보디 됴ᄒᆞ니라(초간 《박통사》 상권 10장)

○ 萬事에 보디 슬흔 일이나 이시면(《첩해신어》 6권 24장)

그런데 《디》는 그후 《디〉지》의 과정을 밟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게 되였으며(가디 몯ᄒᆞ니라〉가지 못하니라) 다른 한편으로 《디〉기》의 과정을 밟아 오늘의 대상형토 《기》로 되였다.

이처럼 《ㅁ(음)》과 《기》는 그 생성변화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ㅁ(음)》과 《기》는 그 의미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ㅁ(음)》은 행동이나 상태를 순수하게 대상화하여 개념화한다. 례컨대 《먹다》라는 행동을 대상화한것이 《먹음》이다. 그것은 그 행동자체를 대상

적으로 파악하여 표현한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다.

그러나 《기》의 경우에는 일정한 과정, 수법, 지향 등을 나타낸다.

○ 유치원어린이들의 셈세기를 세밀히 관찰하였다. (과정)

○ 이번 경기에서도 반드시 금메달을 타기 바랍니다. (지향)

그리고 《기》형은 일련의 단어들과의 결합에서 큰 제약이 없다.

○ 그의 말타기솜씨를 보기 위하여 나는 미림승마구락부로 갔었다.

○ 이제야 겨우 그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 대학수영관은 수영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그러나 《ㅁ(음)》형은 《기》형에 비하여 다른 단어와의 결합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기》형이 결합할수 있는 단어들과 직접 결합할수 없으며 결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격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세련되지 못한 어색한 표현으로 되고만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 만나봄을 위하여→○ 그와 만나보기 위하여 급히 떠났다.

× 읽음을 시작하였다.→○ 그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 수영함이 좋은→ ○ 수영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결국 용언대상형의 경우에 《ㅁ(음)》형보다는 《기》형이 결합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다 자유로우며 그 쓰임의 폭에서도 보다 더 넓다고 할수 있다.

제 4 장. 련관범주

제 1 절. 련관범주의 개념

련관범주란 이야기된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련관관계를 도움토를 통해서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그리하여 도움토의 기본기능은 문장론적기능과 무관계하며 단지 단어들사이의 관계를 련계지어주거나 의미를 보충해주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례를 들어서 도움토 《도》는 포함되는 대상이나 강조되는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 이 도움토는 단어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위치적기능과는 관계없이 다만 그 련관관계를 강조하거나 보충해줄 따름이다.

○ 지금 들판에는 민들레도 피고 백일홍도 피였다.

○ 오늘 들판에서 민들레도 따고 백일홍도 따왔다.

앞의 문장에서 《민들레》와 《백일홍》은 주어이며 다음 문장에서 《민

들레》와 《백일홍》은 객어이기때문에 문장론적기능은 다르지만 다 도움토 《도》에 의해서 《민들레》와 《백일홍》이 렬거되면서 강조되고있다. 그런데 이 렬거와 강조의 의미적인 련관을 지어주고있는것이 바로 도움토 《도》인것이다.

○ 철수는 집에서도 그 생각이요 학교에서도 그 생각이였다.

○ 영희는 쉬면서도 그 궁리요 일하면서도 그 궁리였다.

이처럼 도움토 《도》는 체언의 격형태에도 붙고 용언의 서술형태에도 붙어서 렬거와 강조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단지 그 련관만을 지어주고있다. 이것은 도움토 《도》를 빼놓은 다음의 문장과 비교해보게 되면 쉽게 알수 있는 문제이다.

○ 철수는 집에서 그 생각이요 학교에서 그 생각이였다.

○ 영희는 쉬면서 그 궁리요 일하면서 그 궁리였다.

우의 비교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움토 《도》는 체언형태와 용언형태에 관계없이 결합하여 일정한 의미적인 강조와 련관을 나타내고있다. 결국 도움토 《도》는 체언토도 아니고 용언토도 아니여서 이것을 체언과 용언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제3의 토로 보게 되는것이다.

련관범주는 문장에서 이야기된 이러저러한 대상, 행동, 상태, 표식 등을 의미적으로 다양하게 련관지어주고 도와주는 문법적범주로서 그 담당자가 바로 도움토이다.

제 2 절. 도움토의 부류와 결합적특징

1. 도움토의 부류와 그 의미

그려(려)

비로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 참 순이재간이 여간 아닙니다그려.

○ 흘러도 련달아 흐릅디다려(김소월, 《가는 길》)

나/이나

① 선택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오늘 행사에는 동무나 내가 가야 할것 같네.

② 《양보》의 태도로 결정한 대상을 나타낸다.

○ 그동안 시간이 있는데 소설책이나 읽어볼가.

③ 포괄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동무나 나나 다 새 세대 청년들이 아닌가!

④ 추정되는 분량을 나타낸다.

○ 그 무게가 한 두근이나 되겠다.

⑤ 비교되는 류사한 대상을 나타낸다.

○ 그의 성실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⑥ 성구론적강조에 쓰인다.

○ 당의 크나큰 사랑에 모두다 눈시울을 적시였다.

○ 그것은 머나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나마/이나마

① 양보의 대상을 나타낸다.

○ 누님이나마 있었으니 다행이였다.

○ 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이나마
사람은 못 잊는것 고향입니다
(김소월, 《고향》)

② 불리한 환경을 강조한다.

○ 해방전에 수리조합이 들어선 다음에는 명목상의 수로나마 메마르게 되였다.

는커녕/은커녕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을 강조한다.

○ 해방전에는 분이가 공부는커녕 세끼 밥도 먹기가 어려웠다.

○ 순이네는 어려운 살림에 논은커녕 뙈기밭도 없었다.

다/다가

행동의 간접객체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격토 《에/에게》나 《한테》뒤에 붙여 쓴다.

○ 매일 아침 꽃에다 물을 준다.

○ 수업때마다 학생들에게다 복습과제를 준다.

○ 래일 형님한테다가 전화를 걸어라.

도

포함 또는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 우수도
경칩도
머언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피줄을 타고 오는

호흡은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신석정, 《봄을 기다리는 마음》)

○ 비 오는 밤

가라앉은 령혼이

죽은듯 고요도 하여라

(리상화, 《단조》)

ㄹ랑/일랑

찍어서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 그따위 실없는 소릴랑 하지 마시오.

○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고 일이나 잘하도록 하여라.

라도/이라도

① 양보의 대상을 나타낸다.

○ 좀 작은것이라도 좋으니 가져오시오.

② 가정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 남자라도 모르겠는데 녀자의 몸으로 그걸 해내겠소?

③ 무조건적인 대상, 행동을 나타낸다.

○ 그는 어떤 고통이라도 참을 결심이였다.

라야/이라야

선택되는 조건이나 최후적조건의 부정을 나타낸다.

○ 사상적으로 건전한 사람이라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 그 성적이라면 극상의 경우라야 통과나 될가?

마다

꼭같이 관련되는 매개 대상을 나타낸다.

○ 큰물이 나자 저수지마다 물이 넘쳐났지만 피해는 없었다.

○ 학생들은 선생님의 물음에 저저마다 일어나서 대답하였다.

마저

달갑지 않은 일을 양보하여 포함시키는 관계를 나타낸다.

○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다가 눈비마저 쏟아져내렸다..

○ 동무마저 가면 여기 일은 어떻게 하겠소?

만

① 제한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여기로는 공사에 참가하는 사람만 통과할수 있습니다.

○ 독자증만 있으면 인민대학습당에서 책을 빌릴수 있다.

② 특별히 강조하는 련관관계를 나타낸다.

○ 오늘의 이 영광은 참으로 꿈만 같았다.

보다

비교의 기준으로 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그 동무는 나보다 먼저 입대하였습니다.

○ 순이는 분이보다 공부를 잘한다.

부터

출발점이나 또는 어떤 행동의 주체를 강조한다.

○ 여기부터 우리가 맡은 구간입니다.

○ 우리 청년들부터 모범을 보입시다.

서껀

① 함께 행동하는 인물을 나타낸다.

○ 김동무랑 박동무서껀 함께 오너라.

② 손꼽아 드는 대상을 나타낸다.

○ 설날에는 널뛰기랑 윷놀이서껀 하면서 즐겁게 놀았다.

조차

불리하게 된 환경이나 대상을 강조한다.

○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다 비조차 억수로 퍼부었다.

○ 아니 그판에 너조차 그렇게 한단말이냐?

처럼

비교되는 류사한 대상을 나타낸다.

○ 물이 수정처럼 맑기도 해라.

중세국문문헌에서는 《쳐로》로 쓰이고있었다.

○ ᄇᆞ람에 플쳐로 반ᄃᆞ시 누을거시니

(《자휼전칙》 4장)

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대상, 현상을 강조한다.

○ 비커녕 구름 한점 없었지요.

까지

도착점 또는 포함의 강조를 나타낸다.

○ 여기서 철령까지 50리입니다.

○ 동무까지 그렇게 행동하면 되나?

뿐

① 제한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여기 모인것은 전쟁로병들뿐이였다.

② 성구론적강조에 쓰인다.

○ 그 사실을 알다뿐이겠습니까!

야/이야

구별하여 강조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너야 무슨 걱정이 있겠니?

○ 곳곳에 세워진 농촌문화주택이야 어데 가나 훌륭하지요.

야말로/이야말로

강조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 바다야말로 청년들의 활무대랍니다.

○ 주체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지요.

2. 도움토의 결합적특징

도움토는 단어의 문장론적위치를 결정짓지 못하는것만큼 그것은 각종 토들과 결합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가지는 련관적의미를 첨가해주고있다.

그리하여 도움토는 다른 토와의 결합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 있다.

도움토는 다른 토와의 결합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갈라볼수 있다.

① 도움토와 도움토의 결합

○ 오늘 회의에 철수만이라도 꼭 와야 할걸.

○ 동무부터라도 모범을 보여야지요.

○ 나두야 간다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냐
나두야 가련다(박룡철, 《떠나가는 배》)

② 격토와 도움토의 결합

○ 억년 비정의 함묵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여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류치환, 《바위》)

○ 저 12월 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심림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세멘트장판우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치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있는가
(리륙사, 《황혼》)

○ 그가 오기는커녕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었다.

③ 도움토와 격토의 결합

○ 래일부터는 이 포전에서 일합시다.

○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해야 합니다.

④ 서술토와 도움토의 결합

○ 붉은 장미꽃이 아름답게도 피였구나.

○ 꼭 참으면서라도 이걸 이겨야 하오.

○ 박동무를 만나게만 되면 이걸 꼭 전달해주시오.

○ 그는 출발하면서부터 열띤 선동사업을 하였다.

○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까지 하는데 정말 면목이 없구나.

○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으로 성과가 대단하지요.

○ 그분도 기어이 갔습니다그려.

이처럼 도움토는 다른 토와 결합하여 의미적인 강조와 련관관계를 보여주는데서 일정한 작용을 놀고있다. 도움토는 격토와의 결합에서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있지만 서술토와 결합하는데서는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즉 상황형, 접속형과의 결합에 비해서 종결형과의 결합은 극히 제한되여있으며 특히 규정형과의 결합은 있을수 없는것이다.

제 4 편. 문 장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휘를 엮어 문장을 만들고 사상을 전달하자면 반드시 해당한 문법적 규칙과 요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언어생활에서 문화어를 써야 하며 문법적요구에 맞게 문장을 잘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국어통합구조의 특성과 문장구성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

문장론은 통합과 문장의 구조적특성 및 그 류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문장론에서는 단어들이 문장을 이루기 위하여 결합하는 통합의 류형과 그 특징, 문장의 류형과 그 구성원리를 밝히는것을 주요과업으로 삼게 된다.

제 1 장. 통합과 문장

제 1 절. 형태론과 문장론의 관계

문법의 주요구성부분으로 되는 형태론과 문장론은 그 연구대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형태론은 단어와 그 형태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있다.

○ 집이, 집을, 집에(-에서), 집으로

○ 아이가, 아이를, 아이에게

○ 간다, 가겠다, 가신다

○ 먹어, 먹더라, 먹었다

한편 문장론은 문장과 그 통합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하고있다.

○ 아이들이 아침마다 유치원으로 간다.

○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형태론과 문장론은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형태소, 단어, 문장의 호상관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언어의 기본단위인 단어는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형태론적구성은 일정한 통합으로 이루어진 문장론적구성을 거쳐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으로 된다. 즉 형태소, 단어, 통합, 문장이라는 언어적단위의 충차에서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되는것은 바로 통합과 문장이다.

○ 진달래가 아름답다. =진달래가+아름답다

한편 《진달래가》와 《아름답다》는 다시 그앞에 다른 말이 결합될수 있다.

○ <u>붉은</u> 진달래가 <u>매우</u> 아름답다. =
[붉은+진달래가]+[매우+아름답다]

이 경우에 《진달래가》는 《개나리가》나 《민들레가》로 대치할수 있으며 《아름답다》도 《곱다》나 《향기롭다》로 대치할수 있다.

대치란 동일한 성질의 다른 말을 바꿔넣는다는것인데 이것들은 계렬을 이루게 되므로 계렬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 계렬관계(paradigmatic relation)

진달래가(는) 민들레가(는) 개나리가(는)	———	아름답다 향기롭다 곱다

한편 《진달래가》와 《아름답다》, 《붉은》과 《진달래가》, 《매우》와 《아름답다》가 통합될수 있는데 통합이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다른 말이 와서 한덩어리를 이룰수 있다는것으로서 이때 서로 결합될수 있는 말들사이의 관계를 통합관계라고 한다.

통합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결합을 통합(syntagm)이라고 한다. 통합이란 론리의미적, 문법적인 타당성에 의해서 통합관계를 맺은 단어들의 결합체를 말한다.

○ 붉은 진달래가 매우 아름답다.

이 문장은 서로 다른 계층관계에 있는 여러개의 통합으로 구성되여있는데 그 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진달래가+아름답다

○ 붉은+진달래가

○ 매우+아름답다

○ [붉은+진달래가]+[매우+아름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결합은 통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이 론리의미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아니라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기때문이다.

× 붉은-매우

× 붉은-아름답다

× 진달래가-매우

또한 우리 말에서는 의존형태소인 토가 단어에 소속되여있기때문에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통합의 질서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형태론적질서로 인정하게 된다.*

* 자립형태소(free morpheme), 의존형태소(found morpheme)

○ 그와 <u>나와의</u> 관계.

○ 대학강당에서의 신년축하모임.
○ 오늘의 경쟁에서는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였다.
○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나와의》, 《대학강당에서의》, 《이기느냐가》, 《시작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의 결합은 문장의 구성자료로 되기전의 형태론적질서로 되기때문에 문장론적질서의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장론에서는 단어들이 통합관계를 이루어 구성하게 되는 문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있는 점에서 단어형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태론과 구별된다.

제 2 절. 통합의 류형과 문장론적단위

문장의 구성자료로 되는 통합은 그것을 이루는 단어들의 성격에 따라 자립단어와 자립단어의 통합, 자립단어와 보조적단어의 통합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자립단어와 자립단어의 통합이란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등 자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것을 말한다.

○ 해와 달(명사+명사)
○ 대학에 입학하다(명사+동사)
○ 나무가 울창하다(명사+형용사)
○ 내가 가다(대명사+동사)
○ 급히 달리다(부사+동사)
○ 매우 많다(부사+형용사)
○ 아주 빨리(부사+부사)
○ 모든 학교(관형사+명사)

한편 자립단어와 보조적단어의 통합은 자립단어와 불완전명사, 보조동사, 부사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것을 말한다.

○ 우리의것(대명사+불완전명사)
○ 조국을 위하여(명사+보조동사)
○ 어머니와 함께(명사+부사)

1) 자립단어와 자립단어의 통합

자립단어들의 통합은 우선 그 의미-구조의 성격에 따라 단순통합과 확대통합으로 나누이며 단순통합은 다시 그 구성요소들의 련결방식에 따라 종속통합과 병렬통합으로 나누인다. 그리고 종속통합은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호상관계에 따라 주체적통합, 객체적통합, 인용적통합, 상황적통합, 규정적통합으로 나누이며 병렬통합은 다시 합동적통합, 대립적통합, 선택적통합으로 나눌수 있다.

— 단순통합

① 종속통합: 주체적통합, 객체적통합, 인용적통합, 상황적통합, 규정

적통합

② 병렬통합: 합동적통합, 대립적통합, 선택적통합

— 확대통합

① 확대종속통합

② 확대병렬통합

그러면 단순통합과 확대통합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인 병렬통합과 종속통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① 병렬통합

병렬통합은 자립단어들이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결합되는것을 말한다.

병렬통합은 결합의 성격에 따라 합동, 대립, 선택이 있을수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자립단어들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결합되는것만큼 체언과 체언,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형용사사이에서 어휘-문법적으로 비슷한것들끼리 결합한다는데 있다.

○ 선생과 학생
○ 로동자와 농민
○ 너와 나
○ 우리와 그들
○ 둘이나 셋
○ 열과 백
○ 가고오다
○ 배우며 일하다
○ 뛰여넘다
○ 높고낮다
○ 멀고 험하다
○ 어리나 용감하다

서로 다른 성질의 단어나 서로 다른 품사의 단어들은 론리적인 모순으로 하여 병렬통합을 구성할수 없다.

× 떡과 폭포수
× 집이나 사과
× 대학이나 다섯
× 열하나와 누님
× 너와 열
× 우리와 험하다
× 마시고 깊다
× 살고 검다
× 나쁘나 졸리다
× 푸르나 먹다

② 종속통합

종속통합은 그 구성성분의 하나가 주도성분이 되고 다른 하나가 종속성분이 되는것으로서 주도어와 종속어의 관계로 결합되는것을 말한다.

종속통합은 구성성분들의 결합의 성격에 따라 주체, 객체, 관계, 상황, 규정 등이 있을수 있다.

○ 꽃이 아름답다 ——— 주체통합(주어+술어)
○ 경치가 좋다
○ 밥을 먹다 ——— 객체통합(객어+술어)
○ 책을 보다
○ 집에 있다 ——— 관계통합(보어+술어)
○ 학교로 가다
○ 빨리 가다 ——— 상황통합(상황어+술어)
○ 매우 좋다
○ 고마운 사람 ——— 규정통합(규정어+피규정어)
○ 고향의 정서

종속통합은 주도어가 항상 뒤에 놓이는데 주체, 객체, 관계, 상황통합의 경우에는 주도어가 서술성을 가지며 규정통합의 경우에는 주도어가 대상성을 가진다.

그러나 일부 상황통합에서 주도어가 부사인 경우에는 서술성을 가지지 않는다.

○ 무척 빨리
○ 아주 많이
○ 매우 잘

통합의 구성성분은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될수 있으며 또 통합이 하나의 문장론적단위로 될수도 있다.

○ 어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축축히 어려있었다.

6개의 단어로 된 이 문장은 각각 통합으로 분석할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장론적단위인 구이다.

○ 어머니의 눈 ——— 명사구(규정통합)
○ 기쁨의 눈물 ——— 명사구(규정통합)
○ 축축히 어리였다 ——— 동사구(상황통합)

구는 하나의 주도어와 종속어의 결합으로 된 단순통합으로서 주도어는 항상 종속어의 뒤에 놓이게 된다.

통합의 관점에서는 종속통합의 경우에 종속어에 따라 통합의 성격이 밝혀지므로 그에 따라 통합의 성격을 밝히지만 구의 관점에서는 종속통합의 경우에 주도어의 품사에 따라 구를 구별하게 된다.

구에는 이밖에도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가 있을수 있다.

○ 풍년든 미곡리벌판에는 벼이삭이 매우 탐스럽게 패여있었다. ———형용사구(상황통합)
○ 그가 아주 새 콤퓨터를 마련하였다. ———관형사구(규정통합)
○ 순이는 책을 무척 빨리도 읽어버렸다. ———부사구(상황통합)

문장론적단위에는 절도 있다. 절이란 주어와 술어를 갖춘 온전한 종속통합으로 된 《문장》이 하나의 문장론적단위로 되여 쓰이는것을 말한다.

○ 그는 자기가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명사절
○ 학생들은 체모가 한결같이 끌끌하다. ———형용사절
○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탄할만 하다. ———동사절

2) 자립단어와 보조적단어의 통합

① 자립단어와 불완전명사의 결합

○ 스무마리
○ 열두살
○ 가정의것
○ 가기때문

② 자립단어와 보조동사의 결합

○ 나라를 위한
○ 국제관계에 대하여
○ 읽고있다
○ 먹어버리다
○ 가고말다
○ 보고싶다

자립단어와 보조적단어의 통합은 문장에서 덩어리전체가 하나의 구성성분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류형의 통합은 사실상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 지난날에 여러 문법에서는 통합에 대하여 단어결합이라고 하면서 단어결합이란 《의미—문법적으로 련결되고 문장에서 그 구성자료로 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의 결합》이라고 하였으며 단어결합에는 자유로운 단어결합과 자유롭지 않은 단어결합이 있다고 하면서 통합을 자유로운 단어결합으로 보고 그것을 단순결합과 확대결합으로 나누었다. (《문법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년 235~251페지)

제 3 절. 문장에 대한 리해

1. 문장의 개념

우리는 흔히 문장이라는 말을 쓰고있는데 문장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개념으로 리해되고있다.

하나는 문자언어로 표현된 수사학적단위를 가리키는것으로서 글을 잘 짓는 사람, 명문가를 문장가라고 할 때의 《문장》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되는데 이것은 흔히 《글》일반을 가리키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것은 문법론의 연구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음성언어나 문자언어로 표현된 문법론의 한 단위를 가리키는것인데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되는 문장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된다.

문법론의 대상으로 되는 언어적단위로는 형태소, 단어, 통합, 문장이 있는데 문장은 이 언어적단위들가운데서 가장 큰 단위로 된다.

문장은 문법론의 가장 큰 단위로 되지만 언어기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작은 단위로 된다. 왜냐하면 글의 구성의 관점에서는 문장보다 큰 단위로서 단락과 문단이 있기때문이다.

언어의 기능에는 이미 알고있는것을 전달하는 기능인 전달기능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기능인 표현기능이 있으며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기능인 의도기능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의미적완결성과 형식적자립성을 가진 언어형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언어형식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문장인것이다.

○ 푸르다.

이 언어형식은 자립형식으로서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고있으나 그 속성의 주체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따라서 의미적인 완결성이 결여되여있다고 할수 있다.

○ 하늘이 푸르다.

이 경우는 《푸르다》의 주체가 밝혀져있으며 문법적으로도 형식을 갖추고있다. 즉 의미적완결성과 형식적자립성이 갖추어져있다.

○ 진달래가 붉게 피는 봄날이 왔어요.

《진달래가 붉게 피는》은 의미적완결성이 있으나 그자체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언어형식으로 되여있다. 이것이 제대로 진술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진달래가 붉게 핀다.》와 같이 형식적자립성을 갖추면서 전달의 어조가 동반되여야 한다.

이처럼 문장이 의미적완결성과 형식적자립성을 가진다는것은 진술의 기능을 수행하는 술어를 비롯하여 진술의 주체가 되는 주어 등 최소한의 필수성분들을 구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일상언어생활에서 우리가 쓰고있는 언어형식모두가 언제나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고있는것은 아니다.

① ㄱ. 고향에 갔니?
　ㄴ. 갔어.
② ㄱ.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ㄴ. 철수가.
③ ㄱ.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ㄴ. 그래.

이 경우에 ㄱ는 각각 술어와 주어, 객어, 보어 등 필요한 문장성분과 단어의 종결형을 구비하여 의미적완결성과 형식적자립성을 가지고있다.

한편 ㄴ는 모두 불완전한것이지만 전달의 어조와 문맥의 도움에 의해서 자립적문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ㄱ와 같이 필요한 필수성분과 종결형을 갖추고 전달의 어조를 가지고있어서 문맥을 떠나서도 의미적완결성과 형식적자립성을 지니고있는 문장을 비문맥적문장 또는 완전문이라고 한다.

한편 ㄴ와 같이 의미적완결성과 형식적자립성이 결여되여있으나 전달의 어조와 문맥의 도움으로 언어기능의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문장을 문맥적문장 또는 불완전문이라고 한다.

불완전문은 그 근간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몇개 류형으로 나눌수 있는데 앞에서 든 례를 놓고 말한다면 ①ㄴ는 술어형 불완전문이고 ②ㄴ는 주어형 불완전문으로 된다.

이러한 류형의 불완전문으로는 객어형 불완전문, 보어형 불완전문도 있을수 있다.

○ 너는 무엇을 먹고있니?
　밥을. … (객어형 불완전문)
○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학교로. … (보어형 불완전문)

그리고 앞에서 든 ③ㄴ는 독립어(감동어, 호칭어)형 불완전문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문들은 문맥의존도가 높아서 해당한 문맥을 떠나서는 교제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기때문에 전형적인 통합구조분석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문들도 전달의 어조와 문맥의 도움에 의해서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서는 지장이 없다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론은 완전문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서술하게 된다. 왜냐하면 완전문은 문맥의존도가 낮고 필수적문장성분을 갖추고있어서 전형적인 통합구조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기때문이다.

문장에 대한 정의와 그 기본표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법학계에서 론의가 적지 않았다.

지난날 일부 견해에서는 《월은 단정을 나타내는 한줄기 말》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사유적단정》과 《직관적단정》에 의해서 《사유적월》과 《직관적월》을 구별하고 그 필수적표식으로서 《단정으로서의 뜻이 구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형식과 사상형식과의 련계를 강조한 나머지 그것들사이의 완전한 일치를 전제로 문장의 정의를 내린바 있었다.*

* 《신편고등국어문법》(정렬모, 1946년) 11～14, 168페지

그후 문법학계에서는 문장에 대해서 《사상이 형성되고 표현되며 전달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매개 언어의 법칙에 따라 문법적으로 형태를 갖춘 언어행위의 기본단위》*[1] 또는 《하나의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지거나 문법적규칙에 따라 배렬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의 기본단위》*[2]라고 규정하는 견해가 나왔다. 그리고 문장의 기본표식으로 《진술성》을 들면서 진술성에 대해서 《진술의 내용이 현실과 대하여 맺는 련계》*[3]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으며 진술성의 표현수단으로 되는것은 전달의 어조와 단어의 진술형(서술형)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4]

*[1]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 295페지

*[2] 《문법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년) 224페지

*[3]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 298페지, 《문법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년) 226페지

*[4] 《조선어문법》(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년) 300페지, 《문법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년) 230페지

지난날에 문장의 기본표식과 관련해서 《진술성》문제에 대하여 많이 론의해왔으며 학자에 따라서 그것을 《술어성》이요, 《용언성》이요 하고 달리 말하기도 하였다.

진술내용의 현실에로의 귀속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진술성의 문법적의미는 시칭, 법, 식, 계칭 등의 문법적범주들에 의하여 구체화되는데 이것들은 언어의 구성요소를 생동한 현실적인 언어행위에로 전환시키면서 문장에 교제수단의 기본단위로서의 의의를 부여한다. 그리고 바로 이 문법적범주들로 말미암아 진술의 내용이 현실세계와 련계를 맺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진술에 완결성이 부여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진술성표현의 기본수단으로서 단어의 진술형을 론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언어행위과정에는 《단어의 진술형》이라는 문법적형식화가 아니라도 진술내용이 현실과 련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바로 《전달의 어조》인것이다.

이처럼 문장은 의미적완결성을 가지는 진술성이 문법적형식화와 전달의 어조에 의해서 실현되는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이다.

2. 문장의 생성과 무한수문장, 유한수문장

문장은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음운, 형태소, 단어 등의 작은 언어적단위들이 유한수인데 반해서 그 수나 길이가 무한수라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문장은 언어체계가운데서 무한체계라고 말하고있다. 국어의 경우에도 음운이 40개, 형태소와 단어가 30여만개라는 유한수인데 비하여 생성되는 문장은 그 수가 무한수인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문장은 의미적완결성과 형식적자립성, 전달의 어조를 기본표식으로 하고있으나 그러한 기본표식을 갖추고있는 문장은 우리 언어생활에서 무한수로 나날이 새롭게 생성되고있다. 문장의 수가 무한한 까닭은 유한체계라고 할수 있는 단어나 형태소를 가지고 확대, 대치, 전위에 의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수 있는 생성능력이 있기때문이다. 곧 인간은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문장을 무한히 창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는것이다.

○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있다.

… 책을 열심히 읽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있다.

밤늦게까지 책을 열심히 읽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있다. [확대]

○ 젊은이들이 해변가에서 휴식하고있다.

… 청춘남녀들이 해변가에서 휴식하고있다.

젊은이들이 대동강가에서 휴식하고있다. [대치]

○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 아들에게 아버지가 선물을 사주었다.

아들에게 선물을 아버지가 사주었다. [전위]

확대, 대치, 전위에 의한 문장의 생성은 비단 문장의 수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문장의 길이에도 작용하여 문장은 얼마든지 길어질수 있다.

○ 흥부의 형 놀부의 심사를 볼것 같으면 초상난데 춤추기, 불 붙는데 부채질하기, 해산한데 개잡기, 장에 가면 억매 흥정하기, 우는 아이 볼기 치기, 배 고파 우는 아이 밥그릇 빼앗기, 엿 먹는 아이 엿을 짓밟기, 이루 말할수 없이 많은데 동생의 집에 가서는 굶주려 우는 조카놈의 볼기를 방구석에 놓인 비자루로 때리고 부엌에 가서는 가마뚜껑을 열고 침을 뱉으니 이런 불학무도한 놈이 이 세상에 다시 있겠는가마는 …(《흥부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모든 문장이 다 확대, 대치, 전위에 의한 생성능력을 가지고있는것은 물론 아니다.

례를 들어서 《어서 오십시오.》와 같은것은 관용구처럼 된것으로서 이것을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인사말의 의미로 되는것이 아니라 오는 행동에 대한 독촉의 의미로 되여버린다.

그리하여 관용구형식의 경우에 불완전문이든 완전문이든 확대, 대치, 전위에 의한 구조변화는 불가능한것이다.

① 누워서 떡먹기.

× 누워서 밥먹기/× 일어나서 떡 먹기

② 밤 잔 원쑤 없고 날 샌 은혜 없다.

× 밤 안잔 동무 없고 날 샌 친구 없다.

①, ②는 관용구형식인 완전문인데 그것은 이 문장들이 단어처럼 이미 굳어진 관용구로서 그 수나 길이가 정해져있는것이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문장을 유한수문장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유한수문장은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어휘론의 연구대상으로 된다.

명백한바와 같이 문장론의 주요연구대상은 무한수문장이다. 따라서 문장론에서는 무한한 문장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과 원리를 연구하게 되는것이다.

3. 통합지식에 의한 문장의 검증

사람들이 개별언어에 대하여 안다는것은 곧 그 언어를 이루고있는 문장을 안다는것이며 문장을 안다는것은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이나 원리를 안다는것인데 그것이 바로 통합지식이다.

통합지식은 해당 언어소유자들에게 균등적으로 공유되여있는 내재적지식이다. 사람들은 일정한 통합지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전에 들어본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문장을 그.구성규칙과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낼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쉽게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통합지식은 모국어인 경우에 언어형성기부터 하나하나 축적되여온 언어교양과 관습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받은 언어지식의 산물로 되며 외국어인 경우에는 꾸준한 언어습득과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들은 일정한 통합지식을 소유하고있기때문에 남들이 하는 말이 그 음운, 형태소, 단어 등을 사용하는데서 잘못된것을 판정하고 바로잡을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문법성의 검증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체득한 통합지식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수 있는가?

① 비문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ㄱ. 어휘의 선택, 배렬, 결합이 잘못된것을 판별할수 있다.

× 불로 물을 끈다.

× 흰 눈이 검다.

× 그는 단번에 떡을 마셨다.

ㄴ. 토의 쓰임이나 맞물림에서 나타난 잘못을 판별할수 있다.

× 순이는 마음을 곱다.

× 손자가 할머니를 부축하시였다.

× 어제 우리는 실험을 하겠다.

ㄷ. 구성성분의 배렬상 착오나 어휘선택의 잘못을 판별할수 있다.

× 기차는 느리게 몹시 갔다.

× 강 건너 마을에는 새빨간 집이 있다.

× 새로 일떠선 정원에는 꽃밭이 펼쳐졌었다.

② 생략요소의 복원이 가능하다.

ㄱ. 필수성분이 빠진것을 짐작할수 있다.

○ 어머니가 갓난아이에게 (○) 먹이였다.… 《젖을》

○ 학생이 학교에 (○) 타고간다.…《전차를》, 《뻐스를》

ㄴ. 론리의미적인 필요성분이 생략되여도 그것을 짐작할수 있다.

○ 순희가 그린 그림이 참 멋지다.… 론리의미적으로는 《그린》앞에 《그림을》이 있어야 하나 생략되여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수 있기때문에 문장구조상 오히려 생략이 당연하다.

○ 연설을 한 철수는 흥분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였다. …《연설을 한》 앞에 있는 《철수가》가 생략되여있으나 그것은 능히 짐작할수 있기때문에 문장구조상 오히려 생략이 당연하다.

③ 동의성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ㄱ. 구성성분의 배렬이 달라도 동의적관계를 짐작할수 있다.

○ 진달래가 개나리보다 곱다.

○ 개나리보다 진달래가 곱다.

이 두 문장은 구성성분의 배렬이 다르지만 단어형태가 같으므로 동의적인것이다.

ㄴ. 동의적관계에 있지 않은것도 짐작할수 있다.

○ 순이가 옥이를 앞섰다.

○ 순이를 옥이가 앞섰다.

이 두 문장은 구성성분의 배렬이 동일한것 같지만 그 단어형태가 서로 다르기때문에 동의적인것이 아니라 반의적인것이다.

④ 장면이나 어조의 도움으로 중의성의 판단이 가능하다.

○ 엊그제 돌아온 영수의 형님이 말하였다.

엊그제 돌아온/영수의 형님이 말하였다.

엊그제 돌아온 영수의/형님이 말하였다.

○ 철수는 아들과 딸을 찾아 떠났다.

철수는/아들과 딸을 찾아 떠났다.
철수는 아들과/딸을 찾아 떠났다.

이처럼 통합지식은 이야기된 문장에 대하여 그 문법성을 검증하며 생략된 필요성분은 복원하며 동의성과 중의성을 판단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2 장. 문장성분

제 1 절. 문장의 구성성분과 술어의 결합가, 결합항

1. 문장의 기본류형과 결합항

우리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문장을 쓰고있으나 그것을 기본류형으로 갈라보게 되면 다음의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① 무엇이 어찌하다.
② 무엇이 어떠하다.
③ 무엇이 무엇이다.

이 경우에 《무엇이》는 주어이고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는 술어가 되는데 이 문장류형들은 술어의 종류에 따라 흔히 동사문, 형용사문, 명사문이라고 한다.

이 세개 류형의 문장들은 다시 술어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의 류형으로 나눌수 있을것이다.

① 동사문:
○ 꽃이 핀다.
○ 철수가 책을 읽는다.
○ 철수가 명호를 동생으로 삼았다.
○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주었다.

② 형용사문:
○ 하늘이 푸르다.
○ 순이가 옥이와 비슷하다.

③ 명사문:
○ 철수가 대학생이다.
○ 철수는 영호의 친구이다.

동사문은 술어인 동사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1～

3개의 성분을 취하고있으며 형용사문은 술어인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서 1～2개의 필수성분을 취하고있다. 그리고 명사문도 술어인 명사의 의미가 요구하는데 따라 1～2개의 성분을 필수적으로 취하게 되였다.

문장은 그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간에 일정한 서술적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것인데 그 기능의 기본담당자는 술어이며 그 술어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서 그앞에 오는 필수성분들이 규정된다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술어를 문장의 기본성분이라고 하게 되는것이다.

기본성분인 술어가 완전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그앞에 몇개의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가 하는 의미상 특성을 술어의 결합가라고 하며 술어의 결합가에 따르는 필수성분을 술어의 결합항이라고 한다.

① 하나의 결합항만을 요구하는 술어를 한자리술어라고 한다.
○ 물이 끓는다.
○ 꽃이 곱다.
○ 영수는 대학생이다.

한자리술어로 되는것은 《울다, 짖다, 피다, 웃다, 끓다, 쏟아진다》등의 자동사, 《크다, 작다, 붉다, 희다, 푸르다, 곱다, 아름답다》등의 형용사와 대부분의 명사들이다.

② 두개의 결합항을 요구하는 술어를 두자리술어라고 한다.
○ 포수가 노루를 잡았다.
○ 영희가 샘물을 마신다.
○ 철수의 성적은 영수와 같다.

두자리술어로 되는것은 《되다, 변하다》와 같은 자동사와 《먹다, 읽다, 파다, 심다, 잡다, 던지다》등의 타동사, 《같다, 무섭다, 적합하다, 아니다》등의 형용사이다.

③ 세개의 결합항을 요구하는 술어를 세자리술어라고 한다.
○ 순이가 동생에게 약을 주었다.
○ 박선생이 철호를 사위로 삼았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세자리술어로 되는것은 《넣다, 주다, 삼다, 의논하다》와 같은 타동사와 《먹이다, 들리다, 업히다》와 같은 동사의 사동형, 피동형이 될수 있다.

이처럼 문장은 기본성분인 술어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서 결합가가 규정되며 그에 의해서 술어의 결합항이 정해지는것이다.

2. 문장의 필수성분과 수의성분

문장의 의미적완결성은 기본성분인 술어와 그 결합항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의 필수성분과 수의성분을 가르게 된다.

필수성분이란 하나의 문장이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적완결성을 지닌 완전문으로 되는데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주요성분을 말한다.

① ㄱ. 공화국기가 휘날린다.

ㄴ. 날씨가 좋다.

①의 경우에 문맥의 도움이 없이 하나의 문장이 의미적완결성을 지닌 완전문이 되려면 술어 이외에 최소한 주어라는 주요성분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만약 주어가 없이 술어만으로 문장이 구성되였다면 그것은 《무엇이》가 밝혀지지 않아 의미적으로 완결성이 없다고 할수 있다.

② ㄱ. 대학생이 읽었다.

ㄴ. 병사들이 구원하였다.

③ ㄱ. 철수가 주었다.

ㄴ. 아주머니가 삼았다.

②, ③의 경우에 문맥의 도움이 없이 그것을 접했을 때 ①의 경우와는 달리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일부가 빠져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즉 ②, ③에 대해서는 《무엇을?/누구를?》, 《누구에게 무엇을?/누구를 무엇으로?》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②' ㄱ. 대학생이 언어학원서를 읽었다.

ㄴ. 병사들이 소년을 구원하였다.

③' ㄱ. 철수가 동생에게 소설책을 주었다.

ㄴ. 아주머니가 고아를 아들로 삼았다.

이와 같이 문맥을 떠나서도 의미적완결성을 지닌 완전문을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술어와 주어 이외에 객어, 보어*를 갖추고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성분들을 필수성분이라고 한다.

* 해방후 여러 문법에서는 술어로 표현된 행동의 직접객체나 간접객체에 대하여 흔히 《직접보어》, 《간접보어》라고 하였으나 종래에 이에 대해서 《객어》, 《보어》라고 한 경우가 많았다.

문장에서 기본성분인 술어의 결합항으로 되는 주어, 객어, 보어는 필수성분이기는 하나 술어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충성분이라고 할수 있다.

한편 문장에는 완전문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 이외에 거기에 덧붙어있는 성분이 있을수 있다.

④ ㄱ. 병사들은 351고지를 점령하고야말았다.

ㄴ. 용감한 병사들은 351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았다.

④의 ㄱ는 필수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며 ㄴ는 주어, 술어에 각각 《용감한》과 《기어이》가 덧붙어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용감한》과 《기어이》는 이 문장이 완전문으로 되는데서 꼭 필요한 최소성분인것이 아니라 필

요에 따라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⑤ ㄱ. 삼천리금수강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ㄴ. 아, 삼천리금수강산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⑥ ㄱ. 아버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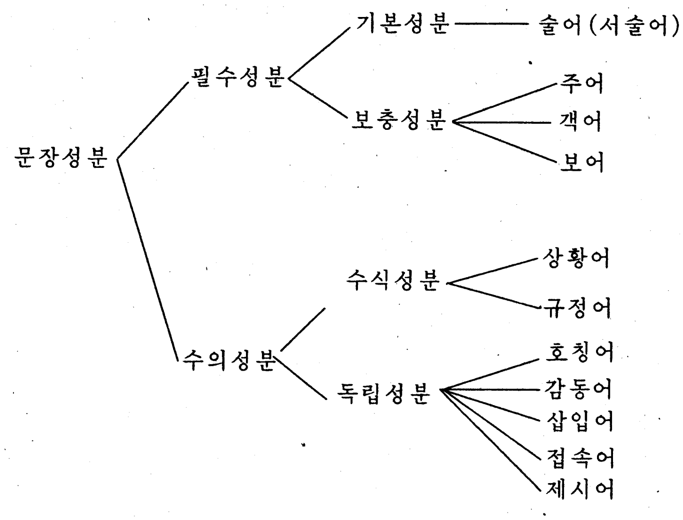
ㄴ. 영수야, 아버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⑤, ⑥의 ㄱ에 비해 ㄴ는 감동사로 된 감동어나 명사의 호격형태로 된 호칭어가 덧붙어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ㄴ의 경우에도 덧붙은 말인 《아》, 《영수야》가 뒤에 오는 말과 어울려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있는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뒤에 오는 말과 구조적으로 그 어떤 상관관계도 가지고있지 않다. 이 점에서 이것은 같은 수의성분가운데서도 수식성분과는 구별되는 독립성분이라고 할수 있다.

문장성분은 술어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관계를 맺고있는것을 상관적성분이라고 하며 그러한 상관관계를 맺지 않은것을 비상관적성분이라고 한다.

상관적성분에는 기본성분, 보충성분, 수식성분이 속하게 되며 비상관적성분에는 독립성분이 속하게 된다.

문장성분의 분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문장성분의 단위

문장성분의 단위로서는 단어, 구, 절이 있을수 있다.

토는 언제나 단독으로 문장의 성분이 될수 없고 반드시 체언이나 용언의 구실을 하는 말에 붙어서 그것과 한덩어리가 되여서 문장의 구성성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로 된 성분은 단순성분으로 되며 구나 절로 이루어진것은 확대성분으로 된다.

확대성분인 구와 절은 둘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통합으로서 그 통합구조의 성격에 따라 구별된다.

구는 둘이상의 단어가 한덩어리가 되여 마치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는것이며 절은 주어와 술어를 다 갖춘 온전한 《문장》이 어느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는것을 말한다.

○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명사구(규정어구) 형용사구(규정어구)

○ 대륙횡단렬차는 드넓은 초원을 무척 빨리 달리고있었다.
부사구(상황어구)

○ 빙상호케이선수들은 몸이 대단히 튼튼하다.
형용사절(술어절)

○ 지금 우리들은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끝내겠는가를 토의하고있다.
동사절(객어절)

문장의 성분들은 단순성분, 확대성분의 견지에서 나누어볼수도 있다.

○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순희와 옥이는 공부에서 뛰여나지만
규정어절(동사절) 주어구(명사구) 보어 술어
체육을 그다지 잘하지 못한다.
객어 상황어 술어

이 문장에서 단어로 되여있는 보어, 술어, 객어, 상황어, 술어는 단순성분이라고 하며 절과 구로 되여있는 규정어절과 주어구는 확대성분이라고 한다.

제 2 절. 술 어

1. 술어의 특성과 표현

술어는 주어의 행동, 상태, 사실 등을 설명하는 말로서 문장에서 가장 핵심으로 되는 기본성분이며 필수성분이다. 다시말하여 술어란 주어에 대해서 그것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등으로 설명하여 서술하는 말을 이른다.

① 미래의 주인들인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한다.
———동사문

② 진달래가 곱게 핀 내 고향의 언덕은 참으로 아름답다.
———형용사문

③ 금강산은 널리 자랑할만 한 세계의 명산이다.
———명사문

④ 어머니는 막내동이 동생이 너무 세차다고 늘 걱정이다.
———동사적명사문

1) 술어의 통합적특성

술어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술어는 이야기내용의 알맹이를 서술한다.

사람들은 말할 때 문장을 통하여 무엇인가 말하려는 이야기내용의 기본 알맹이를 술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있다.

둘째로, 술어는 단어의 서술형을 통하여 문장을 문법적으로 마무리해준다.

술어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서술형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그가운데서도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종결형이다. 우리 말에서 종결형은 시칭, 존칭, 겸양, 법, 식, 계칭 등의 문법적범주를 나타내며 이러한 범주들을 통하여 이야기내용이 현실과 구체적인 련계를 맺게 되고 문법적으로 마무리되여 끝맺어지게 된다.

셋째로, 술어는 문장의 끝자리에 놓이면서 앞에 놓인 다른 모든 문장성분들을 문법적으로 통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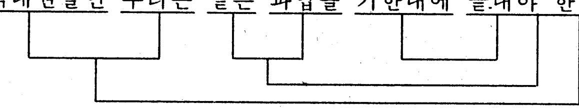
우리 말에서 술어는 그 어떤 문장성분에도 매여있지 않으며 주어를 비롯한 모든 문장성분들을 문법적으로 통솔하고 끝맺음의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내용을 마무리해준다. 이것은 우리 말 문장이 가지는 중요한 구조적특성의 하나이며 우리 말 문장구조가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다는 우수성의 한 측면으로 된다.

이와 같이 술어는 문장에서 구조적핵심을 이루며 문장의 조직적중심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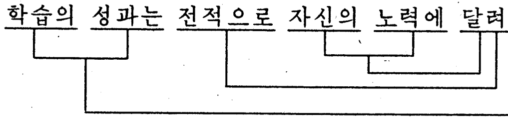
술어는 체언으로 표현되는가 용언으로 표현되는가에 따라 다른 문장성분들의 맞물림관계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으로 된 술어는 주어, 객어, 보어, 상황어와 직접 맞물림관계를 맺으나 규정어와는 다른 문장성분을 거쳐서 간접적으로만 관계를 맺는다.

돌격대원들인 우리는 많은 과업을 기한내에 끝내야 한다. (용언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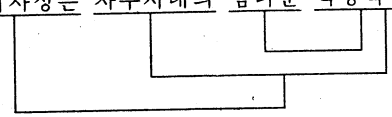


학습의 성과는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용언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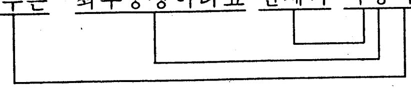
반면에 체언으로 된 술어는 주어, 규정어와는 직접 관계를 맺으나 일반적으로 객어, 보어, 상황어와는 직접 맞물림관계를 맺지 않는다.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이다. (체언술어)



그러나 체언으로 된 술어의 어휘적의미가 행동성을 나타내는 일부 경우에는 보어나 상황어와도 직접 맞물림관계를 맺을수 있다.

영수는 최우등생이라고 언제나 자랑이다. (동사적명사술어)



2) 술어의 표현

술어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표현되거나 체언서술형으로 표현되는것이 전형적이다.

그러나 간혹 술어는 임의의 단어형태를 일정하게 대상화하고 거기에 《이다》를 붙이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 제가 영수의 숙제를 도와주는것은 열한번째 문제까지입니다.
○ 그 일은 정말 땅 짚고 헤염치기입니다.
○ 철호가 이 소설을 보기 시작한것은 아까부터이다.

《하다》나 《이다》를 붙이지 않고 체언만으로 술어를 표현할수도 있다.

○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영예로운 방패.
○ 정부대표단이 어제 도착.
○ 우리 등산대가 금강산의 비로봉을 정복.

이것은 흔히 광고, 신문의 표제나 시적인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하다》나 《이다》가 생략되면 시간관계가 명백하지 않기때문에 오해를 사기가 쉽다.

○ 대표단 로씨야로 출국.

이 경우에 《출국》의 시간이 밝혀져있지 않기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인지 앞으로의 일인지 알수가 없어 오해를 사기가 쉬운것이다.

일부 부사도 대상화되여 체언의 서술토 《이》를 취하여 술어로 되는 경우가 있다.

○ 논판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였다.
○ 너희들은 론쟁문제를 가지고 늘 옥신각신이구나.

술어는 단어의 종결형뿐아니라 접속형으로 표현할수 있으며 절과 같은 확대성분인 경우에는 규정형, 상황형, 용언체언형, 체언서술형으로도 술어를 표현할수 있다.

○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넘어지지요. ———동사접속형

○ 날씨가 나쁜데 굳이 길을 떠나시렵니까? ———형용사접속형
○ 영이는 으뜸가는 예술체조선수이면서도 학업성적도 그렇게 우수하답니다. ———체언서술형의 접속형
○ 철수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온 대학에 파다하게 퍼졌다. ———절에서의 동사규정형
○ 그의 소행이 그처럼 기특하다는 말을 나는 처음 들었어요. ———절에서의 형용사규정형
○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을 활짝 여시오. ———절에서의 동사상황형
○ 철수가 문학에도 뛰여났음이 오늘에야 대학에 알려지게 되였다. ———절에서의 용언대상형
○ 쌀이 희기가 눈과 같습니다. ———절에서의 용언대상형
○ 힘이 장사인 철호가 오늘 씨름경기에서 황소를 탔다. ———절에서의 체언서술형

2. 술어의 개념구조와 선택제약

술어는 같은 품사의 단어라 하더라도 개념구조가 다르면 결합항이 달라질수 있다.

첫째로, 자동사가 술어로 되는 경우에는 본래 한자리술어로서 하나의 결합항을 요구한다.

○ 세월이 변했습니다.
○ 이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나 개념구조가 다르게 되면 보어를 요구할수 있다.

○ 구름이 비로 변한다. × 구름이 변한다.
○ 순희가 유치원에 다닌다. × 순희가 다닌다.

둘째로, 일부 형용사의 경우에도 보어를 요구할수 있다.

○ 이곳 기후가 농사에 적합하다. × 이곳 기후가 적합하다.
○ 나는 그가 무섭다. × 나는 무섭다.
○ 그는 학자가 아니다. × 그는 아니다.

셋째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고있는 중립동사들인 《돌다, 놀다, 불다, 그치다, 움직이다》 등은 한자리술어로도 되고 두자리술어로도 되는데 이것은 동의적인 두개의 동사로도 볼수 있다.

○ ㄱ. 바람이 분다. ——— 자동사
　 ㄴ. 철수가 피리를 분다. ——— 타동사
○ ㄱ. 나무가지가 움직인다. ——— 자동사
　 ㄴ. 영수가 힘껏 나무통을 움직인다. ——— 타동사

넷째로, 같은 타동사도 그 개념구조가 다르면 보어를 요구하여 자리수

를 달리 할수 있다.

○ ㄱ. 영수도 나를 보겠군. ——— 눈으로 보는것.
ㄴ. 영수도 나를 바보로 보겠군. ——— 판단하고 인식하는것.

다섯째로, 체언술어의 경우에도 개념구조에 따라 통합구조가 달리 되는 현상이 있을수 있다.

○ ㄱ. 영수와 철호는 전우이다. ———복수주어의 술어
ㄴ. 영수는 철호의 전우이다. × 영수는 전우이다.

류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찾아볼수 있다.

○ 영수는 순희의 애인이다. × 영수는 애인이다.

이러한 경우에 체언술어는 구로 바꿀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영수는 순희의 애인이다.→○ 순희의 애인인 영수.
○ 영수는 철호의 친구이다.→○ 철호의 친구인 영수.

술어는 그 개념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주어, 객어, 보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술어의 선택자질이라고 한다.

○ 눈을 감는다.
○ 입을 다문다.

《감는다》는 객어로서 《눈을》을 요구하며 《다문다》는 객어로서 《입을》을 요구한다. 이처럼 술어가 어느 한 말과만 어울리고 그밖의 다른 말과는 어울리지 못하는것을 술어의 선택제약이라고 한다.

술어가 이러한 선택제약을 위반하게 되면 비문법적문장 즉 비문이 된다.

× 입을 감다.
× 눈을 다문다.

술어가 심리형용사(좋다, 싫다, 기쁘다, 즐겁다, 부럽다, 징그럽다, 섭섭하다 등)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주어가 말하는 사람자신인 1인칭 《나》나 《우리》로 되여야 한다. 만약에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인 경우이면 이 경우에 비문이 된다.

○ 나는 순희가 좋다. × 너는 순희가 좋다.
○ 나는 뱀이 싫다. × 그는 뱀이 싫다.

그것은 자기의 심리상태는 자기만이 알수 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자기만이 자기의 심리상태를 스스로 살피고 그것을 객관화하여 표현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3. 술어와 보조용언

술어는 하나의 체언이나 용언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전형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립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 ㄱ. 영수가 종이를 찢어버렸다.

——— 《찢는》행동의 완료를 나타냄.
× 영수가 종이를 버렸다, 찢어.
ㄴ. 영수가 종이를 찢어(서) 버렸다.
——— 《찢는》 행동과 《버리는》행동의 결합.
○ 영수가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 영수가 종이를 찢어 버렸다, 쓰레기통에.
○ 영수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종이를 찢어서.

보조적으로 쓰인 용언 《오다, 있다》나 보조용언 《말다, 싶다》의 경우에도 자립용언과 결합하여 하나의 술어를 이루게 된다.

○ 철수는 책을 읽고있다. ——— 《읽는》 행동의 지속.
○ 새날이 밝아온다. ——— 《밝는》 행동의 진행.
○ 영수는 고향에 가고말았다. ——— 《가는》 행동의 완료.
○ 철수는 고향에 가고싶었다. ——— 《가는》 행동에 대한 욕망.

4. 술어의 위치와 생략

술어는 문장의 기본성분으로서 문장의 맨 끝자리에 놓이는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시나 그밖의 경우에 술어를 앞으로 끌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강조의 목적과 관련되여있다.

○ 그럼 동무여 안심하거라
나 또 수많은 동지들이
굴치 않는 동무의 뜻을 이어
용감히 싸워간다는것을
(박세영, 《천변의 병원》)

○ 우리는 아침달리기를 좋아한다.
→ 우리는 좋아한다, 아침달리기를.
→ 좋아한다, 우리는 아침달리기를.

술어는 문장의 기본성분이기때문에 생략할수 없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러개 문장이 이어져서 하나의 커다란 문장을 이루는 경우에 같은 술어가 반복되여 쓰이게 되면 반복되는 술어를 생략할수 있다.

○ 영수는 공업대학에서 공부하며 영희는 의학대학에서 공부한다.
→ 영수는 공업대학에서, 영희는 의학대학에서 공부한다.

또한 문맥에 따라서 술어를 복원할수 있을 때에도 술어를 생략할수 있다.

○ ㄱ. 그는 어제 거리에서 순희를 만났다.
ㄴ. 나도.
○ ㄱ. 영수가 지금쯤 어디에 가있을가?
ㄴ. 평양에.

이 경우에 술어가 없는것은 그 생략된 술어가 각각 ㄱ로부터 복원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문장론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문장론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게 되는것은 술어가 언제나 뒤자리에 놓인다는 점이다. 술어의 위치가 맨 뒤자리에 놓이는것은 그것이 그앞에 놓여있는 다른 모든 문장성분들을 문법적으로 통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제 3 절. 주 어

1. 문법상 주어와 의미상 주어

주어는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문장에서 《무엇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 살구꽃이 아름답게 피였다.
○ 봄날이 날씨는 따뜻하다.
○ 영수가 이름난 축구선수이다.

주어는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 상태, 사실의 주체를 표현하는 필수성분이다.

문장구성에서 문법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는 일치할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① 철수가 옥이에게 책을 주었다.
② 철수가 옥이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③ 철수가 옥이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 3개 문장은 구조상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수 있다.

ㄱ1이	ㄱ2에게	ㄱ3을	주었다.

이 경우에 ㄱ1, ㄱ2는 활동체명사이며 ㄱ3은 구체(추상)명사이다.

①의 경우에 ㄱ1은 문법상 주어이며 의미상으로도 주어로 된다.

②의 경우에 ㄱ1은 문법상 주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주어로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빌리는》 행동의 주체는 ㄱ2로 되기때문이다.

③의 경우에도 ㄱ1은 문법상 주어로 되지만 의미상 주어가 아니다. 그것은 이 문장에서 의미상으로 《걱정한》 행동의 주체는 ㄱ2로 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에서 문법상 주어라고 해서 곧 의미상으로도 주어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2. 주어의 특성과 표현

1) 주어의 통합적특성

첫째로, 주어는 진술의 출발점을 나타낸다. 다시말해서 주어는 술어로써 표현된 진술내용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는 대상 즉 문법적주체를 나타낸 필수성분이다.

둘째로, 주어는 술어에 대하여 종속적인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진술내용의 주체적측면을 보충해준다. 즉 문장의 필수적인 보충성분으로서 술어의 제1결합항으로 된다.

셋째로, 주어는 문장구조속에서 언제나 술어의 앞에 놓임으로써 술어에 대한 그의 종속적관계를 위치상으로 표시한다.

국어에서 종속되는것과 종속시키는것과의 배렬순서는 자립단어들의 통합의 경우에는 언제나 지배적인것이 뒤에 놓이는것이 원칙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주어와 술어의 경우에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영어나 로어의 경우에는 주어가 문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술어를 지배하는 문장의 구조적중심으로 되며 술어는 인칭, 수, 성 등 형태상으로 주어의 지배를 받으면서 구조-문법적으로 주어에 종속되여있다.

그러나 국어에서 주어와 술어의 호상관계는 영어와 로어의 경우와 다르다. 국어에서 술어는 구조-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도성분으로서 문장의 끝자리에 놓이며 주어까지 포함한 다른 성분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항구적인 주도성분으로 된다.

국어에서 주어는 영어나 로어의 경우와는 달라 문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술어를 지배하지 않는다. 즉 주어의 인칭, 수와는 무관계하게 술어가 사용되며 주어와 술어의 관계는 외국어처럼 밀접하지 않은것이다.

○ 나는 학교에 간다. /우리는 학교에 간다. /그들은 학교에 간다.

영어나 로어의 경우에는 주어의 인칭, 수에 따라서 술어가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우에서 든 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어의 경우에는 술어의 형태가 주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정한데 이것은 국어의 통합구조상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된다.

2) 주어의 표현

주어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등 체언에 의하여 표현되며 용언 대상형이나 기타 대상화된 의미로 쓰이는 임의의 문장론적단위에 의해서도 표현될수 있다.

주어표현의 형태적표식으로는 여러가지 토들이 쓰일수 있다.

① 주격토에 의한 주어의 표현

○ 40층 고층건물이 하늘높이 솟아있다. =명사주어

○ 제가 이 소식을 선생님께 전하지요. =대명사주어

○ 101이 110보다 작다. =수사주어

단어만이 아니라 구나 절도 주격토가 붙어서 주어로 될수 있다.

○ 해방전에는 보리고개를 넘기기가 큰 야단이였지요. =명사구

○ 누가 어제 이 말을 했는가가 여기서 이야기되고있습니다. =명사절

그러나 주격토가 강조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주어가 아니다.

○ 사과가 먹고싶다. ——— 《사과를》의 강조

○ 영수가 보고싶었어요. ——— 《영수를》의 강조

② 제시격토에 의한 주어의 표현

○ 조선은 주체사상의 조국이다.

○ 백두산은 조선민족의 기상을 상징하고있다.

《는, 은》은 제시적기능이 있기때문에 절의 주어에는 붙일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격토를 붙여야 한다.

× 작업반원들은 밤은 깊도록 건설장을 떠나지 않았다. →

○ 작업반원들은 밤이 깊도록 건설장을 떠나지 않았다.

× 우리는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었다. →

○ 우리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었다.

③ 위격토에 의한 주어의 표현

○ 우리 작업반에서 그 기계를 만들었다.

○ 문학대학에서 이번에도 우승기를 쟁취하였다.

집단을 나타낼 때 주격토대신에 위격토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대체로 비활동체명사의 경우에 국한되며 만약에 이것을 활동체명사에 적용하게 되면 비문법적문장 즉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우리 가족에서 오늘 기차로 고향에 갔다. →

○ 우리 가족이 오늘 기차로 고향에 갔다.

× 3학년 학급에서 공부를 잘한다. →

○ 3학년 학급이 공부를 잘한다.

④ 도움토 《는, 은, 란, 이란, 도, 조차, 마저, 부터, 까지》 등에 의한 주어의 표현

○ 너부터 모범을 보이려무나.

○ 영수도 오늘 금강산으로 떠났다.

⑤ 아무런 토의 첨가가 없는 주어의 표현

○ 너 어디 가니?

○ 철수 다시한번 총을 굳게 잡는다.

아무런 토도 붙이지 않는것은 문맥상으로 그것이 주어라는것이 분명하여 언어표현에서 지장이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한 격토를 붙여서 구

별하여야 한다.

○ 그 학생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 그 학생이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 《학생》이 행동의 주체

→ 그 학생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 《학생》이 행동의 간접객체

3. 주어의 중첩문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에는 술어에 대응하는 주어가 하나 있는것이지만 국어문장에는 주어가 둘 또는 그 이상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① 선생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시다.

② 물통이 구멍이 셋이 났다.

주어의 중첩은 사실상 주어의 층계가 다른것과 관련되여있다.

①에서 《선생님》은 주어이며 《마음》은 술어절인 《마음이 너그러우시다》의 주어이다. 그런데 《선생님》을 규정어로 바꾸게 되면 《선생님의 마음이 너그러우시다》로 되여 주어의 중첩은 해소되고만다.

②에서는 《물통》이 주어이고 《구멍》은 술어절의 주어이며 또 《셋》은 그속의 절의 주어이다. 그러니 3중주어문장으로 된다. 그러나 《물통이》를 《물통에》로 바꾸게 되면 2중주어문장으로 될것이다.

2중주어문장은 서로 다른 층계의 주어들로 이루어진것으로서 국어통합구조의 단계적성격을 반영하고있다.

그런데 중첩된 주어가 술어와 맺는 통합적층위는 서로 다른것으로서 그 자리를 바꾸게 되면 비문이 된다.

③ 노루는 꼬리가 짧다. ——— 소유관계

× 꼬리가 노루는 짧다.

④ 물고기는 잉어가 좋다. ——— 류종관계

× 잉어가 물고기는 좋다.

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 부정의 대상

× 물고기가 고래는 아니다.

⑥ 사람이 열이 왔다. ——— 수량관계

× 열이 사람이 왔다.

4. 주어의 생략

주어는 필수성분이지만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주어의 제시가 없어도 그 문장의 주어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수 있다.

① 병사들은 말없이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안개 자욱한 벌판

으로 행적을 감추어버렸다.

①의 경우에는 둘째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여있다. 그것은 이 문장의 주어는 《병사들은》이라는것이 명백하기때문에 생략한것인데 만약 생략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어색한 문장이 되고말것이다.

○ 병사들은 말없이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병사들은 안개자욱한 벌판으로 행적을 감추어버렸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거나 주고받는 말인 경우에도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② ㄱ. 철수가 어디 갔나요?
ㄴ. 학교에 갔어요.

③ ㄱ. 난 학교에 가는 길에 영수를 만났어요.
ㄴ. 그래 너를 알아보더냐?

②의 경우에 ㄴ의 주어 《철수는》은 주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것이며 ③의 경우에는 ㄴ의 주어가 《영수가》임이 명백하기때문에 생략한것이다.

물음에 대한 대답의 경우에 판정의문문일 때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

④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갔었니? ——— 판정의문문
○ 네, 갔어요.

이 경우에 주어를 다시 반복하는것은 어색한 표현일수 있으나 강조를 위해서 반복할수도 있다.

○ 네, 철수가 갔었어요.

그러나 설명의문문에서는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주어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⑤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 설명의문문
× 네, 있었습니다.→
○ 네, 졸업시험이 있었습니다.

제 4 절. 객어와 보어

1. 객 어

객어는 타동사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의 직접객체를 표현하는 필수성분이다. 즉 술어의 제2결합항이다.

객어는 체언이나 체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말에 대격토가 붙어서 표현된다.

① 나는 언제나 도서관에서 신간잡지를 열람한다.
② 영아는 무지개가 도저히 잡히지 않는것임을 비로소 알았다.
③ 기술강습이 언제 시작되느냐를 전화로 알아보아라.

이 경우에 대격토를 다른 토로 바꾸게 되면 비문이 된다.

①' × 나는 언제나 도서관에서 신간잡지가 〈에, 으로〉 열람한다.
②' × 영아는 무지개가 도저히 잡히지 않는것임이 〈에, 으로〉 비로소 알았다.
③' × 기술강습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에, 으로〉 전화로 알아보아라.

만약 대격토로 된것을 다른 토로 바꿀수 있다면 그것은 객어가 아니다.

이 경우에 대격토를 취한것은 단지 강조를 위한것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비록 대격토를 취하였지만 그것은 보어로 되는것이다.

④ 철수가 영희를 선물을 주었다.
=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⑤ 철수가 옥이를 안해를 삼았다.
= 철수가 옥이를 안해로 삼았다.

객어는 타동사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것인데 타동사의 개념구조에 따라 객어가 대격토를 취하는데는 일정한 선택제약이 있을수 있다.

⑥ ㄱ. 철수가 전차를 탔다.
ㄴ. 철수가 전차에 탔다.

⑥에서 ㄱ는 타동사 《타는》 행동이 여러 대상가운데서 바로 그 대상에 미치고있음을 강조하고있어 대격토를 취한 객어를 가진것이며 ㄴ는 《타는》 행동의 장소를 가리키는것이기때문에 여격토를 취한 보어를 가지게 되였다.

⑦ ㄱ. 철수가 전차의 앞좌석에 탔다.
ㄴ. × 철수가 전차의 앞좌석을 탔다.

⑦에서 보는것처럼 《타는》의 행동이 대상의 한 부분에만 미칠 때에 ㄴ처럼 대격토를 취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또한 《만나다》는 타동사로서 일반적으로 명사대격의 객어를 취할수 있으나 만약에 대등한 관계로 만난것이라면 구격형태의 보어를 취하는것이 좋다.

⑧ ㄱ. 너 또 순희를 만났니?
ㄴ. 너 또 순희와 만났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격토를 취해야지 구격토를 취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승냥이와는 대등한 관계로 만난것이 아니기때문이다.

⑨ ㄱ. 예전에는 이 숲속에서 승냥이를 만나서 혼이 났었다.
ㄴ × 예전에는 이 숲속에서 승냥이와 만나서 혼이 났었다.

이것은 명사의 대격과 여격, 위격, 구격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선택에서 제약이 있게 되는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객어는 술어의 바로 앞에 오는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어나 상황어가 끼우는 경우가 있다.

우선 타동사술어의 개념구조와 관련하여 보어가 술어의 가까이에 올수

있다.

⑩ 철수는 옥이를 수재로 생각했었다.

다음으로 상황어가 객어와 술어사이에 끼여들어갈수 있다.

⑪ 옥이는 글씨를 잘 쓴다.

이 경우에 상황어가 없으면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고말기때문에 상황어는 필수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다.

객어는 주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첩되여 나타날수 있다.

⑫ 철수는 기관단총으로 목표판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⑬ 너는 외투를 너무 작은것을 샀구나.

⑭ 동생이 귤을 두개를 먹었다.

⑫의 경우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 ⑬의 경우는 종류, ⑭의 경우는 수량을 나타내고있다. 그리하여 ⑫의 《목표판을 한가운데를》은 《목표판의 한가운데를》로 바꿀수 있으며 ⑬의 《외투를 너무 작은것을》은 《너무 작은 외투를》로, ⑭의 《귤을 두개를》은 《귤 두개를》로 바꿀수 있다.

객어의 중첩도 역시 주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자리바꿈을 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⑫' × 철수는 기관단총으로 한가운데를 목표판을 맞혔다.

⑬' × 너는 너무 작은것을 외투를 샀구나.

⑭' × 동생이 두개를 귤을 먹었다.

그리하여 이 객어중첩현상은 주어의 중첩현상과 류사한 점이 있다고 할수 있다.

객어는 문장의 필수성분이기때문에 생략하지 않는것이 정상인데 만약에 객어를 생략하게 되면 비정상적인것으로 된다.

× 우리는 밤새껏 (?을) 읽었다.

× 철수가 도서관에 (?을) 보내주었다.

이 경우에 객어가 생략되여있기때문에 비문으로 되였다. 앞뒤문맥에 의하여 무엇이 객어인지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객어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2. 보 어

보어는 술어가 요구하는 결합항가운데서 주어, 객어 다음가는 필수성분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술어로 된 용언의 기능구조를 충족시키는 성분가운데서 주어나 객어를 제외한 나머지 보충적대상으로서 행동이나 상태와 관련되는 일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필수성분이다. 즉 술어의 제3결합항이다.

보어는 체언 또는 용언대상형에 다양한 격토가 붙어서 표현된다.

①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였구나.

② 옥이가 철이에게 책을 주었다.

③ 고향에는 내가 혼자 가고 집에 어머니가 홀로 남으셨습니다.

④ 철수의 일솜씨는 여느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위한 정성으로 가득차있음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⑥ 철수는 묘향산에 함께 가기로 순이와 굳게 약속하였다.

보어는 체언과 결합한 후치적인 보조동사의 접속형에 의해서도 표현될수 있다.

⑦ 우리는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힘껏 공부하고있습니다.

⑧ 어제밤 모임에서는 학과론문의 집필에 대하여 진지하게 론의하였다.

또한 보어는 인용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접속형에 의해서도 표현될수 있다.

⑨ 옥이는 철이를 세상에 다시 없는 수재라고 칭찬하였다.

⑩ 철수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동무들에게 다짐하였다.

보어는 규정어의 피규정어로 되는데서 객어에 비하여 제약이 많다. 즉 객어는 문장을 변형하는 경우에 구조의 변화없이 그자체가 피규정어로 될수 있으나 보어의 경우에는 구조의 변화가 없이 그것을 그대로 피규정어로 만들수 없으며 그렇게 하자면 일정한 변형이 요구된다.

⑪ 철수도 영화 《림꺽정》을 이미 보았다.(객어)

→ 철수도 이미 본 영화 《림꺽정》.(피규정어)

⑫ 영희가 철이의 외국어학습을 힘껏 도와준다.(객어)

→ 영희가 힘껏 도와준 철이의 외국어학습.(피규정어)

⑬ 역전광장이 대학생들로 붐비고있다.(보어)

→ × 역전광장이 붐비고있는 대학생들.

→ 역전광장에 붐비고있는 대학생들.

⑭ 표범이 호랑이와 비슷하다.(보어)

→ × 표범이 비슷한 호랑이.

→ 표범과 비슷한 호랑이.

⑬과 ⑭의 경우에 일정한 구조변화가 없이는 보어를 피규정어로 만들수 없으며 오히려 주어를 피규정어로 할수 있다.

⑬' 대학생들로 붐비는 역전광장.

⑭' 호랑이와 비슷한 표범.

보어는 본래 필수성분이지만 수의적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다.

⑮ ㄱ.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공연을 시작하였다.

ㄴ. 공격수가 넘어온 공을 힘껏 발로 차서 꼴문에 넣었다.

이 경우에 《자리에》, 《발로》는 없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용언술어의 개념구조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보충어가 숨겨져있는것을 수의적보충어라고 한다. 다시말해서 《앉는》 행동의 귀착점은 응당 《자리》이기때문에 그것이 숨겨져도 되는것이고 그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것인데 그것을 밝히면 오히려 잉여요소로 인정될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차는》 행동을 하는것은 응당 《발》이기때문에 그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것인데 그것을 밝히면 오히려 잉여요소로 간주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보어는 수의적성격을 띠게 된다고 할수 있다.

⑮' ㄱ. 사람들이 모두 앉자 공연을 시작하였다.

ㄴ. 공격수가 넘어온 공을 힘껏 차서 꼴문에 넣었다.

보어가 수의적인 경우와 보어가 생략되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① ㄱ. 순희가 요새도 대학에 나가는지 모르겠다.

ㄴ. 아마 요새도 나갈거야.

② ㄱ. 그렇게 강습을 일찌기 시작하면 강습에 늦는 사람이 있겠다.

ㄴ. 그렇게 강습을 일찌기 시작하면 늦는 사람이 있겠다.

①의 경우는 선행문장에 이미 나온것이기때문에 그 대답에서 《대학에》를 생략한것이며 ②의 경우는 한 문장안에서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강습에》를 생략한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수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는것으로서 생략문이라고 할수 있다.

제 5 절. 상황어와 규정어

수의성분에는 수식성분인 상황어, 규정어와 독립성분이 포함된다.

수식성분과 독립성분은 문장의 기본성분인 술어와의 련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별되는데 수식성분은 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수도 있으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질수도 있다. 그러나 독립성분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1. 상 황 어

상황어란 술어에서 표현된 행동, 상태, 표식의 양상을 꾸미여주는 수식성분의 하나로서 성분상황어와 문장상황어가 있다.

1) 성분상황어

성분상황어는 문장의 주도성분인 술어의 의미를 수식하는것이 기본기능으로 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언술어의 앞에 온다.

성분상황어는 술어에 덧붙어서 그 의미를 꾸며주는 수식성분이며 수의성분이다.

① 오늘은 날씨가 몹시 차다.

상황어 《몹시》는 술어 《차다》의 의미를 수식하는 부가성분으로서 그것이 없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①' 오늘은 날씨가 차다.

성분상황어는 동사, 형용사로 된 술어를 수식하는것이 기본이지만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② 조국의 부름을 따라 과학탐구의 길로 더 빨리 달려나가자.

③ 철수는 계획보다도 훨씬 많이 일을 하였다.

②의 경우에는 《더》가 부사 《빨리》를 수식하고있으며 ③의 경우에는 《훨씬》이 부사 《많이》를 수식하고있는데 《더 빨리》와 《훨씬 많이》는 부사구로 된 성분상황어이다.

성분상황어가운데는 특수하게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④ 그 많은 일을 다만 둘이서 감당할수 있겠니?

⑤ 오늘 시험에서는 겨우 세 사람이 합격되였다.

⑥ 바로 이웃이 영희네집이다.

⑦ 그는 무척 구두쇠였다.

④의 경우에는 부사가 수사 《둘》을, ⑤의 경우에는 부사가 《세 사람》을 수식하고있으며 ⑥, ⑦의 경우에는 부사가 명사 《이웃》, 《구두쇠》를 수식하고있다.

이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는 수량, 위치, 정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것들이 체언을 수식하고있는 점에서는 규정어라고도 할수 있으나 이 부사들의 기본기능이 본래 상황어적이라는 점에서 상황어로 처리하지만 이것은 극히 례외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상황어의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로, 부사는 모두가 상황어로 된다.

① 고향에 대한 사랑을 고이 간직하리라.

② 영웅의 고지에 깃든 용사들의 위훈은 길이 전해질것이다.

《고이》는 《곱다》에서, 《길이》는 《길다》에서 파생한 부사로서 일단 파생된 다음에는 품사론적으로 형용사와 결별하고 의미적으로도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게 되면서 문장론적으로 항상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였다.

둘째로, 《같이, 없이, 달리》 등 부사가 마치 술어처럼 쓰이면서 구를 이루어 그것이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③ 순희가 그날 누구와 같이 있었소?

④ 정찰병들은 발자국소리도 없이 적진으로 접근해갔다.

⑤ 철수는 약속과 달리 그날 고향으로 떠나지 않았다.

부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술어로 될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통합구조는 절이 아니라 구로 되면서 상황구로 되는것이다.

셋째로, 용언의 상황형이 상황어로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구나 절의 술어로 되면서 상황절을 이룬다.

⑥ 그새 너는 몰라보게 자랐구나.

⑦ 순희는 오늘따라 밤이 지새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⑧ 옥이의 피아노솜씨는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구나.

넷째로, 불완전명사가 용언의 규정형과 함께 상황어로 될수 있다.

⑨ 농장원들은 벼를 베는족족 단을 묶어나갔다.

⑩ 강 건너 마을은 손에 잡힐듯이 가까이 보였다.

⑪ 당신은 여기에 아는대로 쓰시오.

다섯째로, 《-적》명사의 원형과 그 조격형태가 상황어로 될수 있다.

⑫ 여기 기후는 비교적 서늘합니다.

⑬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을 열성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2) 문장상황어

문장상황어는 문장전체를 수식하는것으로서 양태상황어 또는 양태어라고도 한다. 이 상황어는 진술내용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립장 즉 양태성을 나타내는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다.

① 확실히 철수는 대학에서 소문난 수재이다.

② 설마 그가 그런 거짓말이야 하겠니?

③ 마땅히 우리 청년들이 이 일에서 앞장에 서야 하지요.

④ 부디 건강하여 성과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⑤ 만일 원쑤들이 조국강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우리는 단매에 쓸어눕히고야말것입니다.

문장상황어는 구조상으로 술어에 련결되지만 그 의미내용에 있어서는 문장전체와 관계를 맺는다.

문장상황어로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을수 있다.

• 의무성을 나타내는 《마땅히, 응당, 반드시, 기어이》
• 소원을 나타내는 《부디, 제발, 아무쪼록》
• 추측을 나타내는 《아마》
• 의혹을 나타내는 《설마, 혹시, 글쎄》
• 가정을 나타내는 《만일, 만약》
• 양보를 나타내는 《설사, 비록, 아무리》
• 부정을 나타내는 《결코, 도저히, 절대로, 좀체로》

3) 상황어의 위치, 중첩, 생략

상황어는 피상황어의 바로 앞에 오는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같은 수식성분이라고 하여도 규정어에 비해서 상황어는 자리옮김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 있다.

① ㄱ. 어머님께서는 옥이를 무척 사랑하시였다.
ㄴ. 어머님께서는 무척 옥이를 사랑하시였다.
ㄷ 어머님께서는 옥이를 사랑하시였다, 무척.

② ㄱ. 다행히도 철수가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ㄴ. 철수가 다행히도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ㄷ. 철수가 입학시험에 다행히도 합격하였다.
ㄹ. 철수가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다행히도.

①은 성분상황어의 경우이고 ②는 문장상황어의 경우인데 자리옮김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자유롭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문장상황어가 다른 문장성분과의 문장론적련관관계가 성분상황어보다 밀접하지 않은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한편 부정부사 《아니, 못》 그리고 성분부사 《잘, 좀》과 같은것은 자리옮김을 할수가 없다.

③ 철수는 병이 나서 밥을 못 먹는다.

④ 옥이는 철수에게 책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부사가 중첩되여 쓰이는 경우에는 그중의 하나가 다른 부사를 꾸미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 술어를 꾸미는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⑤ 그는 직장에서 일을 아주 많이 제꼈다고 자랑하였다.

⑥ 초원에서 사자가 줄말에게 소리없이 살금살금 다가가고있다.

⑤의 경우에는 《아주》가 《많이》를 꾸미고있는 반면에 ⑥의 경우에는 《소리없이》와 《살금살금》이 각각 술어를 꾸미고있다. 따라서 《아주 많이》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자리바꿈을 할수 없으나 《소리없이》와 《살금살금》은 자리바꿈을 하여도 의미전달에 지장이 없다고 할수 있다.

또한 일부 경우에 상황어가 필수성분의 기능을 노는 일이 있다.

⑦ 너도 그 일을 헐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⑧ 참, 그 녀석이 잘 생겼군.

이 경우에 상황어가 없으면 비문이 된다.

⑦' × 너도 그 일을 여기지 말아야 한다.

⑧' × 참, 그 녀석이 생겼군.

2. 규정어

규정어는 주어, 객어, 보어, 체언술어 앞에서 그것을 특징짓거나 꾸며주는 수식성분이며 수의성분이다.

① 푸른 고향하늘에 흰 두루미떼가 날아간다.

② 전쟁에서 승리한 석개울사람들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이 고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농촌을 일떠세웠다.

①의 경우에는 《푸른》, 《흰》과 같은 형용사규정형, ②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고장에서 가장 아름다운》과 같은 형용사구, 《온갖》과 같은 관형사로 규정어를 표현하고있다.

규정어는 기본성분들인 술어와 직접 련계를 맺지 못하고 피규정어를 거쳐 간접적으로 련계를 맺기때문에 2차성분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문장에서 규정어는 어떤 경우에든 피규정어에 대한 수식의 기능만 수행하며 술어

와 맺는 련계의 성격은 피규정어에 의해서 좌우되는것이다.

규정어를 수의성분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없어도 문장구성이 되기때문이다. 즉 ①, ②에서 해당한 규정어가 없어도 문장의 구성에서는 지장이 없는것이다.

①' 고향하늘에 두루미떼가 날아간다.

②' 석개울사람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문화농촌을 일떠세웠다.

그러나 불완전명사의 경우에는 그앞에 반드시 규정적인 말이 와야 한다.

③ 빨간것이 파란것보다 곱다.

× 것이 것보다 곱다.

④ 나는 그를 만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나는 그를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처럼 규정적인 말이 없으면 비문이 되는데 이 경우에 불완전명사는 규정적인 말과 한덩어리가 되여 하나의 문장성분단위가 되기때문이다.

규정어는 체언의 절대격이나 대상화된 단어의 속격형태 또는 체언서술형에 규정토가 붙어서도 표현될수 있다.

⑤ 오늘 퇴근길에서 우연히 고향 송아지동무를 만났다.

⑥ 전투영웅의 수기는 자라나는 새 세대의 교과서이다.

⑦ 그것은 단순히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⑧ 학급장인 순희는 언제나 언행에서 신중하였다.

규정어는 단독으로 쓰일수 없으며 반드시 그것이 꾸며주는 체언앞에서만 쓰이며 자리바꿈을 할수 없다. 이 점에서 위치적으로 제약을 받는데 그것은 같은 수식성분인 상황어와 다른 점이다.

⑨ 이번 입학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상황어

⑨' 이번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⑩ 붉은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였다. ---규정어

⑩' × 장미꽃이 붉은 아름답게 피였다.

×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였다, 붉은.

규정어는 여러개가 겹쳐 쓰일수 있는데 일정한 순서를 어기면 비문이 된다.

⑪ 이 두 새 집이 이번에 너의 형제가 들어갈 문화주택이다.

⑪' × 두 이 새 집이 이번에 너의 형제가 들어갈 문화주택이다.

× 새 이 두 집이 이번에 너의 형제가 들어갈 문화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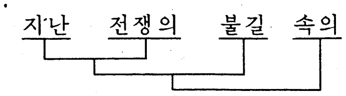
이렇게 겹칠 때에는 일반적으로 《지시대명사, 수사, 관형사》의 순서로 하는것이 순탄한것으로 되여있다.

규정어구는 서로 다른 계층관계로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

⑫ 지난 전쟁의 불길속의 영웅들처럼 그는 언제나 용감하였다.

이 경우에 규정어구인 《지난 전쟁의 불길속의》는 규정어가 몇겹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계층관계를 맺고있다.



제 6 절.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문장에 단독으로 출현하거나 덧붙는 수의성분이다.

문장의 보충성분이나 수식성분이 문장의 구조적중심으로 되는 기본성분인 술어에 직접, 간접으로 긴밀히 련결되는것과는 달리 독립성분은 련계를 맺는 술어가 없거나 있어도 그 련계가 긴밀하지 못한 점을 주요특징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조에 반영되여 독립성분은 일정한 끊기에 의해서 구획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 옥이야, 저 하늘에 떠있는것이 무어지?

○ 아유, 이렇게 캄캄하다구야.

○ 내가 혼자 걸어가는데 아니나다를가, 옥이 어머니가 마중나오질 않겠소?

○ 그러나 이날은 아침부터 바람이 일어서 배가 멀리 나가지 못하였던것이다.

○ 조국 —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독립성분의 표현수단은 그 갈래에 따라 각이하다.

1. 호 칭 어

호칭어란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것을 바라고 부르는데 쓰이는것으로서 그 기본기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듣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그 어조는 남을 부르는 형식을 띠게 된다.

호칭어로서는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칭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명사의 절대격 또는 호격형태로 표현하며 간혹 규정어와 함께 전개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 조국이여, 수천리 타향에서 그 얼마나 부르고싶었던 이름이였던가!

○ 번열된 인류의 마음에
새힘을 보내는 새벽이여
차츰차츰
이 땅에 드는구나

짓밟힌 령혼우에(김창술, 《새벽》)

○ 세기를 주름잡으며 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투사들이여! 당신들에게 새해의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자리에 놓이며 호칭어 다음에는 흔히 반점 또는 감탄표를 찍는다.

2. 감동어

감동어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사물현상에 대한 평가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것으로서 감동사나 일정한 감정적색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한다.

○ 아, 당신이 정말 항일유격대란 말입니까?

○ 아무렴,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

감동어로는 자기의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고있는 《옳다》, 《아니다》 등이 사용될수 있다.

○ 옳거니,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배기 농사꾼이지.

○ 아니요, 그런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요.

감동어는 보다 강한 감정적충동을 받은 경우에 흥분된 감정을 반복의 수법으로 나타낼수 있다.

○ 자, 자, 빨리 일손을 다그쳐 끝내자요.

○ 아유, 참, 이렇게 성화를 먹인다구야.

감동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자리에 놓이며 입말에서 강한 느낌의 어조로 발음되고 글말에서는 반점을 찍어 구별한다.

3. 삽입어

삽입어란 문장에서 이야기된 내용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진술된 사상의 출처 또는 추가적설명을 위해 문장에 보충적으로 끼워놓는것으로서 관용구나 격언, 설명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옥이는 우리끼리 말이지만 정말 수재란 말이요.

○ 작업반장이라고 하지만 그의 나이는 짐작컨대 이제 겨우 스무살을 넘었을따름이였다.

○ 다 아는바와 같이 산간지대인 우리 농장에서는 산을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 우물안의 개구리라더니 너는 너무도 시야가 좁구나.

○ 《요창 부요밍(총을 바치면 목숨을 살려준다)!》하고 웨치는 유격대원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삽입어는 입말에서 앞뒤에 약간의 끊기가 오며 그 어조는 약간 낮게 발음한다. 글말에서는 필요에 따라 반점을 치거나 묶음표안에 넣는다.

4. 접속어

접속어란 진술된 사상의 순차성이나 호상련관을 나타내는것으로서 흔히 접속부사나 용언의 접속형, 명사의 조격형태, 관용구 등으로 표현한다.

○ 사상전은 또한 사상분야에서의 집중공세이며 섬멸전이다.

○ 순희가 먼저 떠나고 그리고 옥희가 그뒤를 따랐다.

○ 다음으로 우리 작업반에서는 양어까지 하자는것입니다.

○ 그뿐만아니라 우리 농장은 위생문화사업에서도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례컨대 오늘의 학습경연이 바로 철이의 학과실력을 과시하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 제시어

제시어란 진술내용의 강조를 위해 문장의 첫머리에 미리 보이는것으로서 반드시 자기의 대리성분을 가지는데 그것은 술어와 구조적으로 련관관계를 맺고있다. 이 점에서 제시어는 다른 독립성분과 구별되는데 주어, 객어, 보어, 규정어 등을 제시할수 있다.

○ 조국—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삶의 영원한 터전이다. (주어의 제시)

○ 고향—고향을 버리고 너는 어디로 간단 말이냐? (객어의 제시)

○ **김일성**종합대학—여기서 얼마나 많은 혁명인재들이 자라났던가! (보어의 제시)

제시어는 간혹 확대된 구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그대를 위하여 우리는 목숨 바쳐 싸웠노라.

○ 내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 거기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가지가지의 추억이 스며있다.

제시어는 문장의 앞자리에 오는데 입말에서는 짧은 끊기가 오며 글말에서는 그것을 반점이나 이음표로 구분한다.

제 7 절. 동종의 문장성분과 동격어, 총괄어

1. 동종의 문장성분과 그 갈래

한 문장안에서 하나의 술어에 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주어, 객어, 보어, 상황어가 올수 있으며 한편 동일한 하나의 주어에 대하여 여러개의 술어가 오든가 하나의 피규정어에 대하여 여러개의 규정어가 올수 있다.

○ 공장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혁신의 불길이 일어나고있다.

○ 우리는 저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은 과학자로, 예술가로, 체육인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 우리 민족은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겨레이다, 형제이다.

이와 같이 한 문장안에서 어느 한 성분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종류의 성분적기능을 수행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성분들을 동종의 문장성분이라고 한다.

1) 동종의 술어

동종의 술어란 한 문장안에서 하나의 주어에 대하여 동종의 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술어를 말한다.

○ 그가 특류영예군인인 남편에게 바친 사랑은 동지애의 전형이다, 거울이다.

만약에 나란히 놓인 두개의 술어가 동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앞의 술어가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접속술어로 인정된다.

○ 그가 특류영예군인인 남편에게 바친 사랑은 동지애의 전형이며 거울이다.

2) 동종의 주어

동종의 주어란 한 문장안에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술어와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주어를 말한다.

① 길가에는 버드나무가, 아카시아나무가 사람들의 키를 넘게 자라고있었다.

② 그 집에는 유격대에 보낼 식량이, 솜옷이, 신발이 가득히 마련되여있었다.

동종의 주어는 구격토로 련결시키여 구로 확대시킬수도 있다.

①' 길가에는 버드나무와 아카시아나무가 사람들의 키를 넘게 자라고있었다.

②' 그 집에는 유격대에 보낼 식량과 솜옷과 신발이 가득히 마련되여있었다.

이러한 변형은 다른 문장성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3) 동종의 객어

동종의 객어란 한 문장안에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술어와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객어를 말한다.

○ 방송망은 전국의 도시를, 농촌을, 어촌을 그물처럼 련결시키고있다.

○ 우리는 실험실에 새로 시약을, 실험기구를 그쯘히 갖추어놓았다.

4) 동종의 보어

동종의 보어란 한 문장안에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술어와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보어를 말한다.

○ 마을의 산기슭에, 산등성이에 온통 잣나무를 심었다.

○ 분이는 노래로, 춤으로 온 마을에서 이름을 떨치였다.

5) 동종의 상황어

동종의 상황어란 문장안에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술어와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황어를 말한다.

○ 아동단원들은 적들을 교묘하게, 재치있게 따돌렸다.

○ 동무는 공을 정확히, 신속히 공격수에게 넘기시오.

6) 동종의 규정어

동종의 규정어란 문장안에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피규정어와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규정어를 말한다.

○ 순간 그는 긴장된, 놀란 얼굴로 소대장을 바라보았다.

○ 철썩이는, 푸른 저기 저 바다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청년들이 진출하였다.

2. 동 격 어

동격어란 의미상 대등한 자격을 가지면서 규정어와 피규정어의 결합을 이루고있는 단어들이 나란히 있는것을 가리켜 말한다.

전형적인 동격어로는 칭호, 직업명과 인명, 제품명이나 출판물의 이름과 같은것이 병렬적으로 결합된것을 들수 있다.

○ 영웅 리수복

○ 기사 김상규

○ 담배 《고향》

○ 잡지 《근로자》

이 경우에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 동격어들이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전환된다.

○ 리수복영웅
○ 김상규기사
○ 《고향》담배
○ 《근로자》잡지
○ 《청년전위》신문

3. 총괄어

총괄어란 동종의 문장성분들을 다시 묶어놓은 성분을 말한다. 따라서 총괄어는 동종의 문장성분에 대한 류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많은 경우에 《모든》, 《전》, 《여러》, 《온갖》, 《제반》, 《매》 등 관형사나 《모두》와 함께 쓰인다.

○ 그 집에는 유격대에 보낼 식량, 솜옷, 신발 등 온갖것이 가득히 마련되여있었다.
○ 오늘의 위대한 현실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예술인 모두의 사상생활에서 큰 전변을 가져왔다.

총괄어는 동종의 문장성분과 동일한 문장성분으로 되는것으로서 《온갖것이》는 주어로 된 총괄어가 되며 《모두의》는 규정어로 된 총괄어가 된다.

제 3 장. 국어통합구조의 특성

제 1 절. 국어문장구조의 특성

국어문장은 그 기본구조상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통합적특성을 가지고있다.

① 세계의 언어는 통합구조상 크게 SOV, SVO, VSO의 세가지 기본류형으로 나눌수 있다.

SOV류형 ——— 조선어, 일본어, 몽골어, 뛰르끼예어, 힌디어, 캐추아어 등
SVO류형 ——— 영어, 로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등
VSO류형 ——— 히브리어, 웨일즈어, 마오리어, 마사이어 등 이러한 통합구조상 기본류형은 력사적으로 형성되여 고착된것으로서 인위적으로 고칠수 없는 해당 언어의 고유한 통합구조상 특성으로 된다.

국어문장은 SOV류형에 속하는 통합구조상 특성을 가지고있다.

○ 새 싹들이 비를 기다린다.
(S) (O) (V)
Новые побеги ждут дождя.
(S) (V) (O)

○ 우리는 래일 시험을 칩니다.
(S) (C)* (O) (V)
We are having an exam tomorrow.
(S) (V) (O) (C)

* (C)=complement(보어)

② 국어통합구조의 성분으로 되는 단어구조는 문법적형태소가 어휘적형태소의 뒤에 놓이는 후치적특성을 가지고있다.

○ 우리는 야영소로 떠나간다.
○ 선생님, 저와 함께 갑시다.

국어문장에서 단어의 문법적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언제나 어휘적형태소의 뒤에 놓이게 되며 위치적인 문법적형태소에 의해서 단어의 문장성분상 기능이 결정되고있다.

이것은 영어나 로어처럼 전치사와 같은 문법적형태소에 의해서 단어의 문장성분상 기능이 좌우되는것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된다.

③ 국어문장은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있다.

국어는 단어형태가 다양하게 발달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문장에서 차지하는 단어의 순서 즉 어순은 문장성분을 규정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

○ 진달래가 삼지연기슭에 아름답게 피였다.
○ 삼지연기슭에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였다.
○ 삼지연기슭에 아름답게 피였다, 진달래가.
○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였다, 삼지연기슭에.

그러나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사, 관형사만은 피수식어의 앞자리에 와야 하며 그 통합구조를 함부로 허물수 없다.

○ 그는 외국어단어를 아주 빨리 외운다.
× 그는 외국어단어를 빨리 아주 외운다.
○ 여기에 새 집이 많이 들어섰다.
× 여기에 집이 새 많이 들어섰다.

④ 국어는 규정, 피규정의 위치상 제약성을 가지고있다.

국어에서 규정어는 그것이 단어, 구, 절의 그 어떤 단위로 구성되여있든간에 규정을 받는 체언앞에만 온다는 제약성이 있는데 그것은 왼쪽가지전개방식으로 되여있다.*

* 이것은 SVO류형의 언어인 로어에서 규정구나 규정절이 명사뒤에 놓이여 오른쪽가지전개방식으로 되는것과 대조가 되는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 어제까지도 덥던 날씨가 오늘은 서늘하다.

Погода, которая вчера была теплой, а сеодня стало прохладно.

그리고 규정절을 관계대명사로 련결하면서 명사를 반복하는 다른 류형의 언어와 달리 국어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고 또 명사의 반복이 없다.

○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어제 왔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다+편지가 어제 왔다)

국어의 경우에는 《보낸》 행동의 객어로 되는 《편지》가 규정절안에 밝혀지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영어나 로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된다.

제 2 절. 국어어순의 특성

1. 국어어순을 제약하는 요인

어순이란 한 문장안에서 문장성분들이 일정한 문장론적관계를 맺으면서 배렬되는 위치를 말한다.

문장성분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문법구조상 특성, 진술의 목적과 내용, 표현적 및 문체론적요구 등 세가지 요인에 의하여 제약된다.

1) 국어의 통합구조상 특성

문장안에서 문장성분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보다먼저 국어 통합구조의 특성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 특징적성격을 반영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 말들은 다 자기의 고유한 통합구조상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그에 따라서 문장성분들의 차례 즉 어순에 일정한 규칙과 특징들이 반영되고있다. 어순과 관련하여 민족어들은 류형상 공통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류형의 민족어일지라도 자기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독특한 어순의 수법을 가지고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순의 수법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언어는 두 갈래로 나누이는데 그 하나는 어순의 수법이 주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고있는 언어이며 다른 하나는 어순의 수법이 주로 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하고있는 언어이다.

어순의 수법이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은 어순이 바뀌기만 하면 그 문장성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이것은 주로 형태가 발전하지 않은 언어들에서 특징적이다.

반면에 어순이 문체론적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은 어순이 바뀌여도 문장성분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으며 여러가지 표현적 및 문체론적색채가 달라지게 되

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이것은 형태가 발전한 언어들의 경우에 가능하다.

만약에 앞의것을 자유롭지 않은 어순이라고 한다면 뒤의것은 자유로운 어순이라고 할수 있다.

국어는 풍부하게 발전한 정연한 형태체계를 가지고있는 언어로서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언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어순이라고 하여 어순이 문장론적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것은 아니며 일정한 규칙도 없이 되는대로 문장성분을 배렬하여도 된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례컨대 주어, 객어, 보어, 상황어, 술어 등이 배렬되는 일정한 위치는 규정되여있으며 정상적인 언어행위에서 그 규칙은 준수되여야 하는것이다. 특히 신문의 제목글이나 일기체와 같은데서 표현의 간결성을 위하여 토를 줄이는 경우에는 어순에 따라 성분상 기능이 달라질수 있다.

문장안에서 문장성분이 차지하는 위치는 또한 국어에서 특징적인 문장성분의 표현수법, 다른 문장성분과 맺는 기능—구조적련계의 성격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례컨대 같은 규정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란히 놓일 때 그것을 이룬 단어의 품사소속과 형태적특징에 따라 앞뒤의 순서를 바꾸어놓을수 없으며 같은 상황어라고 해도 그 표현수법과 기능—구조적특성이 다를 때에는 그 앞뒤의 순서가 자유로운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순의 규칙을 무시하고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 국어통합구조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 규칙성을 파괴하는것으로 되며 우리 말답지 않은것으로 되고말것이다.

2) 진술의 목적과 내용

문장안에서 문장성분이 차지하는 위치는 진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다.

일상언어생활에서 우리들이 문장을 리용할 때 거기에는 일정한 진술의 목적과 내용이 반영되여있다. 우리는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한 현실—론리적인 계기를 가지게 되며 그에 따라서 어순이 좌우될수 있다.

우선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문장성분의 위치가 달리 될수 있다.

○ 감은 우리 고장의 명물이랍니다.

○ 우리 고장의 명물은 감이랍니다.

이 두 문장은 문법적으로 볼 때 주어, 규정어, 술어의 3개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이야기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서로 어순을 달리 하였으며 따라서 그 통합구조도 달리 되였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어순이 달리 될수도 있다.

○ 우리는 오늘 백두산으로 떠납니다.

○ 오늘 우리는 백두산으로 떠납니다.

○ 백두산으로 우리는 오늘 떠납니다.
○ 백두산으로 오늘 우리는 떠납니다.

이 4개 문장은 문장성분의 수효나 그 표현에서 다를것이 없으나 강조하려는 내용의 차이에 의해서 문장성분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와 같이 진술의 목적과 내용은 어순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있다.

3) 표현적 및 문체론적요구

표현적 및 문체론적요구에 의하여 문장성분의 위치가 제약되는데서 중요하게 지적할것은 기능문체의 일정한 요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어순의 변화이다.

○ 모여라 동무들아 무산대중아
○ 높이 들어라 혁명의 붉은기를
○ 누구냐 그더러 그 사나이더러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것이
그는 가야겠단다 피투성이 된 그의 몸을 이끌어
또다시 거리 우으로 진흙의 거리 우으로
(박팔양, 《목숨》)

시에서는 문장성분들이 문법적 및 의미-론리적측면에서 요구되는 제약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가체로서의 운률형식과 일정한 문체적효과에 따라 문장성분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생략되기도 한다. 이것은 시가체라는 일정한 문체론적요구에 따르는것으로서 표현의 세련성과 생동성을 높이기 위한 어순의 전도수법이다.

그리하여 어순에는 정상어순과 전도어순이 있게 된다.

2. 정상어순

국어에서 문장성분의 정상어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고있다.

우선 술어는 문장의 맨 끝자리에 놓인다.

국어에서 종속되는것과 지배하는것과의 결합에서 지배적인것은 언제나 뒤에 놓이는것이 원칙이다. 국어에서 술어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서 그밖의 모든 성분을 종속시키고있는 항구적인 주도적성분이다. 그렇기때문에 술어이외의 모든 성분은 술어보다 앞자리에 놓이며 술어는 문장의 맨 끝자리에 놓이게 된다.

○ 리수복영웅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 창혁이는 분김에 손등으로 책상머리를 쳤다.

주어는 술어의 앞에 오며 문장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문장의 첫자리에 놓이는것이 정상이다.

○ 비는 억수로 쏟아졌다. 물안개가 피여오르면서 나무가지 사이로 굼실굼실 굽이쳐갔다.
○ 참모장은 전투준비가 다 되였다고 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객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술어사이에 놓이는데 술어의 바로 앞에 놓인다.

○ 검푸른 물결이 흰 물갈기를 일구며 요란하게 바위를 친다.
○ 거세찬 혁명의 불길은 우리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보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술어사이에 놓이는데 객어의 앞 또는 뒤에 놓인다.

○ 영수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자기 부문 신간도서를 검색하였다.
○ 전사는 자기 이름을 박철수라고 보고하였다.

상황어는 일반적으로 술어의 바로 앞자리에 놓인다.

○ 아침노을이 만경봉에 아름답게 비끼자 동녘하늘이 불그레 물들기 시작하였다.
○ 순녀는 봄날의 따뜻한 광선과 구수한 흙냄새에 흠뻑 취하였다.

규정어는 언제나 피규정어의 앞에 놓인다.

○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이다.
○ 그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독립성분들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 앞자리에 놓인다.

○ 분이야, 오늘부턴 야학에 꼭 나가거라.
○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검덕의 로동계급이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답니다.

3. 전도어순

1) 의미론리적강조를 위한 문장성분의 위치전도

국어에서 진술의 목적과 내용에 따르는 의미-론리적강조를 위하여 문장성분의 위치를 바꾸는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고있다.

① 문장을 제시구조의 형식으로 만들어 어떤 문장성분을 의미-론리적으로 강조할 때에는 그것을 문장의 첫머리에 가져온다.

제시적성격을 띠고 문장의 첫머리에 놓이는 성분은 주어, 객어, 보어, 상황어 등이며 그 성분에는 흔히 제시격토 《는, 은》이나 도움토 《란, 이란》을 붙인다.

○ 하늘에서는 서쪽에 비스듬히 기울어져가고도 식을줄 모르는 해가 연보라빛 안개를 피여올리며 불타고있었다. (보어)
○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청산함이 없이는 전후에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었다. (상황어)

② 제시구조의 형식을 쓰지 않고 어느 한 문장성분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도 그 문장성분을 문장의 첫머리에 내감으로써 위치전도를 할수 있다.

○ 선군시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한 복리시설을 전례없이 많이 건설하였다. (보어)

○ 양떼가 흐르듯이 흰 구름이 아득한 산발우에서 뭉게뭉게 피여올랐다. (상황어)

또한 강조하려는 문장성분을 제자리보다 앞으로 다시말하면 객어, 보어를 주어 앞으로, 상황어를 객어나 보어 앞으로 내갈수 있다.

○ 깊은 산골짜기에서 소쩍새가 슬피 울고있었다. (주어앞으로)

○ 소년선봉대원들은 총을 튼튼히 틀어잡고 경각성있게 사방을 감시하였다. (객어앞으로)

③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적색채를 다르게 하거나 그것이 다른 단어와 맺는 의미-기능적련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어순의 전도가 있을수 있다.

○ 무슨 일을 해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람과의 사업에서 그는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었다.

○ 무슨 일을 해도 그러하지만 사람과의 사업에서 그는 특히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었다.

이 문장들은 《특히》의 의미-기능적련계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달리한것으로서 첫째 문장의 《특히》는 《사람과의 사업에서》에 걸려있고 둘째 문장의 《특히》는 《형식적으로》에 걸려있다.

의미-론리적강조나 의미변화를 위하여 어순을 바꾸거나 달리하는 경우에도 술어나 규정어의 위치는 마음대로 바꿀수 없다. 왜냐하면 술어나 규정어의 위치를 바꾸는것은 의미-론리적강조의 범위를 넘어서 문체론적요구에서 출발한것으로 되기때문이다.

2) 표현적 및 문체론적요구에 의한 문장성분의 위치전도

일정한 표현적 및 문체론적요구에 의하여 문장성분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술어가 주어의 앞에 올수도 있으며 심지어 규정어가 피규정어의 앞에 올수도 있다.

① 표현의 간결성을 보장하거나 장면의 긴박성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하여 문장성분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 있다.

○ 나오라 혁명전에
타도하자 원쑤놈을

○ 저기 도망친다, 원쑤놈이. 잡아라, 어서 '빨리.

②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그와 함께 일정한 여운을 남기기 위하여 문장성분의 위치를 바꿀수 있다.

○ 웬 자동차야, 아닌 밤중에 …

○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일내에 도착하신다고 …

○ 분이는 모범분조장이요, 우리 농장의 …

이러한 표현은 입말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경우에 술어뒤에는 반점을 찍고 술어의 바로 뒤에 오는 문장성분 다음에는 줄임표를 쳐서 그 여운을 표시한다.

③ 표현을 더욱 생동하게 만들거나 일정한 운률형식을 맞추기 위하여 문장성분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시가체에서 많이 쓰인다.

○ 물은 희고 깊고나 하늘보다도
구름은 붉고나 해보다도
서럽다 높아가는 긴 들끝에
나는 떠들며 울며 생각한다 그대를
(김소월, 《가을저녁에》)

○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어여쁜 빨간 꽃
향기롭고 빛갈 고운 아름다운 빨간 꽃
앓는 엄마 약 구하려 정성담아 가꾼 꽃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이 꽃 이 꽃 빨간 꽃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제 3 절. 문장표현에 나타나는 특성

1. 류종관계표현의 특성

문장안의 류종관계를 표현하는데서 특성이 있다. 즉 국어에서는 전체와 부분, 류와 종의 관계가 있을 때에 전체로부터 부분, 류로부터 종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명사를 나란히 놓는 통합구조를 리용한다.

○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양시 대성구역 룡남동에 자리잡고있다.

○ 지금은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이것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① 그 책이 표지가 색갈이 곱다.

② 동무들이 나를 등을 밀어 연단에 나서게 했다.

①은 주어의 중첩현상으로서 소유관계를 나타내고있는데 그것을 속격토로 바꾸어 표현할수 있다.

①' 그 책의 표지의 색갈이 곱다.

②는 객어의 중첩인데 이것 역시 소유관계를 나타내고있어 속격토로 바꾸어 표현할수 있다.

②' 동무들이 나의 등을 밀어 연단에 나서게 했다.

2. 조응관계표현의 특성

문장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사용되면 그에 대응하는 표현이 앞뒤에서 조응하게 된다. 이런 조응에는 존칭, 양태성, 의문의 세가지 부류가 있다.

1) 존칭의 조응

(1) 주체존칭의 조응

주체존칭의 조응이란 주어로 표현된 이야기의 주체가 존경의 대상일 때 술어는 반드시 존경형태를 취하거나 존경의 뜻이 있는 단어로 맞물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 고향에는 어머님이 계신다. ——— 주어가 존경의 대상이므로 술어가 그에 조응하여 《있다》가 아니라 《계시다》로 되였다.

○ 어머님이 손이 트시였다. ——— 술어절을 가진 주어중첩문장인데 주어가 존경의 대상인것으로 하여 술어절의 주어가 술어의 존칭형태와 조응관계를 맺고있다.

○ 저 아이가 선생님의 따님이시오? ——— 규정어로 된 인물이 존경의 대상인것으로 하여 명사술어가 존칭형태로 조응하고있다.

(2) 객체존칭의 조응

객체존칭은 이야기의 객체로 되는 인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것으로서 이 조응에는 객어와 관련되는것과 보어와 관련되는것이 있다.

○ 우리는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있습니다.

○ 저도 선생님을 뵙고싶습니다.

존경의 대상인 객어 《부모님》, 《선생님》에 조응하여 존경의 뜻이 담긴 《모시고》, 《뵙고》가 쓰이고있다.

○ 그 사실은 아버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 이 책을 빨리 선생님께 올려라.

존경의 대상인 보어 《아버님》, 《선생님》에 조응하여 《말씀드리다》, 《올리다》와 같은 존경의 뜻이 담긴 어휘가 술어로 쓰이고있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당시에는 객체존칭이 매우 발달되여있었으며 말뿌리의 어음적조건에 따르는 변종의 쓰임이 확연히 구분되여있었다.

○ 善慧ㅅ德 닙ᄉᆞ바(《월인석보》 1권 3장)

○ 부텨를 맛ᄌᆞ바 저ᅀᆞᆸ고(《월인석보》 1권 13장)

그러나 그후 객체존칭이 점차 소극화되면서 잔재적으로만 남게 되고 그것이 《습/옵》으로 바뀌면서 이것은 겸양토로 되였다.

(3) 상대존칭의 조응

상대존칭은 이야기의 상대방을 존경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종결형의 다양한 계칭형태로 표현된다. 대화의 상대방은 서술문에서 간혹 호칭어로 되는 경우

가 많고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선생님께서는 언제쯤 국제학술회의에 가시렵니까?

○ 할머님께서도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이야기의 상대방인 《선생님》과 《할머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종결형에서 존대의 계칭을 쓰게 되였다.

2) 양태성의 조응

국어에서 양태성을 나타내는 문장부사는 구조상으로는 술어에 관계되지만 의미상으로는 문장전체에 관계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 문장부사들은 그 양태적의미를 술어의 문법적형태에 재현함으로써 그 사이에 일정한 조응관계가 이루어지고있다.

① 의무성이나 결심의 의미로 쓰인 문장부사와 술어형태와의 조응

○ 학생들은 응당 학습에 열중하여야 한다.

○ 우리는 이 공사를 기어이 제정된 기일안에 끝내고말테다.

○ 우리는 정의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② 추측이나 의혹의 의미로 쓰인 문장부사와 술어형태와의 조응

○ 아마 모레는 비가 올거야.

○ 설마 그 동무가 그런 일을 했을라구.

○ 정말 그가 그 많은 일을 해제꼈을가?

③ 가정이나 양보의 의미로 쓰인 문장부사와 술어형태와의 조응

○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곧 전보를 치게.

○ 비록 큰 일은 못하더라도 언제나 일에 성실해야지.

○ 만약 그가 거기에 없다면 곧 알려주게.

○ 설사 눈이 온다 해도 그게 얼지야 않겠지.

○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 찾아가보려무나.

④ 부정의 의미로 쓰인 문장부사와 술어형태와의 조응

○ 절대로 학습전투에서 물러서서는 안된다.

○ 우리는 그가 떠난줄을 전혀 알지 못했소.

○ 결코 그가 그런 말을 할수 없다.

⑤ 소원

○ 할아버님께서 부디 앓지 마시고 백년장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발 집걱정이랑 하지 말고 맡은 일을 잘하려무나.

○ 먼길에 아무쪼록 몸조심하고 앓지 않도록 부탁한다.

3) 의문의 조응

문장에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술어가 의문의 종결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 무슨 일로 저를 찾았습니까?

○ 왜 그렇게 멍하니 서있나?

○ 오늘의 경기는 누가 이길것인가를 가늠하기 어렵다.

국어에서 의문의 대명사, 관형사, 부사 등은 의문으로 쓰이는 이외에 머지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술어가 의문형을 취하지 않는다.

○ 밖에 누가 왔나보다.

○ 넌 오늘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 병원에 면회하러 언제 한번 가보아야겠구나.

3. 귀일관계표현의 특성

국어에서는 문장성분들이 병렬되는 경우에 앞에 오는 단위에서는 다만 병렬접속만을 표시하고 문법적관계의 표시는 끝에 오는 단위가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귀일관계라고 불러왔다.

이러한 현상은 본질상 문장성분들의 형태론적개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 역시 국어문장표현의 민족적특성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1) 격위치의 귀일관계

○ 농촌경리의 현대화와 과학화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화에서＋과학화에서)

○ 산과 들이 온통 푸른 옷으로 곱게 단장하였다.

(산이＋들이)

《와, 과》는 병렬접속의 기능을 수행하고 마지막단어에 《에서》, 《이》가 병렬적통합인 《현대화와 과학화》, 《산과 들》에 첨가됨으로써 《현대화에서, 과학화에서》, 《산이, 들이》의 의미를 나타내고있는데 격형태의 이러한 귀일현상은 영어나 로어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국어의 고유한 표현수법의 하나로 된다.

2) 대상화의 귀일관계

① 너희들은 앞으로도 용감하고 씩씩하기를 바란다.

② 우리는 공부도 잘하는 대학생, 체육도 잘하는 대학생임을 자랑한다.

①에서 《용감하고 씩씩하기》는 《용감하고 씩씩하》에 《기》가 붙어서 대상화된것인데 의미상으로는 《용감하기, 씩씩하기》이다.

②의 경우에도 《공부도 잘하는 대학생, 체육도 잘하는 대학생》이라는 병렬복합체가 《임》에 의해서 서술대상화된것인데 의미상으로는 《공부도 잘하는 대학생임, 체육도 잘하는 대학생임》이다.

3) 존칭, 시칭의 귀일관계

① 선생님께서 도착하자 곧 너를 찾으셨단다.

② 기본부대는 이미 떠나가고 일부 성원만 여기에 남았다.

①에서 《도착하자》는 의미상으로 《도착하시자》인데 존칭토 《시》는 뒤

에 오는 《찾으셨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표시되여있다.

②에서 《떠나가고》는 의미상으로 《떠나갔고》인데 시칭토 《았》은 뒤에 오는 《남았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표시되여있다.

4) 규정형의 귀일관계

① 이제는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이 없지요.

② 여기는 한적한 곳이여서 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①의 경우에 병렬로 놓여있는 《먹고 입고 쓰고 살》은 의미적으로 《먹을, 입을, 쓸》이 《살》과 함께 모두 《걱정》에 대한 규정어로 된다. 그런데 병렬된 단어들의 규정적기능은 마지막단어인 《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여있다.

②의 경우에도 병렬로 놓여있는 《가고 오는》은 의미상으로 《가는, 오는》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규정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그러나 그 기능은 《오는》이 포괄적으로 표시하고있다.

이처럼 동일한 문법적관계에 놓인 단어들이 병렬하는 경우에 그 문법적의미를 뒤에 오는 단어형태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이러한 귀일현상은 《ㄱㄹ＋ㄴㄹ＋ㄷㄹ》를 《(ㄱ ＋ㄴ＋ㄷ)ㄹ》로 변형함으로써 《ㄹ》에 의하여 형태론적으로 개괄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굴절어들인 로어나 영어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이러한 귀일관계는 교착어인 국어에 특유한 통합현상으로서 교착접사인 토의 독특한 기능과 관련되여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4. 주어생략의 특성

국어에서는 흔히 주어없는 문장을 많이 쓰고있다.

첫째로, 한 문장안에 같은 주어가 반복되여 나타날 때 그 하나를 생략하는것은 국어의 일반적특성의 하나로 된다.

① 바빠서 나는 못가겠다.

② 나는 온종일 어제 친구에게서 빌린 소설책을 열성껏 읽었다.

①에서는 《바빠서》의 주어인 《나는》이 생략되여있는데 그것은 《나는》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②에서는 《빌린》의 주어가 《내가》인데 이 역시 주어 《나는》과의 중복을 피해서 그것을 생략하였다.

둘째로,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담화의 주제나 행동의 주체에 대한 사전료해가 있을 때 흔히 주어를 생략한다.

○ 언제까지지요? ——— 도서대출기간이

○ 다음주 월요일까지예요. ———도서대출기간이

○ 좀 짧은데요. ———도서대출기간이

○ 그럼 이틀만 더 연장해드리지요. ———제가

○ 일주일만 더 연장해주세요. ———당신이

○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군요. ———당신이

이와 같이 주고받는 말에서는 호상간에 주어에 대한 료해가 충분하기때문에 그것을 생략하였는데 이 경우에 술어형태는 주어의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기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영어나 로어의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여도 주어의 인칭, 수가 술어에 반영되여야 하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주어에 따르는 술어의 형태변화가 없기때문에 주어의 생략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셋째로, 주어를 쓰지 않는 습관으로 하여 국어에는 아예 주어를 밝히기 어려운 문장들이 많다.

○ 그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군요.

○ 이것을 다치면 안됩니다.

이 문장들의 밑줄을 친 술어는 대응한 주어를 상정하기가 어렵게 되여있다.

앞에서 서술한 국어의 문장표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성은 굴절어인 영어나 로어와 구별되는 국어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로서 문장을 능숙하게 만들고 쓰는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된다.

제 4 장. 문법적범주와 통합구조

국어의 문법적범주가운데서 통합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그 구조의 변화와 일정한 련관을 가지는것은 상범주와 부정범주이다.

제 1 절. 상범주와 통합구조

동사의 상범주와 직접 련관된 문장에는 주동문, 피동문, 사동문 등이 있다. 그가운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것은 주동문이 상범주에 따라서 통합구조상 변형을 입게 되는 피동문과 사동문이다.

1. 피동문

피동문은 동사의 피동상에 의해서 조성한다.

① ㄱ. 포수가 승냥이를 잡았다. (주동문)

ㄴ. 승냥이가 포수에게 잡혔다. (피동문)

② ㄱ. 옥이가 동생을 업었다. (주동문)

ㄴ. 동생이 옥이에게 업히였다. (피동문)

피동문에서는 주동문의 동사 《잡다, 업다》가 상접사 《히》의 도움으로 《잡히다, 업히다》로 되고 주동문의 주어, 객어가 피동문에서는 보어, 주어로 뒤바뀌고있다. 피동문은 주동문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것이 원칙으로 되여있다.

이처럼 피동문에서 행동의 주체는 보어로 되며 행동을 입은 대상은 주어로 된다. 다시말하여 피동문은 어떤 행동이 주어로 나타나는 인물이나 사물의 힘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남의 힘으로 이루어지는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반면에 남의 행동을 입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하는데 주동문에서는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되며 행동을 입는 대상이 객어로 된다.

동사의 피동상은 일반적으로 타동사로부터 조성되는데 모든 타동사가 다 피동상을 조성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즉 타동사라 하더라도 《주다, 받다, 얻다, 돕다》 등 피동상의 조성이 불가능한것이 있다.

그리고 피동문에서는 주동문의 객어가 주어로 되고 주어는 보어로 된다고 하였으나 간혹 주동문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을수 있으며 또 피동문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③ ㄱ. 순이가 아버지의 꾸중을 들었다.

ㄴ. × 아버지의 꾸중이 순이에게 들리였다.

④ ㄱ. 문이 바람에 닫기였다.

ㄴ. × 바람이 문을 닫았다.

③은 주동문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이며 ④는 피동문이 그에 대응하는 주동문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피동문은 《—어지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수가 있다.

⑤ ㄱ. 옥이의 성의가 남편의 오해를 풀었다.

ㄴ. 남편의 오해는 옥이의 성의로 풀어졌다.

⑥ ㄱ. 미생물연구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ㄴ. 새로운 사실이 미생물연구실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 류형의 피동문에서는 주동문의 주어로 된 명사가 《—로/—에 의해》 형태의 보어로 된다. 이것은 상접사에 의한 피동문의 경우와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수 있다.

《—어지다》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에 모두 붙을수 있는데 《밝혀지다》와 같이 형용사가 타동사로 된것을 다시 자동사로 만드는 경우에도 붙을수 있다.

이 류형의 피동문에도 주동문과 피동문의 대응을 설정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⑦ ㄱ. 철수가 혁명소설을 열심히 읽는다.

ㄴ. × 혁명소설이 철수에 의해 열심히 읽어진다.

⑦의 ㄱ는 주동문인데 ㄴ는 그에 대응한 피동문으로 될수 없어서 결국 피동문의 설정은 있을수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일부 문법에서는 《피동상》과 구별되는 《중동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동문》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중동상은 동사로 표현되는 행동이 주어로 표현되는 대상에 향하여지되 그 출발점은 문장에 보어로 표현될수 없음을 나타낸다.

○ 나는 졸린다.

○ 바다가 보인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피동상과 중동상의 차이는 행동의 출발점 즉 행동의 자발적주체나 추동체가 피동상에서는 간접보어로 나타낼수 있으나 중동상에서는 그것이 보어로 나타낼수 없다는데 있다.》는것이다.*

* 《현대조선어(2)》(교육도서출판사 1962년) 274페지

따라서 중동상은 어떤 대상들간의 호상관계보다도 한 대상에 대하여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다는것을 나타내는데 그 기본기능이 있다고 보고 중동문은 이러한 기능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적인 행동, 가능한 행동, 어떠한 행동적상태 등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1) 자연적인 행동

○ 놈들은 손이 떨렸다.

○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쥐여졌다.

2) 가능한 행동

○ 문이 잘 닫긴다.

○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3) 행동의 상태

○ 이 마을에도 많은 문화주택이 건설되였다.

○ 그도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중동문은 그것이 피동문과 류사하면서도 주체와 객체의 호상관계를 나타내기보다는 행동의 성격자체를 나타내는것이기때문에 중동문은 피동문의 경우처럼 문장의 주어가 활동체이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활동체도 중동문의 주어로 나타내는 일이 적지 않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자동사 중동문과 타동사 중동문을 설정하고있다.

자동사 중동문

○ 창밖에서는 눈이 날리고있었다.

○ 비가 오게 되였다.

타동사 중동문

○ 피곤으로 하여 그의 눈은 움푹 패웠었다.

○ 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바뀌였다.

이처럼 중동문은 《자연적인 행동》, 《가능한 행동》, 《행동적상태》 등과 같은 의미—기능적표식에 의하여 피동문과 구별하였다. 그리고 피동문은 주어가 활동체이여야 한다는 론리적인 단정에 기초하여 주어가 활동체가 아닌것은 중동문에 넣었던것이다.

그러나 형태론에서 상범주를 서술하면서 중동상을 설정하지 않은것은 그 형태가 피동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것인데 그런 조건에서 문장론에서 굳이 중동문을 설정하고 그것을 피동문과 구별하여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피동문의 한 류형으로 설명할수 있다고 본다.

2. 사동문

사동문이란 남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동사의 사동상에 의해서 조성한다.

사동문에서는 주어가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을 나타내며 보어나 객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① ㄱ.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주동문)

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사동문)

② ㄱ. 옥이가 오빠의 등뒤에 숨었다.(주동문)

ㄴ. 오빠가 옥이를 자기 등뒤에 숨겼다.(사동문)

사동문에서 술어로 된 동사는 사동상을 취하였으며 주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보어나 객어로 되였다.

자동사나 형용사에서 파생된 동사의 사동상으로 된 사동문에서는 본래의 주어가 객어가 되고 타동사에서 파생된 동사로 된 사동문에서는 본래의 주어가 주격토대신 대격토나 여격토가 붙은 보어로 된다.

③ ㄱ. 애국자들이 무참히 죽었다.

ㄴ. 적들이 애국자들을 무참히 죽였다.

④ ㄱ. 머슴아이가 무거운 짐을 졌다.

ㄴ. 지주놈이 머슴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⑤ ㄱ. 저수지의 뚝이 높다.

ㄴ. 저수지의 뚝을 높이였다.

③의 경우는 자동사 《죽다》의 사동상 《죽이다》로 된 사동문이기때문에 주동문의 주어가 객어로 바뀌였으며 ④의 경우는 타동사 《지다》의 사동상이 《지우다》로 된 사동문이기때문에 주동문의 주어가 보어로 바뀌였다. 그리고 ⑤의 경우에 형용사 《높다》에서 파생된 동사로 된 사동문에서는 본래의 주어가 객어로 바뀌였다.

사동문은 《—게 하다》와 같은 분석적형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수 있다.

⑥ ㄱ. 이 짐을 옥이가 졌다.

ㄴ. 오빠는 이 짐을 옥이가 지게 했다.

⑦ ㄱ.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농촌지원사업을 했다.

ㄴ. 청년조직에서는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농촌지원사업을 하게 했다.

⑥, ⑦의 ㄱ는 주동문, ㄴ는 사동문인데 주동문의 주어가 그대로 사동문에서도 주어로 되였으며 ⑥ㄴ의 경우에는 《오빠는》이라는 사동주어가, ⑦ㄴ의 경우에는 《청년조직에서는》이라는 사동주어가 보충되고있다.

동사 사동상에 다시 《-게 하다》와 같은 분석적형태를 더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⑧ 어머니가 순이에게 토끼한테 풀을 먹이게 하시였다.

이 경우는 《먹이다》라는 동사 사동상을 《-게 하다》에 의해서 재차 사동화한것이다.

그런데 접사에 의한 동사 사동상류형의 사동문과 《-게 하다》류형의 사동문은 그 쓰임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의미해석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수 있다.

⑨ ㄱ. 어머니가 순이에게 새옷을 입히시였다.

ㄴ. 어머니가 순이에게 새옷을 입게 하시였다.

⑨의 ㄱ는 의미상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하나는 어머니가 직접 순이에게 새옷을 입히였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순이로 하여금 스스로 새옷을 입도록 하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순이에게 새옷을 직접 입히였다는 뜻이 없다. 즉 접사에 의한 동사 사동상류형의 사동문은 주어의 간접행동은 물론 직접행동도 나타내는데 《-게 하다》에 의한 사동상류형의 사동문은 주어의 간접행동만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다.

둘째로, 부사의 수식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⑩ ㄱ. 순이가 동생에게 옷을 빨리 입혔다.

ㄴ. 순이가 동생에게 옷을 빨리 입게 하였다.

⑪ ㄱ. 나는 옥이에게 그 편지를 못 읽혔다.

ㄴ. 나는 옥이에게 그 편지를 못 읽게 하였다.

⑩의 부사 《빨리》는 ㄱ에서 순이의 행동을 수식하고있는데 ㄴ에서는 동생이 옷을 입는 행동을 수식하고있다. 그리고 ⑪의 부정부사 《못》은 ㄱ에서 옥이에게 편지를 읽히는 나의 행동이 불가능했음을 나타내고있는데 ㄴ에서는 옥이가 그 편지를 읽을수 없도록 했다는 뜻으로 쓰이고있다.

셋째로, 보조동사의 결합에서 차이가 있다.

⑫ ㄱ. 나는 옥이에게 편지를 읽혀보았다.

ㄴ. 나는 옥이에게 편지를 읽어보게 하였다.

ㄷ. 나는 옥이에게 편지를 읽게 해보았다.

⑫의 ㄱ에서는 보조동사 《보다》가 동사 사동상뒤에서만 쓰이는 제약이 있으나 ㄴ, ㄷ와 같이 《-게 하다》로 된 경우에는 보조동사의 쓰임이 다양

하고 그 뜻도 달라지게 된다.

넷째로, 존칭토 《-시-》의 쓰임에서 차이가 있다.

⑬ ㄱ. 아버님께서 옥이에게 편지를 읽히시였다.

ㄴ. 아버님께서 옥이에게 편지를 읽게 하시였다.

ㄷ. 내가 아버님께서 편지를 읽으시게 하였다.

ㄹ. 할아버님께서 아버님께 편지를 읽으시게 하시였다.

⑬의 ㄱ는 사동문의 주어에만 존칭토 《-시-》가 련관되여있다. 그러나 ㄴ, ㄷ, ㄹ의 경우에는 《-시-》의 쓰임이 다양하다. 즉 ㄴ는 《-시-》가 사동문의 주어인 《아버님》에 걸리고있으며 ㄷ는 《-시-》가 시킴을 받는 《아버님》에 걸리고 ㄹ는 《-시-》가 사동문의 주어인 《할아버님》과 시킴을 받는 《아버님》에 다 걸리고있다.

제 2 절. 부정범주와 통합구조

그 어떤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정의 문법적범주는 부정부사 《아니(안)》, 《못》 또는 부정의 보조동사 《말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니다》, 《아니하다》, 《못하다》를 표현수단으로 하여 나타내는데 이것은 일정한 통합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부정범주와 관련한 통합구조에는 단순부정문, 능력부정문, 행위부정문의 세가지 류형이 있다.

1. 단순부정문

단순부정문은 부정부사 《아니》와 《아니다》, 《아니하다》를 써서 만든다.

① 옥이는 어제 고향으로 갔다.

② ㄱ. 옥이는 어제 고향으로 안 갔다.

ㄴ. 옥이는 어제 고향으로 가지 아니했다.

①에 대한 부정문인 ②의 ㄱ, ㄴ는 내용상으로 같으나 형식상으로 다르게 되여있다. 즉 ㄱ는 용언술어앞에 《아니(안)》를 결합한것이고 ㄴ는 술어인 용언말뿌리에 《-지》를 붙이고 그뒤에 《아니하다》를 결합하여 부정문을 만든것이다. ㄱ와 같은것을 부정문 제1형이라고 하며 ㄴ와 같은것을 부정문 제2형이라고 하여 구별한다.

일반적으로 부정문을 만드는데서는 이 두가지 형식이 다 쓰일수 있다.

③ 학생들이 다 왔다.

④ ㄱ. 학생들이 다 안 왔다.

ㄴ. 학생들이 다 오지 아니하였다.

부정문 제2형에 비해서 부정문 제1형은 제약이 있다. 즉 용언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부정문 제1형은 이루어질수 없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⑤ ㄱ. × 우리는 그를 아니(안)본받겠다.
　ㄴ. × 순이는 대학에 아니(안)입학했다.
　ㄷ. × 오늘은 날씨가 아니(안)흐렸다.
　ㄹ. × 서해는 동해처럼 아니(안)새파랗다.

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술어로 된 용언이 합성어(본받다, 입학하다)나 형용사(흐리다, 새파랗다)인 경우에는 부정문 제1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부정문 제2형을 취해야 한다.

⑥ 순이는 최우등생이다.

⑦ ㄱ. 순이는 최우등생이 아니다.
　ㄴ. × 순이는 아니(안) 최우등생이다.

체언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를 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않다》를 쓸수 없다. 그리고 ⑦ㄴ와 같이 부정부사 《아니(안)》를 체언앞으로 가져가면 비문 즉 비문법적문장이 되고만다.

부정부사 《아니(안)》는 행동에 대한 부정만을 나타내기때문에 체언과 관계를 맺을수 없으며 바로 그 원리에 따라서 합성동사의 앞요소인 《본, 입학》과 같은 명사는 물론 형용사에도 걸릴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부정문 제2형을 만드는데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⑧ ㄱ. 우리는 그를 본받지 않겠다.
　ㄴ. 순이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
　ㄷ.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 않았다.
　ㄹ. 서해는 동해처럼 새파랗지 않다.

일반적으로 단순부정문은 동사술어의 경우에 행동의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을 나타내고 체언술어의 경우에는 그 주체의 속성으로 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낸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하여 부정문을 만드는 형식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시가체의 경우 부정부사 《아니》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시가의 운률이나 강조와 관련되여있다고 할수 있다.

○ 허수한 마음 둘곳 없는 심사에 쓰라린 가슴은
　그것이 사랑 사랑이던줄이 아니도 잊힙니다
(김소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 내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2. 능력부정문

능력부정문은 행동의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그밖의 원인으로 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능력부정문은 동사술어의 앞에 부정부사 《못》을 써서 만든다.

① 철수는 고향에 갔다.

② ㄱ. 철수는 고향에 못 갔다.
　ㄴ. 철수는 고향에 가지 못했다.

①에 대한 부정으로 쓰인 ②는 능력부정문으로서 ㄱ는 제1형, ㄴ는 제2형이라고 한다.

이때에도 제1형은 제2형에 비해서 구조상 제약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부정문의 경우와 같다.

③ ㄱ. × 옥이가 못 공부했다.
　ㄴ. × 순이는 철이의 모범을 못 본받았다.

③은 제1형으로 만든 능력부정문인데 보는바와 같이 비문 즉 비문법적문장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이것을 ④와 같이 제2형으로 바꾸게 되면 문법적문장으로 된다.

④ ㄱ. 옥이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
　ㄴ. 순이는 철이의 모범을 본받지 못했다.

능력부정문에 쓰이는 부정부사 《못》은 원칙적으로 형용사술어에는 쓰이지 못하는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에 쓰일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제1형이 아니라 제2형으로 해야만 한다.

⑤ 그 길이 평탄하다.

⑥ ㄱ. 그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
　ㄴ. × 그 길이 못 평탄하다.

형용사술어로 된 능력부정문은 대체로 말하는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에 쓰이는 일이 많기때문에 일정한 평가를 나타내는 《우수하다, 풍부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씩씩하다, 용감하다》와 같은 제한된 형용사가 쓰이게 된다.

그런데 시창작에서는 《못》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운률상으로나 또는 의미적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있다.

○ 그 누가 생각하랴 삼백년래에
　차마 받지 다 못할 한과 모욕을
　못 이겨 칼을 잡고 일어섰다가
　인력의 다함에서 스러진줄을
(김소월, 《물마름》)

3. 행위부정문

단순부정문이나 능력부정문은 서술문이나 의문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명령문이나 권유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면에 보조동사 《말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부정문은 명령문이나 권유문에 해당되는 부정문이다.

① ㄱ. 너는 해수욕장에 가지 말아라.
ㄴ. 우리는 해수욕장에 가지 맙시다.

이 부정문은 일정한 행동수행을 부정하는것이기때문에 언제나 동사술어의 경우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술어가 기대나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인 《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추워하다》의 경우에는 그앞에 오는 내포절이나 련결절에 《말다》가 쓰일수 있다.

② ㄱ. 우리는 철수가 그곳으로 떠나지 말기를 지대하고있다.
ㄴ. 나는 순이가 고향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남기를 바랬다.

《철수가 그곳으로 떠나지 말기를》은 술어 《기대하고있다》에 대하여 객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포절이며 《순이가 고향으로 가지 말고》는 뒤에 오는 《여기에 남기를 바랬다》와 병렬되여있는 련결절인데 이에 대한 행위부정으로 《말다》가 쓰이고있는것이다.

제 5 장. 문장의 기능적류형

문장의 기능적분류는 진술의 목적과 내용에 따르는 문장의 분류로서 여기서 주되는 형태론적표식으로 되는것은 단어종결형의 식범주이다. 다시말하여 문장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이 담화의 목적과 현실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류형을 설정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문장의 기능적류형을 설정하는데서는 문장의 구조와 형식이 문제로 되지 않으며 그 내용이 주로 문제로 된다고 할수 있다.

언어교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사이에서 진행되는데 이때에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있는것에 대하여 단순히 전달하려고 할수도 있으며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할수도 있으며 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시키려고 할수도 있고 권고할수도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문장을 나눌수 있는데 그것은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 등으로 실현될수 있다. 또한 이 문장들이 특별한 감정적색채의 어조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상대방에게 그 무엇을 약속할수도 있다.

이러한 문장의 매개 류형들은 자기의 고유한 구조적특징을 가지며 그 특징들은 해당한 형태들과 어조 또는 그밖의 언어적수단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문장의 기능적류형을 나누는데서는 일반적으로 술어를 이루는 단어 종결형의 식범주를 기본표식으로 하여 나눈다.

국어의 종결형태에는 식범주 이외에 법범주, 계칭범주도 동시에 나타나고있다.

이로부터 지난날 일부 문법에서는 일련의 형태론적표식을 기준으로 하여 전달의 성격에 따르는 문장의 분류, 전달의 방식에 따르는 문장의 분류를 문장의 기능적분류에 더 첨가함으로써 기능에 따르는 문장의 분류에 다음과 같은것을 포함시켜서 서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달의 목적에 따르는 분류: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

전달의 성격에 따르는 분류:
중립문, 목격문, 2중전달문

전달의 방식에 따르는 분류:
존대의 문장, 《해요》의 문장, 《하오》의 문장, 《하게》의 문장, 《해라》의 문장, 반말의 문장

이에 의하면 전달의 성격에 따르는 분류는 법범주의 형태론적표식을 주요기준으로 한것이며 전달의 방식에 의한 분류는 계칭범주의 형태론적표식을 주요기준으로 한것이다.*

* 《현대조선어(3)》(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2년) 51～78페지

이러한 분류는 사실상 문장의 기능적분류라고 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어는 술어로 되는 단어가 종결형을 취함으로써 한 문장의 끝맺음을 형식화하고있는데 단어의 종결형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권유문의 네가지 기능상류형이 구별되고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식범주가 그 형태적표식으로 되고있다.

① 우리는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다. ＝서술문
② 선생님은 언제 고향에 가시겠습니까? ＝의문문
③ 이것을 아버님께 가져다 드려라. ＝명령문
④ 날씨가 더운데 선선한데로 자리를 옮기자. ＝권유문

이처럼 네가지 류형의 문장은 술어로 되는 단어의 종결형에 나타나는 식형태에 의하여 그 성격이 결정되고있는데 이것을 문장의 기능적분류라고 하는것이다.

이밖에 약속문, 감탄문, 허락문, 경계문을 설정할수도 있다.

⑤ 내가 오늘 꼭 그리로 가마. =약속문
⑥ 어머니 조국이여, 영원무궁토록 길이 번영하여라! =감탄문
⑦ 학교에 가고싶으면 가려무나. =허락문
⑧ 강가에 갔다가 사고를 저지를라. =경계문

그러나 문장의 기능적류형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약속문, 감탄문, 허락문, 경계문을 다 서술문에 포함시키는것이 관례로 되여있는데 그것은 이 문장들이 다 서술을 공통적특징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제 1 절. 서 술 문

서술문은 어떤 사실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으로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면에서는 듣는 사람에 대한 례절을 나타내는 계칭이 고려되여야 하며 설명문이나 기사문, 소설과 같이 자기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단독장면에서는 계칭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다.

서술문의 형태적표식은 서술식이며 서술식의 기본토는 《다》, 《라》, 《이》이다.

서술문을 만드는 종결형으로는 《-다, -라, -구나, -군요, -데요, -오, -어요, -습니다》 등 각이한 계칭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서술문에는 단순서술문, 약속문, 감탄문, 허락문, 경계문이 포함된다.

1. 단순서술문

단순서술문을 만드는데서 대표적인것은 《해라》체의 종결형 《-다》이다. 이 토는 듣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태도에서 중립적인것으로서 글말뿐아니라 입말에서도 쓰이여 가장 포괄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듣는 사람이 설정되여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칭에서 중립적이며 듣는 사람이 설정되여있는 경우에는 계칭상 차이가 있다.

이 토는 형용사나 체언의 서술형에 쓰일 때는 직접 말줄기에 붙는다.

① 오늘은 날씨가 좋다.
② 영수는 대학생이다.

이 토가 동사에 쓰일 때에는 《-는(ㄴ)-》을 앞세우는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다》가 동사의 말줄기에 직접 붙기도 하는데 이때는 일기글이나 신문기사에서 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그는 책을 읽는다. (일반서술문)
④ ㄱ. 아침 5시에 일어나다. 6시에 집을 나서다. (일기글)
ㄴ. 우리 녀자축구팀이 련전련승하다. (신문기사)

《-다》는 《-더-, -리-, -니-》뒤에서 《-라》로 교체되기도 하는데 《-라》는 또한 체언서술형토 《이》뒤에도 나타난다.

⑤ ㄱ. 영수는 공부를 잘<u>한다더라</u>.
ㄴ. 분이는 이제부터 공부를 잘<u>하리라</u>.
ㄷ. 래일은 날씨가 좋겠다고 <u>하느니라</u>.
ㄹ. 그것은 국보적인 <u>명필이라</u>.

이처럼 서술식의 종결형인 《-다》가 《-더-, -리-, -니-》와 《-이》의 뒤에서 《-라》로 교체되는 조건은 확실히 형태론적인것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교체로 하여 문장의 문장론적기능에 변화가 오는것은 아니다.

《-다》를 제외한 토들은 대체로 듣는 사람이 일정하게 설정되여있으며 따라서 듣는 사람에 대한 례절을 나타내는 계칭상의 어느 한 등급에 속하게 된다.

⑥ 영희가 공부를 잘하**ㄴ다**, **는구나**, **는군**, **네**, **ㄴ데**, **지**, **오**, **ㅂ니다**.
⑦ 날씨가 좋**다**, **구나**, **군**, **네**, **데**, **아**, **지**, **소**, **아요**, **습니다**.

이러한 계칭상 구분에 따라서 다시 문장을 《존대의 문장, 〈해요〉의 문장, 〈하오〉의 문장, 〈하게〉의 문장, 〈해라〉의 문장, 반말의 문장》으로 나눌수도 있으나 이것은 단지 전달의 방식상 문제로 되기때문에 문장의 기능상분류에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할수 있다.

서술문에 쓰이는 토는 경우에 따라서 감탄문이나 약속문에 쓰이기도 한다.

⑧ ㄱ. 새날이 밝는다. =단순서술문
ㄴ. 아, 날씨도 따뜻하다. =감탄문
⑨ ㄱ. 비가 옵니다. =단순서술문
ㄴ. 래일 제가 꼭 갑니다. =약속문

그런데 이것은 감동사의 첨가나 어조의 도움에 의하여 단순서술문이 변형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2. 약 속 문

서술문에는 일정한 약속이 없는 단순서술문이 있는 반면에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그 무엇을 약속하는 약속문이 있을수 있다.

약속문은 듣는 사람에 대한 례절 즉 계칭에 따라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형인 《-(으)마, -(으)ㅁ세, -(으)리다, -(으)오리다》를 리용하여 만든다. 그러나 요즘에는 《해라》체인 《-(으)마》만을 주로 사용한다.

⑩ 이제 다음번엔 너를 꼭 <u>찾으마</u>.

약속문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그 실행을 약속할 때에 흔히 쓰는것이기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쓰게 되면 어색한 문장으로 된다. 다시말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것과 같은 행동은

부정적인것으로 인정되기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약속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 되는것이다.

× 내가 너에게 손해를 주마.

× 나는 너를 오늘 때리마.

3. 감탄문

서술문에는 단순서술문, 약속문 이외에 감탄문이 있을수 있다.

감탄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념두에 두지 않거나 혼자 말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묻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진술로 인정하면서 서술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감탄문은 《-구나》와 같은 종결형으로 된 문장이 대표적인것으로 된다.

○ 정말 백두산은 웅장하구나.

○ 네가 벌써 대학에 가게 되는구나.

○ 세상이 많이도 변하였구나.

《-구나》는 형용사말뿌리에 직접 붙을수 있으나 동사의 경우에는 시칭토 《-는-, -었(였)-, -겠-》의 뒤에 붙어서 쓰인다.

《-구나》는 계칭이 《해라》체이지만 《하게》체에서는 《-구먼》, 《하오》체에서는 《-구려》가 된다. 그리고 《-구나》가 줄어든것으로 《-군》이 있는데 여기에 《요》를 붙이면 《해요》체로 된다.

○ ㄱ. 정말 백두산은 웅장하구먼.

ㄴ. 정말 백두산은 웅장하구려.

ㄷ. 정말 백두산은 웅장하군.

ㄹ. 정말 백두산은 웅장하군요.

감탄문으로는 《-어라》의 류형이 있을수 있다.

○ 아이 참, 무서워라

○ 하루종일 일하신 아기 아버지

농부들도 편안히 잠들었어라(김소월, 《여름의 달밤》)

《-아라/-어라》류형의 문장은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독백상태에서 이루어질수 있다. 따라서 듣는 사람에 대한 례절표현이 있을수 없다. 이 류형의 문장은 흔히 말하는 사람자신의 느낌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때에 쓰게 된다.

감탄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인 경우에 주어와 맞물리는 술어는 형용사일수도 있고 동사일수도 있는데 놀라움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감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 <u>아</u>, 삼지연의 진달래는 참으로 아름다워라.

○ <u>야</u>,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였구나.

그런데 느낌의 주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형용사가 아닐 때에는 이런 류형의 감탄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 아이구, 순희가 무서워라.

× 아이구, 네가 벌써 대학생이여라.

그러나 이런 류형의 감탄문이 시문체에서 쓰일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용사 이외의 품사에도 《-아라/-어라》가 붙을수 있다.

○ 대동강 푸른 물 길이길이 흘러라.

○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영원한 별이여라.

《-어라》류형의 감탄문은 반말체인 《-어》로도 나타난다.

○ 아이구, 더워!

제 2 절. 의문문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그 어떤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서 의문문의 형태적표식은 의문식이며 의문식의 기본토는 《가》, 《지》, 《냐》이다.

의문문의 대표적인 종결형태는 《-느냐》인데 이것은 《해라》체로서 《-느냐》를 줄여서 《-니》로 할수 있으며 《-더냐》를 줄여서 《-디》로 할수 있다.

① ㄱ. 너 언제 고향으로 떠나가겠느냐?

ㄴ. 너 언제 고향으로 떠나가겠니?

② ㄱ. 그가 학교로 가더냐?

ㄴ. 그가 학교로 가디?

《-나》와 같은 《해라》체로 되는 의문문을 만드는데서 《ㄹ가》가 쓰일수 있으며 여기에도 《요》가 붙으면 《해요》체로 된다.

③ ㄱ. 철수가 고향에 도착했을가?

ㄴ. 철수가 고향에 도착했을가요?

그리고 《하게》체의 《-는가》는 줄어서 《-나》로 될수 있다.

④ ㄱ. 영수는 지금 어디 가는가?

ㄴ. 영수는 지금 어디 가나?

《-는가》나 《-나》에 《요》가 붙으면 《해요》체로 된다.

⑤ ㄱ. 영이는 지금 어디 가는가요?

ㄴ. 영이는 지금 어디 가나요?

《-는가, -나》는 듣는 사람을 직접 대상하지 않는 단독장면에서 쓰일수 있다.

⑥ 이번 실험준비는 다 했는가?

⑦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러한 표현은 어떤 기사나 표어에서 쓰일수 있는데 이것은 독백의 성격을 띠고있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고 할수 없다.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의 물음에 대한 듣는 사람의 답변에 따라서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 구분한다.

⑧ 이제 곧 떠나겠느냐?

⑨ 어제는 무슨 시험을 쳤느냐?

⑧의 경우에는 대답으로서 《네/아니오》만 하면 된다. 그러나 ⑨의 경우에는 그 대답으로서 《무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⑧과 ⑨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으로서 그에 대한 답변은 응당 차이가 있게 된다.

의문문에는 듣는 사람의 답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것도 있다.

⑩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⑪ 조국을 위한 일에 무엇이 아까우랴?

⑩, ⑪의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대답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강한 긍정적진술만을 나타내고있다. 이처럼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 의문문이 아닌것을 수사학적의문문이라고 한다.

수사학적의문문의 기능은 문장에서 보다 강한 표현성을 부여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문체론적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의문문에는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어떤 행동을 추동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⑫ 애들아, 왜들 학교에 아직 안가니?(빨리 가라는 뜻)

⑬ 저의 집에도 좀 놀러오시지 않겠습니까?(놀러오라는 뜻)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그 어떤 행동을 요구하면서도 그 표현을 부드럽게 하며 에둘러서 하는것으로서 입말에서 흔히 쓰는데 이러한 의문문을 추동의 의문문이라고 한다.

의문문에는 양태적의미를 나타내는 의문문이 있을수 있다.

⑭ 옥이가 이기면 얼마나 좋을가?(희망)

⑮ 사람이 걸어오는 소린가? 짐승이 다가오는 소린가?(의혹)

⑯ 당신이 바로 유격대원이지요? 오래동안 기다렸습니다.(확신)

이 문장들은 형식만 의문문이고 사실은 희망, 의혹, 확신과 같은 양태성을 나타내고있는 양태의 의문문이다.

제 3 절. 명령문

명령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으로서 명령문의 형태적표식은 명령식이며 명령식의 토는 《라》이다.

①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② 학교에 어서 가거라.

③ 조심해서 강을 건너오너라.

명령의 종결형인 《—어라/—거라,/—너라》는 계칭상 《해라》체에 쓰이는것인데 그것은 계칭의 차이에 따라 《—게, —오, —시오, —소서》 등이 선택될수 있다.

명령문은 반말체로서 《—아/—어》나 《—지》에 의하여 이루어질수도 있다.

④ 빨리 밥을 먹어.

⑤ 지각하지 않게 어서 학교로 가지.

이 경우에 형태상으로는 서술, 의문, 명령의 구분이 되지 않기때문에 어조에 의하여 그것을 구별하며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해당한 문장부호를 쳐서 구분하여야 한다.

명령문에는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한 류형이 있다.

⑥ 이 책을 너도 읽으려무나.

이 문장의 《—려무나》는 계칭상 《해라》체인데 이에 대응하는 《하게》체는 《—게나》로 되며 《하오》체는 《—구려》로 된다.

명령문은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을 대상하지 않고 매개물을 통한 간접적인 상황에서 쓰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⑦ 다음 질문에 알맞는 답을 선택하라.

⑧ 큰물피해방지대책을 시급히 세우라.

이 경우에 이 명령을 수행하는것은 직접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이여서 이러한것은 간접명령문이라고 할수 있다.

명령문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상 부탁, 권고, 허락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화에서 많이 쓰이고있다.

⑨ 전선에서 내아들을 만나거든 끝까지 잘 싸우라고 일러주오. 죽을지언정 굴하지 말라고 단단히 좀 타일러주시오.

⑩ 좀 빨리 따라오게. 동무들이 기다리고있네.

명령문은 언어례절을 지키는 의미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쓰지 않고 다른 류형의 문장으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용상으로 요청이나 부탁으로서 명령문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언어례절상 에둘러서 표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① 권유문으로의 전환 ——— 대등, 하대의 경우

《그럼 좀 수고하시오.》 → 《그럼 좀 수고합시다.》

《두량만 더 뛰라구.》→ 《두량만 더 뛰자구.》

② 의문문으로의 전환 ——— 존대, 하대의 경우

《이제 떠나십시오.》 → 《이제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타거라.》→《빨리 타지 않겠나?》

③ 서술문으로의 전환 ——— 존대의 경우

《선생님, 이젠 가십시오.》→《선생님, 이젠 가셔야겠습니다.》

《어서 떠나십시오.》→《벌써 시간이 되였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어는 언어례절이 매우 발달되여있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사이의 등급을 고려하여 명령문형식을 쓰는것은 이처럼 삼가하는 경우가 많다.

제 4 절. 권 유 문

권유문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함께 행동할것을 요청하는 문장으로서 그 형태적표식은 권유식이며 그 기본토는 《-자》이다. 그러나 권유문은 여러 종결형이 붙어서 이루어질수 있다.

○ 학교에 빨리 가자.

○ 련대장동지, 마을을 한번 돌아봅시다.

○ 선생님, 빨리 차에 오르시지요.

《-자》는 《해라》체인데 《하게》체는 《-세》, 《하오》체는 《-ㅂ시다》, 《해요》체는 《-시지요》로 된다. 또한 《-자, -세》에 《-요》를 붙이여 《-자요, -세요》로 되는 경우에는 《해요》체로 된다.

권유문은 단독장면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 귀중한 나라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자.

이것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호소로 된다.

권유문은 언어례절상 의문문이나 서술문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① 의문문으로의 전환 ——— 존대, 하대의 경우

《이제 떠납시다.》 →《이제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타자.》→《빨리 타지 않겠나?》

② 서술문으로의 전환 ——— 존대의 경우

《선생님, 이젠 가십시다.》→《선생님, 이젠 가셔야겠습니다.》

《어서 떠납시다.》→《벌써 시간이 되였습니다.》

국어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우이거나 직무가 상급인 상대방에게 권유문을 쓰는것을 되도록 삼가하는것이 언어례절을 지키는것으로 되여있다.

제 6 장. 문장의 구조적류형

제 1 절. 문장의 구조적류형의 부류

문장은 내용-기능의 측면에서 류형을 가를수 있을뿐만아니라 형식-구조의 측면에서도 류형을 구분하여 설정할수 있다.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할수 있다.

첫째로, 문장성분이 단순한가 확대되여있는가 다시말하여 문장이 단순성분만으로 이루어져있는가 또는 확대성분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서 단순문과 확대문으로 나눌수 있다.

○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단순문)

○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확대문)

첫째 문장은 3개의 성분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와 같은 단순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단순문이다. 그에 비해서 둘째 문장의 경우에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규정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과 같은 확대성분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확대성분을 가지고있는 문장을 단순문과 구별하여 확대문이라고 한다.

둘째로, 문장에서 그 진술구성의 조직적중심으로서 주어부와 술어부가 다 갖추어져있는가 또는 하나만 있는가에 따라서 외구성문과 두구성문으로 나눌수 있다.

① 만경대. (외구성문)

② 만경대는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다. (두구성문)

①에 비해서 ②는 주어부와 술어부가 다 갖추어져있기때문에 두구성문이라고 하며 ①의 경우에는 하나의 성분인 술어만으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외구성문이라고 한다.

셋째로, 전체 문장에 진술단위가 하나 있는가 또는 둘이상 있는가에 따라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나눌수 있다.

① 우리는 위대한 선군시대에 살고있다. (단일문)

②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으므로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락원이 성과적으로 건설되였다. (복합문)

①은 진술구조가 하나인데 비해서 ②는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으므로》와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락원이 성과적으로 건설되였다.》의 두개 진술구조로 되여있다. 그리하여 첫째 문장을 단일문이라고 하며 둘째 문장을 복합문이라고 한다.

1. 단순문과 확대문

1) 단순문

단순문이란 단순성분만으로 이루어지고 확대성분을 가지지 않는 문장이다.

○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 시민들이 북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춤판을 벌리고있다.

단순문은 문장이 길고 짧은것과 무관계하다.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단순성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문으로 된다.

2) 확대문

확대문이란 하나 이상의 확대성분을 가지고있는 문장이다.

○ 제대군인들을 환영하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는 혜산청년역은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있었다.

○ 앞선 세대에 대한 추억은 반드시 자기 시대의 사명감과 의무에 대한 자각으로 빛나는 법이다.

우리 말 문장구조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어떠한 문장성분이든지 그것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여나갈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여 문장구조속에서 임의의 문장성분이든지 이야기내용의 요구에 따라 여러 단계로 확대되여나가며 그 결합통일체가 하나의 문장성분이 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확대구조가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마지막에 놓인 단어의 구조—문법적형태와 문장론적기능에 의하여 규정된다.

① 확대술어

○ 우리가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요새는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이다.

○ 세계적인 명산—금강산은 경치가 세상에서 으뜸이다.

② 확대주어

○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헤쳐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기질이다.

③ 확대객어

○ 우리는 당의 고마운 은덕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 우리 세대는 이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고있다.

④ 확대보어

○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의 앞장에 우리 청년들이 서있는것이다.

○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있다.

⑤ 확대상황어

○ 우리 인민은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언제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며 원수님께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 철수는 발이 닳도록 농장의 이곳저곳 모판을 돌아보았다.

⑥ 확대규정어

○ 강성국가건설의 큰 보폭을 내짚은 우리 인민들은 도처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던 대고조시기의 기대공들을 우리는 잊을수 없었다.

2. 외구성문과 두구성문

1) 외구성문

외구성문이란 진술구성의 조직적중심이 하나만 있는것으로서 무주어문, 명명문, 간투문과 같은것이 있다.

(1) 무주어문

무주어문은 문장에 주어가 없고 술어만 있는것이 특징이다. 이때 주어는 본래 문장에 있던것이 생략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장면 또는 문맥에 의하여 이것을 복구하기가 곤난하며 또한 이것을 복구할 필요가 없다. 주어없이 술어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의 진술성이 표현되여있으며 전달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따라서 본래 문장에 있는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문과 무주어문과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는데 무주어문과는 달리 불완전문에서는 생략된 성분을 장면 또는 문맥에 의하여 복구할수 있는것이 그 특징으로 된다.

우리 언어생활에서 무주어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① 시기와 환경을 말하는 경우

○ 어느해 봄이였다.

○ 캄캄하고 조용한 한밤중이였다.

○ 행군도중의 어느날이였다.

○ 락동강도하전투에서 있었던 일이다.

② 누구에게나 타당한 사실을 전하는 경우

○ 기술을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 바쁜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③ 인사말 또는 대화의 주제가 명백한 경우

○ 어데 가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④ 정치적인 호소문의 경우

○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라!

○ 모든 부문에서 《마식령속도》로 힘차게 내달리자!

⑤ 교훈적인 속담의 경우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2) 명명문

명명문은 대상, 현상, 상태 등을 명명하면서 그것이 현재 존재한다는것을 확인하는 문장이다. 문장에 단 하나만 있는 기본성분은 명사의 절대격형태로 끝나며 서술 또는 감탄의 어조로 발음한다.

① 서술적명명문

○ 세포등판건설전투장.

○ 총소리, 작탄소리, 놈들의 아우성소리.

② 의문적명명문

○ 《유격대원?》 그는 커다란 충동을 받은것 같았다.

○ 《방학? 벌써 방학이 됐나?》

③ 감탄적명명문

○ 아, 백두산!

○ 영원히 젊어 푸르른 삼지연!

(3) 간투문

간투문은 단 하나의 단어(주로 감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단순한 긍정, 부정, 동의, 부동의 등을 나타내든가 또는 말하는 사람의 여러가지 감정이나 의지를 나타낸다.

○ 아무렴!

○ 오냐!

○ 아아!

○ 에구머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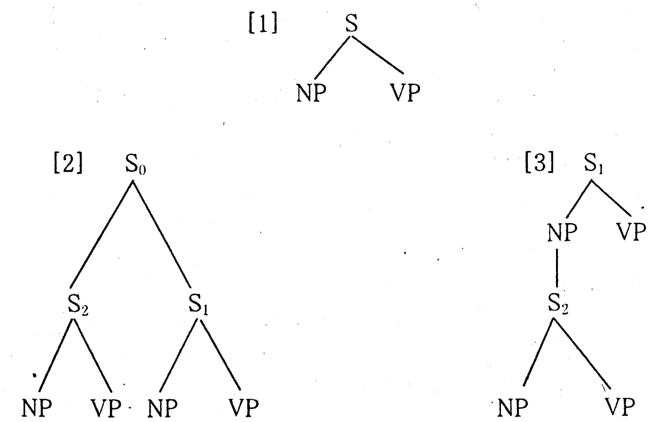
2) 두구성문

두구성문이란 진술구성에 주어와 술어가 갖추어져있는것으로서 한 문장안에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한번만 이루어지고있는가 또는 그 이상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층계가 같은가 또는 다른가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적류형을 나눈다.

[1] 봄이 왔다.

[2]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3] 꽃이 피는 봄이 왔다.



[1]의 경우에는 한개 문장에 술어 《왔다》가 한개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주어가 하나만 있다. 이것은 문장과 서술기능의 관계가 《1:1》인 경우로서 단일관계라고 할수 있다.

[2], [3]의 경우에는 한개 문장안에 각각 주어에 대응하는 술어가 둘씩([2]＝가고, 왔다/[3]＝피는, 왔다)있다. 이것은 문장과 서술기능과의 관계가 《1:n(n=2)》인 경우로서 복합관계라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1]을 단일문이라고 하며 [2]와 [3]을 복합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2]와 [3]은 같은 복합문이라고 하여도 그 술어의 계층구조가 서로 다르다. 즉 [2]의 경우에는 두개의 술어가 한 계층선상에 나란히 놓여있어 S_1과 S_2는 병렬되여있다. 그러나 [3]의 경우에는 두개의 술어가 서로 다른 계층선상에서 기능하고있다. 즉 문장을 S_0으로 표시할 때 하나의 S_1이 다른 S_2를 관할하는데 이때 관할하는 S_1을 웃단계문장이라고 하고 관할되는 S_2를 아래단계문장이라고 한다.

웃단계문장이 아래단계문장을 관할하는 경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할할수 있는데 [2]와 같이 웃단계문장이 아래단계문장을 직접 관할하는 복합문구조를 련결문이라고 하며 [3]과 같이 웃단계문장이 명사구(NP) 또는 동사구(VP)를 거쳐서 간접으로 관할하는 복합문구조를 내포문이라고 한다.

3. 단일문과 복합문

1) 단일문

단일문이란 전일적인 문장구조속에 단 하나의 진술단위만 있는 문장이다. 단일문은 문장의 길이와는 무관계한것으로서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진술단위가 하나인 경우에는 단일문으로 된다.

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세계 1등급으로 훌륭히 건설되였다.

② 지난해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 보건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 총진군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①과 ②는 문장의 길이와는 관계없이 진술단위가 하나로 되여있는 단일문들이다. 차이가 있다면 ①이 확대성분을 전혀 가지지 않는 단순단일문인데 비해서 ②는 《지난해의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과 같은 긴 확대성분을 가진 확대단일문이라는데 있다.

2) 복합문

복합문이란 전일적인 문장구조속에 진술단위가 둘 또는 그 이상 있는 문장이다. 복합문은 단일문의 기계적인 결합이 아니라 두개이상의 진술단위가 하나의 문장구조속에 융합되여있는것이다.

① 소리없이 밤이슬이 내리자 어느새 초생달이 지붕우에 높이 솟아올랐다.

② 그것은 참으로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였지만 일군들은 신심을 가지고 과업관철에 모두다 떨쳐나섰던것이다.

①은 《소리없이 밤이슬이 내리자》와 《어느새 초생달이 지붕우에 높이 솟아올랐다.》의 두개 진술단위로 이루어진 복합문이며 ②는 《그것은 참으로 무겁고 방대한 과업이였지만》과 《일군들은 신심을 가지고 과업관철에 모두다 떨쳐나섰던것이다.》의 두개 진술단위로 이루어진 복합문이다.

그런데 ①의 경우에는 단순성분만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②의 경우에는 《참으로 무겁고 방대한》과 《신심을 가지고》와 같은 확대성분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①은 단순복합문이라고 하며 ②는 확대복합문이라고 한다.

복합문을 이루고있는 진술단위들은 앞에서 보여준 도표와 같이 선형구조상 앞뒤로 련결되여있는 경우도 있으며([2]) 또한 진술단위가 다른 진술단위를 안고있는 경우도 있다.([3])

[2]와 같이 진술단위들이 앞뒤로 련결되여있는 복합문을 련결문이라고 하며 [3]과 같이 한 진술단위가 다른 진술단위를 안고있는 복합문을 내포문이라고 한다.

제 2 절. 련결복합문

1. 련결복합문의 개념

련결복합문은 [2]와 같이 웃단계문장(S_1)이 아래단계문장(S_2)을 직접 관할하는 통합구조로서 두개 이상의 문장이 선형구조상 앞뒤로 평면적으로 이

어져있는 복합문을 말한다. 이때 이어진 진술단위들은 각각 절을 이루게 되는데 선행절과 후행절은 일정한 련결수단에 의해서 이어진다.

① 해가 지**자** 부대는 행군을 시작하였다.

② 영수가 썰매를 타**고** 철이가 그것을 뒤에서 밀**며** 용이가 앞에서 끌었다.

①은 두개의 절이 이어져서 이루어진것이며 ②는 세개의 절이 이어져서 이루진것인데 그 련결수단으로 접속토 《자, 고, 며》가 리용되였다.

련결복합문을 이루는 절을 련결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포절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내포절은 아래단계문장으로서 웃단계문장의 한 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나 련결절은 하나의 진술단위로서 다른 진술단위와 함께 더 큰 문장을 이룬다.

③ 우리는 누구나 다 잘사는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였다.

④ 동무들이 거듭 권고했지만 그는 끝내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았다.

③의 내포절인 《누구나 다 잘사는》은 《사회주의락원》에 대한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는데 반하여 ④의 경우에 선행절 《동무들이 거듭 권고했지만》과 후행절 《그는 끝내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았다.》는 각각 하나의 진술단위를 이루면서 하나의 큰 문장안에 들어가고있다.

둘째로, 내포절과 련결절은 기능상으로 구별될뿐아니라 억양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즉 내포절은 억양상으로 상대적인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련결절은 접속의 중간억양 또는 렬거의 억양과 함께 짧은 끊기가 옴으로써 억양상 상대적인 구획이 가능하다.

이처럼 련결절을 둘이상 가지고있는 문장을 련결복합문이라고 한다.

2. 련결복합문의 통합적특성

첫째로, 련결복합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련결의 성격은 선행절의 술어로 되는 단어의 형태에 의하여 표현된다.

⑤ ㄱ. 먼동이 튼다.
　ㄴ. 별들이 사라진다.

ㄱ, ㄴ의 두개 진술단위가 하나의 련결복합문을 이루는 경우에 련결의 성격은 ㄱ의 동사술어 《트다》가 취하게 되는 접속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 ㄷ. 먼동이 트**니까** 별들이 사라진다. ——— 원인
　ㄹ. 먼동이 트**면** 별들이 사라진다. ——— 조건
　ㅁ. 먼동이 트**자** 별들이 사라진다. ——— 동시성
　ㅂ. 먼동이 트**면서** 별들이 사라진다. ——— 동시성
　ㅅ. 먼동이 트**고** 별들이 사라진다. ——— 순차성

이것은 형태론과 문장론의 밀접한 련관성을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된다.

둘째로, 선행절과 후행절은 문법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련결되는것이 아니라 후행절이 선행절을 문법적으로 통솔하는 관계에 있다. 즉 선행절은 구조－기능적으로 완결되지 못했기때문에 술어로서 응당 나타내야 할 문법적의미를 직접 나타내지 못하며 시칭, 존칭의 문법적의미가 귀일관계를 통하여 후행절에서 표현되고있다.

⑥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⑦ 삼단같은 불길이 밤하늘을 불태우며 순식간에 고향마을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⑥의 경우에 선행절의 술어 《불고》는 후행절의 술어 《내리겠습니다.》에 의해서 문법적지배를 받으며 문법적의미를 보충받고있다. 즉 후행절의 술어 《내리겠습니다.》의 시칭토 《－겠－》의 미래시간의 의미는 선행절의 술어 《불고》에까지 미치여 《불겠고》의 뜻으로 되는것이다.

⑦의 경우에도 선행절의 술어 《불태우며》와 후행절의 술어 《만들었다.》의 관계도 ⑥의 경우와 같다. 즉 후행절의 술어 《만들었다.》의 시칭토 《－었－》의 과거시간의미는 선행절의 술어 《불태우며》에까지 미치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선행절은 후행절안으로 자리를 옮길수 없다.

⑧ ㄱ. 영수가 춤을 추고 영희가 손풍금을 탔다.

ㄴ. × 영희가 손풍금을, <u>영수가 춤을 추고</u> 탔다.

× 영희가, <u>영수가 춤을 추고</u> 손풍금을 탔다.

이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각 주어와 술어를 가지는 하나의 진술단위로 되여있기때문에 그것을 깨뜨릴수 없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넷째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성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느 하나가 생략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겹치는 성분이 명사인 경우에는 후행절에서 생략하고 동사인 경우에는 선행절에서 생략한다.*

* 이것은 선행절의 동사가 《－고－》나 《－며－》, 《－거나－》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 국한된다.

⑨ 철수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철수가 노래도 부르고 **철수가** 춤도 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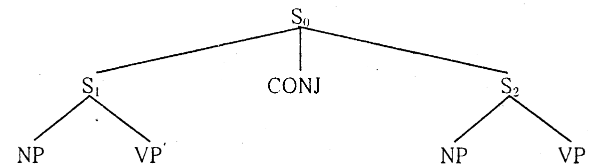
⑩ 철수가 말을 타고 영수가 끌었다.

←철수가 말을 타고 영수가 **말을** 끌었다.

⑪ 영수는 사과를, 영희는 배를 먹었다.

←영수는 사과를 **먹었고** 영희는 배를 먹었다.

다섯째로, 련결복합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련결소*에 의하여 련결된다.



* 련결소(Conjunction)는 간략해서 CONJ로 표시한다.

여섯째로, 련결복합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접속토에 의해서만 련결되는것이 아니라 토와 보조적단어에 의해서도 련결될수 있으며 토 없이 접속의 어조에 의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① 사상이 개조되니 일하는 솜씨가 **달라졌을뿐만아니라** 생각도, 마음씨도 달라졌던것이다.

② 작업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손을 떼지 않았다.

③ 유격대의 무장이 **강화됨에 따라** 그 투쟁규모도 비할바없이 커졌다.

④ 여기는 감나무마을, 저기는 밤나무마을이다.

①, ②, ③은 보조적단어들이 련결수단으로 된것이고 ④는 아무런 토의 도움없이 접속의 어조에 의하여 련결된것이다.

3. 련결복합문의 의미론적조건과 문법적제약

1) 련결복합문의 의미론적조건

련결복합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련결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일정한 의미론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로, 선행절과 후행절 즉 S_1과 S_2는 의미상으로 긴밀하게 련계되고 론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둘째로, S_1과 S_2는 내용이 공통화제, 공통의미로 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련결문이 성립될수 없다.

① × 철수는 탁구를 치고 영수는 탁구를 좋아한다.

①의 경우에 탁구가 공통화제로 되여있으나 선행절과 후행절에 있는 동일한 객어에 대한 술어들이 의미적으로 공통성을 보장하고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공통의미가 성립되지 않아 비문으로 되고말았다.

② × 순희가 노래를 부르고 옥이가 음악대학에 다닌다.

②의 경우에도 음악이 공통화제로 되여있으나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객어와 술어, 보어와 술어가 의미적인 공통성을 가지고있지 않기때문에 공통의미가 형성되지 않아 비문으로 되였다.

결국 련결복합문의 의미론적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을것이다.

즉 련결복합문은 S_1과 S_2가 이어져서 S_0이라는 하나의 큰 문장이 되여 의

미론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웃단계의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된 웃단계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S_1과 S_2의 명제가 의미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련관이 깊어서 공통의미가 성립되여 모순이 없어야 한다.

2) 련결복합문의 문법적제약

련결복합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문법적인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로, 시칭토의 제약을 들수 있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선행절의 사건이 항상 먼저 일어남을 나타내는 접속토 《—아서/—어서, —고서, —ㄴ들, —건대, —자, ㄹ수록》이 붙는 경우에는 시칭토 《—았—, —겠—》이나 《—더—》가 거기에 붙을수 없다.

③ ㄱ. 철수는 얼마간 일을 하고서 일손을 놓았다.
ㄴ. 영수가 학교에 도착하자 종소리가 났다.
ㄱ' × 철수는 얼마간 일을 했고서 일손을 놓았다.
ㄴ' × 영수가 학교에 도착했자 종소리가 났다.

둘째로, 접속토에 따라서 종결형을 취하는데서 제약이 있을수 있다.

선행절이 접속토 《—아야, —느라고, —건만, —거니와, —자》 등을 취한 경우에는 후행절의 종결형이 명령형이나 권유형을 취할수 없다.

④ ㄱ. 오늘은 피곤하니 좀 쉽시다.
ㄴ. 저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그에게 부탁하여라.
ㄱ' × 오늘은 피곤하느라고 좀 쉽시다.
ㄴ' × 저 사람이 믿을만 하건만 그에게 부탁하여라.

또한 접속토 《—느니, —지만, —되》는 뒤에서 의문의 종결형과 결합하지 못하며 《—거든》은 서술형이나 의문형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⑤ ㄱ. 눈이 그쳤는데 아직도 날이 개이지 않았느냐?
ㄴ. 영수가 도착하면 너는 떠나겠지?
ㄱ' × 눈이 그쳤으되 아직 날이 개이지 않았느냐?
ㄴ' × 영수가 도착하거든 너는 떠나겠지?

셋째로, 주어의 제약을 들수 있다.

접속토 《—느라고, —고서, —려고》 등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을것을 요구한다.

⑥ ㄱ. 대학생들이 숙제를 하느라고 저렇게 도서관으로 가고있습니다.
ㄴ. 철수는 입학통지서를 받고서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학생들이》와 《철수는》은 선행절과 후행절에 다 걸리기때문에 반복을 피해서 후행절에서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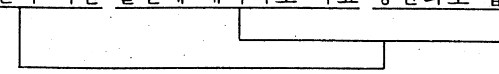
그런데 접속토 《—느라고, —고서》로 련결된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다른 주어를 쓰게 되면 비문이 된다.

ㄱ' × 대학생들이 숙제를 하느라고 중학생들이 저렇게 도서관으로 가고있습니다.
ㄴ' × 철수는 입학통지서를 받고서 영희는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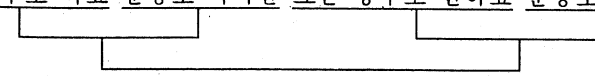
4. 련결복합문의 계층구조와 련결의 성격

련결복합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통합상으로 대등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대등할수도 있고 종속관계에 있을수도 있다. 문장안에서 여러개의 절이 이어질 때에는 련계상의 계층이 달리 설정될수 있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것은 늘 후행절에 매여서 그것과 함께 한 단위를 이루지만 대등하게 이어진것들사이에도 서로 다른 계층이 생길수 있다.

○ 봄계절이 되면 울안에 개나리도 피고 봉선화도 곱게 핍니다.



○ 나는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그는 공부도 안하고 운동도 안한다.



련결복합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련결의 성격은 선행절의 술어에 따라서 좌우된다. 다시말하여 선행절의 술어가 취한 토의 성격에 의해서 후행절과의 관계가 대등인가, 종속인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① 영웅전사는 **희생되여도** 력사에 이름을 남기고 변절자는 죽어서도 오명을 벗지 못한다.
② 그는 이미 **갔으나** 그의 작품은 오늘까지 길이 전하고있다.
③ 날씨가 **따뜻해지면** 고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④ 지난밤에 눈보라가 **쳤으므로** 길이 다 막혀버렸다.
⑤ 우리는 기술자도 **아니다**, 특별히 아는것도 **없다**, 그러나 사상만 발동된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것입니다.

①과 ②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대등하며 ③과 ④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종속적이다. 반면에 ⑤는 선행절과 후행절들이 렬거의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련결복합문은 다시 병렬, 종속, 렬거의 3개 부류로 나누게 된다.

1) 병렬련결문

병렬련결문은 진술단위들이 접속토에 의하여 이어지되 내용상으로는 서로 같은 자격을 가지고 련결된 복합문이다.

병렬련결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들가운데서 하나는 종결술어를 가지지만 그

밖의 진술단위들은 접속술어를 가지게 된다. 이로부터 접속술어를 가지는 진술단위들은 종결술어를 가지는 진술단위에 문법적으로 의존된다. 국어문장구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종결술어를 가지는 진술단위는 흔히 련결복합문의 마지막자리에 놓이면서 앞의 진술단위들을 하나의 복합문에 통일시킨다. 여기서 바로 국어문장의 특성의 하나인 귀일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 돈 없는 로동자 망치 메고 나오고
땅 없는 농민은 호미 메고 나오라

○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완수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접속술어인 《나오고》는 종결술어인 《나오라》에, 접속술어인 《완수하며》는 종결술어인 《해결하여야 한다》에 문법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문법적관계의 표시는 끝에 오는 단위가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귀일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병렬련결문에서는 진술단위들을 련결하는 수단으로 접속의 어조와 함께 보조적단어들이 리용될수 있다.

○ 작업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손을 놓지 않았다.

○ 동지들! 일제침략군은 날로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반면에 우리 유격대는 나날이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 물길굴건설장에는 영수가 갔을뿐만아니라 영희도 그뒤를 따랐다.

○ 철이는 지각한다면서 솜옷은 고사하고 모자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

○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는 한편 이미 있는 기계도 개조하였다.

병렬련결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들은 내용상 합침, 맞섬, 가림 등의 관계로 서로 련결된다.

(1) 합침관계로 이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 복합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들에서 표현된 사건, 현상들은 동시에 발생되거나 존재하고 동시에 진행된것임을 의미한다.

합침관계의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로 《고》, 《며》, 《는데》, 《거니와》, 《려니와》 등의 접속토들이 리용된다.

○ 우리 나라는 기후도 온화하거니와 자연경치도 아름답다.

○ 아직도 날씨는 풀리지 않았고 두만강의 얼음도 여전하였다.

(2) 맞섬관계로 이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 복합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들에서 표현된 사실, 현상들은 서로 반대되거나 또는 대립됨을 나타낸다.

맞섬관계의 여러가지 의미들은 주로 《나》, 《건마는(건만)》, 《지마

는》, 《련마는》, 《되》 등 접속토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 하루하루 전투는 더 가렬해졌지마는 전사들의 사기는 점점 더 높아만 갔다.

○ 꽃피는 시절은 아직 멀었건만 그래도 새로운 봄향기가 풍기는 것 같았다.

(3) 가림관계로 이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 복합문을 이어주는 진술단위들에서 표현된 사실, 현상들은 그중에서 한 현상에만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서로 바뀜을 나타낸다.

가림관계의 여러가지 의미들은 주로 《거나》, 《든지》, 《든가》 등 접속토들에 의하여 표현된다.

○ 래일은 바람이 몹시 불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 이제 곧 김동무가 오든지 박동무가 올것이다.

2) 종속련결문

종속련결문은 진술단위들이 접속토에 의하여 이어지되 내용상 하나가 다른 하나에 매이는 관계로 련결된 복합문을 말한다.

종속련결문은 진술단위들이 의미－내용상으로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다시말하여 종속련결문은 진술단위들가운데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문법적으로뿐만아니라 의미－내용적으로도 매이는 관계로 련결되여있다는 점에서 병렬련결문과 차이가 있다.

종속련결문에서 매인단위는 이끈단위의 앞에 오거나 또는 이끈단위의 중간에 올수도 있는데 매인단위가 이끈단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는 크게 조건, 원인, 차례 등으로 나눌수 있다.

(1) 조건관계로 매이는 경우

이 경우에 매인단위에서 표현되는 내용은 이끈단위에서 표현되는 내용이 어떠한 조건에서 수행될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조건관계의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로 《면》, 《거든》, 《던들》, 《아야》, 《아도(어도)》, 《ㄹ진대》 등 접속토들이 리용된다.

○ 래일 비가 오면 체육대회는 연기됩니다.

○ 고향에 도착하거든 지체말고 전보로 알려라.

(2) 원인관계로 매이는 경우

이 경우에 매인단위에서 표현된 내용은 이끈단위에서 표현된 내용의 원인으로 된다.

원인관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므로》, 《ㄴ즉》, 《니》, 《니까》, 《기에》, 《길래》, 《ㄴ지라》 등 접속토들이 리용된다.

○ 그때는 적들의 발악이 심한지라 우리는 토굴의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대책을 세웠다.

○ 그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왔으므로 대원들의 사기는 높아만 갔다.

(3) 차례관계로 매이는 경우

이 경우에 매인단위에서 표현된 내용은 이끈단위에서 표현된 내용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진행됨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매인단위는 이끈단위에 대하여 사건, 현상의 순차적련속성을 보여주면서 매이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

차례관계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로 《자》, 《고서》, 《다가》 등 접속토들이 리용된다.

○ 그가 떠나가자 곧 이어서 순녀가 왔다.

○ 비가 멎고서 이어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종속련결문에서 진술단위들이 서로 매이는 관계는 이밖에도 더 다양할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접속토의 의미의 다양성과 관련되여있다.

3) 렬거련결문

렬거련결문은 진술단위들이 의미-내용상으로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련결된 복합문을 말한다. 그것은 렬거련결문에 들어가는 진술단위들이 전일적인 전달의 어조에 의하여 복합문에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자립적인 문장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형식을 다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렬거련결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들은 술어의 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어조만 달리 하고 끊기를 하게 되면 자립적인 문장으로 될수 있다.

○ 어째서 우리가 남에게 매달려야 하는가,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드팀없는 립장이였다.

○ 산천이 아름답고 금은보화로 가득찬 내 조국, 슬기롭고 유구한 력사로 자랑많은 내 조국, 나는 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한다.

다른 련결문들은 접속토와 접속의 어조에 의하여 진술단위들이 련결되지만 렬거련결문을 이루는 진술단위들은 접속토에 의해서 련결되는것이 아니라 구조-형식상 자립적인 문장의 형식을 갖춘 진술단위들이 렬거의 어조에 의하여 하나의 복합문을 이루고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제 3 절. 내포복합문

1. 내포복합문의 개념

내포복합문이란 한 문장이 그속에 다른 한 문장을 안고있는 복합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내포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안은문장, 안긴문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

① 어머니는 철수가 어제 고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② 그는 순희가 대학에 입학한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①의 《소식》이라는 명사는 어떤 소식인지를 밝혀주는 말을 필요로 하고있다. 그리고 《철수가 어제 고향으로 떠났다.》라는 하나의 문장은 규정토 《-는》이 붙어서 《소식》에 대한 규정절로 되고있으며 ②의 《순희가 대학에 입학하다.》라는 문장은 불완전명사 《것》의 도움으로 대상화되여 《축하하다》의 객어절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①, ②와 같은 작은 문장이 하나의 성분으로 되여 큰 문장안에 안기고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①에서 《철수가 어제 고향으로 떠났다.》는 안긴문장이고 《어머니는 소식을 들었다.》는 안은문장이며 ②에서 《순희가 대학에 입학하다.》는 안긴문장이고 《그는 진심으로 축하하였다.》는 안은문장이라고 할수 있다.

한 문장을 안고있는 큰 문장 즉 안은문장을 웃단계문장이라고 하고 큰 문장에 안겨있는 작은 문장 즉 안긴문장을 아래단계문장이라고 하는데 아래단계문장은 절이라고도 한다.

절에는 명사절, 술어절, 규정절, 인용절 등이 있다.

2. 명 사 절

1) 명사절의 류형

명사절은 문장을 명사화하여 만든것으로서 그 문장의 술어가 용언대상토 《-ㅁ》나 《-기》를 취하거나 또는 불완전명사 《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명사절로 된다. 그밖에 일부 의문의 종결형이 대상화되여 직접 명사절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명사절에는 《-ㅁ》명사절, 《-기》명사절, 《것》명사절, 의문형 명사절 등 류형이 있게 된다.

① 우리는 그들이 학업에 열중하고있음을 똑똑히 알수 있었다.
——— 《ㅁ》명사절

② 대원들은 밀영에서 사령부련락원이 오기를 기다렸다.
——— 《기》명사절

③ 나는 그가 고향으로 떠났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 《것》명사절 1형*

④ 그가 고향으로 내려간것을 순희는 전혀 모르고있었다.
——— 《것》명사절 2형

⑤ 나는 지금도 그가 전투에서 얼마나 용감하였는가를 회상하군 한다.
——— 의문종결형 명사절

* 《것》명사절 1형은 《단어종결형+는것》이며 《것》명사절 2형은 《단어규정형+것》을 가리킨다.

2) 명사절의 용법

명사절은 문장에서 여러가지 문장성분으로 쓰일수 있는데 통합구조상 아무런 제약이 없이 쓰이는것이 아니다. 명사절의 쓰임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뒤에 오는 술어에 의한 선택제약과 관련되여있다.

(1) 《-ㅁ》명사절과 《-기》명사절

《-ㅁ》명사절과 《-기》명사절은 뒤에 오는 술어에 따르는 일정한 선택제약을 받는다.

① 그가 이번 시험에서 일등을 했음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 그가 이번 시험에서 일등을 했기가 우리에게 알려졌다.

② 나는 옥이가 개인콩클에 입선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 나는 옥이가 개인콩클에 입선함을 진심으로 바랐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①에서 술어 《알려지다》에는 주어자리에 《-ㅁ》명사절이 와야지 《-기》명사절이 오게 되면 비문이 된다.

②에서 술어 《바라다》의 객어자리에는 《-기》명사절이 와야지 《-ㅁ》명사절이 오게 되면 어색한 문장으로 된다.

이것은 일정한 동사술어가 일정한 류형의 명사절과만 통합관계를 맺을수 있음을 말해주는것으로 된다.

《-ㅁ》명사절, 《-기》명사절이 그 어떤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뒤에 맞물리는 술어와의 선택제약에 의한 통합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 하기(×함)+쉽다, 어렵다, 좋다, 싫다, 괴롭다

… 하기(×함)를+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 하기(×함)로+작정하다, 결심하다, 약속하다, 마음먹다, 소문나다

… 했음(×하기)을+알았다, 몰랐다, 깨달았다, 발견했다, 느꼈다

… 했음(×하기)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명백하다, 드러나다

전체적으로 보아 《-ㅁ》명사절보다 《-기》명사절이 더 널리 쓰이고있음을 알수 있다. 대체로 《-ㅁ》은 이미 이루어지거나 결정되여있는 일을 나타내고 《-기》는 《-ㅁ》와는 달리 비결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기》의 용법이 반드시 비결정적인 문맥으로 확정되기만 하는것은 아니다.

③ 통학렬차가 지나가기에 너무 기뻐서 손을 흔들었다.

④ 성공에는 피타는 노력이 있기마련이다.

이 경우에 비결정적인 의미는 드러나는것이 아니여서 《-ㅁ》만을 허용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기》는 중립적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할수 있다.

이 류형의 명사절의 뒤에 맞물리는 술어에 올수 있는 동사,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ㅁ》명사절

드러나다, 밝혀지다, 알려지다, 탄로되다, 짐작하다, 발표하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상하다, 현명하다, 어리석다, 묘하다, 옳다

《-기》명사절

바라다, 희망하다, 갈망하다, 빌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적당하다, 나쁘다, 좋다, 싫다, 알맞다

(2) 《것》명사절의 제1형과 제2형

⑤ 철수가 이번에 승리하였다는것이 우리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⑥ 분이가 그곳에 갔다는것이 화제거리로 되였다.

⑦ 그가 달려오는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던것이다.

⑧ 우리는 그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줄것을 바랐다.

⑤, ⑥은 아래단계문장의 술어종결형에 《-는것》이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절 제1형을 가진 내포문이다.

이러한 《것》명사절 제1형은 본래 《-다고(는가고, 라고, 자고) 하는것》이 줄어든것이라고 할수 있다.

⑤' 철수가 이번에 승리하였다고 하는것이 우리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⑥' 분이가 그곳에 갔다고 하는것이 화제거리로 되였다.

이 경우에 아래단계문장과 웃단계문장은 시간상 일치가 보장되여야 한다.

⑦, ⑧은 아래단계문장의 술어가 규정형을 취하게 된 명사절 제2형을 가진 내포문이다.

《것》명사절 제2형은 제1형과 교체가 가능한것도 있고 불가능한것도 있다.

⑨ 우리는 영수가 숙제를 하는것을 성의껏 도와주었다.

× 우리는 영수가 숙제를 한다는것을 성의껏 도와주었다.

이처럼 ⑨의 경우에는 제1형과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⑩ ㄱ. 나는 철수가 자동차를 모는것이 이상스러웠다.

ㄴ. 나는 철수가 자동차를 몬다는것이 이상스러웠다.

ㄱ의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솜씨가 비정상이라는것과 자동차를 운전한다는것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두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것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ㄴ와 같이 바꾸어 표현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제1형을 제2형으로 바꿀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된다.

-았다는것→-ㄴ것

-는다는것→-는것

-다는것→-ㄴ것(술어가 형용사나 체언서술형일 때)

-았었다는것→-(었)던것

《것》명사절의 뒤에서 맞물리는 술어의 동사나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제1형의 변이형이 아닌 제2형의 경우 :

돕다, 거들다, 말리다, 참다, 억제하다, 느끼다, 보다, 듣다, 금지하다, 계속하다, 수상하다, 느리다, 능률적이다, 합리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제1형과 제2형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 :

《ㅡㅁ》명사절과 대부분 공통적이다. 그런데 입말체의 경우에는 《것》명사절이 더 많이 쓰인다.

(3) 의문형의 명사절

이 류형의 명사절은 《ㅡ는가, ㅡ는지, ㅡ느냐》 등이 그대로 대상화되면서 명사절을 이룬것이다.

⑪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팀이 이기느냐가 론의거리로 되였다.

⑫ 우리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기한전에 끝낼것인가를 심각하게 토의하였다.

의문형의 명사절의 경우에 뒤에 맞물리는 술어는 다음과 같다.

알다, 모르다, 묻다, 조회하다, 념려하다, 궁금하다, 의문이다, 문제이다, 의심스럽다

명사절은 비록 명사와 동일한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자체가 규정어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성이 있다. 즉 관형사를 비롯한 규정구나 규정절이 명사절을 수식하는 일이 없는것이다. 그것은 명사절이라는 통합체가 명사적기능을 수행할뿐이지 그자체가 결코 명사가 아니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여러가지의 성분적기능을 수행하기때문에 그에 대해서 따로 성분기능상의 명칭을 달지 않는다.

3. 술 어 절

술어절은 한 문장에서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절을 말한다.

① 노루는 걸음이 빠르다.

② 체육선수가 셋이 왔다.

③ 철수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술어절은 웃단계문장의 주어와 아래단계문장의 주어사이의 관계, 술어절의 용언술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크게 두개 류형으로 나누어 분석할수가 있다.

제1형은 웃단계문장의 주어와 아래단계문장의 주어의 관계가 큰것과 작은것의 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 류와 종의 관계, 소유관계, 수량관계 등으로 되여있어 주어의 중첩이 더해갈수록 그 범위가 좁아져가는 특징이 있다.

④ 다리가 발목이 저리다. ㅡㅡㅡ 전체와 부분

⑤ 어머님께서 병환이 더하십니다. ㅡㅡㅡ 소유관계

⑥ 농촌이 살림집이 터밭이 넓다. ㅡㅡㅡ 전체와 부분

제1형의 주어중첩에서 수량화이외의 경우에는 앞에 오는 주어의 격형태를 바꾸어 규정어로 만들수 있는데 그것은 중첩되는 주어들의 관계가 《대〉소》의 관계로 되여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④' 다리의 발목이 저리다.

⑤' 어머님의 병환이 더하십니다.

⑥' 농촌의 살림집의 터밭이 넓다.

결국 술어절 제1형은 [N1+N2+N3+N4+Nn ㅡㅡㅡ]의 N들이 점차적인 《대〉소》의 관계로 되여있는 통합구조라고 할수 있다.

제2형은 중첩하는 명사들가운데 어느 하나가 의미상으로 장소, 간접객체, 수단, 재료 등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때 용언술어가 요구하는 결합항인 주어는 보어로 바꿀수 있다.

⑦ 개성이 고적이 많다.

⑧ 저 아이가 젖이 요구됩니다.

⑨ 이 원주필이 글씨가 잘됩니다.

이 경우에 문장의 본래 주어인 ⑦의 《개성이》는 의미상으로 《개성에》이며 ⑧의 《아이가》는 《아이에게》의 뜻이다. 그리고 ⑨의 《원주필이》는 사실상 《원주필로》와 같은 수단의 의미로 쓰인것이다. 그래야만 문장이 순탄하게 된다.

⑦' 개성에 고적이 많다.

⑧' 저 아이에게 젖이 요구됩니다.

⑨' 이 원주필로 글씨가 잘됩니다.

제2형의 술어절은 주어의 중첩이 둘이상 있는 일이 없으며 《대〉소》의 관계를 맺지 않고있는 점에서 제1형과 구별된다.

술어절의 제1형과 제2형은 뒤섞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⑩ 김치독이 바닥이 구멍이 셋이 났다.

⑪ 룡악산이 기슭이 곰취가 많다.

⑩에서 첫째 명사인 《김치독》과 둘째 명사인 《바닥》의 관계는 《대〉소》의 관계인것만큼 첫째 명사를 속격형태로 바꿀수 있으나 둘째 명사인 《바닥》과 셋째 명사인 《구멍》의 관계는 《대〉소》의 관계가 아니라 둘째 명사가 의미상 장소의 뜻으로 쓰인것이여서 위격형태로 바꾸어 보어로 만들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둘째 명사가 의미상 장소의 뜻으로 쓰인것이기때문에 위격형태로 바꾸어 보어로 만들수 있다.

⑩' 김치독의 바닥에 구멍이 셋이 났다.

⑪' 룡악산의 기슭에 곰취가 많다.

즉 ⑩의 경우에 명사1과 명사2는 제1형, 명사2와 명사3은 제2형, 명사

3과 명사4는 제1형이며 ⑪의 경우에 명사1과 명사2는 제1형, 명사2와 명사3은 제2형으로 되여있다.

4. 규 정 절

1) 규정절의 류형

규정절은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절을 말한다. 규정절은 술어로 된 단어가 규정형태를 취하여 이루어진다.

① 그가 읽은 소설은 시대의 명작이였다.

② 그가 세계적발명을 한 사실이 큰 화제거리로 되였다.

①의 《그가 읽은》이나 ②의 《그가 세계적발명을 한》이나 다 뒤에 오는 명사를 규정하고있는 점에서 다를바가 없다.

그런데 ①의 경우에 《그가 읽은》에는 《읽은》 대상 즉 객어가 규정절안에 없는 반면에 ②의 《그가 세계적발명을 한》에는 《한》의 대상인 객어 《세계적발명을》이 규정절안에 밝혀져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①의 피규정어인 《소설》은 《읽은》의 객어로서 규정절안에서 생략된 객어와 동일한데 그 반면에 ②의 경우에 피규정어인 《사실》은 그 규정절내부의 그 어떤 성분과도 같지 않다는 점에서 ①과 차이가 있다.

①의 《그가 읽은》처럼 피규정어인 《소설》이 규정절 《그가 (소설을) 읽은》의 생략된 성분과 동일하여 규정절안에 그것이 빠져있는 류형의 규정절을 관계규정절 또는 관계절이라고 한다.

②의 《그가 세계적발명을 한》처럼 피규정어가 규정절안의 그 어떤 성분과도 같지 않고 규정절이 밝힌것이 곧 피규정어의 내용으로 되여있는 류형의 규정절을 동격규정절 또는 동격절이라고 한다.

(1) 관계규정절(관계절)

관계절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류형으로서 어떤 체언앞에서나 다 쓰일수 있다.

③ 눈이 내리는 산야는 어느덧 은세계로 변하였다.

④ 쾌활하게 웃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흐뭇해하였다.

③의 경우에 《눈이 내리는》은 《주어+술어》의 통합구조로 되여있는데 ④의 《쾌활하게 웃는》은 《상황어+술어》의 통합구조로 되여있다.

《눈이 내리는》이 보어인 《산야에》가 생략되고있다면 《쾌활하게 웃는》은 주어인 《아들이》가 생략되고있다. 그런데 생략된 《산야》와 《아들》이 다 피규정어로 되여있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공통성으로 하여 이 두개의 통합구조는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은 류형의 관계절로 보게 되는것이다.

관계절은 문장의 어디에도 올수 있으며 어떤 명사든지 자유롭게 그 수식을 받을수 있다.

관계절의 일반적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첫째로, 모든 관계절은 서술문이며 거기에 담긴 내용은 모두 사실인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즉 관계절은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묻지 않고 오히려 관계절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것을 전제로 서술하고있기때문에 의문문이나 명령문으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관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상으로 웃단계문장과 아래단계문장에 각각 동일한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구조상으로는 아래단계문장에서 그것이 생략되여 나타나지 않는다. 생략된 명사는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피규정어인데 이렇게 관계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계화라고 한다.

* 국어의 관계절은 영어나 로어의 경우와 구별되는 구조적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는것이며 둘째로, 왼쪽가지전개방식만 가능한것이며 셋째로, 정동사가 쓰이지 않는것이다.

셋째로, 관계절을 가지는 문장은 관계절이 없다고 해서 비문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③' 산야는 어느덧 은세계로 변하였다.

④'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흐뭇해하였다.

(2) 동격규정절(동격절)

동격절은 관계절과 달리 규정절이 표현하고있는 사실이 피규정어의 내용으로 되여있으며 규정절내부에 그 어떤 생략도 없는 통합구조를 말한다.

⑤ 철수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다.

⑥ 나는 순희가 유능한 녀성일군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⑤의 《철수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그 어떤 문장성분의 생략도 없는 완전한 문장인데 이것이 규정토 《는》을 취해서 규정절로 되였으며 ⑥의 《순희가 유능한 녀성일군이다(라).》도 완전한 문장이 규정토 《는》을 취해서 규정절로 되였는데 이러한것들이 바로 동격절이다.

그런데 이 규정절이 없으면 ⑤, ⑥의 문장들은 비문이 된다.

⑤' × 소문이 있다.

⑥' × 나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하여 동격절은 필수적인 내포문이라고 하게 되며 이것을 명사구보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보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문화라고 한다.

* 동격절이 필수성분으로 되는데 반하여 관계절은 수의성분으로 된다는 점에서 관계절은 동격절과 구별된다.
○ 맑은 물이 샘솟는 룡악산의 샘물터는 예로부터 유명하였다.
○ 룡악산의 샘물터는 예로부터 유명하였다.

그런데 필수성분인 동격절에는 두가지 류형이 있다.

⑦ 철수가 묘향산에 간 사실이 있다.(제1형)

⑧ 철수가 묘향산에 갔다는 사실이 있다.(제2형)

⑦의 《철수가 묘향산에 간》은 절의 술어로 된 동사가 규정형태를 취하여 동격절이 된것으로서 짧은 동격절 즉 제1형이라고 하며 ⑧의 《철수가 묘향산에 갔다는》은 《철수가 묘향산에 갔다》는 종결된 문장에 규정토 《는》이 붙어서 된것으로서 긴 동격절 즉 제2형이라고 한다.

이 두개 류형은 교체가 가능할수도 있고 또 불가능할수도 있는데 그것은 피규정어인 명사의 선택제약과 관련되여있다.

⑨ ㄱ. 나는 그가 우승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ㄴ. 나는 그가 우승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⑩ ㄱ. 우리는 빨리 고지를 탈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ㄴ. × 우리는 빨리 고지를 탈취한 명령을 받았다.

⑨의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⑩과 같은 경우에 교체하게 되면 비문이 되고마는데 그것은 뒤에 오는 피규정어인 명사에 따르는 선택제약이라고 할수 있다.

제1형만을 받을수 있는 명사:

사건, 기억, 경험, 용기, 예정, 수, 줄 …

제2형만을 받을수 있는 명사:

소식, 소문, 질문, 련락, 보도, 정보, 독촉, 명령…

제1형과 제2형을 다 받을수 있는 명사:

사실, 결심, 목적, 욕심, 약점 …

국어의 통합구조에서는 반드시 동격절(보문)을 취해야만 하는 명사로서 《결정, 상상, 경향, 주장, 냄새, 까닭…》 등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명사와 결합하는 다음과 같은 동사도 정해져있다.

주장하다, 설득하다, 기대하다, 불평하다, 제안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설명하다, 결정하다, 예언하다, 약속하다, 일깨우다, 바라다, 놀라다 …

	관계절	동격절
필수성 여부	+	−
동일명사구 빠짐여부	+	−
내용의 사실성여부	+	+/−

5. 상황절

상황절은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절을 말한다. 상황절은 절의 술어로 되는 단어가 상황형태를 취하여 이루어진다.

① 건설공사는 날이 갈수록 급속히 진척되여갔다.

②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이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③ 순희는 얼굴이 곱게 생겼다.

일반적으로 상황절은 수의성분으로 되기때문에 ①, ②의 경우처럼 그것이 없이도 문장이 이루어지지만 ③의 경우처럼 상황절 《얼굴이 곱게》가 없으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①' 건설공사는 급속히 진척되여갔다.

②'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③' × 순희는 생겼다.

상황절과 상황구는 구별하여야 한다.

④ 제비야, 너는야 하늘높이 날아라.

⑤ 성숙이는 제 마음처럼 깨끗이 탁아소를 꾸려놓았다.

④의 《하늘높이》와 ⑤의 《제 마음처럼 깨끗이》는 절이 아니라 구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높이》와 《깨끗이》는 부사로서 서술적기능이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구조는 절로 될수 없는것이다.

6. 인용절

인용절은 문장에서 인용의 보어로 되는 절을 말한다. 이것은 [illegible]장에 접속토 《고, 라고》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① 영수는 아무리 어려운 기술도 마음만 먹으면 배울수 있다고 [illegible]에게 해설하였다.

② 사람들은 자기 고향마을을 아름답게 꾸리자고 다짐하면서 [illegible]쳐나섰다.

③ 극장문을 나서면서 손님들은 《이런 훌륭한 공연은 처음 보[illegible]고 감탄하였다.

인용절은 뒤에 오는 동사술어의 필수성분으로서 그것이 없을 [illegible] 떠나서는 리해가 안되는 비문으로 된다.

①' × 영수는 농장원들에게 해설하였다.

②' × 사람들은 다짐하면서 모두다 떨쳐나섰다.

③' × 극장문을 나서면서 손님들은 감탄하였다.

그리하여 인용절은 뒤에 오는 동사의 필수적인 보충어라는 의미[illegible] 사구보문(VP complement)이라고도 한다.

인용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을 들수 [illegible]

믿다, 느끼다, 여쭙다, 아뢰다, 이르다, 떠들다, 꾸짖다, 웨치[illegible]하다, 추측하다, 판단하다, 결심하다, 확신하다, 감탄하다, 해설하[illegible]하다, 보고하다, 신고하다, 증언하다

제 7 장. 전 달 법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는 자신이 이미 말하였던것을 다시 되살려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① 순희는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반장을 찾아서는 《반장아저씨, 오늘부터 제가 이 작업반에서 일하게 되였거든요.》하고 쾌활하게 말하였다.

이것은 순희가 한 말을 직접 그대로 옮겨놓은것인데 순희의 말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로 고쳐서 옮겨놓을수도 있다:

② 순희는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반장을 찾아서는 오늘부터 자기가 이 작업반에서 일하게 되였다고 쾌활하게 말하였다.

①과 ②는 이야기내용이 같지만 언어형식이 다르게 되여있다. 즉 ①의 경우에는 순희의 말이 그대로 옮겨져있어서 생동한 순희의 말을 통하여 순희와 반장과의 관계라든가 순희의 성격을 짐작할수 있게 하나 ②의 경우에는 단지 순희가 작업반에서 일하게 되였다는 내용만이 전달되여있어서 순희와 반장과의 관계라든가 순희의 성격을 짐작할수가 없다.

①의 경우에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인다. 즉 인용되여 전달되는 말인 《반장아저씨, 오늘부터 제가 이 작업반에서 일하게 되였거든요.》와 이것을 전달하여 말하는 사람의 설명부분인 《순희는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반장을 찾아가서는 ——— 하고 쾌활하게 말하였다.》의 두개 구성부분으로 되여있다.

인용되여 전달되는 말을 《옮겨지는 말》이라고 하며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전달되였는가를 밝히는, 말하는 사람의 설명부분을 《옮기는 말》이라고 한다.

옮겨지는 말을 말하는 사람이 옮길 때 그것은 진술자가 말한 언어형식 그대로 아무런 수정이 없이 전달한다고 하여도 《제가》가 《자기가》로 되였는데 간혹 그 진술내용만 그대로 보존하고 그 언어형식은 다시 일정한 변화를 거쳐 전달할수도 있다.

③ 순희는 작업배치를 받고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반장을 찾아가서는 오늘부터 자기가 여기서 일하게 되였다고 쾌활하게 말하였다.

③과 ②를 대비해볼 때 ②에서는 《이 작업반에서》라고 하던것을 ③에

서는 《여기서》로 바꾸었다.

이처럼 남이 진술한 말을 옮기는 경우에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길수도 있으며 자기 말로 고쳐서 옮길수도 있는데 그 전달방식에 서로 다른 방식이 있을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 남의 말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전달법이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되살려서 상대방에게 옮기는 방법을 말한다.

전달법에는 직접전달법과 간접전달법이 있다.

제 1 절. 직접전달법

1. 직접전달법의 구조

직접전달법은 옮기는 말과 옮겨지는 말로 이루어진다.

이때 옮겨지는 말은 그것을 진술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아무러한 가공도 없이 옮기는 말과 련결되면서 말하는 사람의 말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직접전달법에서는 옮겨지는 말을 진술자가 말한 그대로의 언어형식으로 보존하려고 하는것이기때문에 입말의 경우에는 그 음성적특징까지도 그대로 전달하려 하며 글말의 경우에는 그것을 인용표안에 넣고 해당한 문장부호를 친다.

○ 351고지의 용사들은 《이 고지를 기어이 사수하자!》하고 소리높이 웨쳤다.

○ 일요일아침 철이는 아버지에게 《오늘은 꼭 문수물놀이장으로 놀러가지요?》하고 몇번이고 되물었다.

직접전달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될수록 정확하게 옮기기 위하여 쓰이는것이므로 옮겨지는 말의 시칭과 겸양, 법, 식, 계칭 등이 그대로 옮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옮겨지는 말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두개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질수도 있다.

○ 《영희야, 이걸로 꽃다발을 만들려고 그러지?》하고 순정이가 되물었다.

○ 철수와 철혁이를 앉혀놓고 《너희들은 선군시대 청년들이 아니냐?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가는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떠나거라.》하고 전쟁로병인 할아버지는 깊은 감회에 잠기며 말씀하시였다.

옮겨지는 말의 문장은 자립적인 문장형식을 갖추고있기때문에 입말에서

는 어조상으로도 일정한 상대적자립성을 가지고있으며 보통문장과는 다른 독특한 어조를 가지고있다.

옮겨지는 말은 옮기는 말속에 인용되여 들어가면서 문장성분상으로는 인용의 보어로 되는 인용절이 된다.

○ 창수는 《우리가 난관앞에서 물러선적이 있었습니까?》 하고 힘차게 대답하였다.

○ 《우리 혁명가들에게는 모든것이 환히 알리는 법이다.》 라고 그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옮기는 말의 사명은 옮겨지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전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옮기는 말의 술어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묻다, 대답하다, 질문하다, 말이다》 등으로 나타날수 있다.

○ 《우리는 기어이 이 고지를 사수하겠습니다.》하고 전사들은 대답하였다.

○ 《그래두 오빠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가 봐야겠어요. 전에는 어머니걱정때문에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에두 열번 스무번 오빠 생각만 나서 못 견디겠어요.》 꽃분이의 말이였다.

때로는 옮기는 말의 술어에서 말하는 태도, 방식, 특징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중얼거리다, 다짐하다, 속삭이다, 웨치다, 부르짖다, 맞장구치다, 말참견하다》 등과 그밖의 단어들이 쓰일수 있다.

○ 《분이야, 우리 먼저 갈가?》 옥이는 분이에게 속삭인다.

○ 《작업반사업이 그렇게만 펴인다면 누가 마다하겠나!》하고 영호는 말참견하였다.

연극이나 영화의 대본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말이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칭호로 대치된다.

○ 명호: 우리도 이젠 유격대로 가자!
정철: 유격대로?
명호: 응, 우리 마을에 왔던 유격대를 함께 찾아가자구!
정철: 그래, 가자!

2. 옮기는 말과 옮겨지는 말의 련결방식

옮겨지는 말은 그자체로 보면 항상 독립된 하나의 자립적문장의 형식을 취하고있으나 전달법의 구조상으로 본다면 그 구성의 한 부분으로서 옮기는 말과 문법적으로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직접전달법에서 옮기는 말과 옮겨지는 말을 련결하는 수법으로는 다음

과 같은것이 있다.

① 옮겨지는 말뒤에 《라》, 《고》, 《라고》 등의 토를 붙이는 경우

○ 순희동무는 온몸에 파고드는 아픔을 참으면서 《우리 유격대는 어느 산, 어느 곳에나 다 있다.》라고 소리쳤다.

② 옮겨지는 말뒤에 《하고》, 《이렇게》 등을 붙이는 경우

○ 할아버지는 《이번 학기에도 최우등을 하였겠지?》 이렇게 물으셨다.

③ 옮겨지는 말앞에 《말하기를》, 《묻기를》, 《대답하기를》 등을 붙이는 경우

○ 아버지원쑤를 갚겠다는 원남이 말에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알겠다. 집걱정 말고 잘 싸우거라.》하였다.

④ 아무런 특별한 수단의 도움없이 문맥에 의하여 이어지는 경우

○ 《어머니, 오빠는 유격대에 들어갔으면 해요. 오빠를 유격대에 보내자요.》 갑순이의 말이였다.

직접전달법에서 옮기는 말과 옮겨지는 말이 련결될 때 그 위치는 다음과 같이 될수 있다.

① 옮기는 말이 옮겨지는 말의 앞에 오는 경우

○ 영수는 당기앞에서 이렇게 맹세하였다. 《당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당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② 옮기는 말이 옮겨지는 말의 뒤에 오는 경우

○ 《〈마식령속도〉로 이 공사를 기한전에 끝내자!》 전사들은 사기충천하여 이렇게 웨쳤다.

③ 옮겨지는말이 옮기는 말의 중간에 끼여있는 경우

○ 그는 동지들을 향하여 《우리에게는 죽음도 투쟁이다! 삶도 투쟁이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중세국문문헌에 의하면 당시 산문체에서 간접전달법보다도 직접전달법이 더 많이 쓰이고있었음을 알수 있다.

○ 目連이 淨飯王ᄭᅴ 도라가 이 辭緣을 ᄉᆞᆲᄫᆞᆫ대 大愛道ᄅᆞᆯ 블러 니ᄅᆞ샤ᄃᆡ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ᄅᆞᆯᄊᆡ 즐급드리워 ᄃᆞᆺ온 ᄠᅳ들 몯 ᄡᅳ러ᄇᆞ리ᄂᆞ니 그ᄃᆡ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석보상절》 6권 6장)

특히 이 시기 국문소설의 경우에는 옮기는 말과 옮겨지는 말이 《왈, 가로ᄃᆡ》 등으로 련결되면서 직접전달법으로 일관되여있다.

○ 일일은 랍ᄆᆡ 부인의 시비와 ᄒᆞᆫ가지로 노다가 교녀의게 고ᄒᆞ여 왈 앗가 추향의 말을 듯ᄌᆞ오니 부인ᄭᅴ셔 ᄐᆡ긔 계시다 ᄒᆞᄂᆞ이다 교씨 놀나 왈 십년만에 ᄐᆡ긔 이심이 희귀ᄒᆞᆫ지라 만일 ᄉᆡᆼ남ᄒᆞ면 나

의 무식이 막심ᄒᆞ리니 엇지면 됴흐리오 ᄒᆞ고 됴ᄒᆞᆫ 묘칙을 싱각지 못ᄒᆞ더니(《사씨남정기》)

제 2 절. 간접전달법

1. 간접전달법의 구조

간접전달법도 그 구성상으로 보아서는 옮기는 말과 옮겨지는 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두 구성성분의 내부조직과 그 련결방식이 직접전달법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직접전달법에서는 옮겨지는 말이 하나의 독립적인 자립적문장의 형식을 이루고있는데 반하여 간접전달법에서는 옮겨지는 말이 자기의 구조적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옮기는 말에 문법적으로 종속되면서 말하는 사람의 전반적인 진술속에 융합되여 들어가고있다. 다시말하여 직접전달법과는 달리 간접전달법에서 옮겨지는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립장에서 고쳐진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옮겨지는 말은 옮김표안에 넣지 않는다.

○ 창혁이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알곡을 내겠다고 많은 사람들앞에서 다짐하였다.

○ 형님은 오늘 저녁차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접전달법에서 옮겨지는 말은 언제나 옮기는 말과 함께 하나의 문장구조속에 들어가면서 문장성분상으로 인용의 보어로 된다.

간접전달법에서 옮겨지는 말은 문장구조와 어조에서 상대적인 자립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립적인 문장형식을 취하지 못한다.

○ 직일관은 《중대장동지! 근무중 이상 없습니다.》하고 기운차게 보고하였다.(직접전달법)

○ 직일관은 중대장에게 근무중 이상 없다고 기운차게 보고하였다.(간접전달법)

간접전달법은 다른 사람이 진술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전달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옮겨지는 말을 바꿀수 있다. 이 경우에 문법적요소를 바꿀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일부 어휘들도 바꿀수 있다.

○ 아버님은 어제 《래일 저녁에 내가 학부형회의에 꼭 가마.》라고 말씀하시였다. →

아버님은 오늘 저녁에 학부형회의에 자신께서 꼭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 그들은 《우리도 일당백의 전사입니다.》라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

그들은 자기들도 일당백의 전사라고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간접전달법도 남의 말을 옮기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만큼 그 내용은 물론이고 어휘, 문법 등에서 기본적으로 말한 사람의 말에 기초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다만 그 사상내용만 남기고 언어표현을 자기것으로 마음대로 바꾸어놓는다면 그것은 벌써 전달법의 범위를 벗어나는것으로 되고만다.

○ 그는 《우리 분조에서 3분조를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직접전달법) →

그는 자기네 분조가 3분조를 도와주었다고 말하였다.(간접전달법)

○ 그는 3분조를 도와준것은 자기네 분조라고 말하였다.(전달법의 범위를 벗어난것)

2. 직접전달법을 간접전달법으로 고치는 방법

직접전달법과 간접전달법은 각각 자기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담화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직접전달법으로 전달할수 있으며 또한 간접전달법으로 전달할수도 있다.

직접전달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것이므로 생동하고 정확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간접전달법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로 고쳐서 옮기게 되므로 간단해질수 있고 이야기흐름이 고르로와지며 진술전체의 전일성을 보장하는데서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다.

직접전달법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기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규칙이 따로 없다.

그러나 직접전달법을 간접전달법으로 고침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① 직접전달법에서의 인칭, 시간, 방향 등의 여러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립장에서 적합하게 다시 고쳐야 한다.

ㄱ. 인칭관계가 바뀌는 경우

○ 어머니는 갑순이에게 《네가 영실이에게 가보려무나.》라고 말하였다. →

어머니는 갑순이더러 영실이에게 가보라고 말하였다.

ㄴ. 시간과 방향이 바뀐 경우

○ 어제 아저씨더러 언제 고향으로 오겠느냐고 물었더니 《래일 가마.》라고 말하였다. →

어제 아저씨더러 언제 고향으로 오겠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오겠다고 말하였다.

② 직접전달법에서 쓰이고있는 여러가지 계칭관계를 간접전달법에서는 모두 하대계칭으로 바꾸어야 한다.

○ 작업반성원들에게 나는 《모두들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

작업반성원들에게 나는 모두들 수고한다고 인사를 하였다.

③ 직접전달법에 들어있는 호칭어, 감동어나 그밖의 일부 표현들은 간접전달법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 그는《순희동무! 고향에서 언제 돌아왔습니까?》하고 물었다. →

그는 순희에게 고향에서 언제 돌아왔는가고 물었다.

○ 묘향산 천선폭포앞에서 그들은 《아! 대자연이 얼마나 기묘합니까?》하고 감탄하였다. →

묘향산 천선폭포앞에서 그들은 대자연이 얼마나 기묘한가고 감탄하였다.

④ 직접전달법의 여러 문장을 간접전달법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수 있다.

○ 그는 전투원들에게 《변변치 못하지만 우리의 지성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

그는 전투원들에게 변변치 못한것이지만 우리의 지성이니 꼭 받아달라고 말하였다.

간접전달법은 옮겨지는 말과 옮기는 말을 하나의 문장구조로 련결시켜야 하기때문에 우에서 제시한 여러 규칙을 잘 지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직접전달법을 간접전달법으로 고치는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간접전달법

을 직접전달법으로 바꾸는 문제는 가능하지 않다.

○ 기호는 급히 달려오면서 유격대가 우리 마을에 왔으니 어서 마중나가자고 기찬이에게 재촉하였다.

이것은 간접전달법으로 된 문장이다. 여기에서 기호가 하는 말의 내용은 《유격대가 우리 마을에 왔으니 어서 마중나가자.》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써는 기호의 본래 말이 어떠한 어휘, 문법, 문체적특징을 띠고있는것인지 그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된것인지 또는 두개의 문장으로 된것인지 알수가 없다.

따라서 간접전달법에서 옮겨지는 말을 이야기한 사람의 본래의 말로 《복원》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직접전달법을 간접전달법으로 고칠수는 있으나 반대로 간접전달법을 직접전달법으로 고칠수는 없으며 따라서 전달법을 고치는 방법으로는 오직 직접전달법을 간접전달법으로 고치는 방법만이 있게 되는것이다.

현대국어문법론

집필 원사 교수 박사 김영황
심사 교수 박사 양하석
편집 박사 리정용 박광혁 장정 조근호 편성 민은주 교정 리혜영

낸 곳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주체104(2015)년 7월 5일 발행 주체104(2015)년 7월 15일

ㄱ-461305

우편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장경2동
전화번호 572-5107

ⓒ ISBN 978-9946-1-0217-7
DPR Korea